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발간사

문화예술은 과거에는 일부 계층의 사치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며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계층 간 분열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은 정서적 치유와 공감 기능을 통해 국민 화합과 행복의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 삶이 문화예술 영역과 직결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확장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문화예술 정책도 이러한 사회 변화와 국민 욕구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사업의 지속적 확대, 여가정책의 개발, 생활 속 예술의 확대, 소외된 지역의 문화 공간화,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정책을 매개로 문화예술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 나눔 확산 등을 통해 문화를 통한 행복 체험을 강조하고, 문화예술 종사자 처우 개선,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의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문화바우처, 문화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를 대폭 확대하였고, 국민의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세종 학당 확산, 한글박물관 등 한글 가치를 확산하고,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예술인복지법 제정 등을 통해 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고, 지역 생활공간을 문화예술공간화하는 등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고, 우리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를 선진화하였습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바탕이 자연스러운 무늬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여 시행한 문화예술 정책은 우리 삶의 바탕을 조화롭게 하면서 아름다운 무늬로 드러나 우리 사회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1 문화예술 정책 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기조 및 현황을 중심으로 2011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문화예술정책의 기록물입니다. 앞으로 본 자료가 문화예술인, 문화기관, 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부서 및 대학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문화예술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 학생,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성록’을 편찬하면서, 동 기록물이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를 원했다는 정조의 말씀대로, 이번 〈2011년 문화예술 백서〉가 한 해의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 문화예술정책 백서〉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광 석

목차

●● 제1장 | 2011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1

1. 국가기조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3
1) 국정기조와 문화예술 정책 방향	3
2) 4년간 문화예술정책 주요 성과	4
2. 2011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목표	5
1) 문화 격차 해소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5
2) 한글과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 및 자율적 지역문화 환경 조성	5
3)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6
4)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통한 다문화 사회 대응 역량 제고	6
5) 독서문화 활성화 및 박물관 인프라 확충	6
6) 문화예술의 나눔 및 공정한 향유 기회 확대	6
7)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7
8)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7
9) 삶과 함께하는 예술공간 창출	7
3. 2011 문화예술 동향과 향후 전망	8
1)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관심 증대	8
2)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 확대	8
3) 은퇴 후 인생 설계와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8
4)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9
5) 친환경 문화예술 경험 확대	9
6) 소셜미디어 발전과 문화예술	9

●● 제2장 | 문화정책 11

제1절 문화정책 개요	13
1. 2011년 문화정책 환경 변화	13
2. 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	14



3. 주요 정책과제와 성과	16
1)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 조성	16
2)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확충	17
3)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	20
4) 지역문화·전통문화의 재생과 창조	22
5) 미래세대 문화역량 강화	23
6) 한국문화 세계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	26
제2절 여가문화 활성화	29
1. 여가정책의 환경변화	29
2. 여가정책의 목표와 방향	30
3. 주요 추진성과	31
1) 수요자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 제공	31
2) 기부와 나눔을 통한 여가문화 가치 제고	34
4. 향후 전망 및 계획	35
1)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제고	35
2)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개발 지원	35
3) 지역 여가시설의 확충	36
4) 사회적 여가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36
제3절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37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7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8
1) 문화바우처 사업	39
2) 공연나눔	46
3) 문학나눔	53
4) 전시나눔	55
5) 창작나눔	56
3. 향후 전망 및 계획	58



목차

제4절 국어정책	59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59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61
1)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신설	61
2) 한글의 가치 확산	63
3)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68
4)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70
5)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72
3. 향후 전망 및 계획	75
제5절 지역민족문화정책	76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76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76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77
2)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98
3. 향후 전망 및 계획	109
1)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109
2) 우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109
3) 문전성시 성과 확산	110
4)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	110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111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111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14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14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18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124



4)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조성	128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38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2
4. 향후 전망 및 계획	146
제7절 국제문화정책	147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147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47
1) 해외 문화홍보 인프라 확대	147
2)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53
3)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 확대	160
3. 향후 전망 및 계획	165
제8절 도서관정책	166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166
2. 일반현황	169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 수	169
2) 전국 도서관 수	169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170
3. 정책현황 및 주요 성과	171
1) 도서관 및 독서관련 법제도 정비	171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76
3) 독서문화 진흥	181
4)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185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188



목차

4. 국립중앙도서관	194
1) 조직현황	194
2) 주요성과	194
5. 향후 전망 및 계획	209
제9절 박물관정책	211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11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12
1) 국립박물관 ·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213
2)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213
3)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214
3. 국립중앙박물관	215
1) 조직현황	215
2) 주요성과	217
4. 국립민속박물관	234
1) 조직현황	234
2) 주요성과	236
5. 향후 전망 및 계획	248
제10절 문화다양성정책	249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49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50
1)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250
2)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	255
3. 향후 전망 및 계획	261



제1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62

-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62
-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63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63
 -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266
 - 3) 문화적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270
 - 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273
- 3. 향후 전망 및 계획 274

제12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275

-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75
- 2. 건립사업 주요성과 276
 - 1) 건축설계 및 건립공사 276
 - 2) 전시설계 및 전시공사 277
 - 3) 전시콘텐츠 확보 278
 - 4) 건립사업 대국민 홍보 280
- 3. 향후 전망 및 계획 281

●● 제3장 | 예술정책 283

제1절 예술정책 일반 285

- 1. 예술정책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85
- 2. 주요 추진성과 287
 - 1) 사회적 약자의 향유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여건 개선 287
 - 2) 문화예술분야 법·인프라 강화로 예술역량 선진화 지원 295



목차

3. 한국예술종합학교	302
1) 설립목적 및 연혁	302
2) 조직 및 예산	303
3)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예술 인력의 양성	304
4) 전문예술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공간 조성	304
5)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 강화	305
6) 2011년도 주요성과	305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07
1) 설립목적 및 연혁	307
2) 조직 및 예산(변환 : 3본부 10부)	30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개 핵심사업	309
4)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 (ARKO Vision 2015) 수립	309
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312
6) 지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312
7) 선도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준수 및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313
제2절 문학정책	314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14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15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315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316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319
4) 문학관 건립 지원	320
5) 한국문학번역원	322
3. 향후 전망 및 계획	330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330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330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331
4) 문학관 건립 지원	331
5) 한국문학번역원	331



제3절 공연예술정책	332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32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32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332
2)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338
3. 공연예술 단체 및 기관	343
1) 국립극단	343
2) 국립발레단	345
3) 국립오페라단	347
4) 국립예술자료원	351
5) 국립중앙극장	355
6) 국립합창단	359
7) 국립현대무용단	361
8)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364
9) 서울예술단	368
10) 예술경영지원센터	370
11) 예술의전당	374
12)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378
13) 한국공연예술센터	381
4. 향후 전망 및 계획	383
제4절 시각예술정책	384
1. 기본 방향 및 추진 현황	384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86
1) 미술은행 제도 운영	386
2) 공공미술의 도입	389
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393
4)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400



목차

3. 국립현대미술관	403
1) 설립목적 및 연혁	403
2) 조직 및 인원	404
3) 예산	405
4) 추진성과	405
4. 향후 전망 및 계획	407
제5절 전통예술정책	408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408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408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408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412
3) 국악 향유 기반 확충	421
3. 전통예술 단체 및 기관	421
1) 국립국악원	421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425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430
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435
5) (재)국악방송	439
4. 향후 전망 및 계획	442
제6절 디자인공간문화정책	443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443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444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444
2)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산	448
3)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제고	456
4) 한국 공예의 대중화 · 세계화 · 산업화	460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62
1) 개관	462
2)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462
4. 향후 전망 및 계획	464

● ● 부록

465

1.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467
1) 연혁 및 역할	467
2) 조직 및 기능	470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484
1) 국립문화예술기관	484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487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488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문 법령	493
1) 문화예술진흥법	493
2) 국어기본법	494
3) 도서관법	494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95
5) 공연법	496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497
7) 지방문화원진흥법	497
8) 대한민국예술원법	498
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8
10) 향교재산법	499
1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99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500
13) 예술인 복지법	500



목차

4.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501
1) 중앙정부 문화재정	501
2)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502
3) 문화예술 관련 기금 현황	503
4) 문화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방향 (2011 ~ 2015)	508
5. 문화예술통계현황 목록	513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 (2011)	514
1) 2011년 기본과제	514
2) 2011년 특별과제	515
3) 2011년 수탁과제	515
7. 문화예술관련 학회 목록 (2011)	516



● 표 차례

< 표 2-1-1 >	문화정책 5대 중점과제 및 14대 이행과제	15
< 표 2-2-1 >	여가활동 시간 및 비용	29
< 표 2-2-2 >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32
< 표 2-2-3 >	문화 분야 바우처 지원내역	32
< 표 2-2-4 >	소외계층 응구지원 추진 실적	33
< 표 2-3-1 >	문화나눔사업	38
< 표 2-3-2 >	문화바우처: 2011년 주요 개선 내용	40
< 표 2-3-3 >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연령별 발급 현황 (2011)	40
< 표 2-3-4 >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대상별 발급 현황 (2011)	40
< 표 2-3-5 >	문화바우처: 시도별 문화바우처 예산 집행 및 카드실적 현황 (2011)	41
< 표 2-3-6 >	문화바우처: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현황 (2011)	41
< 표 2-3-7 >	문화바우처: 지역별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현황 (2011)	42
< 표 2-3-8 >	문화바우처: 기획바우처 관람 현황 (2011)	43
< 표 2-3-9 >	문화바우처: 홍보실적 (2011)	44
< 표 2-3-10 >	문화바우처: 나눔티켓 지원 현황 (2011)	45
< 표 2-3-11 >	문화바우처: 나눔티켓 세부 지원 현황 (2011)	45
< 표 2-3-12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 (2011)	46
< 표 2-3-13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수혜자 수 (2011)	47
< 표 2-3-14 >	사랑티켓: 지역별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 (2011)	49
< 표 2-3-15 >	장르별 사랑티켓 참가작품 수 (2011)	50
< 표 2-3-16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2011)	51
< 표 2-3-17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성과목표 달성률 (2011)	52
< 표 2-3-18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예산대비 성과	52
< 표 2-3-19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종합평가	53
< 표 2-3-20 >	우수문학 도서보급 실적 (2011)	53
< 표 2-3-21 >	전시나눔: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55
< 표 2-3-22 >	전시나눔: 참여기관 수 및 프로그램 건수 (2011)	55
< 표 2-3-23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 선정단체 수	57



목차

〈 표 2-3-24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성과 (2011)	57
〈 표 2-4-1 〉	국어정책의 기본방향	60
〈 표 2-4-2 〉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1.12월 기준)	62
〈 표 2-4-3 〉	한국어 국외 보급	63
〈 표 2-4-4 〉	부처 간 협의 경과	64
〈 표 2-4-5 〉	건축 계획	66
〈 표 2-4-6 〉	전시공간구성 계획	66
〈 표 2-4-7 〉	역대 한글 주간 개요	67
〈 표 2-4-8 〉	시청각장애인용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 (2008-2011)	69
〈 표 2-4-9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현황 및 추진계획 (2011)	70
〈 표 2-4-10 〉	2010년-2011년 추진실적	71
〈 표 2-5-1 〉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개소)	78
〈 표 2-5-2 〉	지역문화 아카데미 추진실적 (2011)	79
〈 표 2-5-3 〉	문화이모작 운영실적 (2011)	80
〈 표 2-5-4 〉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1)	81
〈 표 2-5-5 〉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82
〈 표 2-5-6 〉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4-2010)	83
〈 표 2-5-7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운영실적 (2005-2011)	84
〈 표 2-5-8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 (2009-2011)	84
〈 표 2-5-9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85
〈 표 2-5-10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만인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85
〈 표 2-5-11 〉	인구 규모별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 (시군구)	86
〈 표 2-5-12 〉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 (2005-2011)	87
〈 표 2-5-13 〉	수원 못골시장 · 강릉 주문진 시장 문화 프로그램	90
〈 표 2-5-14 〉	연도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90
〈 표 2-5-15 〉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92
〈 표 2-5-16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95
〈 표 2-5-17 〉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현황	97
〈 표 2-5-18 〉	한스타일 국외 홍보 현황 (2009)	99
〈 표 2-5-19 〉	한스타일 사업 중 국가별 20대 한식 메뉴개발 최종 선정메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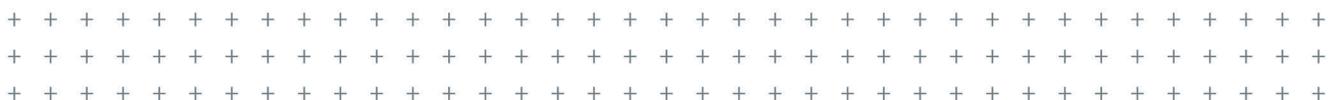


〈 표 2-5-20 〉	한스타일 사업 추진경과 (2005~2010)	102
〈 표 2-5-21 〉	이야기할머니 파견 및 현장 활동	108
〈 표 2-6-1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112
〈 표 2-6-2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2003-2011)	114
〈 표 2-6-3 〉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115
〈 표 2-6-4 〉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11)	118
〈 표 2-6-5 〉	사회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2004-2011)	119
〈 표 2-6-6 〉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2011)	119
〈 표 2-6-7 〉	군 ·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1)	120
〈 표 2-6-8 〉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2006-2011)	121
〈 표 2-6-9 〉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상상학교	122
〈 표 2-6-10 〉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현황 (2011)	123
〈 표 2-6-11 〉	'창의예술캠프' 운영현황 (2011)	124
〈 표 2-6-12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요	125
〈 표 2-6-13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목표 (서울 어젠다 발췌)	125
〈 표 2-6-14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성과표 (2011)	128
〈 표 2-6-15 〉	교원전문성강화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성과표 (2011)	129
〈 표 2-6-16 〉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운영 현황	130
〈 표 2-6-17 〉	명예교사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	130
〈 표 2-6-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관계자 내방 현황 (2011)	133
〈 표 2-6-1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외동포 한국문화교육 추진현황 (2011)	134
〈 표 2-6-20 〉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기관 (2011)	135
〈 표 2-6-21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 지표	137
〈 표 2-6-22 〉	콘텐츠 개발 연구 성과	138
〈 표 2-6-23 〉	기초 및 정책 연구 성과	139
〈 표 2-6-24 〉	평가 · 통계 연구 성과	140
〈 표 2-6-25 〉	2011년 콜로кви엄 추진 현황	141
〈 표 2-6-26 〉	2011년 교사 자율연구모임 추진 현황	142
〈 표 2-6-2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142
〈 표 2-6-2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 (2011)	143



목차

〈 표 2-7-1 〉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2011)	148
〈 표 2-7-2 〉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2011)	151
〈 표 2-7-3 〉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 (2011)	155
〈 표 2-7-4 〉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 (2011)	156
〈 표 2-7-5 〉	한국알림이 사업 실적 (2006-2011)	157
〈 표 2-7-6 〉	문화예술봉사단 사업 실적 (2005-2011)	159
〈 표 2-7-7 〉	2011 주요 추진 실적 총괄표	160
〈 표 2-7-8 〉	각 공연 관람객 수	162
〈 표 2-7-9 〉	2011 해외 주요인사 초청 실적	164
〈 표 2-8-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168
〈 표 2-8-2 〉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 1관당 인구 수	169
〈 표 2-8-3 〉	전국 도서관 수	169
〈 표 2-8-4 〉	공공도서관 현황	170
〈 표 2-8-5 〉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171
〈 표 2-8-6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173
〈 표 2-8-7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175
〈 표 2-8-8 〉	작은도서관 조성실적 및 예산액	177
〈 표 2-8-9 〉	민간기업 후원 현황	178
〈 표 2-8-10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178
〈 표 2-8-11 〉	시 · 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 지정 현황 (도서관진흥팀, 2011.12.31)	180
〈 표 2-8-12 〉	2011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현황	181
〈 표 2-8-13 〉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아 수 현황	182
〈 표 2-8-14 〉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	182
〈 표 2-8-15 〉	문화교육활동 지역별 현황	183
〈 표 2-8-16 〉	문화나눔활동 지역별 현황	183
〈 표 2-8-17 〉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연도별 추진실적	183
〈 표 2-8-18 〉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186
〈 표 2-8-19 〉	취약지역 도서 보급처 현황 (2011)	187
〈 표 2-8-20 〉	취약지역 보급 도서 선정종 수 (2011)	187
〈 표 2-8-21 〉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188



〈 표 2-8-22 〉	관중별 평가참여율 및 평가기관 수 (2011)	191
〈 표 2-8-23 〉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 (2011)	192
〈 표 2-8-24 〉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 (2011)	193
〈 표 2-8-25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195
〈 표 2-8-26 〉	2011년 ‘길 위의 인문학’ 현장 탐방 일정표	201
〈 표 2-8-27 〉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 (2011)	202
〈 표 2-8-28 〉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추진실적	206
〈 표 2-9-1 〉	연도별 박물관 현황 (1999~2011)	211
〈 표 2-9-2 〉	지역별 박물관현황 (2011)	211
〈 표 2-9-3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213
〈 표 2-9-4 〉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추진 실적 (2011)	214
〈 표 2-9-5 〉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운영 활성화	215
〈 표 2-9-6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217
〈 표 2-9-7 〉	보존처리 현황 (2011)	221
〈 표 2-9-8 〉	분석조사연구 현황 (2011)	222
〈 표 2-9-9 〉	환경조사 현황 (2011)	222
〈 표 2-9-10 〉	유적발굴·학술조사 현황 (2011)	223
〈 표 2-9-11 〉	학술심포지엄 개최 현황 (2011)	224
〈 표 2-9-12 〉	2011년 기획특별전 개최현황	225
〈 표 2-9-13 〉	2011년 특별전·테마전 개최현황	226
〈 표 2-9-14 〉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2011)	228
〈 표 2-9-15 〉	문화행사 현황 (2011)	229
〈 표 2-9-16 〉	도서발간 현황 (2011)	230
〈 표 2-9-17 〉	2011년 국외전시 현황	232
〈 표 2-9-18 〉	2011년 지방박물관 특성화 사업	233
〈 표 2-9-19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235
〈 표 2-9-20 〉	2011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236
〈 표 2-9-21 〉	2011년도 등록문화재 소장 현황	236
〈 표 2-9-22 〉	2011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238
〈 표 2-9-23 〉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1)	240



목차

〈 표 2-9-24 〉	2011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243
〈 표 2-9-25 〉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 (2011)	245
〈 표 2-9-26 〉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247
〈 표 2-9-27 〉	2011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248
〈 표 2-10-1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2009-2011)	253
〈 표 2-10-2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공연단체별 총 관람객 (2011)	253
〈 표 2-10-3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주체별 만족도 (2011)	254
〈 표 2-10-4 〉	2011년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선정 사업 현황	256
〈 표 2-10-5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연령별 현황 (2011)	258
〈 표 2-10-6 〉	2011년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사업 프로젝트	259
〈 표 2-12-1 〉	2011년 자료수집현황	279
〈 표 3-1-1 〉	예술정책의 4대 중점과제 및 12대 이행과제	287
〈 표 3-1-2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302
〈 표 3-1-3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1.12.31.기준)	303
〈 표 3-1-4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1.12.31.기준)	304
〈 표 3-1-5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년도 세부 추진성과	306
〈 표 3-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8-2011)	309
〈 표 3-1-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개 핵심사업 추진현황(2010)	309
〈 표 3-2-1 〉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실적 (2009-2011)	317
〈 표 3-2-2 〉	2011년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참여 도서관 (70개관)	317
〈 표 3-2-3 〉	2011년 시낭송음악회 참여 도서관 (16개관)	319
〈 표 3-2-4 〉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320
〈 표 3-2-5 〉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321
〈 표 3-2-6 〉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 (2011)	323
〈 표 3-2-7 〉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번역지원 현황 (2011)	324
〈 표 3-2-8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출간지원 현황 (2011)	324
〈 표 3-2-9 〉	한국문학번역원: 영상·공연 자막번역지원 현황 (2011)	325
〈 표 3-2-10 〉	한국문학번역원: 교류사업통계	325
〈 표 3-2-11 〉	한국문학번역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계	326
〈 표 3-2-12 〉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328



〈 표 3-2-13 〉	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329
〈 표 3-3-1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333
〈 표 3-3-2 〉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관광기금)	334
〈 표 3-3-3 〉	공연예술행사지원 (문예기금)	334
〈 표 3-3-4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문예기금)	336
〈 표 3-3-5 〉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	337
〈 표 3-3-6 〉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현황 (2004-2011)	337
〈 표 3-3-7 〉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338
〈 표 3-3-8 〉	월별 수혜인원	340
〈 표 3-3-9 〉	월별 참가작품	340
〈 표 3-3-10 〉	연령별 수혜자 현황	340
〈 표 3-3-11 〉	국립오페라단 주요 추진성과	348
〈 표 3-3-12 〉	2011년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 오디션 성과	363
〈 표 3-3-13 〉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365
〈 표 3-3-14 〉	명동예술극장 관객 현황	366
〈 표 3-3-15 〉	정동극장 관객 현황	367
〈 표 3-3-16 〉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368
〈 표 3-3-17 〉	서울아트마켓(PAMS)	372
〈 표 3-3-18 〉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사업	373
〈 표 3-3-19 〉	예술기관(단체)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373
〈 표 3-3-20 〉	예술의전당 예산	375
〈 표 3-3-21 〉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376
〈 표 3-3-22 〉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07-2011)	378
〈 표 3-3-23 〉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실적	382
〈 표 3-3-24 〉	한국공연예술센터 관객 현황	383
〈 표 3-4-1 〉	국내미술 전시 횟수 (2005-2010)	384
〈 표 3-4-2 〉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 (2005-2010)	384
〈 표 3-4-3 〉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	387
〈 표 3-4-4 〉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 액 내역	388
〈 표 3-4-5 〉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율	388



목차

〈 표 3-4-6 〉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	389
〈 표 3-4-7 〉	건축물 미술장식 DB 구축 현황	390
〈 표 3-4-8 〉	2011년 공공미술사업 실적	393
〈 표 3-4-9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2002-2011)	394
〈 표 3-4-10 〉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11)	396
〈 표 3-4-11 〉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398
〈 표 3-4-12 〉	2011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 대상관 명단	403
〈 표 3-5-1 〉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409
〈 표 3-5-2 〉	연도별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실적	410
〈 표 3-5-3 〉	연도별 국악창작고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 결과	410
〈 표 3-5-4 〉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411
〈 표 3-5-5 〉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412
〈 표 3-5-6 〉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414
〈 표 3-5-7 〉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414
〈 표 3-5-8 〉	연도별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사업 실적	417
〈 표 3-5-9 〉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418
〈 표 3-5-10 〉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419
〈 표 3-5-11 〉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420
〈 표 3-5-12 〉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428
〈 표 3-5-13 〉	2011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433
〈 표 3-5-14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성과	437
〈 표 3-5-15 〉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439
〈 표 3-5-16 〉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1년 4월 현재)	441
〈 표 3-5-17 〉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442
〈 표 3-6-1 〉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445
〈 표 3-6-2 〉	문화역 서울 284 관람객 집계 (2012년 2월 11일 기준)	446
〈 표 3-6-3 〉	2011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449
〈 표 3-6-4 〉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현황	451
〈 표 3-6-5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요내용 (2011)	452



● ● 그림 차례

[그림 2-2-1]	여가정책의 목표와 방향	30
[그림 2-3-1]	2010년 소득별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37
[그림 2-3-2]	문화바우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여부	44
[그림 2-3-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48
[그림 2-3-4]	공연나눔: 지방문화재단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개념	51
[그림 2-3-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 (2011)	56
[그림 2-5-1]	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방향	89
[그림 2-6-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111
[그림 2-6-2]	언론보도 실적 (2008-2011)	132
[그림 2-6-3]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채널 (아르떼진 www.artezine.kr)	132
[그림 2-6-4]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사이트 관계도	136
[그림 2-6-5]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내용	137
[그림 2-6-6]	관련 언론보도 (신동아, 2012년 1월호, 기획기사)	140
[그림 2-8-1]	오픈엑세스 지식정보의 유통 흐름	189
[그림 2-8-2]	u-도서관 서비스 지원 환경 구성도	190
[그림 2-9-1]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235
[그림 2-1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64
[그림 2-1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265
[그림 2-11-3]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	268
[그림 2-11-4]	문화도시 환경조성 · 문화산업육성 사업 기본방향 및 내용	270
[그림 2-11-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본 방향	271
[그림 2-12-1]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와 세계를 여는 박물관	275
[그림 2-12-2]	구(舊)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자리에 들어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77
[그림 3-1-1]	문화역서울 284	300
[그림 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감도	301
[그림 3-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303
[그림 3-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308



목차

[그림 3-1-5]	〈ARKO · Vision · 2015〉 비전체계	311
[그림 3-1-6]	2010년도 기부 건수 및 월별 모금 현황	312
[그림 3-2-1]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323
[그림 3-3-1]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333
[그림 3-3-2]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제공 서비스	341
[그림 3-3-3]	국립극단 조직도	343
[그림 3-3-4]	국립발레단 조직도	345
[그림 3-3-5]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347
[그림 3-3-6]	국립예술자료원 조직도	352
[그림 3-3-7]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356
[그림 3-3-8]	국립합창단 조직도	359
[그림 3-3-9]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362
[그림 3-3-10]	명동 · 정동극장 조직도	364
[그림 3-3-11]	서울예술단 조직도	369
[그림 3-3-12]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370
[그림 3-3-13]	예술의전당 조직도	375
[그림 3-3-14]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379
[그림 3-3-15]	한국공연예술센터 조직도	381
[그림 3-3-16]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비율(건수기준)	383
[그림 3-4-1]	온라인 가상미술관 웹사이트	399
[그림 3-4-2]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405
[그림 3-5-1]	국립국악원 조직도	422
[그림 3-5-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조직도	426
[그림 3-5-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431
[그림 3-5-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436
[그림 3-5-5]	(재)국악방송 조직도	439
[그림 3-6-1]	문화디자인프로젝트-간이역 사업 기대효과	451
[그림 3-6-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463
[그림 3-6-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463



● ● 사진 차례

[사진 2-3-1]	문화바우처: 지역별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사진 (2011)	42
[사진 2-6-1]	유네스코 제36차 총회 사진	126
[사진 2-6-2]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127
[사진 2-6-3]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과정 (2011)	129
[사진 2-6-4]	해외 전문가 초청워크숍	134
[사진 2-6-5]	재외동포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35
[사진 2-6-6]	심포지엄 행사 사진	141
[사진 2-9-1]	외규장각 의궤	218
[사진 2-9-2]	2011년 신규 구입유물	220
[사진 2-9-3]	김은사지 동삼총석탑 사리장엄구	221
[사진 2-9-4]	유적발굴	223
[사진 2-9-5]	상설전시실	224
[사진 2-9-6]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27
[사진 2-9-7]	2011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228
[사진 2-9-8]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239
[사진 2-9-9]	어린이박물관	240
[사진 2-9-10]	공연 및 민속행사	243
[사진 2-10-1]	다문화 교육 교구 사진 자료	251
[사진 2-10-2]	다문화지역순회공연: 공연현장 (2011)	254
[사진 2-10-3]	3. 24.(토) 대학로 엘림홀 ‘꿈-아트 페스티벌’ 현장	260
[사진 3-1-1]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298
[사진 3-1-2]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	299
[사진 3-3-1]	국립극단	345
[사진 3-3-2]	구술채록 자료집 및 총서	353
[사진 3-3-3]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354
[사진 3-3-4]	국립예술자료원	355
[사진 3-3-5]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368
[사진 3-4-1]	Korean Art show 2011 행사	397



목차

[사진 3-5-1]	국립국악원	425
[사진 3-5-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430
[사진 3-5-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435
[사진 3-6-1]	포천 아트밸리 운영 사진	445
[사진 3-6-2]	문화역 서울 284 개관식	447
[사진 3-6-3]	문화역 서울 284 개관전 진행사진	447
[사진 3-6-4]	2011년도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전후	449
[사진 3-6-5]	2011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454
[사진 3-6-6]	2011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455
[사진 3-6-7]	2011년 타이포잔치 전시장 사진	455
[사진 3-6-8]	201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456
[사진 3-6-9]	2011 젊은건축가상 수상작	457
[사진 3-6-10]	2011 공간문화대상	459
[사진 3-6-11]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 · 산업화 · 세계화	461



제1장 2011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제1장



2011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1. 국가기조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1) 국정기조와 문화예술 정책 방향

현 정부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를 지향하면서, 경제적 여유와 건강과 더불어 국민이 다함께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경제의 양적 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문화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멋있는 한국인(창조적 문화예술의 나라), 잘사는 한국인(콘텐츠 산업으로 부유한 나라), 정겨운 한국인(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의 나라), 신나는 한국인(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별 세부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중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의 가치 및 완성도 제고, 전통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변용 및 창조적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100세 시대의 도래 등 환경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과 여가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여가 경력 개발, 문화예술 시설 확충 등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또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격차가 상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 계층 및 서민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국민 경제 불균형 초래 등 부정적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식기반 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문화예술이 지식기반 사회의 신성장 동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문화예술 교육,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생활 속 예술공간 창출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2) 4년간 문화예술정책 주요 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를 통한 행복 체험 확대를 목표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자율과 창의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첫째,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문화바우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사랑티켓 등이 소외계층·지역 대상의 대표적 사업으로 298만 명에게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무료관람 시행으로 일반국민들의 문화 접근권도 강화하였다. 특히, 문화바우처를 통해 4년간 소외계층 219만여 명에게 문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응하고자 초·중·고교와 사회복지시설에 예술강사 지원 및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창의력이 발현되는 문화공간을 확대 하였다. 명동극장 재개관(2009.6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 개관(2010.6월), 서계동 기무사터 열린문화공간 조성(2010.12월),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2011.3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착공(2011.12월) 등 문화예술기관 재배치·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 속 작은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인 구 서울역사를 ‘문화역서울 284’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예술지원정책 개선 등 창작여건을 개선하였다.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 예술’의 예술지원 4대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폭 지역이관을 통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진하였고,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2010년, 24.5%) 제도화로 부족한 예술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하였다.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품을 집중 육성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능나눔, 기업-예술단체 결연,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문화일자리 제공 및 문화예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였다. 문화 분야 재정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인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제정(2011.11.17)으로, 향후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 밖에, 유네스코 유산 등재, G20 계기 홍보 등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2. 2011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목표

2011년은 경제 불안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이 위축되고, 세대·지역·계층 간 문화갈등 요소도 여전히 상존하였고, 해외이주, 국제결혼 등 외국인 비율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문화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일과 여가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문화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한류기반으로서 예술창작활동 중요성 강화, G20 이후의 국가브랜드 제고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다.

1) 문화 격차 해소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국민이 고르게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였고, ‘문예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여 문화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바우처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포인트 방식에서 카드 발급방식으로 개편하여 문화카드의 이용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활성화’라는 목표로 ‘100세 시대’ 대비 생애 주기적 접근, 지역기반의 여가 문화 활성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여가 생활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2) 한글과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 및 자율적 지역문화 환경 조성

한글의 가치 제고와 확산을 위해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학당’을 확산하고,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한글 박물관 착공, 한글 주간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 공공언어 개선 지원, 국어 및 한글 문화유산의 집대성·정보화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지역 민족문화 정책은 지역문화 자원을 특성화·차별화하고, 지역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국학자료 수집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문화자원

발굴과 활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농촌마을 문화 가꾸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확산하였다.

3)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교육 대상에 맞춰 수요자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권리를 신장하였다. 정책 전달체계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학교-지역, 공공-민간 등 다각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4)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통한 다문화 사회 대응 역량 제고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집단 별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였고, 다문화지역 순회공연, 이주청소년 문화감성증진 사업 등 문화교육 중심의 다문화 사업을 보급하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력을 강화하였다.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문화를 매개로 한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5) 독서문화 활성화 및 박물관 인프라 확충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운영,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을 통해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외규장각 의궤 환수 기념행사 등 중요계기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와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와 전시콘텐츠 확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6) 문화예술의 나눔 및 공정한 향유 기회 확대

개인의 기부접근성 편의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기업과 예술단체의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결연 확대, 취약계층 예술영재 발굴·아트캠프 개최, 문화취약지역 '찾아가는 문화순회' 및 '사랑티켓'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나눔 활성화와

모두가 누리는 예술로서 공정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연장(2014년까지)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다.

7)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공연장과 예술단체 매칭을 통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연중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국 문예회관 시행 우수공연 경비를 지원하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추진도 지역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문예회관에 무대기술·공연기획·홍보마케팅 분야 연수단원 배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현장 예술인들의 정보 유통공간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운영 등 지속적인 예술창작 지원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에 통한 창작활동 증진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우리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대상을 거점 축제 및 극장 등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미술의 상시적 홍보를 위해 온라인 가상미술관 시스템(www.koreanartistproject.com)을 구축하며, 공연 마케팅을 통한 공연관광 상품 다양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 및 유통환경 개선을 강화하였다. 예술 인프라 확충으로서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마련, 문화역서울 28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등이 추진되어 국민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였다.

9) 삶과 함께하는 예술공간 창출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로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디자인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가 즐거운 공간으로서 변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산업 유희시설의 문화공간 활용 사업도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 사업이 완료되어 누적 방문객이 32만 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예분야에서도 산학연계, 해외교류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3. 2011 문화예술 동향과 향후 전망

2011년 국내의 동향은 미국발 경제위기와 확산으로 인한 국내경제 성장 둔화 전망, 복지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은퇴 후 인생설계에 대한 관심,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 시대, 친환경적 삶에 대한 관심, 스마트 기술의 발달과 SNS의 일상화 등이 있다.

1)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관심 증대

국내경제의 저성장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을 심화시켰으며, ‘예술인복지법’ 등 복지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술인 지원 등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접근에 이견이 있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 확대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공공 영역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관련 기관별 노력을 지속하였다.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관련 전공자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였다. 향후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로와 공감 위주의 정책 추진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슈 해결을 위한 담론의 장을 넓혀가야 하겠다.

3) 은퇴 후 인생 설계와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은퇴 후 인생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문화테라피 산업이 부상하였으며, 음악치료의 인기가 높아졌다. 그리고 교육과 접목된 예술치료가 인기를 끄는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였다. 향후에 예술은 치유의 예술로서 변화하여, 기존의 예술치료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4)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적인 이주가 증가하고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 시대에 진입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침체, 외국인범죄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반다문화 정서가 심화되었다. 향후에는 다문화 가정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이주자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5) 친환경 문화예술 경험 확대

기후변화, 식량 및 자원부족 등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회귀 및 친환경 삶을 지향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귀촌·귀농 현상이 늘어나고, 친환경 융복합예술을 위한 창작공간이 건립되었으며, 환경문제를 다루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늘어났다. 그 밖에 농촌 및 농사의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발견하여 친환경적 가치에 주목한 여러 사회적 집단들의 예술 활동이 늘어났다. 향후 환경 친화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기존 예술형태에 대한 반성과 사회와의 소통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6) 소셜미디어 발전과 문화예술

소셜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공유·확산하는 주체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소유적 소비를 넘어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셜 미디어 아트'라는 신흥 장르가 부상하였으며, 소셜 플랫폼을 사용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예술가들은 모바일·소셜 미디어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SNS 특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SNS를 통한 관객과의 문화예술 소통이 더욱 활발해 지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제2장 문화정책

-
- 제1절 문화정책 개요
 - 제2절 여가문화 활성화
 - 제3절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제4절 국어정책
 - 제5절 지역민족문화정책
 -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 제7절 국제문화정책
 - 제8절 도서관정책
 - 제9절 박물관정책
 - 제10절 문화다양성정책
 - 제1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 제12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제2장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 개요

1. 2011년 문화정책 환경 변화

문화정책 환경 변화는 크게 문화를 포함한 거시적 환경 변화와 문화 자체의 환경 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 환경 변화는 국가 전체의 범정부적인 대응을 요하는 것으로 문화정책도 문화가 가진 그 자체의 문제 해결능력으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 변화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가속화, 도시와 지역 간 문화 격차의 심화, 세계화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혼란, 남북한 문화적 이질감의 심화, 인류의 전세계적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국제결혼, 해외 유학생의 증가 및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 외국인의 비율 증가로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등록 외국인도 110만 명을 넘어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1.3%에 달하고 2018년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일자리 및 문화·여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셋째,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문화기반 시설,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향유 비용 등의 격차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다른 문화와의 접촉 증대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에 따른 문화교류와 협력의

단절은 남북한 문화접촉을 제한,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독창성과 전통을 널리 인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거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한편, 문화예술 자체의 새로운 변화로 인한 영향 또한 받고 있다. 2011년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추세는 K-pop으로 촉발된 신 한류의 접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과 소통 방식의 대두, 경제 위기속에서 예술인의 열악한 생존 환경, 문화예술과 타 장르와의 융·복합 현상의 만연, 청년, 장애인 및 성적 소수자 등 마이너리티의 문화예술 진출, 예술의 사회적 영역 확산, 문화예술 등에 대한 다양한 여가수요의 증대,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 지역의 재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자체의 환경 변화는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및 향유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대응수단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2. 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

문화정책의 환경 변화는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문화정책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화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는 달리 그 자체의 창의성, 유연성 및 통합성 등의 성격으로 인해 즉각적 문제 해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환경 변화 중에서도 2011년 문화정책의 주요 현안들은 문화향유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한국문화의 확산, 특히 한국어에 대한 수요의 증족,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화의 재생과 역량 강화, 융·복합, 디지털 기술 및 다문화사회 등의 진전에 따른 미래 대응능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의 문화정책 목표는 ‘더 큰 문화국가, 함께하는 문화정책’이며, 이에 따른 5대 중점과제와 14대 이행과제를 실행하였다. 첫째, 문화향유의 공정성 제고와 문화 나눔의 활성화이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문화나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하였다. 둘째, 한글과 전통문화의 가치 발굴 및 확산이다.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였으며, 원활한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고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였다. 셋째, 자율과 창의의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였으

며, 창의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 넷째, 미래지향적 문화역량을 강화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고 문화분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재외문화원 기능 확충 및 문화교류 확대이다. 주요과제로 해외문화원 확충을 하였으며, 핵심지역 코리아센터 전환 및 신설 확대를 하였다. 그리고 수교 및 주요 문화 교류 계기 행사를 하였다.

문화 정책목표와 주요과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고른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른 문화향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둘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도·관계 인식 개선 등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교육과 연구 기능 강화로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제고하였다. 셋째, 문화를 통한 사회전반의 창의성 및 감수성을 제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시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문화감수성을 향상 하였다.

● 표 2-1-1 ● 문화정책 5대 중점과제 및 14대 이행과제

5대 중점과제	14대 이행과제
1. 문화향유의 공정성 제고와 문화나눔 활성화	①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② 생활문화 활성화 ③ 문화나눔의 사회적 확산
2. 한글과 전통문화의 가치 발굴 및 확산	④ 한글의 가치 확산 ⑤ 원활한 국어사용 환경 조성 ⑥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3. 자율과 창의의 지역문화 환경조성	⑦ 지역문화 활성화 ⑧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4. 미래지향적 문화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확대 ⑩ 다문화사회 대응역량 제고 ⑪ 문화 분야 정책 연구 기능 강화W
5. 재외문화원 기능 확충 및 문화교류 확대	⑫ 해외문화원 확충 ⑬ 핵심지역 코리아센터 전환 및 시설 확대 ⑭ 수교 및 주요 문화교류 계기 행사

3. 주요 정책과제와 성과

1)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 조성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인해 노후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자녀출가로 인한 고독감, 사회적 존재감 상실, 경제적 빈곤 및 질병 등 노년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고 생산적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생애주기 여가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 증가, 주 5일제 수업, 주 40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적 여가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방문화원에 문화예술 프로그램(202개 프로그램, 25억 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문화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총 84개의 노인 복지관에 음악, 무용 및 연극 등 3개 분야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 총 2,8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도하였다.

또한, 여가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가활동을 설계해 주거나 여가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여가 및 문화복지 전문 인력 80명을 교육하였고 이 중 40여명을 여가시설 및 복지기관 등에 배치하였다.

아울러, 대도시 소외계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목적·다용도 실내 체육시설 및 복합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와 자기 계발 욕구가 강한 노년층과 재능과 경력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분야에서 문화자원봉사 기회를 마련하였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 안내인(도슨트), 문화유산 해설사 및 숲 해설사 등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실버문화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시니어 생활체육지도자’(230여개 시군구, 550명 배치)를 배치하였다.

2)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확충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이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따라서 문화 소외계층 대상 사업과 문화나눔 사업 등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수요자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 제공

2011년 문화예술·사회복지전공 및 경력자 등 총 80명을 교육하고 부산·전북 지역에 시범적으로 총 37명을 배치하였다.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사업과 장애인, 농어촌 및 벽·오지,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달라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이주청소년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등 노년층·청소년·소외계층 등 지원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여가활동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2005년 국고 4억 원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2006년 26억 원(국고 20억 원, 기금 6억 원), 2007년 20억 원(기금), 2008년 27억 원(기금), 2009년 40억 원(기금), 2010년 67억 원(기금 50억 원, 지방비 17억 원), 2011년 340억 원(기금 245억 원, 지방비 95억 원)으로 확대 되었다.

2011년에는 문화바우처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10년 67억→’11년 340억 원), 홈페이지 포인트 방식에서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문화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 하였다. 특히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11년 4월부터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문화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전통, 도서, 문화일반, 문화재 등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다.

또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카드 이용의 불편함을 보완하였으며,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지역 고유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착한그물’, 제주의 ‘문화드림’사업 등이 있으며 2011년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12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3) 문화나눔 활성화

가.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 원, 2008년 46억 원, 2009년 58억 원, 2010년 58억 원)이다.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 및 도서 및 음반 구입 등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80억 원을 지원하여 150개 단체가 1,964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464,031명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나. 사랑티켓

1991년(‘연극, 영화의 해’)부터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되었고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를 일부 보조 해주고 있다. 이는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확대하며 미래적 잠재고객 개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로 주관기관이 변경되었고 2011년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개선하여 총 45억여 원(복권기금:2,400백만 원, 지자체매칭기금:2,138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460,885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이다.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동일하게 48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지원 방식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방문예회관의 기획·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라. 문학나눔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경제적·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정시설 등에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독서 활동 증진과 문학적 감수성을 개발하고자 2005년 52억 원, 2006년 52억 원, 2007년 40억 원, 2008년 23억 원, 2009년 23억 원, 2010년에는 20억 원, 2011년에는 40억 원을 지원하여, 총 2,814개소에 241종 478,800권의 문학 도서를 보급하였다.

아울러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과 연계한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문학 감상자들로 하여금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전시나눔

공공박물관·미술관 거점으로 한 특별기획 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을 통한 소외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의 관람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이 기획한 특별전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기관 활성화를 돕고 문화소외계층들에게 무료 관람 기회 및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기존에 지역 권역별, 유물별, 주제별 등 공·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연합체(5개관 이상)가 기획한 공동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만 지원하던 사업의 형태에서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공동주제 하에 기획한 전시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추가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에 전년대비 2억 원이 추가된 총 8억 원이 지원되어 301,406명(전년도 대비 11.4%증가)이 수혜를 받았다.

바.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 활동 형성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등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 경비를 지원한다.

2010년 19개 지역에 이어 2011년에는 25개 지역에서 실행된 각 시범사업에 대해 1개 지역 당 최대 3개년 연속 지원을 통해 주민 자생적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3개년 연속지원이라는 기조 속에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준비기-기반조성기-안정기로 진화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9.6억 원(사업 당 3천만 원~6천만 원 이내), 평가연구 및 사업관리 등 2.4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총 28,600명(핵심주민 2,715명, 일반주민 24,575명, 문화예술 전문 인력 710명)이 혜택을 받았다.

3)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

2011년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사회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다양화로 인한 소통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의 무분별한 언어사용 및 공공기관의 한국어 사용 미숙으로 국어사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화·문화다양화에 따라 전통생활문화, 정신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한글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및 한글의 가치 확산 방안으로 세종학당의 확산을 본격화하며, 한글박물관 착공 및 자료수집의 시작과 한글주간을 마련 및 시행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국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1)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학당' 확산

정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2009년 6개국 17개소에서 2010년 12개국 23개소, 2011년 31개국 6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2) 한글박물관 착공 및 자료 수집

한글이 창제된 것은 우리 겨레의 역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된 역사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이에 관련된 유산의 결집과 역사의 원표(元標)로서 한글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즉 한글박물관은 더욱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고 위대한 새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국가 번영의 미래 비전을 갖는다.

한글박물관을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유물 중심의 전시를 넘어 한글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3) 한글주간 운영

그동안 한글날 전후로 산발적으로 행해진 기념행사를 집약적으로 모아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8년 한글날 기념식과는 별도로 한글날 전후 일주일을 한글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연, 전시, 체험 및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한글유공자 등 포상, 세종문화상 시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지원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하였으며, 지자체, 전국국어문화원 및 한글 관련 단체에서도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4) 원활한 국어사용 환경 조성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할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 즉 공공언어가 아직 난해하고 낮은 한자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공공언어 개선지원 사업’을 통하여 행정, 방송, 교과서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기존 사전의 풀이가 어렵고 기존 사전에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정보가 다수 누락되어 있으며 정보·지식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만들었으며,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공공언어 품질 향상 지원체계 구축사업 및 국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 원활한 국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지역문화·전통문화의 재생과 창조

(1) 지역문화 활성화

효과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지역거점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광역권별 특성과 국가적 파급효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경주, 전주와 공주·부여에 각각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 공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문화 행정가와 민간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관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2)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국학자료 수집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도난·훼손 등 멸실 위기로부터 사전 예방 및 보존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소장 고서, 고문서 등 유교 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수집을 통하여 도난, 훼손으로 멸실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유산의 수집·보존을 하였다. 그리고 기탁 국학 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관리를 하였으며, 항온항습기능과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제를 확립하였다. 미공개자료 및 문화재급 자료의 발굴 및 공유로 국학연구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기탁된 미공개 자료의 정리를 통한 한국학자료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학진흥을 위하여 새로운 정신문화 확립을 위한 한국적 가치의 발굴, 한국적 가치기반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개발 및 콘텐츠 소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다.

나. 전통생활문화의 산업화, 브랜드화

전통생활문화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다. 전통시장이 단순한 유통과 구매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소중한 생활문화공간이며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곧 우리 가까이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퇴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전략을 2008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선정,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 되도록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작이다.

‘08년 2개의 시범시장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09년 서울 강북 수유마을시장, 전남 목포자유시장, 충남 서천 한산오일장, 대구 중구 방천시장 등 4개 시장을, ‘10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시장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청과 ‘09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년 2개 시장을 공동으로 선정·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시장 뿐 아니라 오일장, 아트마켓, 시장문화 공동체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여 9개 신규 시장을 선정하고, 총 22개 시장을 지원하였다.

5) 미래세대 문화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이르러 전체 초·중등학교의 51%에 달하는 5,772개 학교 8,615개 교육과정에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전국 초·중등학교 현황: 11,387개교, 2010 교육통계연보)

예술 강사 지원사업과 더불어 2008년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집중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육성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내어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1년은 제1기('08~'11) 예술꽃씨앗학교 10개교 지원 마지막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결집한 예술꽃씨앗학교 성과발표회(행사명: 예술꽃씨앗학교 어울림뜨락)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우수학교 16개교를 제2기('11~'14) 예술꽃 씨앗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지원중이다.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술 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여가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조성

'11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사회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및 기존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기본연수, 심화연수 등의 연수프로그램을 총 5,385명 대상, 8개 과정, 2,425시수 운영하였다. 예술 강사 연수프로그램은 신규·경력 예술 강사의 창의적 예술교육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경력별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온라인 교육학 연수개설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교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 제고

우리사회의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이주민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과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의 인식 개선 및 이주민과 내국인의 문화교류와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는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상호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위해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①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사업 ②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사업 ③ 지역다문화프로그램 ④ 이주청소년 문화감성증진 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문화기반 강화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하나의 복합문화시설에 의지한 단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가 도시와 시민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 진흥’ 사업,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산업 육성’ 사업 등이 조성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3년까지 조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은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립이 공표된 후,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기록·전시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후세에 전승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배우고 알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수도 서울의 국가상징거리에 위치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별관부지 일부를 증축하여 2012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6) 한국문화 세계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

(1) 해외 문화홍보 및 교류 기반 강화

가. 재외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추진

문화를 통한 교류 및 문화협력 기능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파리·뉴욕·LA·동경 문화원 이외에 추가된 러시아, 독일, 중국, 오사카 문화홍보원이 '문화원'으로 개편(2006년)되었으며, 영국, 상해, 베트남, 아르헨티나에 문화원을 신규 설립(2006~2008년)하여 2008년 말까지 총 12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동남아, 대양주, 서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스페인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은 문화원 신설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0년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2011년 상반기에 개원하였다. 이후 터키, 헝가리, 멕시코 문화원이 개원하여 2011년까지 모두 23개의 문화원이 개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홍보관 파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원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민족문화, 문화산업, 관광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재외문화원을 확대·개편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동일 장소에 입주시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코리아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까지 코리아센터는 미국 LA(2006.9), 중국 북경(2007.3), 상해(2007.7), 일본 동경

(2009.6)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통·민족문화의 세계화, 한스타일 해외진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를 집중 추진하여 기존 문화원 운영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객 지향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설확장과 동시에 코리아센터 운영과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나. 재외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특화

해외에 있는 20개 한국문화원의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중점 사업계획으로 해외 한국문화원 한류확산의 거점 역할 강화와 해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의 현장화, 특성화, 브랜드화 추진 등을 하였으며,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문화에 대한 현지 수요 및 수용도 등을 반영하여 각 문화원 별로 특화된 문화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사업계획은 문화원별 특화된 ‘한국문화주간’ 개최와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재국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문화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류확산 지원을 위한 현지 특성화 강좌 등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2) 문화예술 해외교류

가.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나라가 아시아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 나라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각국에 친근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고 경제적 위상에 비해 평가 절하되어 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ODA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ODA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수 사업이다. 분야는 문화정책, 전통·현대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으며 대상 국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비교적 많았던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각 국 들이다. 피초청자는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관광·체육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국립문화시설, 산하·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한국 알림이’로 지정하여 소양과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현지 교류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지원하고 민간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알림이 사업과 문화교류빈도가 낮은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확산하여 양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문화예술봉사단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나.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확대

국가 간 수교 기념 계기를 활용하여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연중 수교기념 행사를 하며,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과 한-네델란드 수교 50주년, 한-그리스 수교 50주년,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11 인도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인도의 해,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등 교류의 해를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양국 간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다. 주한 외국인대상 홍보

주한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증진으로 자국으로 귀환 후에도 우리문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중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한 외국인 학생대상 공모전, 주한미군대상 한미우정콘서트,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나들이행사가 있다.

제2절 여가문화 활성화

1. 여가정책의 환경변화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인해 노후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80세 시대’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에는 은퇴하여 준비 없이 노후를 보내는 단계에 있으나,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자녀출가로 인한 고독감, 사회적 존재감 상실, 경제적 빈곤 및 질병 등 노년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고 생산적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생애주기 여가설계가 필요하다.

이 전 세대가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고, 중·장년기에는 노동을 하며 노년기에는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패턴으로 구별되는 ‘연령차별 사회’였다면, 100세 시대는 교육, 노동 및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가 경제성장이 중심이었기에 일 중심의 생활방식이 지속되면서 청·장년기의 여가경험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노년기의 여가활동 형성도 어려웠다. 과거의 여가 경험이 노년기에도 지속되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은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여가 활동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즉 ‘연령통합 사회’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 등 생애주기 초기부터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여가활동이 노년기까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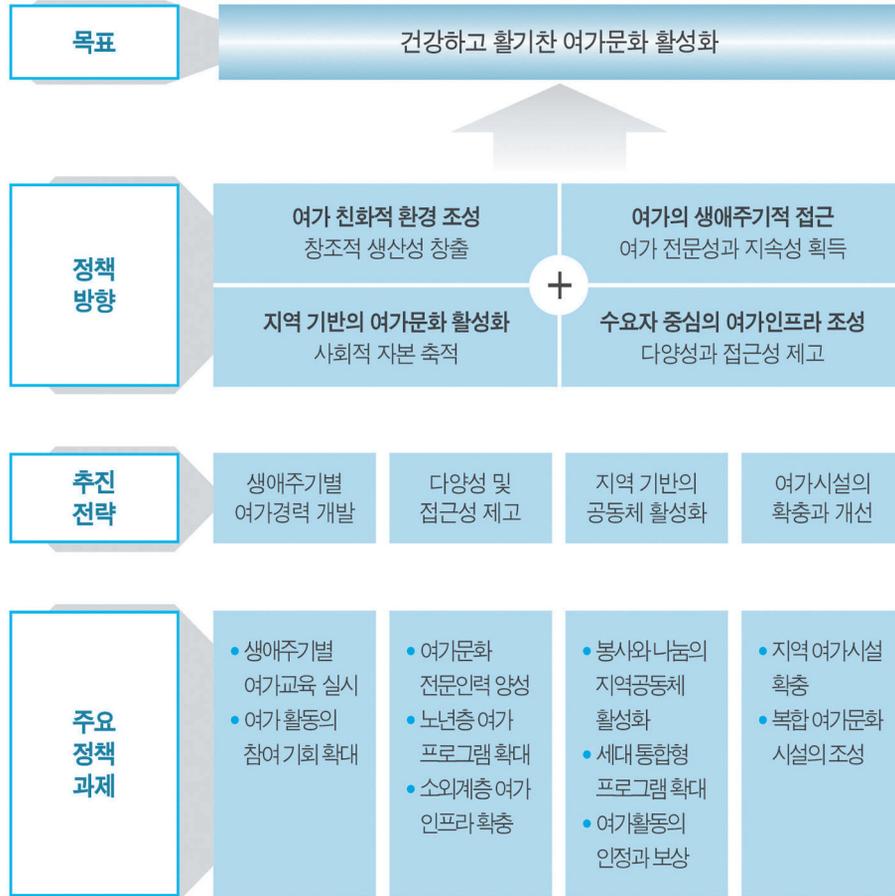
소득 증가, 주 5일제 수업, 주 40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적 여가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 전문 인력 및 여가 정보·프로그램의 제공, 여가시설의 확충 등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여가자원의 공급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고려한 지역의 여가 자원의 확충과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등 은퇴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등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다.

● 표 2-2-1 ● 여가활동 시간 및 비용

구 분		'06년	'08년	'10년	향후 희망
하루 평균 여가시간	평 일	3.1시간	3.0시간	4.0시간	5.1시간
	휴 일	5.5시간	6.5시간	7.0시간	8.5시간
월 평균 여가비용		14.2만원	13.9만원	16.8만원	26.6만원

2. 여가정책의 목표와 방향

● 그림 2-2-1 ● 여가정책의 목표와 방향



다가오는 '100세 시대'의 여가정책 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활성화'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여가 친화적 환경 조성, 둘째, 여가의 생애 주기적 접근, 셋째, 지역 기반의 여가문화 활성화, 넷째, 수요자 중심의 여가인프라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향후 국민 여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개발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가교육 실시 및 여가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여가활동의 다양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여가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할 여가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할 계획이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여가문화 생활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지리적·사회적인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이 있는 소외계층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봉사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복합여가문화 시설 조성 등 지역 여가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여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3. 주요 추진성과

1) 수요자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 제공

노년층·청소년·소외계층 등 지원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여가활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였다. 2011년 문화예술·사회복지전공 및 경력자 등 총 80명을 교육하고 부산·전북 지역에 시범적으로 총 37명을 배치하였다. 이들 전문 인력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 및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문화복지·여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화시설 및 복지관 등에 시범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배치지역과 배치인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 스포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개편하여 노년층·유소년·장애인 등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노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개정이 있었다.

둘째, 장애인, 농어촌 및 벽·오지,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독서,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무료 택배로 도서 대출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실업팀 창단,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총 190명), 생활체육교실(284개소) 및 장애청소년체육교실(128개소)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9.6%까지 높였

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벽·오지 주민, 복지시설, 산업단지, 군부대 및 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공연 관람 및 도서 보급 지원도 확대하였다. 총 2천여 지역과 시설을 방문하여 주민과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문학 및 교양도서 등 총 80만여 권의 서적을 배포하였다. 아울러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달라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이주청소년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및 종교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주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표 2-2-2 ●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운영 : 130개소 5,841회 108,630명 • 어울림축제 개최 : 16회 9,460명 • 다문화교실 지도자교육 : 260명('11.05.26~27, 덕산스파캐슬) • 어울림캠프 개최 : 130회 6,320명
-------	---

이러한 취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스포츠·스포츠관람·여행바우처 등 4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였다.

● 표 2-2-3 ● 문화 분야 바우처 지원내역

구분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여행바우처
'11년 예산	347억원	86억원	2.1억원	66억원
'12년 예산	487억원	106억원	3억원	96억원
'11년 수혜자	121만명	2.8만명	2천명	4.9만명
지원 한도	연간 5만원	강좌 월 7만원	연간 5만원	연간 15만원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부랑인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용품 및 지도자 파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 표 2-2-4 ● 소외계층 응구지원 추진 실적

연 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2011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6종 8,800점
	노인시설	426개소 4종 3,408점
	중증장애인작업시설	180개소 4종 667점
	부랑인시설	37개소 5종 185점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7종 1,25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 4종 632점

문화와 여행 분야는 기획바우처 사업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벽·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단체로 이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또는 “모셔오는”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11년 12만 명을 지원하였다. 여행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등 개별 여행이 힘든 대상자에게 단체 기획 여행상품을 제공하였으며, 2011년 총 8,968명을 지원하였다.

셋째,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가 많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49개 문화원, 202개 프로그램, 7,037명 참여)을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자가 어르신문화학교 강사(471명)로, 또는 문화나눔 봉사단으로 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넷째, 유해 환경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청소년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고, 학업성취도 향상 및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상호 학습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총 20개 지역, 1천여 명)과 농산어촌 등 문화소의 지역 소재 초등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펼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육성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및 스포츠선수 등의 재능기부, ‘나눔티켓’과 같은 국공립 예술단체의 후원,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등의 후원, 문화자원봉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민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능동적·생산적 여가문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섯째, 노년층 대상 관광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 지원을 하였다. 크루즈 관광 및 고택 체험 등의 고품격 관광 상품과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 2011년에 크루즈 선상 초청 팸 투어를 추진하였다. 명품 고택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011년에 경북에서 150년 이상 된 10개의 고택을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추억의 수학여행’, ‘다시 가는 MT’, ‘신혼여행의 재발견’ 등도 추진하였다. 2012년 말까지 치매관련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할 계획으로, 종합병원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에 1차 보급을 하였다. 추후 201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기부와 나눔을 통한 여가문화 가치 제고

창조적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 참여와 자기 계발 욕구가 강한 적극적 노년층(Active Senior)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재능 나눔 등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물관 전시품 해설사(도슨트(Docent)), 문화유산 해설사, 숲 해설사 등 준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실버문화자원봉사단’을 양성하였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2011년에 230개 시·군·구에 550명을 배치하였으며, 국가 대표선수 및 프로 선수 등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를 통한 ‘행복나눔 스포츠교실(10종목 33개소 10,489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스포츠 종목(스키, 승마, 인라인하키, 핸드볼 등 10종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사회기여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기부(Talent donation)로 자신의 재능과 경력을 청소년의 여가 지도에 활용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는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둘째, 은퇴자 대상 전문교육 및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지역 복지관이나 대학 평생교육 과정에 은퇴자 교육을 포함시켰으며, 재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이 가능한 준전문가로 양성하였다. 그 밖에 조손(祖孫) 세대간 전통 무릎교육을 모델로 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4. 향후 전망 및 계획

1)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제고

현대사회는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 개인의 여가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행복이나 생활 만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일과 삶의 조화는 근로자가 일과 그에 부가되는 영역에 투자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주5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삶의 조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일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가활동은 직무 만족 뿐 아니라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으나, 현대 사회 속에서 여가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직장인들이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여가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및 직장 내 바람직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인 대상 여가공모전 개최 및 여가활성화 캠페인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개발 지원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전 생애 걸쳐 일과 여가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추구하고 여가 경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여가 교육과 여가 설계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다. 생애주기 초기부터 여가 경력(Leisure Career)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생애주기별 여가 설계를 위한 여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여가교육 실시를 통하여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생애주기별·대상별 여가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여가 설계를 유도하고, 생애주기별로 달성해야 할 적정 여가목표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 권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여가 설계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직장인 대상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사회적 이슈와 여가활동 연계 방안으로서 지역 내 청소년, 다문화, 한부모

등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강좌 실시 권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역 여가시설의 확충

지역의 부족한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연령통합 시설 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복합적 여가수요에 적합한 생활인접형 다기능 복합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기능 복합여가시설’은 여러 계층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문화예술, 스포츠, 복지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형 복합 여가문화시설로서, 대중화된 다양한 고급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원스톱(one-stop)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향 노인복합 여가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관, 후생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교육·자원봉사 등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시설을 손자,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세대통합형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여가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여가활동의 사회적 자본화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적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정보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기여도와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적극적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지식 및 재능 기부 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지역 통화로 환산하여 다른 여가활동을 할 때 사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문화 활성화 및 범정부적 여가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여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다양한 여가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 여가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3절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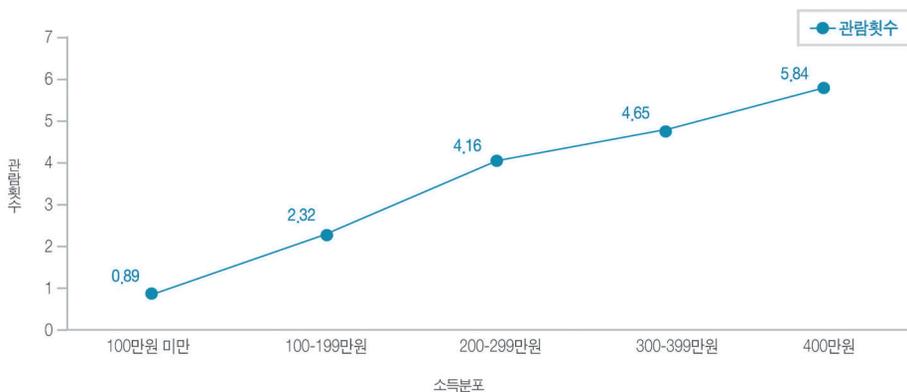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 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년 국민 문화향수 격차 실태 분석의 소득 간 예술 행사 관람 횟수 격차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 평균 관람 횟수가 4.5배 차이가 나며, 문화 지출비는 국민 평균 지출 비용과 10배 차이가 난다.

문화부는 물질적 생존 외에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 복권기금을 문예 진흥 기금사업으로 투입하면서, 복권기금을 활용한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문화바우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라디오 연설('10.8.23)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문화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른 문화향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정책을 시행하였다.

● 그림 2-3-1 ● 2010년 소득별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004년부터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문화 사각지대에 속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나눔은 문화 복지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사업 중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정부 사업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나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표 2-3-1 ● 문화나눔사업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내용
	문화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대상 공연·전시 등 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 및 도서 및 음반 구입 등 지원
공연나눔	소외계층문화순회	문화 인프라시설 부재한 지역에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신장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등 소외지역 순회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지원
	사랑티켓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공연 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까지 지원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자치단체별 20%를 기준 매칭비율 조정, (40~50%), 공연 행사 개최 경비 지원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보급	우수문학도서 보급을 통한 소외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문화향수 증진	분기별 선정도서 (시,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 희곡, 평론)구입비 지원
전시나눔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지원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을 통한 소외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의 관람 및 교육기회 확대	전시 및 교육 행사 개최 경비 지원
창작나눔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	장애인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창조 역량 강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발표, 연구조사, 인력육성 경비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경비 지원

출처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cvoucher.kr/>)

문화나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바우처, 창작나눔), 한국문예회관연합회(공연나눔), 한국도서관협회(문화나눔), 한국박물관협회(전시나눔) 등 다양한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문화순회, 공공박물관·전시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장애인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은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1)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인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2005년 국고 4억원을 투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2006년 26억 원(국고 20억 원, 기금 6억 원), 2007년 20억 원(기금), 2008년 27억 원(기금), 2009년 40억 원(기금), 2010년 67억 원(기금 50억 원, 지방비 17억 원), 2011년 347억 원(기금 245억 원, 지방비 10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충전식 문화 카드 방식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10년 67억→'11년 347억 원), 홈페이지 포인트 방식에서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문화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문화예술 단체(지역 주관처) 간 협업 체계를 개선하는 등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특히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11년 4월부터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문화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영화, 전통, 도서, 문화일반, 문화재 등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다.

● 표 2-3-2 ● 문화바우처: 2011년 주요 개선 내용

문화바우처 사업	2010년	2011년	의 의
사업 예산	67억 원	340억 원	수혜인원 확대로 정책 체감도 제고
수혜 목표	47만 명/327만 명 (13.4%)	68만 가구/170만 가구 (130만 명/327만 명) (40%)	수혜율 제고
추진 방식	홈페이지 포인트제	카드 결제	이용자 편의성 증대
지원 대상	50% 할인가 제공 등록 프로그램만 가능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총괄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총괄운영기관으로 지정(*11.7.1)	사업 운영체계 보완

● 표 2-3-3 ●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연령별 발급 현황 (2011)

연령 구분	출생년도	인원(명)	비율(%)
영유아	2002년~2011년	8,123	1.6
10대	1992년~2001년	196,175	38.6
20대	1982년~1991년	18,951	3.7
30대	1972년~1981년	51,304	10.1
40대	1962년~1971년	106,366	20.9
50대	1952년~1961년	58,206	11.4
60대 이상	~1951년 이전	69,682	13.7
합계		508,807	100.0

● 표 2-3-4 ●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대상별 발급 현황 (2011)

발급 대상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우선돌봄 차상위	복지시설 거주자	합계
발급매수 (매)	284,861	20,426	40,331	90,613	7,382	18,396	29,992	1,343	15,463	508,807

● 표 2-3-5 ● 문화바우처: 시도별 문화바우처 예산 집행 및 카드실적 현황 (2011)

(단위 : 천원, %)

지역	예산액	예산 집행액				카드발급실적			카드이용실적		
		소계	%	문화카드	기획 바우처	발급 가능매수	발급 매수	발급률 (%)	이용액	이용률	
										발급 대비	예산 대비
서울	4,656,000	4,114,398	88.4	2,671,398	1,443,000	64,260	64,086	99.7	2,671,398	83.4	83.1
부산	3,140,000	2,455,824	78.2	1,730,462	725,362	41,960	40,473	96.5	1,730,462	85.5	82.5
대구	1,975,000	1,766,990	89.5	1,429,990	337,000	32,760	33,346	101.8	1,429,990	85.8	87.3
인천	1,584,000	1,424,886	90.0	953,575	471,311	22,180	22,412	101.0	953,575	85.1	86.0
광주	1,294,000	1,209,337	93.5	909,337	300,000	19,880	20,391	102.6	909,337	89.2	91.5
대전	1,054,000	936,862	88.9	624,193	312,669	14,760	14,934	101.2	624,193	83.6	84.6
울산	420,000	361,518	86.1	235,518	126,000	5,880	6,019	102.4	235,518	78.3	80.1
경기	4,596,000	3,524,070	76.7	2,991,150	532,920	80,183	72,423	90.3	2,991,150	82.6	74.6
강원	1,452,000	1,004,020	69.1	920,088	83,932	27,300	24,884	91.2	920,088	74.0	67.4
충북	1,268,000	865,645	68.3	700,545	165,100	22,058	17,270	78.3	700,545	81.1	63.5
충남	1,621,000	1,271,435	78.4	1,047,580	223,855	27,428	27,838	101.5	1,047,580	75.3	76.4
전북	2,466,000	1,940,878	78.7	1,718,878	222,000	44,880	44,902	100.0	1,718,878	76.6	76.6
전남	2,400,000	1,800,247	75.0	1,163,856	636,391	35,259	32,930	93.4	1,163,856	70.7	66.0
경북	2,724,000	1,906,379	70.0	1,523,033	383,346	46,813	40,537	86.6	1,523,033	75.1	65.1
경남	2,116,600	1,645,526	77.7	1,450,129	195,397	38,424	38,850	101.1	1,450,129	74.7	75.5
제주	528,000	481,053	91.1	322,053	159,000	7,380	7,512	101.8	322,053	85.7	87.3
계	33,294,600	26,709,068	80.2	20,391,785	6,317,283	531,405	508,807	95.7	20,391,785	80.2	76.7

또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카드 이용의 불편함을 보완하였고,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지역 고유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착한그물', 제주의 '문화드림'사업 등이 있다.

● 표 2-3-6 ● 문화바우처: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현황 (2011)

(단위 : 건)

장르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문화일반	전통	대중공연	영화	계
프로그램수	218	281	181	87	55	271	87	112	123	1,415
비율(%)	15.4	19.9	12.8	6.1	3.9	19.2	6.1	7.9	8.7	100.0

● 표 2-3-7 ● 문화바우처: 지역별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현황 (2011)

(단위 : 건)

구분	지역주관처	기획바우처 대표사업	프로그램
서울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모셔오는 서비스	139
부산	부산문화재단	착한그물사업, 컬쳐 노마드 사업, 집으로 사업	221
대구	대구문화재단	해피앤즈, 해피티켓 서비스, 해피버스 서비스	187
인천	인천문화재단	우리친구 C바우처, 함께가족 C바우처	228
광주	광주문화재단	곰두리 아카데미, 다문화 오케스트라	34
대전	대전문화재단	문화사랑 꿈나무 프로젝트, 한마당 큰잔치	91
울산	울산문화바우처 운영협의회	문화소풍 및 문화나들이	26
경기	경기문화재단	가가호호 문화교감, 학생문화공명	121
강원	강원문화재단	문화나눔 행복가득, 문화나침반	69
충북	한국지역자활센터 충북지부	문화나들이 사업	53
충남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재가방문 서비스	66
전북	(사)문화연구창	바다랑 뜰이랑, 나눔पुर리 인형극장 사업	39
전남	전남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37
경북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모셔오는 서비스	44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드림, Give美 사업	60

● 사진 2-3-1 ● 문화바우처: 지역별 기획바우처 프로그램 사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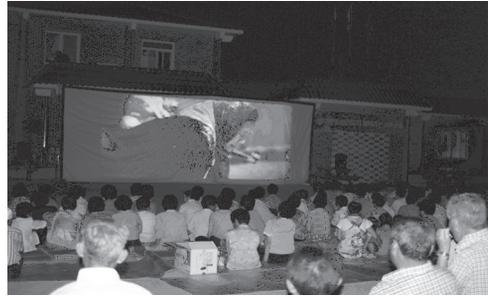
부산



인천



대구



전남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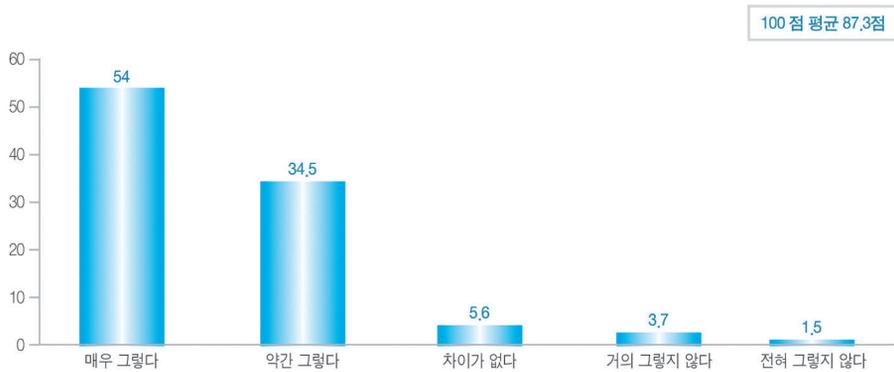
경북

● 표 2-3-8 ● 문화바우처 : 기획바우처 관람 현황 (2011)

지역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	계
서울	17,677	3,109	2,290	5,664	3,993	32,733
부산	13,756	1,339	1,836	3,471	2,609	23,011
대구	7,040	4,108	2,369	1,069	1,260	15,846
인천	9,540	3,176	2,307	1,206	2,956	19,185
광주	3,184	2,070	743	487	676	7,160
대전	4,267	1,598	833	1,088	612	8,398
울산	1,841	364	469	855	633	4,162
경기	7,084	3,228	2,300	2,238	1,712	16,562
강원	2,155	68	963	104	460	3,750
충북	1,235	1,616	1,837	1,308	739	6,735
충남	2,246	2,723	1,538	1,054	1,002	8,563
전북	4,411	962	168	782	884	7,207
전남	7,033	2,483	6,820	2,649	1,410	20,395
경북	5,137	5,162	2,099	2,514	2,364	17,276
경남	2,759	1,054	2,500	516	495	7,324
제주	3,720	1,297	707	1,025	1,922	8,671
합계	93,085	34,357	29,779	26,030	23,727	206,978
비율(%)	45.0	16.6	14.4	12.6	11.5	100.0

2011년에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121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고객 만족도는 82.5점으로 '10년에 이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바우처 사업 인지도가 45.1%(10)에서 63.0%(11)로 17.9% 상승하였고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바우처를 통해 공연·전시 관람 기회가 늘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8.5%(매우 그렇다 54.0% + 약간 그렇다 34.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5.3%(전혀 그렇지 않다, 1.5% + 거의 그렇지 않다 3.7%)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사업 예산의 확대에 수혜자 및 이용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이 증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2-3-2 ● 문화바우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여부



「문화바우처」 사업의 홍보를 위해 공중파 TV 공익광고를 방영하였으며, 방영된 광고 동영상은 시내 전광판, 지하철 PDP 모니터 광고, 전국 지자체 및 주민센터 모니터 공익광고, 블로그, SNS 등 저소득층이 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 인지도를 함께 제고하였다. 그 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를 집중 추진하였다.

● 표 2-3-9 ● 문화바우처: 홍보실적 (2011)

(단위 : 건)

언론보도					온라인 홍보				매체 광고						대외협력						합계									
신문	T V	라디오	잡지	기타	소계	메일링	배너	이벤트	기타	소계	신문	T V	라디오	모니터	지하철	버스	화영관	기타	소계	정부단체	사회단체	언론사	문예기관	교육단체	공공서비스	민간기업	기관인	기타	소계	
565	13	12	11	3	604	75	23	12	242	352	90	8	0	3	13	13	0	12	139	60	19	12	121	4	18	165	0	15	414	1,509

나눔티켓은 국공립과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객석을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문화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개발하기 위한 동 사업을 이용하여 연간 34,974명이 혜택을 받았다.

● 표 2-3-10 ● 문화바우처: 나눔티켓 지원 현황 (2011)

구분	나눔회원 (문화바우처 회원 및 저소득층)	교사회원 (교사/사회복지사)	참가단체회원	청소년 (초/중/고등생)	계
인원(명)	27,520	5,800	199	1,455	34,974
비율(%)	78.7	16.6	0.6	4.2	100.0

● 표 2-3-11 ● 문화바우처: 나눔티켓 세부 지원 현황 (2011)

지역	공연					전시	지역 합계
	무료	할인				무료	
	나눔회원*	나눔회원*	교사회원	참가단체회원	청소년 (초/중/고)	나눔회원*	
서울	15,161	463	2,609	118	699	316	19,366
부산	1,795	92	172	19	57	93	2,228
대구	178	12	31	-	5	3	229
인천	1,247	45	256	8	63	39	1,658
광주	190	2	7	-	-	3	202
대전	141	12	34	-	4	-	191
울산	6	-	15	-	2	-	23
경기	6,693	302	2,187	54	513	131	9,880
강원	32	5	69	-	14	-	120
충북	88	2	74	-	25	-	189
충남	182	3	121	-	56	-	362
전북	36	8	34	-	3	-	81
전남	8	-	12	-	-	-	20
경북	53	4	18	-	-	-	75
경남	162	7	144	-	14	-	327
제주	3	-	17	-	-	3	23
합계	25,975	957	5,800	199	1,455	588	34,974

2) 공연나눔

(1)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 원, 2008년 46억 원, 2009년 58억 원, 2010년 58억 원)으로서,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 및 도서 및 음반 구입 등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80억 원을 지원하여 150개 단체가 1,964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464,031명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 표 2-3-12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 (2011)

(단위 : 명, 개, 회, 천원)

사업유형	관객수(명)	단체수(개)	순회횟수(회)	예산(천원)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105,121	67	800	2,612,542
농어촌순회사업	164,961	50	600	2,357,027
임대주택 순회사업	32,106	13	154	566,390
다문화대상 순회사업	5,579	4	46	166,000
교정시설 순회사업	17,766	7	84	306,047
군부대 순회사업	50,350	8	100	418,273
기타시설순회사업	88,148	1(54)	180	1,073,563
홍보비	-	-	-	70,240
경상비	-	-	-	429,760
계	464,031	150	1,964	7,999,842

* 기타시설 순회사업 참여단체(54개 단체)는 정기공모 선정단체(150개 단체)가 추가 순회함. 단 당초 다문화대상순회사업으로 선정되었던 1개 단체는 기존 유형이 아닌 기타시설 순회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문화순회사업 전체 수혜자 464,031명 중 경기지역 수혜자가 79,0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52,867명, 전남지역이 46,908명, 경북지역이 46,600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울산과 대구가 각각 5,392명과 7,895명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관람하였다.

● 표 2-3-13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수혜자 수 (2011)

(단위 : 명)

구분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군부대	다문화대상	농산어촌	교정시설	기타시설	합계	비율(%)
서울	9,387	2,700	4,950	310	-	998	8,350	26,695	5.8
부산	5,177	1,520	1,600	-	1,180	760	1,200	11,437	2.5
대구	3,030	1,370	2,300	-	-	915	280	7,895	1.7
인천	4,725	941	1,940	-	3,240	250	3,230	14,326	3.1
광주	4,411	1,130	600	199	-	480	4,695	11,515	2.5
대전	2,620	1,345	1,250	250	-	500	2,703	8,668	1.9
울산	812	860	-	-	2,740	280	700	5,392	1.2
경기	16,151	5,365	10,130	1,470	22,790	3,985	19,130	79,021	17.0
강원	4,312	1,840	9,500	470	13,669	1,100	12,410	43,301	9.3
충북	7,115	3,145	2,350	220	9,068	1,458	1,773	25,129	5.4
충남	6,562	1,780	2,480	300	16,069	1,290	10,190	38,671	8.3
전북	9,401	2,540	750	570	17,648	930	5,075	36,914	8.0
전남	6,430	1,590	3,300	640	26,811	1,060	7,077	46,908	10.1
경북	13,595	3,270	3,300	530	17,340	2,300	6,265	46,600	10.0
경남	8,643	2,280	5,400	620	29,804	1,050	5,070	52,867	11.4
제주	2,750	430	500	-	4,602	410	-	8,692	1.9
전체	105,121	32,106	50,350	5,579	164,961	17,766	88,148	464,031	100.0

그리고 2011년에는 온라인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kocaca.artskorea.or.kr)’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 지원금교부신청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원신청 자료 및 성과보고서 자료분석, 가공, 활용 등 지원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예술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림 2-3-3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Cultural Arts Support System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ebsite. The main navigation menu includes: 내 정보방, 지원신청, 교부신청, 성과보고, 게시판, 자료실.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회원로그인**: (주)국단민들레님이 로그인 되었습니다. 로그아웃
- 내 정보방**:
 - 내 신청현황
 - 단체정보변경
 - 지원신청: 지원신청 내역 조회, 지원신청 등록, 신청취소 내역 조회
 - 교부신청: 교부신청 내역 조회, 교부신청 등록, 사업포기신청 내역 조회, 사업포기신청 등록
 - 성과보고: 사업비카드 발급신청, 사업비지출 내역 등록, 성과보고 내역 조회, 성과보고 등록
- 현재 지원할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공고

보조금 주관기관	지원년도	지원사업명	접수기간	분야[신청하기]
지원 신청 가능한 사업이 없습니다.				
- 나의 신청 현황**: 지원신청 현황

보조금 주관기관	지원년도	지원신청 사업명	분야	신청서 수정/보기	처리상태	지원 결과	지원 예정금액	지원결정 통보문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2011	2011 신명을 온누리에 통배락	연극	보기	신청완료 (201121070)	가	21,000,000	승격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2010	2010 신명을 온누리에 통배락	연극	보기	신청완료 (201014705)	가	30,000,000	승격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2009	2009 신명을 온 누리에 '통배락'	연극	보기	신청완료 (20099669)	-	-	-
- 교부신청 현황**: 교부신청 현황

보조금 주관기관	지원년도	사업관리번호	교부신청 사업명	분야	신청서 신청(수정)/보기	처리상태	교부결정 통보문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2011	201121070	2011 신명을 온누리에 통배락	연극	보기	결의서생성완료(송금완료)	승격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2011	201121070	2011 신명을 온누리에 통배락	연극	보기	결의서생성완료(송금완료)	승격

(2) 사랑티켓

1991년(‘연극, 영화의 해’)부터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되었고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다. 이는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확대하며 미래적 잠재고객 개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로 주관기관이 변경되었고 2011년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개선하여 총 45억여원(복권기금:2,400백만 원, 지자체매칭기금:2,138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460,885명이 혜택을 받았다.

● 표 2-3-14 ● 사랑티켓: 지역별 수혜자 수와 지원금액 (2011)

(단위 : 명)

구분	개인권		단체권		합 계		
	지원매수	지원금액(원)	지원매수	지원금액(원)	지원매수	지원금액(원)	
지역 사랑 티켓 (16)	강원	2,260	15,820,000	6,559	45,913,000	8,819	61,733,000
	경기	13,612	93,928,000	38,434	268,966,000	52,046	362,894,000
	경남	2,186	15,302,000	7,314	51,198,000	9,500	66,500,000
	경북	1,819	12,733,000	3,897	27,279,000	5,716	40,012,000
	광주	3,012	20,944,000	16,976	118,236,000	19,988	139,180,000
	대구	5,207	35,933,000	9,119	60,439,000	14,326	96,372,000
	대전	10,097	60,581,000	4,817	33,659,000	14,914	94,240,000
	부산	5,726	36,942,000	14,369	98,809,000	20,095	135,751,000
	서울	48,073	335,095,000	178,714	1,249,684,000	226,787	1,584,779,000
	울산	3,835	26,845,000	6,440	45,080,000	10,275	71,925,000
	인천	2,419	16,885,000	16,014	112,098,000	18,433	128,983,000
	전남	856	5,992,000	10,184	71,288,000	11,040	77,280,000
	전북	4,323	30,261,000	4,827	33,789,000	9,150	64,050,000
	제주	1,456	10,192,000	10,402	72,814,000	11,858	83,006,000
	충남	2,582	18,074,000	9,555	66,885,000	12,137	84,959,000
	충북	2,801	19,607,000	13,000	91,000,000	15,801	110,607,000
전체	110,264	755,134,000	350,621	2,447,137,000	460,885	3,202,271,000	

2010년까지는 어린이 공연 전국 통합하여 심의를 추진하였으나 2011년에는 사랑의 티켓 지원 대상을 조정하여 전국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가작품을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음악, 전통, 전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 3,146개의 작품이 참가하였다.

● 표 2-3-15 ● 장르별 사랑티켓 참가작품 수 (2011)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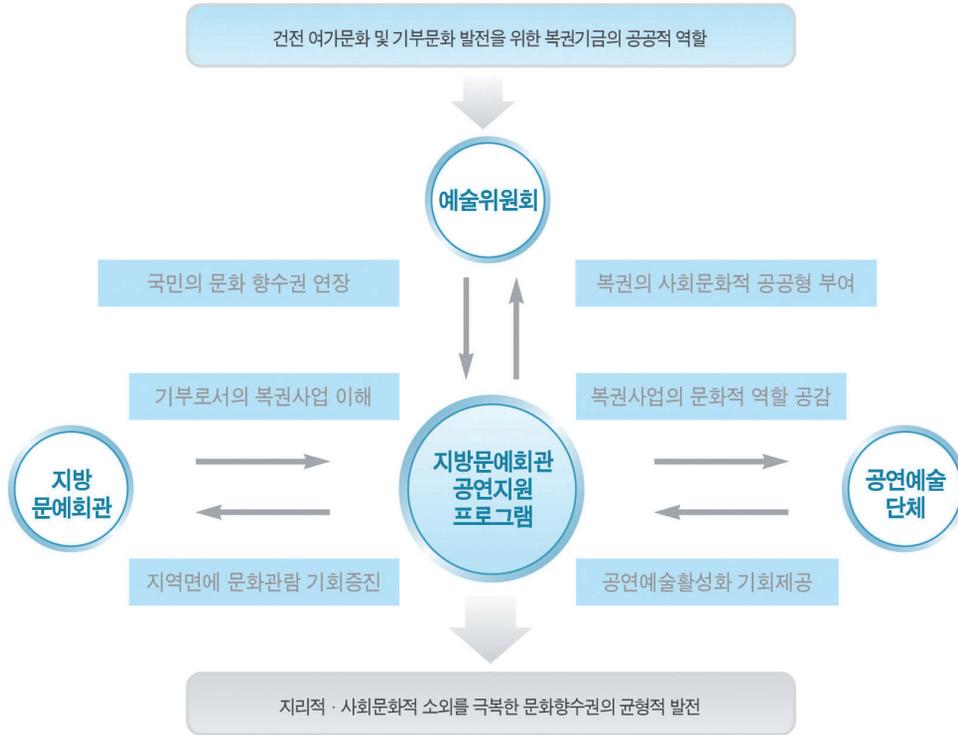
지역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음악	전통	전시	합계
서울	468	173	239	30	69	27	10	1,016
부산	74	35	36	4	25	1	1	176
대구	41	21	28	9	28	2	3	132
인천	15	18	73	0	10	5	1	122
광주	36	10	41	11	7	4	1	110
대전	37	18	27	10	52	2	2	148
울산	24	12	12	4	7	8	0	67
경기	52	49	308	4	47	2	6	468
강원	31	8	94	3	3	1	0	140
충북	20	11	36	2	1	2	0	72
충남	25	14	112	3	17	0	0	171
전북	23	1	69	4	28	2	0	127
전남	6	5	78	0	2	1	0	92
경북	11	12	82	1	1	1	1	109
경남	46	7	92	3	0	3	0	151
제주	4	17	18	0	5	1	0	45
총 합계	913	411	1,345	88	302	62	25	3,146

또한 단체관람 지원을 기존의 예약 방식에서 예매를 할 수 있게 방법을 개선하였고, 각 지역별 사랑티켓센터 고객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능력평가 추진 및 기브티켓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국온라인 통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이 증대 되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되면서 문화나눔 인식이 확대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 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그림 2-3-4 ● 공연나눔: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개념



2011년에는 2010년과 동일하게 48억 원을 지원되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 문예회관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해당 문예회관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발전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지방 문예회관의 기획·운영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 표 2-3-16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2011)

구분	지원 비율
광역시·도	40%지원
재정자립도 20%이상 지역	50%지원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60%지원

소규모 문예회관 지원확대를 위해 139개의 지방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규모를 다양화하고 횟수를 증대시켜 지역주민의 관람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우수공연프로그램을 99개 선정하고 프로그램횟수는 774회로 당초 목표였던 750회보다 3.2%초과하여 달성되었다. ('10년도 691회)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시행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작품개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40개 기관(40개프로그램/42건) 참여하여 전년도('10) 34개 기관(34개/프로그램38건) 보다 참여기관 17.7%증가하였다. 또한 사업신청 및 교부 신청시 소외계층 초청을 15%이상 명시하도록 하여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표 2-3-17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성과목표 달성률 (2011)

구분	2011 목표	2011 성과	달성률(성과/목표)
지원기관 수	105개 개관	139개관	138.4%
프로그램 건수	250건	275건	110.0%
관람객 수	386,000명	386,025	100.0%
고객만족도	88.9점	87.9점	98.9%

● 표 2-3-18 ●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예산대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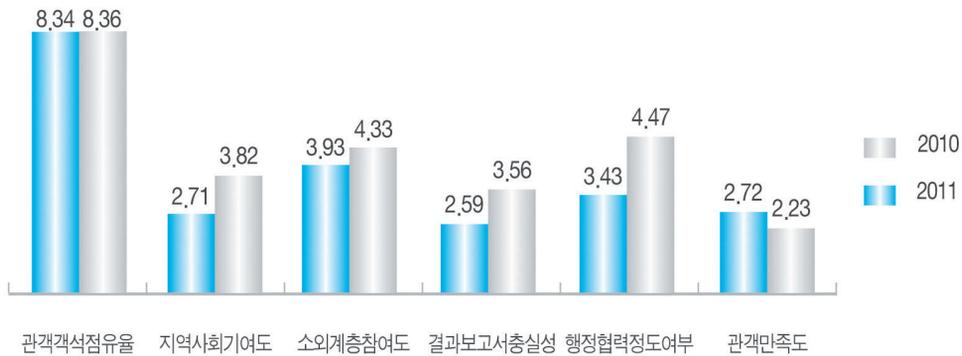
연도	예산	사업성과 (프로그램 횟수)	비용효과(성과/예산)
2010	48억	691회	14.40
2011	48억	774회	16.12

사업운영 측면에서 2011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의 종합평가의 결과는 총 6개 항목에서 35점이 배점되었으며, 총 275개 프로그램의 항목별 평균 점수는 관객객석 점유율 8.36점(10점만 점), 기억사회 기여도 3.82점, 소외계층참여도 4.33점, 결과 보고서 충실성 3.56점, 행정협력정도 여부 4.47점, 관객만족도 2.2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도('10년) 대비하여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약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 예술 전문 인력과 지역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노력을 측정하는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평가 경과가 크게 향상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표 2-3-19 ●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종합평가

(총 275개 프로그램 대상)

구분	성과					
	관객객석 점유율	지역사회 기여도	소외계층 참여도	결과보고서 충실성	행정협력정도 여부	관객만족도
2010	8.34	2.71	3.93	2.59	3.43	2.72
2011	8.36	3.82	4.33	3.56	4.47	2.23



3)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경제적·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정시설 등에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독서 활동 증진과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고자 2005년 52억 원, 2006년 52억 원, 2007년 40억 원, 2008년 23억 원, 2009년 23억 원, 2010년에는 20억 원, 2011년에는 40억 원을 지원하여 총 2,814개소에 241종 478,800권의 문학 도서를 보급하였다.

● 표 2-3-20 ● 우수문학 도서보급 실적 (2011)

배포처		곳	질수		장르
도서관	작은도서관	234	234	194	A
				40	
대안학교·고등학교		57	57		A
					B
중학교		14	14		A
초등학교		42	42		C
보관 및 자체소요		4	15		A

배포처		곳	질수	장르	
마을도서관		332	332	306 26	A
기타신청단체		691	772	402 60 234 16	A B+C B C
자활기관		238	270		B
교정시설	교도소	51	68		B
	소년원	11	11		A
어린이 도서관		929	929	69 860	A C
아동복지연합회		211	211		A B C
합계		2,814	3200		

* A : 전장르(시+소설+수필+평론+아동문학) 총 1,000질
 * B : 전장르-(평론+아동문학)=시+소설+수필 총 1,000질
 * C : 아동문학 총 1,000질

아울러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과 연계한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여 문학 감상자들로 하여금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문학나눔 복권기금 선정 우수문학도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문학작품의 생산·유통·소비등 문학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문역량을 가진 문인들로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우수문학도서 모니터링 문학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급처의 우수문학도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시를 낫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수문학도서 보급처 청소년 및 일반 중고교(단체) 청소년들에게 시를 읽도록 유도하는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 개최하고, 문학나눔 홈페이지(www.for-munhak.or.kr)에 시인·작가들이 자신의 우수문학도서 속 시나 좋은 문장을 발췌하고 독자에게 편지를 쓰는 ‘행복한 문학편지’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 ‘문화멘토사업’으로 다양한 재능을 갖춘 군 장병들이 문화소의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에게는 새로운 교육·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2011년 문화멘토 사업의 성과는 참여 군부대 20곳 참여 방과 후 학교 79곳으로 총 1,050명이 수혜 받았다.

4) 전시나눔

공공박물관·미술관 거점으로 한 특별기획 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을 통한 소외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의 관람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이 기획한 특별전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기관 활성화를 돕고 문화소외계층들에게 무료 관람 기회 및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기존에 지역 권역별, 유물별, 주제별 등 공·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연합체(5개관 이상)가 기획한 공동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만 지원하던 사업의 형태에서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공동주제 하에 기획한 전시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을 추가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에 전년대비 2억원이 추가된 총 8억원이 지원되어 301,406명(전년도 대비 11.4%증가)이 수혜를 받았다. 1인당 수혜금액은 2,654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회비용은 420원 증가했으나 소외계층이 직접 수혜를 받는 개별사업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신규형태로 생기면서 질적인 만족도가 상승되었다. (전체만족도 '10년 83.7점 →'11년 85.4점)

● 표 2-3-21 ● 전시나눔: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단위 : 백만원/명/원)

연도	예산(비용)	사업성과(참여인원)	1인당 기회비용 (예산/참여인원)
2010	600	268,556	2,234
2011	800	301,406	2,654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용사업으로, 지역별, 유물별, 테마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에서 공통테마를 가질 수 있는 관들이 5개 이상 모여 한 장소에서 함께 전시하는 공동 전시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과 더불어 전시만 보는 간접경험에서 확대하여 소외계층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구성하였다.

2011년도에는 7개의 특별 전시프로그램으로 54개관에서 추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42개관에서 체험(42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표 2-3-22 ● 전시나눔: 참여기관 수 및 프로그램 건수 (2011)

성가지표	2010 성과	2011 성과	증가율
참여기관수(개관)	82	96	17%
프로그램 건수(건)	11	49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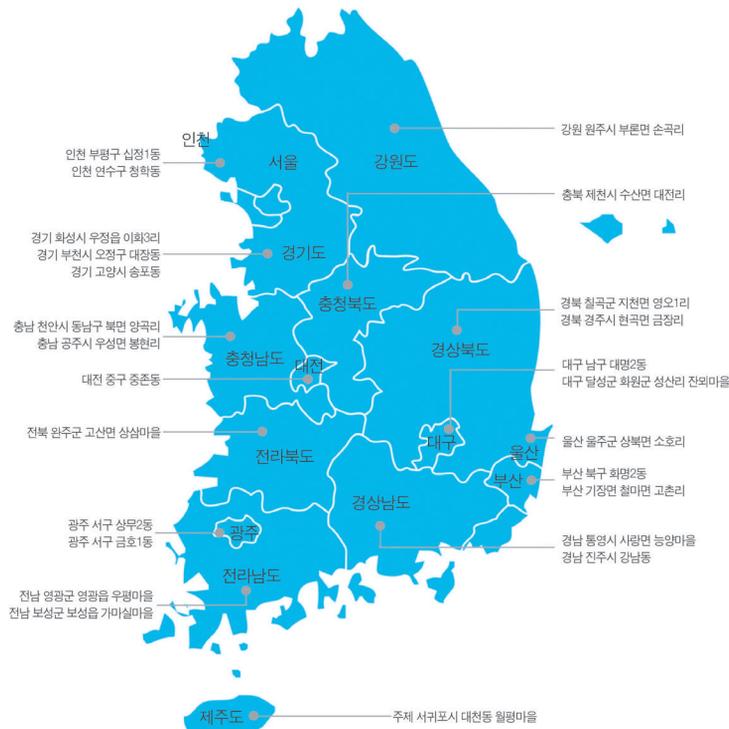
5) 창작나눔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 활동 형성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등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 경비를 지원한다.

2010년 19개 지역에 이어 2011년에는 25개 지역에서 실행된 각 시범사업에 대해 1개 지역 당 최대 3개년 연속 지원을 통해 주민 자생적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3개년 연속지원이라는 기조 속에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준비기-기반조성기-안정기로 진화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9.6억원(사업 당 3천만 원~6천만 원 이내), 평가연구 및 사업관리 등 2.4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총 28,600명(핵심주민 2,715명, 일반주민 24,575명, 문화예술 전문 인력 710명)이 혜택을 받았다.

● 그림 2-3-5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지원현황 (2011)



* 문화소외지역 25개 단체

수혜자 28,600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공동체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89.6점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 89.0점에서 0.6점 상승하였다.

(2)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은 2007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내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사업으로 문화나눔 추진단에서 시작하여 2010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현재의 사업명으로 별도로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과 표현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문화예술양극화를 해소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 제 3항 제 4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 사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창작여건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10년의 예산 4억원을 ’11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1개 단체 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였다. 수혜 예술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총 125개 단체가 신청하여 49개 단체(예술가)가 선정되었다.

● 표 2-3-23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 선정단체 수

(단위 : 건/천원)

신청단체 수	신청액	선정단체 수	선정액
125	2,901,782	49	1,000,000

2011년 추진한 49개 사업에 총 148,844명이 창작활동 또는 관람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대비 약 3배의 인원이 증가하였다. 2011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수혜자)의 만족도는 86.0점에서 88.2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 표 2-3-24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성과 (2011)

연도	지원건수	수혜자(관람객) 수
2010	37건	51,149명
2011	49건	148,88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예술단체들에게 본 사업 취지 및 추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신청 단체들이 지원 시부터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후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정산방법 및 필수 이용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2011년에 처음 도입된 문화바우처 카드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2년에는 카드발급 방식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수혜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할인서비스, 나눔티켓 등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카드 지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카드사업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획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바우처를 비롯한 공연나눔, 창작나눔 등 ‘문화나눔사업’의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 홍보 및 총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TV·신문·라디오 등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SM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나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적극 활용하여 외부재원 유치 및 지역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제4절 국어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국내외 언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어 정책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언어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외국어가 오남용 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언어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가 남용되는 등 국어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영어 조기교육 등으로 국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증대하면서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에게 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국내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원주의 언어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셋째, 국제화·정보화가 확산되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문화권과의 언어·문화교류 강화와 정보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문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어정책은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으로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1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표 2-4-1 ● 국어정책의 기본방향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국어 생활 속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어 정책의 주안점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어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국내의 여건은 그리 밝지 못하다.

첫째,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 일상화,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둘째, 공공언어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증가로 우리말 체계 왜곡 등 국어사용 환경이 악화되었다.

셋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언어소외계층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 중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대중가요(K-pop)·드라마와 같은 한류의 확산, 한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각국의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 등에 의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정부 및 학계의 각종 한글 및 국어 자료전산화 사업과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으로 국어문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정비 여건 조성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어사용 환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어문규범 보급을 통한 언어표준화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창조·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언어적 소외 계층의 탈소외계층화 복지 정책, 남북 언어 및 재외 동포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가 더욱 충실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성을 높여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외래어·전문용어를 다듬어 언어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넷째, 한류 및 경제 성장에 힘입은 한국어 위상 제고의 호기를 맞아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다섯째, 한글박물관 건립(2010년 5월 착공, 2014년 10월 개관 목표)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확산할 기반을 마련하며, 개방형지식대사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언어·지식 정보의 효율적 소통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용으로 국어의 전반적 진흥을 도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표준화 정책,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지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 또한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위하여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신설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현재 38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어책임관(중앙행정기관 44명,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92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6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231명)이 지정되었다.

● 표 2-4-2 ●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1.12월 기준)

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383명	44명	92명	16명	231명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①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등이다.

국어책임관은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공문서 바로 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 교육 과정 개설 운영, 자치법규 등 행정용어 순화, 지역민 대상 한글홍보 및 한글단체 활동 지원,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지역어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어 발전 및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상담을 담당하는 11개의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28일 같은 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2012년 현재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총 18개소의 국어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국어문화원(18개소) : 서울(3), 경기(1), 충청(4), 경상(5), 전라(2), 강원(1), 제주(1)

국어문화원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어 상담, 국어 위탁 교육, 언어 실태 조사, 언어 환경 개선, 각종 한글 관련 행사(글쓰기, 말하기, 우리말 겨루기), 국어콘텐츠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어문화 향상 프로그램 개발, 국어문화원 백서 및 운영 지침 발간, 문화원장 연수회,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사회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다양화로 인한 소통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의 무분별한 언어사용 및 공공기관의 한국어 사용 미숙으로 국어사용 환경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화·문화다양화에 따라 전통생활문화, 정신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활용 요구 증대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한글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및 한글의 가치 확산 방안으로 세종학당의 확산을 본격화하고, 한글박물관 착공 및 자료수집을 시작 및 한글주간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원활한 국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정책을 추진함에 제도적 토대 구축하고 있다.

2) 한글의 가치 확산

(1)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학당’ 확산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하여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계획하에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언어 권역 확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표 2-4-3 ●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명	주요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 보급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국립국어원	-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표준교재 및 보조자료 개발 : 다문화 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세계화재단	- 누리 세종학당 운영기반 구축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부여(근거: 「국어기본법」) : 국외 한국어 교사 재교육

해외 한국어 교육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을 통해 각각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편중 및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어 보급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보급하고,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한국어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2-4-4 ● 부처 간 협의 경과

- ▶ '08.10. 7 : 국무회의 시 “한글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대통령 보고
- ▶ '09. 1. 3 : 7개 부처 합동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총리보고
 - ☞ “……문화부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활용하여 대외적 통합 이미지 창출”
 - ☞ 8개 추진과제(문화부 주관), 7개 과제 협조부처로 선정
- ▶ '09. 3.17 : 국가브랜드위 우선 추진 10대 과제로 선정 대통령 보고
- ▶ '09. 6.24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글의 보편성 및 경쟁력 제고방안” 대통령 보고
 - ☞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일, 한국어 학습수요 급증지역 세종학당 신설
- ▶ '09. 7.22 : 국가브랜드위 “한국어 보급기관 공동브랜드 전략” 대통령 보고
 - ☞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의 ‘한국어강좌’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일
 - ☞ 세종학당본부(Head quarter) 설립 및 운영
- ▶ '10. 9~11 : 재외 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세종학당'으로 인증
 - ☞ 해외 한국문화원, 대학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한국어 기관이나 강좌는 '세종학당'으로 통칭
- ▶ '12. 2. 13 : 한국어 교육 통합 관련 관계 부처 회의
 - ☞ 기존 문화원, 교육원 내 한국어 강좌는 세종학당으로 하고, 모두 세종학당재단이 관할(문화부·교과부·기재부)

세종학당은 2009년 6개국 17개소에서 2010년 12개국 23개소, 2011년 31개국 6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로 모두 세종학당으로 통합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하고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국어교육 대표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운영한다. 세종학당 운영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과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9년 10월 9일을 기점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단계적 언어 확대에 따라 현재 총 8개국어(한, 영, 중, 베, 타, 몽, 인니, 리)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교원들은 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누리-세종학당은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게 온라인 교원 양성과정 제공함으로써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교원자격제도 및 교원 연수사업 운영

2005년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2006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가 실시되었는데 2011년의 경우 12월 말 기준 총 6,828명(1급 65명, 2급 3,320명, 3급 3,443명)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2009년 10월부터 전 세계에 한국어를 알리고 그 교육에 힘쓰는 교원 및 전문가를 초청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국외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매년 국외의 8개 내외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과 현지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09년 <한국어 교육 진흥 중기사업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비전 아래 한국어 교육 이론 연구 및 개발,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어 교육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세종학당 교원을 비롯한 국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어 교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3) 한글박물관 착공 및 자료 수집

한글의 창제는 우리 겨레의 역사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글 창제 이후의 기록물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며 관련된 유산의 결집과 역사의 원표(元標)로서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즉 한글박물관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우고 위대한 새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국가 번영의 미래 비전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글박물관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2011년 1월 건축·전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에 쌍용건설이 건축 시공사로 선정, 7월 13일에는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세계화를 견인해 나갈 한글박물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11,322㎡(3,4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면적 4,200㎡(1,273평, 상설·기획전시실·체험·교육·연구 공간 등)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11년은 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착공 및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현재 건립 공사는 공정률 17%를 달성하였으며, 한글 자료는 약 2,300여 점이 수집되었다. 건축 및 전시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4-5 ● 건축 계획

구분	면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3,684㎡	주차장, 시청각실, 창고, 전기실, 기계실
1층	2,838㎡	강의실(2개), 세미나실, 사무실, 수장고, 정보검색공간
2층	2,191㎡	상설전시실, 카페테리아, 한글상품판매점
3층	2,609㎡	기획전시실, 교육체험실, 준비실, 수유실

● 표 2-4-6 ● 전시공간구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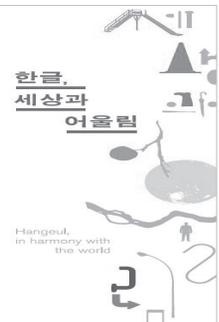
전시 주제	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한글누리
	한글을 만든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한다		
내용	한글이 없던 시대 ☞ 한글 이전의 문자	교육 ☞ 교육/보급/사전 자료	위기를 이겨낸 한글 ☞ 한글 운동 등 소개	한글과 세계문자 ☞ 세계문자와 비교	한글 관련 자료 검색 및 정보 공유
	한글 연표 ☞ 모형으로 구현	생활 ☞ 의식주/편지 자료	한글의 오늘 ☞ 남북한 언어표기 등		
	해례본 전시 ☞ 훈민정음 상징 영상	예술 ☞ 가락/연희/문학 자료	한글의 미래와 과제	창제의 방 ☞ 한글원리 교육	
	훈민정음의 원리	인쇄문화 ☞ 인쇄/기계화 자료 등	세상의 소리를 담은 한글	창작의 방 ☞ 한글원리 응용	

한글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유물 중심의 전시를 넘어 한글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4) 한글주간 운영

그동안 한글날 전후로 산발적으로 행해진 기념행사를 집약적으로 모아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8년 한글날 기념식과는 별도로 한글날 전후 일주일을 한글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연, 전시, 체험 및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한글유공자 등 포상, 세종문화상 시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지원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하였으며, 지자체, 전국 국어문화원 및 한글 관련 단체에서도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 표 2-4-7 ● 역대 한글 주간 개요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간/장소	10. 4 ~ 10. 11. 경복궁 수정전 및 일원	10. 6. ~ 10. 12.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올림픽파크텔	10. 4. ~10. 10. 광화문, 전국 일대	10. 3. ~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주제	한글, 피어나다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한글, 세상과 어울림	한글로 통하다
핵심 가치	문화 창조 의 힘	글꼴의 조형미	소통과 조화	한글의 세계화, 나눔과 통합
의미	한글이 민족 최대 문화 창조물임을 인식, 한글의 창조적 힘을 통해 새로운 꿈을 피어내기를 염원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디자인과 예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조명함.	다양한 세계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다문화 시대, 우리말글을 매개로 각계각층의 소통과 어울림의 가치를 되새김.	한글로 세계를 향하고 한글로 하나가 되며,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
대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주간 선포식 ■ 한글 스승전 *한글순회전(일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공간전 *체험, 축제의 장 마련 UCC공모, 아름다운 한글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한국어 교육자 대회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꼴 공모 · 초대전 ■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 마당) *제1회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는 살아 있다’ 전시 *세계문자의 변천사, 문자 체험 ■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 마당)
예산	730백만 원	1,234백만 원	1,000백만 원	782백만 원
디자인				

3)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 국어정책 수립 기반 조성

국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에 규정된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국어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와 국어 의식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어 사용 환경 조사는 계층별, 직업군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결과를 소개하면, 국어 능력 조사는 2008년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년 후인 2013년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 국어 의식 조사는 2005년과 2010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외 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한국어 능력, 한국어에 대한 의식, 한국어 사용 환경 등)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한 5개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 재중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의 언어 관련 각종 통계 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의 국어 정책 통계 조사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2011년에는 국민들이 통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국어 정책 통계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 언어생활 기준 마련

국민의 국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어문 규범을 연구·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언론외래어심의 공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용례를 구축(‘10년 36,000항목, ’11년 20,000항목 구축)하고 구축된 용례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 보급하고 있다.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어문 규범(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22일에는 복수 표준어 39개 항목을 인정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의 부록인 ‘문장 부호’를 보완한 “문장 부호 지침서(안)”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확정된 “문장 부호 지침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의 주요 인·지명 표기를 2009년부터 매년 20,000여 건 구축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대회에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 용례도 수시로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3)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먼저 시각 장애인의 경우 2008년 인터넷 점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이 점자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는 온라인 점자 강의(한글)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2010년에는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 자료 점역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약점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과학·컴퓨터)를 개발하였고 점자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부호 및 특수 문자의 유니코드 점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인 ‘점사랑’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였으며 점역·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청각 장애인의 경우 2007년에 이어 2011년까지 꾸준히 <한국 수화>를 발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이를 토대로 교육방송(EBS)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2010년에는 수화 사전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정규 학교에서 쓰여야 할 국어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를 추진하여 해당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다. 2011년에는 일상생활 수화 및 경제 용어의 수화를 표준화하여 해당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다.

● 표 2-4-8 ● 시청각장애인용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 (2008-2011)

시각장애인	2008년	- 온라인 점자 학습 체계 구축(한글 점자 동영상 제작)
	2009년	- 온라인 통합 점자 학습 사이트(점자세상) 운영
	2010년	- 시각자료 점역 지침 및 약점자 효율화 연구
	2011년	-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과학·컴퓨터 점자) 개발 - 점자 콜센터 운영 - 유니코드 점자(부호 및 특수 문자) 규정 마련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점사랑) 개선 - 점역·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 개발
청각장애인	2008년	- <한국 수화(제2권)>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의료 수화, 정보통신 수화)>발간 - 한국 수화 연수, 한국 수화를 통한 한국어 문장 지도 방법 개발
	2009년	- <한국 수화(제3권)>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가톨릭, 기독교, 불교 수화)>발간 - 표준한국수화(초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 -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 개발(10,000)단어
	2010년	- <한국 수화(제4권)>발간 - 국어 교과용어용 수화 사전 출간 - 한국 수화 사전 스마트폰용 앱 개발
	2011년	- <한국 수화(제5권)>발간 - <일상생활 수화 (4) 표준화 연구>발간 - <경제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발간

4)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1)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가칭) 편찬

2009년 ‘쉽고 살아있는 사전 편찬’ 계획이 대통령 보고된 이후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구축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되었다. 2009년 국립국어원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의 회의를 개최(‘09.8.26~’11.2.25)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전편찬추진위원회 실무 소위원회를 6회 개최(‘09. 9.17~’11.3.30)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 보완하였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기존 사전의 풀이가 어렵고 기존 사전에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정보가 다수 누락되어 있으며 정보·지식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풀이를 쉽게 수정하고 신어 및 생활용어, 방언, 전문용어 등 실생활 용어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키피디아 사전처럼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 만들어 일반 국민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등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5만 항목 규모의 한국어 학습용 기초사전을 만들고 이를 5개 언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외국어 사전 형태의 다국어사전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항목도 활용하되 기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개방형 사전을 만든다는 전략으로 기획되었다.

● 표 2-4-9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현황 및 추진계획 (2011)

현황	추진 계획
한정된 표준어, 규범 정보 중심	모든 (한)국어 정보의 수집, 축적
실생활 언어 정보 미흡	신어, 방언, 전문어 대폭 확충(구 단위 형태 포함)
폐쇄적 사전 편찬 체제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국가 언어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인터넷 사전 등에 미검증 언어 정보 난립	자료 검증단 구축, 운영
한국어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구축
사전 구조의 표준화 미비	외국 유명 사전들과 비슷한 국제 표준 규격 준수, 설계
전문어 설명, 맞춤법 설명 등의 언어와 관련된 부가적인 지식 정보 부족	언어 지식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 지향

2010년~2011년에는 총 58.3억원('10년:18.3억 원, '11년: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국어와 한국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수집, 구축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한국어 지식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용화, 상용화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외국인 등을 위한 다국어사전 개발로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촉진시키며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한국어 지식 콘텐츠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표 2-4-10 ● 2010년~2011년 추진실적

분야	추진 내용	소요 예산 (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어/신어/방언/전문용어 연구진 선정(공모) - 생활용어/신어/방언 지침 및 105,000항목 구축 - 어휘 역사 정보 4,000항목 구축 - 전문용어 지침 및 119,000항목 구축 - 쉬운 풀이 및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 	2,323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지식 관리 체계 용역 사업자 선정(공모) - 개방형 사전 설계, 서비스 정책 수립 - 어휘 수집, 분석, 등록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찬 관리, 검색, 유통 시스템 구축 	1,651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국어사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연구진 선정(공모) - 기초 어휘 50,000항목 선정 및 43,000항목 구축 - 5개 언어 다국어사전 156,000항목 구축 - 다국어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3개 언어) 	1,859

(2) 국어 및 한글 문화유산의 집대성을 통한 정보화 및 체계화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구축, 운영 사업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문헌 통합 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전 국역 결과를 중심으로 옛 문헌 한자어 메뉴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는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여 옛 문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게임으로 우리말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깨비 대왕과 한글 수비대’라는 한글 학습용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여 8~10세 어린이들이 한글 및 국어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어 또는 한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정비하기 위한 국어사전 편찬

사업과 언어 정보 자원 관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온라인 디지털 사전의 형태로 공개하였고, 2010년부터는 표준어 이외의 신어 및 생활용어, 방언, 전문용어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편집도 할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하여 5만 항목 규모의 한국어 학습용 기초사전을 만들고 있고 이를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5개국어로 번역하여 다국어사전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 마무리된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구축한 성과물의 활용도와 응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어 정보화 사업의 2차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5)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이 국어 관련 강의를 통해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등을 익히게 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하였다. 또 원내 국어전문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였다. 2011년의 성과를 보면 국어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약 4,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서도 3만여 명이 수료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스비에스 방송국(SBS), 강서교육청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운영하면서, 약 3,8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우리의 어문규범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 학습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2012년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앞두고 2011년까지 생활 속 어문 규범 등 한국어의 4대 어문 규정 관련 강좌와 훈민정음의 이해, 공문서 바로 쓰기 등 11개 강좌를 개발하였다. 일반 국민 외에도 소외계층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 교재 개발 기초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 학습용 교재를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욕설 문화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을 기점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고운 입, 미운

말'을 제작·방영하였고 디브이디(DVD)로 만들어 전국각급학교에 보급하였다. 또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로서 소책자 형태의 교육용 자료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을 만들어 역시 전국각급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대상으로 우리말 사랑 캠프를 개최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고운 입, 미운 말'을 제작·방영하였고 디브이디(DVD)로 만들어 전국각급학교에 보급하였다. 또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로서 소책자 형태의 교육용 자료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을 만들어 역시 전국각급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대상으로 우리말 사랑 캠프를 개최하였다.

(2) 공공언어 개선 지원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할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 즉 공공언어가 아직 난해하고 낮은 한자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행정, 방송, 교과서 및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국어원, 문화부, 국민신문고에서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국어 관련 업무(민원 1,285건, 상담전화 52,000건)를 처리하였고 온라인 상담자료를 정리하여 네이버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용어 및 문장 감수 등 150여 건을 수행하였고, 행정용어 순화를 수시 지원하는 등 공공언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간(11. 4~9월) 방송언어 및 신문언어의 '신문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11)'를 시행하여 매체 언어를 개선하였고, 제6회 국립국어원과 SBS의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방송언어의 공공성을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교과서 표기·표현을 전문 감수하고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최근 자주 쓰이는 외국어나 외국어 수준의 외래어 중 국민의 언어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어휘를 대상으로 누리꾼의 제안을 고려하여 순화대상어를 선정하고, 순화어 선정 기준(개념 환기력, 간결성, 조어 방식의 적절성 등)을 마련하여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0개의 어휘를 순화하였다. 이를 연합뉴스, 동아일보사, 종합정보누리집(포털사이트)에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가 날로 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의식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언어를 개선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청소년 언어개선 동영상 공모전' 및 '우리말 사랑 캠프'를 개최하였고, 한글날 기획 특집으로 '고운입, 미운말'을 제작 및 방영하였으며 이를 DVD에 담아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배포하였다.

(3) 공공언어 품질 향상 지원 체계 구축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가 국민을 상대로 구사하는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담당케 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우리 언어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기안문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를 발간하여 보급하였고('09), 2010년에는 공공기관별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언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인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이 지표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언어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남용이나 부적절한 표현(뜻이 부적절한 어휘 선택, 차별적 표현의 구사, 번역투 문장 등)을 교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보도자료 쓰기 길잡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40여 명의 국어 전문 감수단이 200자 원고지 약 3만 매 분량의 각종 공문서를 감수하였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언론의 우리말도 정책과제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연 6회 개최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락, 드라마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언어를 점검하여 개선점을 찾아내고, 과도한 비속어나 차별적·폭력적 표현의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언어 개선 사업을 매년 지속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가나다 전화' 및 '온라인 가나다'를 운영하여 매년 평균 전화 상담 약 4만 건, 인터넷 상담(게시판, 트위터) 약 2만 4천 건의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가 출간('11)되었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1) 국어 사용 환경의 변화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언어에서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증가로 우리말 체계 왜곡 등으로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더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언어소외계층이 급속하게 늘어 있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한류 확산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 등에 의한 한국어 학습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2) 대응 계획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 증진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을 위한 한국어 보급 확대와 우리말의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어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문규범 보급을 통한 언어 표준화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창조·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남북 언어 및 국외 동포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가 더욱 충실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외래어·전문용어를 다듬어 언어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한류 및 경제성장에 힘입은 한국어 위상 제고의 호기를 맞아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용으로 국어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5절 지역민족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등 사회 환경 변화로 국민의 문화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수준 및 국민의 문화향수 수준에서 선진국과의 격차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장기적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지역문화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친환경,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한지, 한식과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자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우리 전통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이 민족문화정책의 목표이다. 이와 더불어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발전·계승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자 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과제로 수요측면에서 생활권 단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을 갖추고자 추진한 대표적인 주요정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지역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자료로 ‘지역문화 통계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문화체육관광부문의 예산, 시설, 관련 산업 현황을 시군구 단위로 집계·분석되어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었다.

둘째,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지역거점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광역권별 특성과 국가적

파급효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경주, 전주와 공주·부여에 각각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공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넷째,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문화 행정가와 민간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관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현대적 재창조를 시도하고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민족문화정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왔다.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던 민족문화정책은 2011년 6월 직제개편(2011. 6.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의 삶 속에 전통·민족문화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과로 이관되었다. 즉, 국어민족문화과를 국어정책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과를 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전통·민족문화를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한스타일 사업,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동상·영정 심의위원회 운영, 한국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동화농민혁명의 재평가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특히 일상의 삶 속에 민족문화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형 콘텐츠 홍보 강화 및 스토리테마파크 구축과 같이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국민이 민족문화 원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에 우리 민족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1)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가.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자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별 운영현황은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시설개소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록된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10. 12. 31 이다.

- 공공도서관 : 시설규모, 자료현황,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 등록박물관 : 등록자료, 소장자료, 관람료, 관람시간, 편의시설 등
- 등록미술관 : 등록자료, 소장자료, 관람료, 관람시간, 편의시설 등
- 문예회관 :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관람자 수 포함 운영실적 등
- 지방문화원 : 시설규모,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 문화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3개 시·도에 문화시설의 35.6%가 분포

● 표 2-5-1 ●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개소)

구분	시·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1	서울	278	101	105	32	15	25
	부산	66	30	12	4	7	13
	대구	53	26	9	2	8	8
	인천	66	26	22	5	5	8
	광주	41	16	8	6	6	5
	대전	48	22	15	4	2	5
	울산	26	11	7		3	5
	경기	360	163	109	31	26	31
	강원	156	47	66	8	17	18
	충북	101	32	39	6	12	12
	충남	129	51	40	6	15	17
	전북	109	45	30	3	17	14
	전남	142	57	35	12	16	22
	경북	167	58	57	6	23	23
	경남	147	53	50	7	17	20
	제주	90	21	51	13	3	2
		총계	1,979	759	655	145	192
지역2	수도권	704(35.6%)	290	236	68	46	64
	지방	1,275(64.4%)	469	419	77	146	164
	계	1,979(100%)	759	655	145	192	228

나. 지역문화 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의 핵심기반으로 인력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활동여건과 재교육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지역문화 행정인력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지역문화 기획·창작 분야 민간 활동가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행정가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인력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인력양성 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문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국내 연수와 해외 연수로 이분화하여 연수과정의 효과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예비인력 양성과정, 지역화 공간포럼 크게 3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367명이 수료·참여하였다. 전문가 양성과정으로는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국내연수자 중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독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예비인력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 공감포럼을 3회 운영하였다.

국내·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하여 관련 종사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기획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 표 2-5-2 ● 지역문화 아카데미 추진실적 (2011)

구분	운영실적	연수		연수명	기간	장소
2011	367명	전문가 양성 과정	국내연수	○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국내연수 (활동가, 행정가, 공공기관 종사자 통합 운영)	‘11.6.13~17	강화도
				○ 지역문화 국내연수 수료자 대상 ‘지역문화CoP’ 운영	‘11.9~12	서울 등
			국외연수	○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국외연수	‘11.8.28~9.2	독일
		예비 인력 양성 과정	활동과제	○ 블로그포스팅 : 98회 ○ 네이버오픈캐스트 발행 : 7회 (2주 1회 발행)	‘11.6~9	서울 등
			교육과정	○ 워크숍 등 교육과정 총 4회 운영	‘11.6~9	서울 등
	지역문화 공감포럼		○ 지역문화 공감포럼 총 3회 운영	‘11.6~9	서울	

또한 농어촌 마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산어촌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농어촌마을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자 2010년부터 ‘문화이모작-농어촌마을문화심기’사업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MOU 체결(2010.5.6) 하여 농산어촌 마을 대상으로 농어촌 문화리더과정, 문화이모작 시범마을(강진, 영덕), 문화 배달부활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 인력 양성 사업에 초점을 맞춰 농어촌문화리더 양성과정, 농어촌문화매개 인력양성과정, 문화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인력양성과정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동 사업은 기초과정을 지역 거점별 제주, 진안, 원주, 포천, 구례 5개 권역별로 실시하여 하였으며, 이중 우수 수료자를 선발하여 심화과정인 ‘농어촌문화매개 인력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심화과정 우수 기획안을 대상으로 지역마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기획 사업을 지원하였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농어촌 지역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이 보유한 인력과 문화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문화인력 양성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표 2-5-3 ● 문화이모작 운영실적 (2011)

사업명	운영실적	기간	장소	비고
농어촌문화리더 양성과정	기초교육과정, 202명 수료	2011.6~7	제주,진안, 원주, 포천, 구례	-
농어촌문화매개인력 양성과정	심화교육과정, 119명 수료	2011.9.20~9.22	제천	-
문화이모작 지원사업	10개마을 선정 컨설팅 및 평가(지역문화인력 활용)	2011.11~2012.2	10개 지역	-
문화이모작 지원사업	10개마을 선정(컨설팅 및 평가 병행) * 지역 : 제주 표선면, 전북 진안군, 충북 수안보면, 경기 이천, 전남 고흥군, 전북 진안군, 충북 보은군,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양평군, 전남 화순군	2011.11~2012.2	10개지역	-

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톨 개발 등을 컨설팅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평가라는 상향식(Bottom-up) 사업절차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진흥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05년 14개 사업 5억 원, 2006년 16개 사업 5억 원, 2007년 20개 사업 4억 8천만 원, 2008년 16개 사업 4억 3천만 원, 2009년 17개 사업 4억 7천만 원, 2010년에는 15개 사업, 4억 4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 평가 결과, 우수 컨설팅 사업 2개를 선정하여 활용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간 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지역별 실수요를 토대로 지역대학·지역문화예술전문가·지자체 공무원이 컨설팅 팀을 운영하여 1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문화정책개발, 문화시설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수행하였으며, 추진 실적에 따라서 2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목원대학교)의 ‘대전의 근대사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과 전북 전주시(전북대학교)의 ‘한옥마을 선비의 길 스토리텔링 개발’이 선정되었다. 지역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대학, 문화예술가(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표 2-5-4 ●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1)

년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규모	83개	14개	16개	20개	16개	17개	15개	14개
예산(백만원)	2,386	499	500	481	433	473	448	430

라. 지방문화원 : 지역거점의 역할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의 향토사대중화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등 지방문화원 종사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1년 말 현재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다음 <표 2-5-5>와 같다.

● 표 2-5-5 ●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2011년 12월 기준)

지역	문화원명
서울(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구로, 서초
부산(14)	동래, 북구, 금정, 강서, 연제, 사상, 기장, 부산진, 남구, 수영, 동구, 서구, 영도, 사하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 달성, 수성
인천(8)	중구, 연수, 부평, 서구, 강화, 남구, 남동, 계양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울주, 북구
경기(31)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강원(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12)	충주,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충남(17)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아우내, 성환
전북(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2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2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2)	제주, 서귀포
계(229)	

● 표 2-5-6 ●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4-2010)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2004 (국고)	시설비	문화원 17	1,000,000	17개원(중구, 용산, 성동, 청원, 진천, 장흥, 상주, 부산진, 유성, 홍천, 청양, 홍성, 고창, 안동, 김천, 창녕, 진해)
	계		6,906,500	
2005 (국고)	시설비	문화원 4	480,000	4개원(홍천, 춘천, 고성, 사천)
	계		480,000	
2006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1,819,000	12개원(춘천, 속초, 철원, 제천, 옥천, 음성, 천안, 여수, 울진, 함안, 고성, 거창)
	계		1,819,000	
2007 (국고)	시설비	문화원 16	2,899,000	16개원(안양, 삼척, 영동, 서천, 청양, 여수, 구례, 보성, 영암, 곡성, 진도, 성주, 영주, 함안, 거창, 진해)
	계		2,899,000	
2008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109,000	12개원(대전 중구·유성, 삼척, 보은, 광양, 담양, 보성, 곡성, 영천, 울릉, 거창, 양산, 창원)
	계		4,109,000	
2009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298,000	12개원(대구 달서, 대전 서구, 군포, 하남, 고양, 춘천, 대전, 보성, 경산, 창원, 양산, 거창)
	계		4,298,000	
2010 (국고)	시설비	문화원 10	5,056,000	10개원(대전 서구, 군포, 고양, 의정부, 삼척, 보령, 영양, 영덕, 사천, 합천)
	계		5,056,000	
2011 (국고)	시설비	문화원 13	6,661,000	13개원(고양, 의정부, 양평, 동해, 영월, 옥천, 영동, 증평, 군산, 영양, 창원, 통영, 합천)
	계		6,661,000	

* 현재 문화원 시설비 국고 보조율 40%임(부지매입비 제외)

향토사는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다. 향토사의 올바른 발굴과 연구, 학습이 있어야만 전통문화의 올바른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계승·보존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통해 2007년부터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 11개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 28개 프로그램, 2009년도 46개 프로그램, 2010년과 2011년도에는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실버문화학교)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 지향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도 51개 프로그램, 2007년도 76개 프로그램, 2008년도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9년도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하여 137개 프로그램을 운영, 2010년도에는 18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표 2-5-7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운영실적 (2005-2011)

년 도	기 간	실시 문화원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2005	2005. 10 ~ 2006. 2	10개 문화원	10개 시범 프로그램	364명
2006	2006. 5 ~ 2007. 1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	1,723명
2007	2007. 4 ~ 2007. 12	76개 문화원	76개 프로그램	2,593명
2008	2008. 4 ~ 2008. 12	100개 문화원	100개 프로그램	3,515명
2009	2009. 4 ~ 2009. 12	137개 문화원	137개 프로그램	4,740명
2010	2010. 5 ~ 2010. 12	134개 문화원	183개 프로그램	5,841명
2011	2011. 3 ~ 2011. 12	149개 문화원	202개 프로그램	7,037명

*2009년부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 표 2-5-8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 (2009-2011)

연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총계
		전문 강사	어르신 이수자				
2009	137개	-	-	-	-	-	137개
2010	103개	15개	16개	41개	8개	-	183개
2011	101개	20개	9개	42개	13개	17개	202개

전국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경영과정(초·중·고급과정)’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장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단계별 교육목표 및 대상이 명확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문화원 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원간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직급별(원장, 국장)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마.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 지원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50개관), 박물관(18개관), 미술관(10개관), 문예회관(17개관)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 시켰다. 또한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 문화시설의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온 결과를 반영하듯 지역 공공문화시설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지적받아왔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도 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514개로 지자체별 평균 6.6개, 인구 10만 명당 평균 7.16개가 건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사립시설까지 포함하면 지자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979개로 지자체별 평균은 8.9개였다.

● 표 2-5-9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총계	1,514	740	319	35	192	229
평균	6.6	3.2	1.4	0.2	0.8	1.0
최대값*	23	13	10	2	5	3
	창원시	창원시	부천시	대전서구,안산,창원	전주시	천안시

* 제주도를 제외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값임

● 표 2-5-10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만인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평균	7.16	2.71	1.82	0.14	1.00	1.00

공공문화시설 1관 당 평균 인구는 도서관이 65,649명, 박물관·미술관이 137,232명(사립 포함 시 6만 명 수준), 문예회관이 253,022명 수준으로 나타나 박물관·미술관 시설 수(사립포함)는 선진국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를 비교했을 경우, 광역시 소재

구가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군단위 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군단위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2-5-11 ● 인구 규모별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 (시군구)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전국	65,649	137,232*	253,022
시	50만 이하	51,613	107,411	202,078
	50만 ~100만	86,025	195,708	434,906
	100만 이상	81,921	266,242	532,484
	전체	62,876	137,615	270,134
군	3만 이하	15,410	14,476	34,122
	3만~5만	23,285	30,853	56,097
	5만 이상	36,628	57,790	92,878
	전체	27,822	36,546	67,381
구	50만 이하	99,265	340,615	445,419
	50만 이상	109,360	747,296	896,755
	전체	101,181	383,423	496,707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근인력 중에서 전문직이 전체의 약40%로 시설 당 전문 인력 수는 4.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기획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박물관 71.3건, 문예회관 40.2건, 문화원 26.3건, 도서관16.4건, 미술관은 6.1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 당 평균 이용자 수는 연간 평균 119.5천명이며, 도서관 148.2천명, 박물관 131.5천명, 문예회관 80.0천명, 문화원 56.4천명, 미술관 52.0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문화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설·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설별 우수, 실패사례 및 지자체 평균시설규모 등의 제시를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관리·제어·환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바.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시설의 이용률 제고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전국으로 보급하였으며, 프로그램 교환, 공동개발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둘째, 문화 분야 BTL사업을 개선 추진하였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분야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민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수한 공공서비스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으로 2011년까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32개 사업(7,615억원)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추진된 10개 사업, 2006년 학교복합화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 모두 준공되어 운영중이며, 2007년에는 부산화명·다대도서관, 개봉초등학교복합화 시설 3개소가 준공 및 운영 되었고,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천안종합문예회관 2개 사업은 공사 중이다. 2008년 6개 추진사업 중 학교복합화 3개소가 준공 및 운영 되었고, 익산 복합문화센터는 협상 완료되었으며, 그 외 2개시설이 협상진행 중으로 2012년에 협상완료 될 예정이다. 2010년 한도액 의결된 2011년 추진사업인 정관도서관등 2개 사업은 2011년 말에 고시완료 하였다.

사업추진 최초 단계(한도액 반영)부터 콘텐츠 확보, 규모의 적정성, 활용가능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등 심의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 하고, 문화시설의 경우 신설보다는 기존시설 리모델링, 유휴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및 추진 단계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신설보다는 기존시설 리모델링, 유휴시설 개보수 유도 등을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할 예정이다.

● 표 2-5-12 ●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 (2005-2011)

(단위 : 억원, 2011년 12월 말 기준)

연 도	사 업 명	투자액/고시액/한도액	고시완료	협약완료	착공	준공
2005	부평문예회관	393	●	●	●	●
	대구시립미술관	557	●	●	●	●
	제주도립미술관	182	●	●	●	●
	인천시립도서관 (미추홀도서관)	215	●	●	●	●
	파주교하도서관	112	●	●	●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490	●	●	●	●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196	●	●	●	●
	경주문화예술회관	686	●	●	●	●
	안동문화예술회관	496	●	●	●	●
	제주종합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9	●	●	●	●

연 도	사 업 명	투자액/고시액/한도액	고시완료	협약완료	착공	준공
2006	울산시립박물관	473	●	●	●	●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148	●	●	●	●
	천안북부도서관 (두정도서관)	136	●	●	●	●
	천안생활체육공원	120	●	●	●	●
	계룡복합문예회관	208	●	●	●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10	●	●	●	●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168	●	●	●	●
	신도림고등학교 복합화	30	●	●	●	●
중리초등학교복합화	51	●	●	●	●	
2007	부산화명/다대도서관 (2개소)	115	●	●	●	●
	아산실내생활체육관	240	●	●	●	
	천안종합문예회관	620	●	●	●	
개봉초등학교 복합화	15	●	●	●	●	
200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31	●			
	의왕문화예술회관	425	●			
	익산복합문화센터	336	●	●		
	엄궁초등학교복합화	17	●	●	●	●
	신전중학교복합화	43	●	●	●	●
	사남초등학교복합화	19	●	●	●	●
2011	정관도서관	101	●			
	시흥시복합커뮤니티센터	423	●			
계	32개소	7,615				

사.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다.(‘12.4월)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립·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인구규모, 인구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현황을 감안한 건립 △문화시설 설계 시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양·디자인 반영 △건립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다.

문화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 기존시설의 용도전환, 연계 및 재활용을 통한 신규시설 투자 억제 및 운영활성화 모색 △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문화시설의 대외 홍보강화 △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 및 자체점검 평가의 시행 등이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우수, 실패사례 및 지자체 평균시설규모 등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관리·제어·환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2) 지역문화브랜드 육성

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전통시장이 단순한 유통과 구매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소중한 생활문화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곧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공간이 퇴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전략을 2008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선정,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 되도록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작이다.

● 그림 2-5-1 ● 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방향



● 표 2-5-13 ● 수원 못골시장·강릉 주문진 시장 문화 프로그램

수원 못골시장	강릉 주문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스타 (스토리텔링, 온에어, 미디어 등) ○ 경제학교, 만원으로 만드는 요리교실 등) ○ 5村1場축제, 이야기 상점 87, 못골휴식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 풍어제, 상인극단, 옥상극장 ○ 상인, 주민, 고객 대상 교육프로그램 ○ 홍보마케팅, 주문진의 맛과 멋 등

‘08년 첫 시범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선(先) 맞춤형 컨설팅, 후(後) 사업추진』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컨설팅단은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정책방향 자문, 시범시장 선정, 사업진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8년 2개의 시범시장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09년 서울 강북 수유마을시장, 전남 목포자유시장, 충남 서천 한산오일장, 대구 중구 방천시장 등 4개 시장을, ‘10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0개 시장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청과 ‘09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년 2개 시장을 공동으로 선정·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시장 뿐 아니라 오일장, 아트마켓, 시장문화 공동체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여 9개 신규 시장을 선정하고, 총 22개 시장을 지원하였다.

● 표 2-5-14 ● 연도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지원 시장 수	신규	2개	4개	10개	9개	25개
	계속	-	2개	6개	13개	-
	계	2개	6개	16개	22개	25개(누적46)
지원 예산		10억	12억	38억	35.85억	95.85억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 유형별 성공적인 모델사례를 분석하여 추진과정과 장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장에 문화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국내외 시장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다른 “사람냄새”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정책모델이 발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문화의 달 행사 개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그 기간 중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러져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느끼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종합 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2004년 광주, 2005년 전주, 2006년 제주, 2007년 부산, 2008년 청주, 2009년 인천, 2010년 목포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공감의 문화, 신명의 땅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의 달을 계기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함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적 면모를 보여 주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2011년 지역특화 문화행사로는 영월 단종문화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계룡 軍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였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단종문화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릉에 제향을 올리는 행사로 제례와 놀이, 굿이 갖추어진 전통문화 축제로 가치를 높이고, 2007년 단종 승하 550년 만에 거행한 단종 국장(國葬)을 단종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장(國葬) 재현’ 행사로 특성화하였다. 2011년 행사는 4월 29일(금)에서 5월 1일(일)까지 장릉, 청령포 등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종제향, 3층신추모제, 단종국장(견전의, 발인행렬, 노제의, 천전의) 등 총 6개 분야 73개 행사를 추진하였다.

1998년 처음 시작되어 2011년 제6회를 맞이한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천년의 이야기 - 사랑, 빛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공식행사, 공연, 영상, 전시 등 크게 4개 부문 188개 단위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49개국 1만 여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고 15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신라역사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문화이벤트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문화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부터 정부가 지원해 온 계룡군 문화축제는 세계유일의 3군 본부가 위치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전통 등을 한곳에 모아 우리나라 군대의 문화를 연출한 국내 최대의 군문화 축제이다. 2011 계룡군 문화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계룡시 계룡대 일원에서 개최되어 개·폐막식, 군악·의장, 전시, 체험, 이벤트 등 60종의 단위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계룡군 문화축제는 해·공군 참여확대를 통한 육·해·공군+해병대 통합 참여축제로 정착하였으며, 전국마칭경연대회 등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충청권 4대 축제로 선정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의 장을 넓히고 거리 퍼레이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지원

우리사회에서 지역 불균형 현상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뒤떨어진 지역의 문화환경, 이로 인한 문화적 체험기회 부족 등 지역 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의 난개발은 중소도시와 대도시,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삶의 문화적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므로써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가지는 정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표 2-5-15 ●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 일본(오사카 난파공 및 나라 평성공),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개발
- 베네치아 보존 및 신도시 개발, 로마 토르디노나지역 정비, 영국 역사도시 보존
- 일본 가나자와 시 및 이탈리아 볼로냐 시(창조적 문화도시)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주 역사문화

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등 지역의 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체적 참여, 이를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창의적 지역문화로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복원·활용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계획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30년(2006~2035)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06~2010)에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라왕궁 복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종교 유적지 조성, 신라 탐방길 조성 등 선도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단계(2011~2020)에는 1단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로 일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2021~2030)에는 10년간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개발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게 될 것이다. 4단계(2031~2035)에는 5년간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가 새롭게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신라탐방길 조성’ 등 <4개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7년 12월 완료하였다. 동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 20억원, 2007년 40억원, 2008년 40억원, 2009년 40억원, 2010년 62억원, 2011년에는 50억원(국비)의 국고가 투입되어 교촌한옥마을과 영지설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유적지간 이동체계 개선과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 조성,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안압지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나)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과거로부터 ‘예향(藝鄕)’으로 불리고 있는 전주는 판소리, 한옥, 한지, 한식 등이 발달하였고

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이러한 전주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문화재의 복원이나 개발보다는 정신문화와 한국적인 생활문화의 토대가 되는 무형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한옥마을 등 지역 차원의 자발적인 혁신정책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전주시·민간 전문가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2005. 3~2006. 2)>을 수립하여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24명)’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6. 9~2007. 11, 국토연구원)>를 수행하였으며 동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선도사업 위주로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선도사업으로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 한옥마을 체험 콘텐츠 확충,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등에 대하여 2006년 30억 원, 2007년 30억 원, '08년 30억 원, '09년 50억 원, '10년 5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는 50억원(국비)이 투입되어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과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전통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표 2-5-16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전 :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실현
- 정책목표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생활문화도시 조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균형발전 도시모델 조성
- 실행원칙 : 전통문화자원 활성화, 전통문화도시 공간정비
- 계획기간 : 2007 ~ 2026년(20년간)
- 투자규모 : 1조 7,109억원
- 타당성 조사결과 : B/C 1.09(CVM 포함 경제성 분석)
- 주요 사업계획

핵심선도사업군	세 부 사업
한스타일 진흥사업	·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
	· 한국음식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사업
	·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 유치사업
	· (한옥마을~무형문화유산의 전당간) 전통가교 설치사업
전통문화 체험·교육사업	·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 한옥마을 전통문화콘텐츠 확충사업 : 전통한옥, 부채, 소리, 완판본, 서화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사업	· 전통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 한옥마을 전통문화 경관개선사업
	· 향교 문화광장 조성사업
	· 야간경관 조성사업

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백제의 고도(古都)인 공주와 부여가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고도경관 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말에 완료된 이 용역에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공주·부여의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기본계획,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단기 사업추진계획,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완성된 연구용역은 중앙부처의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의 근거자료로,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적인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용역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도에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선행되어야 할 선도사업으로서 공주의 「무령왕릉길 조성」 사업과 부여의 「주작대로 정비」 사업에 각각 국고 20억 원, 2010년도에는 공주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정비」 사업과 부여 「성왕로 경관정비」에 각각 20억 원씩 투입하였다. 2011년에는 36억원(국비)이 투입되었다. 이는 공주의 무령왕릉 주변 정비 사업과 부여의 사비고도 공간 회복사업에 각각 18억원씩 지원되었다.

마.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2009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13개 지역, 19개 단체 사업을 선발 및 지원하였으며, 총 25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 2011년에는 15개 지역, 25개 단체 사업을 선발 지원하여 28천여 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은 주민과 지역에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과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주민들 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간 협력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생활문화공동체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 보급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확산을 하고자 한다.

● 표 2-5-17 ●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현황

구분	지역	단체명	사업명
1	광주 서구	시민문화회의	쌍쌍유촌-문화일촌
2	제주 서귀포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월평, 예술로 물들다
3	충남 공주	충남교육연구소	농촌 생활문화공동체의 희망 찾기
4	대구 남구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주민악단을 통한 문화공동체 마을 만들기
5	대전 동구	극단 아낌없이주는나무	중촌 연극동아리 '사랑해요, 우리동네'
6	충남 천안	천안 KYC	함께 만드는 양곡리 문화마을
7	경남 통영	극단 벚수골	섬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네
8	인천 부평	자바르떼 인천지부	열우물, 오래된 미래를 꿈꾸다.
9	부산 기장	예술문화연구소 H	쌔-아트클래스
10	경기 화성	민들레놀이극연구소	뱅곳이 문화나루터
11	부산 북구	문화도시네트워크	구포장 선창가에 춤추는 갈매기
12	전남 영광	우도농악보존회	우평 마을굿 축전
13	경남 진주	진주 YMCA	365일 모두의 축제마을 강남만들기
14	대구 달성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서문진 나루터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예술공동체마을 만들기
15	인천 연수	(사)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마을이야기
16	울산 울주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마을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문화 사랑방 '소호마을 문화학교'
17	경기 부천	부천문화원	도심 속 황금들녘 향토문화체험 및 사료 발굴
18	강원 원주	신화마을예술단 모두골	영농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손곡 "이달의 꿈" 마을문화공동체 만들기
19	충북 제천	(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	한밭들 까마귀 물곶 마을 이야기
20	전북 완주	지역문화자원연구회	잃어버린 학교, 마을공동체의 중심되다.
21	전남 보성	보성문화원	가마실 사람들 삶의 이야기
22	경북 칠곡	풍물굿때 매구	먹골 생활문화공동체 - 삼간정지 춤을추네
23	광주 서구	(사)빛고을 문화예술봉사단	The 소중한 문화 두드림(Do Dream)
24	경기 고양	(재)문화나눔재단	아파트를 박차고나와 사랑방에서 만나자
25	경북 경주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 경주지부	작은 마을 큰 울림

2)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1) 한스타일 육성 지원

한스타일 사업은 한국의 고유성에 기반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의 고유문화를 브랜드화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의 6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한국 전통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상위개념으로 한스타일이라는 브랜드명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6대 분야들 중에서 한글과 한식 분야는 경제발전과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외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지, 한옥, 한복분야는 국내외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대조를 이루는 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추진 첫해인 2005년에는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지역별 포럼을 통해 한스타일 지원전략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스타일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회 및 지자체를 통해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한스타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기존 사업은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복원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세계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아울러 전통문화 관련기능이 정부내 분산되어 체계적인 지원 또한 어려웠다. 한스타일 사업은 이러한 정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통문화의 복원·연구에서 국내저변 확대, 생활화에서 상품화, 산업화 촉진에서 해외진출 확대로 바꾸었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0개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제인 한스타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스타일은 정책비전으로 '세계문화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보존 및 연구지원,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국내 인프라 구축, 선택과 집중, 한류 및 관광산업과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007. 2.15)하고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분야 40대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동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서 분야별 산업화, 세계화 수준을 제고하여 2006년 세계 10위인 국가브랜드 가치(산업정책연구원 '국가별 브랜드 가치' 2006.11월)를 2011년 세계 8위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외적으로 홍보행사에 주력하여 국내적으로 한스타일 박람회(2008.8), 한복사랑 페스티벌(2008.10)을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에서 한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한스타일 해외 홍보를 위하여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에서 한국스타일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한글, 한식, 한복 등의 위상 제고 및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음식 체험, 한복 패션쇼 등 한국문화를 전파하여 한국문화 기호층을 형성·확산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의 한스타일 홍보 및 국내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한국스타일박람회(2010.12.)를 개최하고, 한지와 한복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e-디렉토리 발간을 추진하였다.

● 표 2-5-18 ● 한스타일 국외 홍보 현황 (2009)

구분	주요 내용	시기	장소	비 고
일 본 (도쿄)	○ 한스타일 한국어 보급사업 - 한스타일 2009 한국가요제(도쿄 9.20) - 한국어 말하기대회 (구마모토 12.12, 가고시마 12.13, 후쿠오카 12.19, 돗토리 12.20)	2009. 9.20 2009.12.12~12.20	롯데기힐스 광장 등	
영 국 (런던)	○ 전통문화자원 해외보급사업 - 한식(웰빙 궁중음식) 리셉션, 한식 강연·실습 강좌, 한복 패션쇼, 한국 상차림의 아름다움 전시 등	2009. 7. 8~7.10	Whitehall Palace, 주영한국문화원 강당	
브라질 (브라질리아)	○ 전통문화자원 보급사업 - 한국 상차림의 아름다움 전시 등	2009.10.14~10.17	Porto Vittoria 연회장, Melia Hotel 식당 Lucca	

2010년에는 국내의 한스타일 홍보 및 국내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한국스타일박람회(2010.12.)를 개최하고, 한지와 한복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e-디렉토리 발간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한스타일 온라인 국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정보화 구축사업(4차)을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6년도에 구축된 영문 누리집(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을 개편하고 한스타일 6대 분야의 활동상황 및 관련 전문가의 칼럼과 인터뷰 등의 콘텐츠도 확대하였으며 한스타일 핵심가치인 건강, 자연, 과학, 품위를 주제로 국·영문 E-book을 제작하여 국내외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스타일 주요 분야별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한복의 경우 한복 관심도 제고 및 한복 산업화 기여를 위한 2010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축제(2010.10.15-16, 창경궁)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새롭게 단장된 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에서 근대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한복패션쇼를 열어 '근대한복'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한식의 경우는 해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를 위하여 국가별로 현지화된 대표 한식 메뉴 20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2007년 중국과 일본지역의 20대 한식 메뉴 개발에 이어 2008년에는 홍콩과 베트남지역의 한식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각각 20대 대표 한식메뉴를 연구·개발하였다. 또한 해외 한식당 조리사 및 경영주를 대상으로 현지화된 20대 한식메뉴 조리 기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연계 추진하였다.

● 표 2-5-19 ● 한스타일 사업 중 국가별 20대 한식 메뉴개발 최종 선정메뉴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뉴욕	LA
1	해물전골	궁중대하젓냉채	궁중갈비찜	돼지갈비강정	호박죽	고구마 죽
2	육개장	장어잡채	날치알돌솥비빔밥	가래떡갈비구이	밤서벗	연근 샐러드
3	감자탕	김치찌개	너비아니와 생채겉절이	홍합마늘초	버섯스테이크	매운 잡채
4	삼계탕	단호박돼지갈비찜	단호박불고기	김치해물볶음밥	김치미늘 비빔밥	연두부과일 사벳
5	연어수삼말이	궁중해물잡채	은대구조림	한방삼겹살찜	미트볼샐러드	애호박새우전
6	탕평채	팔칼국수	대구맑은탕	버섯불고기	대구구이	안동찜닭
7	꽃게찜(날치)	쇠갈비구이 (양념갈비)	해물순두부찌개	김치돼지고기적	백김치불고기	불고기백김치 샐러드
8	궁중떡볶이	해물전골	그린빈새우볶음	삼치구이	대개살자쯔름 샐러드	해물파전
9	인삼갈비탕	된장찌개	골뱅이무침	감오징어해물파전	두부샐러드	두부스테이크
10	쇠갈비구이 (양념갈비)	돌솥비빔밥	황태찹쌀구이	고등어김치 말이조림	아스파라거스 떡갈비	낙지덮밥
11	오이선	배추김치	양상추새우샐러드	무쌈구절판	불고기떡볶이	삼색묵무침
12	매실수삼 불고기샐러드	더덕샐러드	버섯잡채	멸치견과류볶음	수삼튀김 채소샐러드	김치오리구이
13	우엉잡채	닭한마리전골	흰살생선우엉조림	브로컬리김치	감자우엉잡채	불고기말이덮밥
14	오곡밥	낙지볶음	단호박영양밥	보양골동반	갈비살구이 비빔밥	해물삼계탕
15	돌솥비빔밥	오이소박이	전복삼계탕	국수를 곁들인 해물전골	공릉장국밥	나물밥
16	자백김치	홍계탕	김치해물죽	낙지볶음	돼지불고기 샌드	오미자수단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뉴욕	LA
17	유자김치	안동찜닭	호박전	닭장국수	토마토물김치	닭가슴살 키위샐러드
18	궁중대하жат집 냉채	전복수삼냉채	오이물김치	새알심단팥죽	만두불고기 떡배기	인삼떡갈비
19	새송이떡갈비	백명령해삼찜	온면	흑미삼계탕	호박과편	색동 개피떡
20	해물파전	수삼튀김	돈육김치전골	숙주잡채	매운메로찜	코다리매운강정

한지 분야는 2007년부터 태권도 단종의 전통한지화 사업((재)국기원)을 지원하여,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고, 2009년도에도 계속 이어갔다. 또한, 영구기록 보존매체로서 한지의 우수성과 시장 선점, 산업화 방안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복복화를 추진하였다. 2010에는 전통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한지의 물성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전통한지의 특성과 용도를 집대성하여 한지대전을 발간하였다. 2011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한지상품개발 토너먼트’는 디자이너의 많은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토너먼트에서 개발된 상품은 ‘2011공예트렌드페어’와 프랑스의 ‘메종 앤오브제’ 등 유명 디자인 페어에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지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 닥과 페펄프를 이용한 품질이 떨어지는 한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국산한지 시장 잠식을 극복하고 순수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수록한지의 원천기술 보존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지 물성에 대한 연구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닥을 이용한 전통한지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 분야는 한옥 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 등 미래세대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자료실 4곳(서울 구로 개봉독서실, 경기 안산 관산도서관·군포 산본도서관, 전남 여수 현암도서관)을 선정하고 개보수를 통한 전통 한옥공간으로 개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전통한옥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전통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한스타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스타일박람회 추진하였다. 한국스타일박람회는 한국스타일 6대 분야의 상품 및 상품화 경향을 제시하고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1회 대회는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전통에서 미래로, 한브랜드를 세계로’를 주제로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경기도, 전라북도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총 10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41,000명이 입장하였다. 2008년 2회 행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진행되었다. ‘즐거움의 시작, 한스타일’을 주제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전주시가 공동주최하였다. 8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관람객 12,000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패션쇼와 각종 국악공연이 함께 하였으며 6개 분야의 심포지움과 6개의 기획관 전시품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09년 3회 행사는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예술감독을 선임, ‘지금. 여기. 우리’를 주제로 기획관 및 테마관 등을 디자인적으로 보완하여 152업체가 참여하고 14,227명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2010년 4회 행사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예술감독을 선임, ‘한국적 상상력’을 주제로 전시관 조립부스에 한옥 목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된 박람회를 구성하여 147업체가 참여하고 13,500명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기타 기능성 한지개발 등 한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추진 등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 표 2-5-20 ● 한스타일 사업 추진경과 (2005~2010)

2005. 6	한브랜드화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12회, 2005. 6~12)
2006. 5	제5차 국가이미지위원회에 한브랜드 지원전략 보고 - 6대 분야 중 한국학 제외, 한국음악으로 대체
2006. 7 -	한브랜드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총괄기획/한글/한복·한지/한식/한옥 분과 구성 - 분과위원회 주기적 개최(2006년 7회 개최)
2006. 9. 28 - 10. 1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일산 킨텍스) 및 상징물(C.I.) 개발
2006. 12	‘한스타일 전략산업화’ 신규유망 서비스업종 선정
2007. 2. 15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발표(40대 과제 선정, 2007. 2. 15)
2007. 6 - 11	한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중국 상해, 일본 동경,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총 4개소)
2007. 8	한스타일 상표 서비스 등록 결정(특허청, 한글·영문 2건)
2008. 1 - 12	한스타일 분야별 선도 사업 추진(한식, 한복, 한옥, 한지 등)
2008. 6 - 11	한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 총 4개소)
2008. 8.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009. 7.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010. 12.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코엑스)

(2)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

지역민족문화과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문화원형의 복원·보존·창달을 위하여 ‘민족문화 원형 찾기 및 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였다. 200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답사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전통연희 사전 개발’, ‘고려거상의 현대적 조명’, ‘디지털 삼국유사 사전·박물지’, ‘전통민속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사이버마을 구축’, ‘한국의 골목길’ 등 2009년까지 12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2010년에는 우리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로 제공하는 문화산업국의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이관 받아 사업 명칭을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로 일원화하고 보조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화원형 발굴을 지향하는 민족문화원형 사업과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원형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누리집 통합 (www.culturecontent.kr) 및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미개발 및 통시문적 문화원형 콘텐츠화 과제 발굴,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의 활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원형 통합포털 구축, 문화원형 콘텐츠 저작권 관계 확인 및 확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원형 총람집 제작, 문화원형 활용 공모전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원형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 문화원형 홍보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였다.

(3) 국학진흥정책기반 조성

가. 국학자료 수집확대 및 관련 전문인력양성

가) 국학자료 조사·수집·정리

민족문화유산의 도난·훼손 등 멸실 위기로부터 사전 예방 및 보존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소장 고서, 고문서 등 유교 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수집을 통하여 도난, 훼손으로 멸실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유산의 수집·보존을 하였다. 그리고 기탁 국학 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관리를 하였으며, 향온합습기능과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제를 확립하였다. 미공개자료 및 문화재급 자료의 발굴 및 공유로 국학연구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기탁된 미공개 자료의 정리를 통한 한국학자료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나) 유교목판수집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민간소장 목판·현판 등 유교 문화유산의 조사·발굴·기탁섭외·수집을 통하여 도난·훼손으로 멸실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였으며, 충북지역의 목판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목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충북지역 목판분포 및 소장현황을 조사·정리하였으며, 유교목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추진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의 추진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 및 경쟁력을 제고 하였다.

다) 기탁 홍보 특별전

민간 소장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도산서당 창건 450주년에 즈음하여 도산서당과 퇴계 이황 및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리고 명문가 소장유물의 전시를 통한 종가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산이씨 소호문중에서 기탁한 8,000점의 자료 중 『대산일기』를 비롯한 희귀본 자료의 전시로 전통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하였다.

나. 새로운 정신문화 확립을 위한 한국적 가치의 발굴

가) 한국적 가치의 발굴 및 재조명 포럼(2차)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의 전통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논의를 제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계 전문가와 현장 경영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 모델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인문학자와 경영학자 및 현장 경영인이 함께 자리를 하고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실제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실용적 국학연구 모델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포럼의 모델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일반시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나) 한국 유교문화 심층연구(2차)

국학 자료에 대한 문화학적 접근 모델 제시하였으며, 학제간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한 한국유학 연구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학 자료의 대중화 모델 구축 기반을 조성하였다. 4회에 걸친 단계적 포럼 운영으로 연구 완성도를 제고하였으며, 다양한 전공자들의 협력 연구 체제로 한국학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였다.

다. 한국적 가치기반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4회 국학순회교양강좌 시행으로 국학의 대중화를 선도하였으며, 지역 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참여 인원을 대폭 증가(7회 보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의 참여 확대 유도를 하였다. 시민정신연수과정으로는 전통적 사회 가치의 현대적 계승 및 건전한 시민의식 실천방안 교육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시민의식을 보급 유도하였다. 2011년에는 새롭게 청소년 민족문화학교를 통하여 대구교육청 소속 89개 학교의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예절 및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규 교과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덕성함양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다양한 예절체험과 현장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느끼도록 과정을 배려하였다. ‘전통교육에서 찾는 21세기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였으며 공동체를 중시하였던 전통시대 교육의 특징을 영상 교재로 제작하여 교육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전통시대의 자연스러운 교육 방식을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였다.

라.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개발 및 콘텐츠 소스 구축

전통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유교 및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대중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원형 보존 및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작용하는 의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역사성 이해와 소멸된 의례들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복식 및 소품 등을 복원하였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하였다. 그 밖에 지역인력을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구축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콘텐츠 기획자 및 IT전문가 육성하였고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온라인 교재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였다

마. 국학연구 기반의 지속적 구축

가) 한국학 학술대회

진일재 류승조의 사례를 통해 연구가 미진했던 조선전기의 성리학 형성과 사림파 철학사상의 형성 과정을 새롭게 조망하였으며, 대산 이상정 학술대회를 통해 퇴계학이 18세기에 영남지역의 문화형성과 가치관의 정립에 끼친 양상 및 특징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현대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제례문화의 이론적·실제적 검토를 통해 조상제례의 현대적

모델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였고 퇴계사상의 현대적 의의 및 계승 방식 등을 검토·정리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 및 가치관의 계승 방안 및 가능성 모색을 하였다.

나) 국학교양도서 보급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한 집필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출판사와 협력체제(MOU) 구축 후 역할분담 방식으로 가독성과 대중성을 강화한 글쓰기를 추진하였다. 전통적 가치와 정신문화에 대한 대중적 보급을 활성화 하였으며, 전문출판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전통문화 보급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문출판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에 긍정적 효과 거두었다.

(4) 전통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 국학디지털 콘텐츠 소재뱅크구축

가) 문집 및 일기류 국역

미발굴 민간자료의 발굴 및 학계 제공이 있었으며, 국학 자료의 문화 산업화를 위한 소재 제공을 하였다. 선비들의 삶과 정신자세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기본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국역 전문 후속세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학계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번역도 까다로운 간찰 자료 집성 발간을 기획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생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하였으며,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사·철학·한문학 등 다양한 전공의 공동번역 형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번역 성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스토리텔링 원천자료(고문헌) 디지털화

DB화를 통한 전통 기록 자료의 항구적인 보존을 하였으며, 국학연구와 기타 관련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현격한 절감을 이루었다. 그리고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학 연구 토대 활성화를 하였고 교육 현장의 활용을 통하여 전통 역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였다.

국학연구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고전적 기록자료를 충실하게 DB화함으로써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 멸실 및 훼손되고 있는 자료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기록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연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하였다.

다) 국학자료 문화콘텐츠 소재뱅크 구축

시나리오 작가, 만화구성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 소설가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활용하는 작가그룹을 주요 타겟으로 한 1, 2차 워크숍과 일기류 가공 이야기 소재의 특징과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전통 이야기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이야기 소재의 발굴과 흥미있는 자료의 소개를 통해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상사와 미시사에 대한 콘텐츠 구축을 통해 옛 선인들의 삶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자긍심 고취하였다. 또한 한국의 오래된 전통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 자산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적 스토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였으며,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개발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이야기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라) 콘텐츠 소재 관리 프로그램 개발

소장자료와 관련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관리에 따른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소장자료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였다. 그리고 Web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문중별 서비스 개발 및 확대와 기탁 국학자료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자료별, 문중별, 지역별 관리 및 기탁 현황 통계와 보고서 기능을 구현하였다.

나. 미래세대를 위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

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야기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 평균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추가 파견 신청 및 이야기할머니 지원 신청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3기 모집 평균 2.7:1의 경쟁률, 제1·2기 선발 지역은 평균 3.5:1의 높은 경쟁률 보였다.

이야기할머니 선발 지역을 충청, 전라, 강원, 경남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였다. 그리고 선현 미담과 관련한 이야기소재 공모를 통해 이야기소재의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어린 시절 선현들의 미담을 통해 유아들이 정신적인 멘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표 2-5-21 ● 이야기할머니 파견 및 현장 활동

지역	상반기	하반기	비 고
서울지역	105	105	전년대비 96.8% 증가
대구지역	103	103	
경북지역	105	105	
계	313	313	

나) 국학자료 수장고 확충

민족문화유산의 도난·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구축하였으며, 민간소장 유교 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기탁섭외, 수집을 통하여 도난, 훼손으로 멸실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학자료 수용 공간 부족을 해소하였으며, 국내 최다 민간소장 국학자료 보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수장 공간의 확충으로 안전한 소장자료 관리체제 구축 및 미기탁 자료의 기탁 유도를 하였으며, 국내 최다 민간소장 국학관련 전문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현판전시실을 통한 상설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기탁 문중의 신뢰도 확보와 유대 강화에 기여하였다.

(5)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및 선현의 동상/영정 표준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로 국무총리 소속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2004년 9월 17일 설치)가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개최, 서울·경기·강원 등 총 25개 지역의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 조사, 구전자료 영상증언록 제작, 동학농민혁명 관련 한·일 역사적 자료 조사·수집·번역,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9권(총10권) 발간」, 문화탐방프로그램 운영, 기념관 전시 운영, 말목장터 감나무 등 소장유물을 복원하였다.

선현의 동상/영정 표준화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 심의 규정」(2009.9.1.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98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선현(역사상 위인, 사상가 등)을 기리고 있다. 영정의 경우 1973년 총무공 이순신의 표준 영정을 지정한 이후 2011년 까지 총 84명의 선현에 대한 표준영정을 지정하였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1)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18대 국회 회기중에 제정되지 못한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근거,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및 전통문화산업진흥원 설치,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기술의 개발을 촉진 및 전통문화촌의 지정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 우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시설 확충 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점차적으로 인간과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부터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을 선정, 시상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전략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선정대상 문화브랜드 사업의 범위에는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해당되며, 지역축제, 자연경관 및 특산물 브랜드화, 단기적 일회성 사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문화브랜드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며,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사와 연계하여 우수 문화브랜드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해외문화교류 행사 참여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브랜드 선정은 우수한 문화브랜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및 전통문화브랜드 사업들이 문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문전성시 성과 확산

그동안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 총 75명의 문화인력이 양성·배출되었고, 총 330개의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시스템 정립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재생이라는 큰 화두 아래,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내 공간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지역’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지역의 공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축적된 노하우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거리’, ‘마을’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활성화에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데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성과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4)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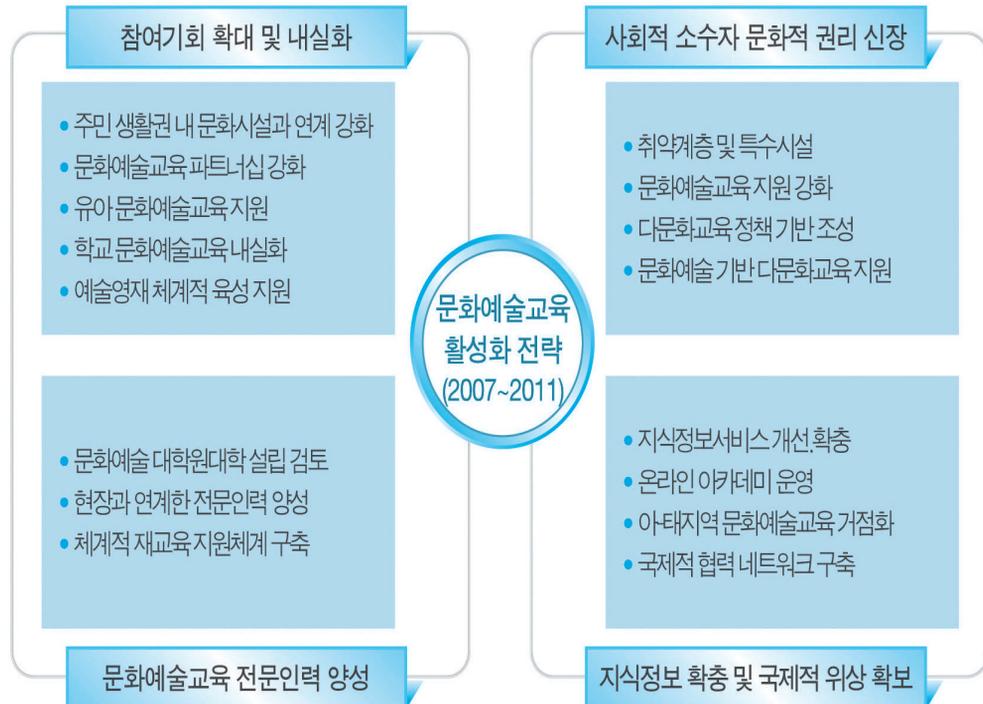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해 발표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1.30)에 따라 전통문화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및 전문고등학교에 교과과정 개발비를 지원하고,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문화창조센터(가칭)를 구축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학의 문화적 활용을 통해 한국문화를 일반인·외국인·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의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04년 문화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왔다.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 그림 2-6-1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과공부를 통한 지식 습득 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 등을 고루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5월 공동 T/F를 발족시켰으며, 수차례의 자문단 회의,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양부처간 공동협력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6-1 ●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강사규모와 대상 분야를 확대(디자인, 미디어, 사진 등 추가)하고 강사 활용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 예술강사 지원 규모 : 2,200명(2008) → 3,500명(2009) → 5,000명(2012)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분담

이 같은 양 부처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결과, 사업규모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예정이며, 201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학생 수혜율을 현재 7%에서 55%까지(초등학생 기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및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책적인 사업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 양 부처 간 협력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16개 시·도의 92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1,253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시설아동·장애인·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소재의 문화 및 복지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기금에 의지하였던 재원을 국고로 전환하였다.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에 전국에 25개소의 기초단위 지역 센터를 확대 지정 및 지원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광역센터 6개를 새로 지정하여 2009년부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는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단계적 이관을 시작하였다.

2010년 5월에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2006년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1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2010년 제2차 세계대회 한국 개최가 결정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로 이 행사를 통해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과물인 “서울 어젠다”가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성과와 한국 정부의 세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와 기여, 리더십의 결과로서 2011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총회에서 ‘서울어젠다’가 정식 의제로 상정 및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매년 5월 넷째 주가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올렸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와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여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예술 강사 지원사업, 교과교실의 현대화 등 정책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본 방안은 1)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3)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4)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6)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방안은 2010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동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서울어젠다’ 도출 등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에 이르러 전체 초·중등학교의 51%에 달하는 5,772개 학교 8,615개 교육과정에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전국 초·중등학교 현황: 11,387개교, 2010 교육통계연보)

● 표 2-6-2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2003-2011)

(단위 : 개교/명/백만원)

구분	학교수										강사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25		
영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	89	89	113	137	121	300	330	253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	-	110	150	248	292	595	801	763		
만화·애니메이션	-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	-	94	100	191	299	452	500	499		
공예	-	-	-	-	-	-	-	115	180	-	-	-	-	-	-	-	52	87		
사진	-	-	-	-	-	-	-	55	88	-	-	-	-	-	-	-	27	37		
디자인	-	-	-	-	-	-	-	86	125	-	-	-	-	-	-	-	39	67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626	7,698	9,189	8,615	1,055	1,231	1,628	1,431	1,764	2,146	3,483	4,156	4,164		

※ 2010년부터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 예술강사 지원

※ 2011년 학교수는 총 5,772개교이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수분야 감안 시 8,615개 교육과정 지원

위와 같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변화를 통해 수혜대상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또한 예술강사의 역량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 분석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하에 실시하였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점수는 82.1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성과 달성률을 보였고, 심층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2)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2008년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집중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육성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냄으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1년은 제1기(‘08~’11) 예술꽃씨앗학교 10개교 지원 마지막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결집한 예술꽃씨앗학교 성과발표회(행사명: 예술꽃씨앗학교 어울림뜨락)를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우수학교 16개교를 제2기(‘11~’14) 예술꽃씨앗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지원중이다.

● 표 2-6-3 ●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 제1기 (2008-2011)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 고
부산 금정구	대도시 (금성산성 내)	금성 초등학교	120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 대도시 내 산성마을 위치 - 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 - 도시학교 부적응으로 전학 온 학생 60% - 부산지역 교사직무 연수 개최
광주 북구	대도시 (도농복합)	광주지산 초등학교	140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대도시 내 도농복합 -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 (용전들놀이) - 도시에서 전학 오는 학생수 증가
울산 울주군	읍지역	반천 초등학교	302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수 - 문화인프라 미흡, 문화예술분야 소외지역 - 반천오케스트라 운영/ 지역 평생교육 운영
강원 속초시	중소도시	대포 초등학교	63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학부모 어업, 관광업 종사 - 국악관현악단 운영/ 색동바람이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 고
전남 여수시	중소도시	여수북 초등학교	83명	음악예술교육 (오케스트라)	- 2012 여수박람회에 문화행사 참여 목표 - 지역번영회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전남 순천시	도농복합 (읍)	승주 초등학교	115명	음악예술교육 (국악,양악)	- 승주읍 유일 초등학교(85년 전통) -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학원 전무 - 승주원드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포항시	도농복합 (면)	송라 초등학교	104명	음악예술교육 (국악,양악)	- 인근지역 예술관련 학원 전무 - 지역문화센터로 발전 - 스쿨밴드, 챔버, 퓨전오케스트라 운영
경북 봉화군	읍지역	봉화 초등학교	228명	미디어예술교육 (영화)	- 경북 최북단 위치 농·산촌지역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참여 등 다수 입상
경남 남해군	면지역	삼동 초등학교	84명	통합예술교육 (음악)	- 농·어촌 복합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10% - 교사 9명중 5명이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 - 챔버 오케스트라, 국악 합주부 운영
제주 서귀포시	도농복합 (읍)	남원 초등학교	387명	미디어예술교육 (영화)	- 영화박물관 소재지 - 지자체에서 마을문화활성화 차원, 영화중심테마파크 추진

○ 제2기 (2011-2015)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 고
전북 완주군	면지역	간중 초등학교	86명	전통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2009년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로 학생수 증가 - 학원수강 학생 20% 미만
충남 아산시	면지역	거산 초등학교	127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 '01년 폐교 대상에서 '05년 본교 승격 - 학부모 소규모 영농형태 축산업, 버섯재배 종사
전북 남원시	중소도시	남원 초등학교	392명	음악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인근 민속국립국악원, 남원시립국악원, 농악단 등 근접 - 춘향전, 흥부전 등 서사문학, 문화유산 풍부
경남 통영시	중소도시	남포 초등학교	56명	음악예술교육 (음악, 미술)	- 전교생 36%가 보육시설의 아동 - 대표적 문화행사가 열리는 통영 위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대전대신 초등학교	104명	전통예술교육 (국악관현악)	- 대전 도심권에 위치한 6학급 전원학교 - 급식지원대상자40%/ 편부모 편조부모 19% - 산중턱에 위치하여 학부모 무속인 상당수
대전 광역시	대도시 (도농복합)	동명 초등학교	58명	공연예술교육 (디지털뮤지컬)	- 외곽 농촌학교로 문화적 시설 전무 - 문화예술활동 종사 주민 다수
경기 광주시	읍지역	만선 초등학교	139명	통합예술교육 (전통위주)	- 수도권 인근 소규모 농촌학교(주변 골프장) - 한부모 조손가정 34%/ 맞벌이 가정 70%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부산광역시	대도시 (도심 외)	배영 초등학교	72명	통합예술교육 (생태포함, 농악)	- 17년간 부산농악 전수/ 한·일 문화교류 20주년 -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 한 부모가정이 대다수 - 부산 공항부근 공장지대에 위치(대중교통수단 없음)
경북상주시	면지역	백원 초등학교	67명	시각예술교육 (도·공예)	- 시골 농촌학교로 학부모 대다수 농업 종사 - 문화 소외지역으로 온종일학교 운영 - 창의중심 교육과정으로 전교생 증가
강원춘천시	면지역	서상 초등학교	50명	시각예술교육 (디자인)	- 농업, 맞벌이 가정 대다수 - 강원애니고,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등 소재지
제주제주시	중소도시	영평 초등학교	130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제주 외곽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 교육복지투자지원 학생 50.8%
경기양평군	면지역	옥천 초등학교	288명	음악예술교육 (퓨전)	- 면단위 1개 학교로 지역중심센터 역할 - 전원주택 거주하는 예술인 부모가 다수 - 수도권 식수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전형적 농촌지역
강원인제군	읍지역	인제남 초등학교	323명	음악예술교육 (음악극)	- 인구가 적고 군인이 많은 지역 - 학급당 20~30% 저소득층/ 전체 학원 수강생 60%
충북괴산군	면지역	칠성 초등학교	89명	음악예술교육 (서양악)	- 인근 명산과 계곡 밀집 - 기초수급자, 의료보호자 전체 33.6%
전남화순군	면지역	한천 초등학교	77명	공연예술교육 (연극, 영화)	- 전형적 농촌의 도서벽지이며 폐광촌 - 문화적 시설이 전무
전남해남군	면지역	현산 초등학교	78명	음악예술교육 (퓨전)	- 대한민국 최남단 땅 끝에 위치 - 바다 인근이나 90%가 농업 종사로 저소득층 다수 - 교육취학 계층 40명, 다문화 가정 12명

(3)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시범사업

2009 개정 교육과정(’09.12.23 고시) 도입에 따라 일선 학교에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01개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여 956회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총 28,70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다.

본 시범사업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5일수업제’를 대비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시범사업이 되었다.

● 표 2-6-4 ●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11)

구분	문화원	박물관	문화의집	사립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지원기관수	25	28	9	25	14	101
프로그램 운영 횟수	324	188	105	224	115	956
수혜자 수	9,500	6,000	3,400	6,400	3,400	28,700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여가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1) 예술강사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에 이르러 노인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노인·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 2010년에는 아동 대상 6개 분야,

노인 대상 3개 분야, 장애인 대상 2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관 이용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협력·운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2011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2011 노인 문화예술교육 요구조사 및 측정지표 개발연구」를 통해 기존 분야에서 확대 실시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하고 있다.

● 표 2-6-5 ● 사회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2004-2011)

(단위: 개소/명)

구분	시설수									참여자수									강사수								
	'04	'05	'06	'07	'08	'09	'10	'11	'04	'05	'06	'07	'08	'09	'10	'11	'04	'05	'06	'07	'08	'09	'10	'11			
아동	194	201	213	201	220	235	144	144	7,123	7,694	8,307	7,263	7,836	7,695	4,542	4,360	205	233	253	236	260	288	219	234			
노인	-	-	48	59	67	62	84	140	-	-	916	1,095	1,297	1,240	2,893	2,800	-	-	33	43	33	30	74	94			
장애인	-	-	23	20	32	30	48	78	-	-	285	184	343	310	613	780	-	-	17	18	28	31	45	51			
계	194	201	284	280	319	327	276	362	7,123	7,694	9,508	8,542	9,476	9,245	8,048	7,940	205	233	303	297	321	349	338	379			

● 표 2-6-6 ●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2011)

(단위 : 명)

분야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음악	무용
강사수	34	39	35	56	17	53	49	19	26	10	41

(2)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도·환경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계층(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수혜자의 특성상 관련 기관 및 조직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국방부·법무부)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6-7 ●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1)

(단위 : 개소/명)

구분	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06	'07	'08	'09	'10	'11	'06	'07	'08	'09	'10	'11	'06	'07	'08	'09	'10	'11
지원단체 수	8	9	39	42	47	91	5	11	17	9	10	30		7	7	7	9	9
수혜시설 수	10	18	71	82	87	91	11	11	28	20	20	30	9	7	8	8	9	9
수혜인원	400	600	1,727	1,840	1,687	1,865	857	940	578	327	320	279	542	1,072	127	146	238	194
지원예산 (백만원)	238	190	700	727	593	600	139	110	210	193	276	300	164	100	100	87	86	100

2006년부터 시작된 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공동체 의식 함양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조절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수행단체를 공모·선정한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육·해·공군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간 30회 교육을 진행하며, 또한 단기간에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하여 군 관계자 및 정훈장교들에게 지원한다. 2011년에는 국방부 예산(330백만원)을 확보하여 매칭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주관단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명예교사 프로그램과 협력·운영하였다.

또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예술적 작업을 통한 재소자 및 소년원학생들의 성취동기 유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정교육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화를 위해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특수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2008년에는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를 특수 분야로 묶고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성화 교정시설 공연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원학교 대상 명예교사 프로그램 운영도 별도 지원하였다.

(3)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문화기반시설 등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7년까지 복권기금(28억원)을 통해

지역의 노인·장애인·취약계층(농산어촌 지역주민, 새터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2008년 예산을 국고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 신설을 통해 27개 단체 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일반공모 지원 사업/ 지역거점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역거점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단체 간 사업 수행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대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다. 지식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전국의 총 5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한 이슈별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총 26개 단체에는 학습공동체(CoP)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각 시·도별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지역 밀착적인 단체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표 2-6-8 ●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2006-2011)

(단위 : 개소/명)

구분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06	'07	'08	'09	'10	'11	'06	'07	'08	'09	'10	'11	'06	'07	'08	'09	'10	'11
지원 단체 수	44	60	81	94	59	25	45	86	82	67	44	33	46	84	129	112	153	206
프로 그램 수	134	97	94	109	94	31	153	109	94	81	55	41	160	117	162	153	295	375
수혜 인원	2,871	2,362	2,462	2,504	1,494	817	2,408	2,350	1,793	1,210	754	737	2,649	2,960	3,942	2,432	4,374	7,992

(4)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원 사업 및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문화기반시설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명인을 활용한 '지역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과 문화의집을 통한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각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은 정부의 친서민 문화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대표적 서민 거주지역인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단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주민 간 소통 및 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새로운 수혜대상 발굴 차원으로 산업단지 대상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 '별별솔루션'을 진행하였다. 산업단지 대상 지원 사업은 전국의 산재해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가진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대상자들에게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간의 업무협약체결(2009.3.3)에 따른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0년에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6개 시·도 운영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96개 기관을 선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1,54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도 시범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과정이 공연의 결과로 이어지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4개 시·도 34개 기관 47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음악, 국악뮤지컬 4개 분야 공연화 사업을 기획·운영하였다.

● 표 2-6-9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상상학교

구분	분야	참여기관 수	참여학생 수	비고
2009	6개	92개	1,253명	
2010	3개	96개	1,546명	연극 분야 공연화 사업 시범 운영
2011	4개	34개	475명	4개 분야 공연화 사업 기획 운영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는 각 지역의 문화재단, 국공립 교향악단, 민간 오케스트라, 지역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과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2010년 6개 기관에 이어 2011년에는 9개 지역거점 기관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에서 450여 명의 아동과 100여 명의 음악 강사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강사 교육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글로벌 네트워크 세미나,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자료집 발간, 인사이더 리포트 발간, 수석강사 양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거점형 오케스트라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2-6-10 ●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현황 (2011)

사업주체	협력기관	프로그램명	비고
대전문화재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주니어 드림 오케스트라	연속
춘천문화재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신나는 오케스트라	연속
부산문화재단	사)인코리안심포니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연속
부천문화재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놀라운 오케스트라	연속
익산문화재단	클나무오케스트라단	꿈과 희망의 오케스트라	연속
화성시문화재단	수원대	I am a musician	연속
성남문화재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어울리오	신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단	너+나=우리가 함께 만드는 한소리 오케스트라	신규
광주문화재단	광주청소년교향악단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오케스트라’	신규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友樂部落)’은 다양한 아동·청소년들(다문화, 새터민, 차상위 계층 등)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공모 지원 사업이 아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체기획으로 운영되었다. ‘우락부락(友樂部落)’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가는 캠프를 의미를 갖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했지만 2011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캠프 운영 횟수를 3회로 확대, 운영 하였다. 웹 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소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아티스트와 놀다’를 핵심 콘셉트로, 단순 예술 경험을 넘어 입체적·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방학기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캠프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캠프 참가자(매우 만족 79%, 만족 14%)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 표 2-6-11 ● ‘창의예술캠프’ 운영현황 (2011)

캠프명	기간	장소	참가자	프로그램
제3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3 -열두 개의 아틀리에’	‘11.8.25*	예술의전당(서울)	89	2
	‘11.10.1~10.3	숲체원 (횡성)	192	15
제4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season4 -비밀의 방’	‘12.1.29~2.2	전통불교문화원(공주)	368	15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1)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서울 코엑스에서 2010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2006년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1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2010년 제2차 세계대회 한국 개최가 결정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107개국에서 2,900여명이 참가한 세계대회의 핵심 성과인 서울 어젠다는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유네스코 회원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세계대회 후속조치로 추진된 전 국민 평생 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수립 발표(2010.6.9) 및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방안 공동 발표(2010.7.8, 교과부와 공동)등을 통해 새로운 예술교육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었다.

● 표 2-6-12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 행사명 : UNESCO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 행사기간/장소 : 2010년 5월 25 ~ 28일 / 서울 코엑스 (삼성동 소재)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 주 관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 주 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행사목적 : 1차 대회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한 각국 공통의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 슬 로 건 :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 주요프로그램 : 개폐회식 및 전체회의, 25개 주제 워크숍, NGO포럼, 지역회의, 청년포럼
- 부대행사 : 개/폐막식,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현장 방문 및 관광
- 참가집계 : 107개국 2,963명
- 주요 참가자: 대한민국 영부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총 회의장,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4개국 장관 및 고위급 정책결정자, 각국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 연사집계 : 총 68개국 219명 참여
- 언론집계 : 총 39개 매체, 61명/ 총 438건 보도
- 핵심성과 : 서울어젠다(Seoul Agenda: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2) 유네스코 제36차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 어젠다 :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107개 참여국에 의해서 채택된 최종 결과보고서로 2011년 11월 제 36차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주도로 발의된 ‘서울 어젠다 : 문화예술교육정책 발전목표’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서울 어젠다’는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각국 정부에 활용됨은 물론, 매년 5월 넷째 주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 시행을 통해 본 성과를 얻게 되었다.

● 표 2-6-13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목표 (서울 어젠다 발취)

구분	내 용
목표 1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을 확립한다.
목표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 사진 2-6-1 ● 유네스코 제36차 총회 사진



문화예술교육 사진 전시



회원국 대표와 환담



서울어젠다 설명 PT



유네스코 문화위원회 현장

(3)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2011년 5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여, 세계대회 개최 기간이었던 5월 4째주 일주일 동안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발표된 ‘서울 어젠다’를 토대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세미나 등 총 16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345명의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였다. ‘11년 국내 주간행사의 성과를 유네스코에도 공유, 그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건 조성에도 일조하였다.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5월 4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공식 선포하게 되었다.

가. 행사 성과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1주년을 기념하여,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개최된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해당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어젠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상호 공유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일어나는 장이 마련되었다.

나. 행사 내용

주간행사는 일주일간 슬로건 ‘천개의 시선, 천 개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개·폐막식과 오픈체험부스,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 학술세미나 등으로 채워진 ‘지혜가 샘솟는 공존’이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시도별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지역프로젝트와 그 결과를 공유하는 프리젠테이션 데이, 그리고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 ‘영감이 가득한 공유’ 세션이었다. 마지막으로 ‘참여가 선사한 공감’을 통하여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축제, 전시 등을 열었다.

● 사진 2-6-2 ●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특히 주간행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지역프로젝트는 네트워크 행사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시도별 지역 큐레이터가 지역의 고민을 담은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지형도를 그려낸 것이다. 다문화 요리하다(경기), 폐자전거 부품을 활용한 인형극 워크숍(대구), 노동자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울산), 촌스런 사인사색 문화놀이관(충남), 청소년 인문학콘서트(부산)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주제의식 역시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미디어 유량단의 클립영상에 담겨 지역을 넘어 공유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간 공식홈페이지(www.arteweek.kr)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경험을 잘 표현한 문장을 공모하는 ‘천개의 메시지’, 여러 계층의 서로 다른 시선을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목소리를 노래하는 ‘천명의 아카펠라’ 등이 주간을 맞이하는 사전행사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폐막식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계층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 대상 확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 서울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비전'을 발표하여 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의미를 더하였다.

4)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조성

'11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사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및 기존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기본연수, 심화연수 등의 연수프로그램을 총 5,385명 대상, 8개 과정, 2,425시수 운영 하였다. 예술강사 연수프로그램은 신규·경력 예술강사의 창의적 예술교육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경력별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온라인 교육학 연수개설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교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표 2-6-14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성과표 (2011)

구분	연수명	연수대상	참석인원	연수일시	시수(H)
1	2011 상반기 예술강사 연수	학교 8개 분야 신규·기존 강사	2,114	'11.2.7~ 2.28	726
		사회 예술 강사	74	'11.2.28~3.3	330
2	2011 학교 예술강사 교육학 위탁 시범 연수	서울지역 학교 8개 분야 기존 예술강사	131	'11.2.7~2.14	64
3	2011 학교 예술강사 상반기 특별연수	특수학교 배치 예술강사 중 연수 신청 예술강사	85	'11.3.26~3.27	12
4	2011 하반기 예술강사 연수	학교 7개 분야 신규·기존 강사	1,143	'11.7.21~8.14	636
		사회 예술강사	248	'11.8.16~8.22	330
5	2011 학교 예술강사 하반기 특별연수	특수학교 배치 예술강사 중 연수 신청 예술강사	34	'11.9.24~ 9.25	15
6	2011년 학교 예술강사 특수학교 배치 예술강사 온라인 연수	학교 예술강사 특수학교 배치 예술강사	170	'11.10.4~10.31	30
7	2011 예술강사 심화연수	학교 5개 분야 기본연수 수료 예술강사	380	'11.11~12월 중15회 운영	132
		사회 예술강사	29	'11.10.8~12.10	120
8	2011 학교 예술강사 온라인 연수	국약분야 및 10시수 미만 예술강사	977	'11.12.12~12.30	30
총 계			5,385		2,425

● 사진 2-6-3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과정 (2011)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실습 과정



국악분야 단소 실기수업



무용분야 모의수업 워크숍

(1)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은 학교 교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율연구모임 지원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먼저 학교 교원 대상 연수는 2011년에는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의 연수원과 연계하여 93시수, 15회, 3,765명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연수운영 후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 중 4.6점(평균)으로 높게 나타나 연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연구모임 지원은 총 6개 단체를 지원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 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 표 2-6-15 ● 교원전문성강화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성과표 (2011)

협력기관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인원	연수일시	시수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초중등 교장, 교감, 초등 1,2급 정교사, 중등 1급, 영양교사 1,2급 자격연수 유치원 교사, 원장 대상 자격연수 초중등 교육전문직 후보자 과정 교실혁신 유초중등 교(원)감 연수 교육전문직 예절인성 교육과정	초중등 교감, 유초중등 교사, 교육전문직, 장학사	3,765	'11.6.~11.	15회 (93시수)

(2) 명예교사 운영사업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재능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9년에 소프라노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사물놀이 김덕수, 소설가 김훈 등 각 예술 장르의 대표하는 저명인사 17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총 100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하고 참여기회를 넓혀 어린이, 청소년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였다.

2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핵심목표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정책수요자 발굴’을 실현시키기 위해 2011년에는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각 분야 문화예술인 100명을 명예교사로 재위촉 및 신규위촉 하였다. 사업의 참여 대상도 보다 세분화·타깃화 하여 그에 적합한 명예교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제공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층인 10대 후반과 20대를 위해서는 명예교사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이 가지는 상상력·도전정신을 토대로 자기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6-16 ●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운영 현황

	2009	2010	2011
명예교사 수	17명	100명	100명
프로그램 수	35회	100회	347회
주 참여대상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20~30대 타깃)
참여자 수	17,178명	23,131명	34,566명

● 표 2-6-17 ● 명예교사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

	토크형		체험형	
명예교사	대중음악가 김창완	대중음악가 인순이	한옥건축가 조전환	무형문화재 염색장 정관채
교육주제	사랑, 청춘, 기회에 대한 세대 대화	남과 다른 삶에 대한 대화	한옥 건축 마스터클래스	천연염색으로 배우는 한국의 미
교육현장				
참여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층	다문화 청소년 및 시민	직업고등학교 학생	가족 단위

(3)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종전의 법에 따라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을동 의원이 2011년 6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수행업무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정부는 이 개정 법률(제11312호)을 2012년 2월 17일 공포함에 따라 2012년 8월 18일 시행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법률 부칙에 따라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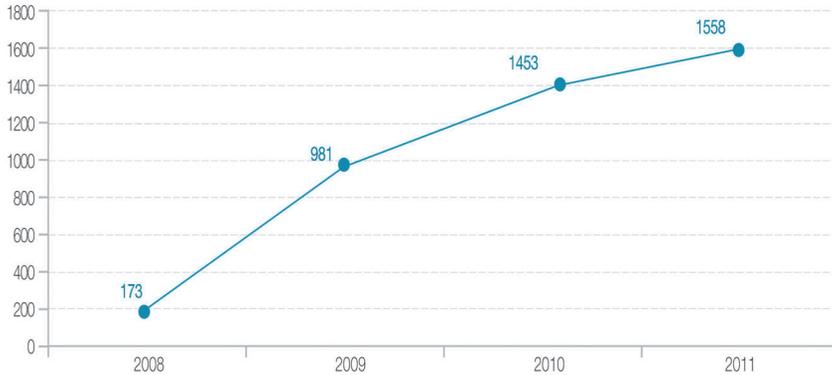
종전의 법률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활동을 핵심 직무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부여, 등록·신고 등 관리사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법률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및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4)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관계자와 함께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민간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동반성장을 해나가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 확산을 위해 일괄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지양하고 매체에 특성에 맞는 기획기사를 개발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동 사업에의 참여율을 증가시켰다. 미디어방송 포함 일간지 기사보도 1,558건으로 월 평균 130건에 이르는 언론 홍보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6-2 ● 언론보도 실적 (2008-201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문 매체 ‘아르떼진’을 운영, 국내 및 해외 통신원제도를 적용하여 정책사업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웹진은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23,740명에서 2011년에는 60,136명에 이르렀다. 상세 성과로는 ‘11년 말 기준으로 월 방문자 수는 36,000명, 웹진 기사별 페이지뷰는 월 117,530회에 달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소식을 다수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1년 웹진운영에서 정책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SNS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형 홍보를 진행하고 페이스북 및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전용채널을 개설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관련 사진·영상의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6-3 ●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채널 (아르떼진 www.artezine.kr)



(5)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0년대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추세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그 당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게 한국 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전 세계 문화예술 교육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점은 타 국가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계대회 준비단계에서 해외 각국 주요기관 방문 및 행사 참가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인 사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상호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 바, 각국 주요 관계자들이 국내에 다수 내방하여 교류하고 있다.

● 표 2-6-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관계자 내방 현황 (2011)

연번	내용	일시	협약사항
1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IFACCA) 사무총장 사라 가드너 내방	2011. 07. 29	IFACCA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활동현황 공유
2	영국 창의교육기관 CCE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대표 폴 클라드 내방	2010. 08. 10	양 기관 창의성 측정지수 연구현황 등 기관 활동현황 공유
3	싱가폴 국립예술위원회 예술참여부서 디렉터 외 2인 내방	2010. 08. 13	양 기관 예술강사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공유
4	대만 문화창의산업연구 시찰단 내방 (국립정치대학교 문화창의산업추진단 위원 외 5명)	2010. 08. 23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성과자료 공유
5	싱가폴 국립예술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본부장 외 8명	2010. 9. 21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소개
6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외 1인 내방	2010. 11. 16	테이트 모던 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7	유네스코 본부 창의도시네트워크 담당자 내방	2010. 11. 24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소개 및 유네스코 우수센터 제도 관련 정보 공유
8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김광조 소장 내방	2010. 12.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협력사업 (옵저버토리) 추진현황 공유

특히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 제시하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부터 꾸준히 기획·운영해 온 전문가 네트워크 및 콘텐츠 기반의 국제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커뮤니티 댄스, 인형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매개자 및 수혜자 대상의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예술교육의 평가, 쟁점과 원리’를 주제로 해당 서적을 집필한 미국과 호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의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 사진 2-6-4 ● 해외 전문가 초청워크숍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엄마와 딸>



연극 워크숍
<내 안의 나>



북 세미나 / 워크숍
<예술교육의 평가, 쟁점과 원리>

또한 2007년부터 진행된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방법론 등을 적극 활용, 재외동포 및 해외 현지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해외 우수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협력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에 한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해외 6개 우수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으로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지의 문화코드를 고려, 한국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재외동포·입양가족·한류 팬 등에게 공감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와 문화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6-1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외동포 한국문화교육 추진현황 (2011)

지역		협력기관	장르	기간	대상
중국	북경	CJ CGV	영화	8.22~26	청소년
미국	뉴욕	뉴욕필하모닉	국악+관현악	9.23~12.2	아동
	LA	재미국악원	탈춤+현대무용	12.19~21	일반인
호주	시드니	파워하우스 뮤지엄	국악+재즈	11.23~27	일반인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공예+디자인	10.17~19	일반인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BNF)	전래동화+인형극	10.31~11.3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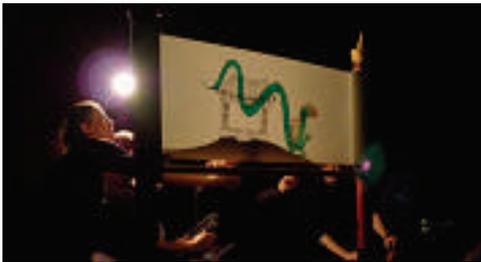
● 사진 2-6-5 ● 재외동포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중국 프로그램 교육현장



런던 프로그램 결과전시



파리 프로그램 결과공연



뉴욕 프로그램 결과공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인 ‘문화예술교육 옹저버토리’의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진흥원과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옹저버토리 웹사이트 시범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온라인 정보공유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개발되어 옹저버토리 네트워크 기관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의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www.apah.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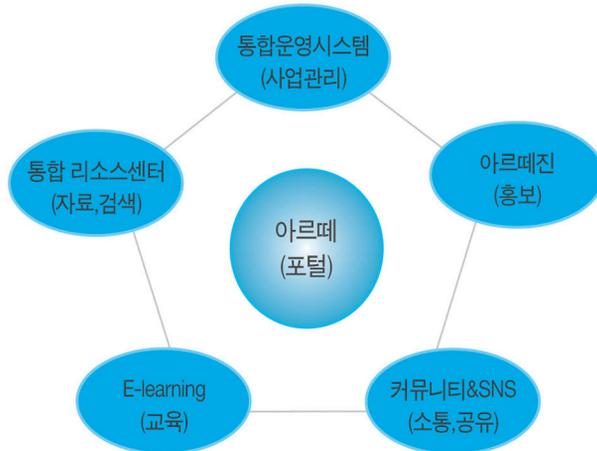
● 표 2-6-20 ●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옹저버토리 기관 (2011)

단체명	국가	연구주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	옹저버토리 허브 웹사이트 운영 및 한국문화예술교육
켄터베리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교육연구센터	뉴질랜드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의 음악교육 연구
멜버른대학	호주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예술교육 연구
나양대학 국립교육연구소	싱가포르	예술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문화다양성
스리나카린위룻대학교 미술학부 미술교육학과	태국	미술교육
홍콩교육대학 (HKIED) 문화창의예술학부 지역문화 및 창의교육 연구 옹저버토리	중국	지역문화 및 창의교육
알마티 카스테예프 미술디자인학교 문화간 창의교육 옹저버토리	카자흐스탄	문화다양성 및 창의교육

나.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사업은 지식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구축(ISP/ '06.2월 수립)에 의거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식생태계” 구조를 구축하기위한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인 ‘아르떼(www.arte.or.kr)’를 플랫폼으로 하여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시스템(ums.arte.or.kr), 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온라인 매체인 아르떼진(artezine.arte.or.kr), 문화예술교육 관련 매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E-learning(lms.arte.or.kr), 문화예술교육 관련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리소스센터(urs.arte.or.kr), 매개자와 향유자 간 소통하고 공유를 지향하는 커뮤니티(club.arte.or.kr)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6가지 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통합리소스센터 사업은 2011년 사업 중 포털사이트인 아르떼 홈페이지와 통합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추진되고 종료되었다.

● 그림 2-6-4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사이트 관계도



2011년 주요내용으로 자료 및 검색을 담당했던 통합리소스센터와 아르떼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차세대 사이트 1차 구축을 완료하였고(http://www.arte.or.kr), 진흥원 홍보용 모바일 사이트(http://m.arte.or.kr)를 개설하여 주요사업 및 활동내역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트로사이트(http://intro.arte.or.kr)의 웹접근성마크 획득을 통해 전 국민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온라인 매체 “아르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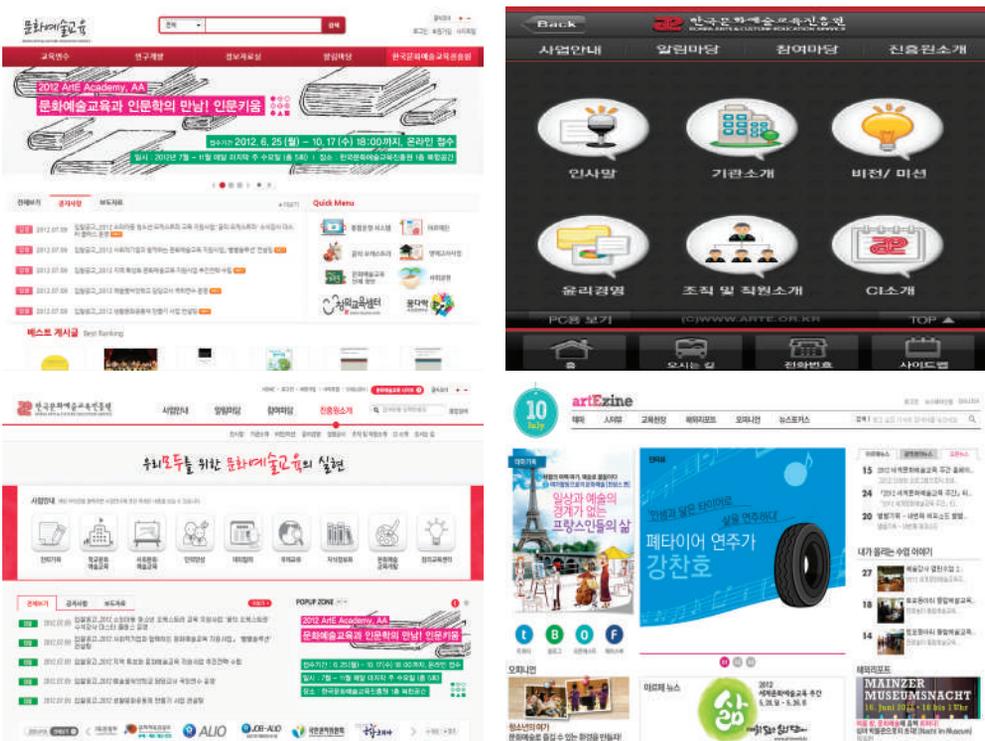
(http://artezine.kr) 운영사업”은 기존 artezine.arte.or.kr에서 독립도메인인 artezine.kr으로 변경하고, 기사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국문기사 480건, 영문기사 72건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합운영시스템 2011년 개편사업은 2011년 사업변경사항을 적용하였고, 사용자 로그인 기능 추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 표 2-6-21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입회원수	10,543	23,740	32,664	46,000	59,173	69,647
일일방문자수	1,162	3,066	4,084	4,300	3,652	4,826
만족도조사점수	68.3	74.8	76.6	76.2	68.8	74.3

● 그림 2-6-5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내용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콘텐츠 개발 연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하고 문화예술교육 수요 발생을 촉진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 확산을 도모한다. 이에 예술교육 분야별(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등 총 10개 분야) 교육범위와 수준체계를 개발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를 통해 학교급 별, 학년군 별로 문화예술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시행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방법론적 특성을 살려 예술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 및 중등용으로 나누어진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핵심매개자인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자기진단 도구 및 활용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강사의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단계별 설정을 통해 예술강사를 위한 자기발전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표 2-6-22 ● 콘텐츠 개발 연구 성과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내용
1	콘텐츠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 10개 분야별 학령기준에 따른 교육 내용 및 수준체계 설정
2	콘텐츠 개발 연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진로활동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콘텐츠 개발 연구	예술교육 촉진을 위한 자기진단도구 개발 연구	예술강사 핵심역량 정립 및 단계별 설정을 통한 자기진단 가이드 제공

(2) 기초 및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확대의 정당성 확보와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에 있는 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문화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역량의 개념 정립과 향후 전국 단위로 활용하기 위한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재 양성 강화방안과 같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 여부를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동향 분석, 전략 수립 등 향후 사업 개발에 유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로드맵과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요구와 시도가 공존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시기별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차별화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 표 2-6-23 ● 기초 및 정책 연구 성과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내용
1	기초 연구	문화역량지수 개발 연구	문화역량 개념 및 문화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2	기초 연구	문화예술분야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	학교 창의성 개념 도출 및 창의성지수 측정도구 개발
3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 도출
4	정책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탐색 및 개선점, 향후 발전방안 제시

(3) 평가·통계 연구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는 교육진흥원의 핵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측정치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특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꽃씨앗학교 26개교와 소년원학교 9개교, 교정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면접조사 등을 통해 효과 측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술꽃씨앗학교 학생들의 인성적 측면에서 표현력과 사회성의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미참여자 대비 4배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소년원학교는 8배의 자기조절력 증가 효과를 입증하였다.

● 그림 2-6-6 ● 관련 언론보도 (신동아, 2012년 1월호, 기획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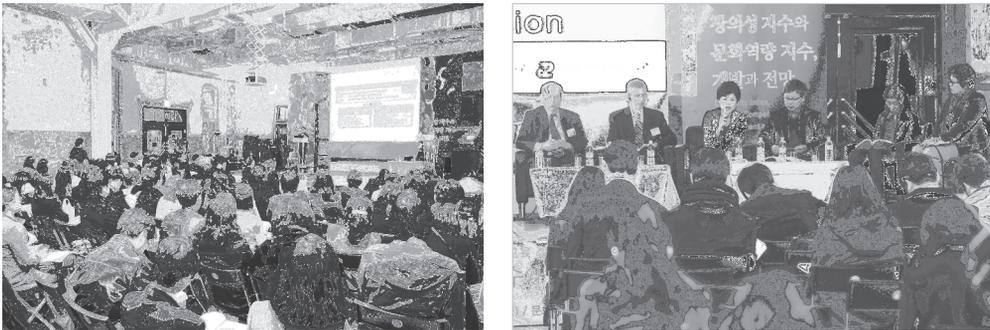
● 표 2-6-24 ● 평가·통계 연구 성과

구분	카테고리	연구명	연구내용
1	평가/통계 연구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연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시스템 단계별 성과평가 결과 도출
2	평가/통계 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꽃씨앗학교)	예술꽃씨앗학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효과 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결과 분석
3	평가/통계 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과학적 측정도구 개발 및 검증

(4)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및 콜로кви엄

연구 사업은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천적 접근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올해 시행된 연구 결과의 공유를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은 특히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시행된 창의성지수 입법화 사례를 통해 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창의성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진 2-6-6 ● 심포지엄 행사 사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콜로кви엄 시리즈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과 현장,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표 2-6-25 ● 2011년 콜로кви엄 추진 현황

구분	주제	일시	장소	참석인원
1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2011.5.28(토)	한국예술종합학교	155명
2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I	2011.8.27(토)	예술가의 집	105명
3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II	2011.10.8(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0명
4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동향과 실천 과제	2011.12.21(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3명
5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연구에 대하여	2011.12.22(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0명
총 계				393명

(5)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현장 교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 사업은, 2005년을 시작으로 현직교사의 문화예술교육분야 자율연구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학교 교사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시범운영함으로써 교·강사 간 상호 학습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표 2-6-26 ● 2011년 교사 자율연구모임 추진 현황

구분	연구주제	단체명
1	문화공동체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광주교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
3	청소년이 만나는 사진미디어와 지리적 체험 연구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4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초등음악과 연구	오르프슈베르크연구회
5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주식회사 아츠리퍼블릭
6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통합 노래창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민예총 울산지회 음악위원회
총 6개 단체 지원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은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종합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를 총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받았다.

● 표 2-6-2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2005. 02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제1대 김주호 원장 취임
2005.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공포
2006. 08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법 제10조)
2006. 1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법 제28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운영 실시
2008. 0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CETA’ 운영
2008. 07	제2대 이대영 원장 취임 / 구로구 신청사 이전
2008. 12	본부 체제 조직 확장(1본부 6팀)
2010. 5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동주관
2011. 07	제3대 박재은 원장 취임
2011. 10	조직 확대 개편(2본부 1실 7팀 1센터)

2005년 설립 이후 매년 전국 학교 및 사회교육의 현장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양적 규모와 사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존 1본부 6팀의 조직구조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1년 2본부(교육사업본부, 교육진흥본부) 1실(행정지원실), 총 7개 팀(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학교교육팀, 사회교육팀, 교육개발팀, 인력양성팀, 국제교류팀), 1개 센터(창의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예산총액은 656억원이며, 사업비 632억원(총예산의 96.3%), 기관운영비 24억원(총예산의 3.7%)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업 예산 중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이 53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6%에 달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은 90억으로 1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6-2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 (2011)

구분	내용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인지도 향상 및 사업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772개교(전체 학교의 51%) 8,615개 교육과정에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 ○ 문화 소외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26개교 총 3,535명(2011 연차보고서 기준) 학생 교육 참여 ○ 예술강사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제 시범학교 261개교 선정, 국악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최종 255개교 지원) ○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 사업을 통한 재능나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47개 프로그램 34,566명 어린이·청소년 참여 ○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중점학교 23개교(중고등학교), 1,200여명 학생 지원
2.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별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예술강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교정시설 수형자 등 총 10,278명 교육 참여 -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사회분야 예술강사 총 379명 활동 지원 (연간 30회 교육과정) - 군, 교정시설 및 소년원시설 130개 단체, 수혜자 2,338명 대상 지원 ○ 기존분야 확대 실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 2011 노인 문화예술교육 요구조사 및 측정지표 개발연구 ○ 관계 부처·기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예산 지속 매칭 등 부처간 협력사업 기반 공고화 - 특성화 교정시설 공영화 프로그램 지원 및 소년원학교 대상 명예교사 프로그램 별도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간 사업 수행관련 노하우 공유 및 부대 활동 지원 실시 - 지식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전국 5개 지역 유관기관 활동가의 네트워크 마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개 단체 학습공동체(CoP) 활동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대상 지원사업 및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별별솔루션’ 진행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시도 34개 기관 475명 청소년 대상 연극, 무용 등 4개 분야 공연화 사업 기획운영 ○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개 지역거점 기관으로 사업확대(10년 6개 기관), 전국 450여명 아동, 100여명 음악강사 참여 - 강사교육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글로벌 네트워크 세미나 등 장기적 운영기반 마련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友樂部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운영 수 3회로 확대, 운영, 소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 - 참가자 만족도 (매우 만족 79%, 만족 14%)
<p>3.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및 ‘서울 어젠다’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가치 재조명, 가치 구현을 위한 각국 공통의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25개 주제 워크숍 및 NGO포럼, 지역회의, 청년 포럼 개최) - 107개국 2,963명 참가(총 39개 매체, 61명/ 총 438건 보도) - 서울 어젠다(Seoul Agenda :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채택 ○ 유네스코 제36차 총회(2011.10)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어젠다 :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의 실행’ 의제로 회원국에게 후속조치 이행권고
<p>4.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20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어젠다’ 기반,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세미나 등 총 162개 프로그램 운영, 20,345명 시민 문화예술교육 체험 - ‘11년 국내 주간행사 성과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공유 - ‘서울 어젠다’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기존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성과공유
<p>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연수(학교, 사회) 총 5,385명 대상, 8개 과정, 2,425시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1,645시수, 5,034명 대상 기본, 심화, 특수연수과정 운영 - 사회 780시수, 351명 대상 기본, 심화연수 과정 운영 및 학습공동체 추진 ○ 전국 초·중고 학교경영자 및 교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운영(15회 3,765명) ○ 교사자율연구모임 프로그램 지원(총 6개 단체)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및 등급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추진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
<p>6.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58회 언론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사 노출 등을 통한 정책공감 확산 ○ 행사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개최(전국 162개 프로그램, 20,345명 참여/2011. 5) -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박람회 예술꽃 씨앗학교 어울림 트락(2011. 11) ○ 아르떼진(http://artezine.k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중적 확산 제고를 위한 아르떼진 운영

구분	내용
	<p>(‘11년 회원수 36,000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페이지 및 온라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오픈캐스터) 운영 ○ 해외 문화예술 관련 주요관계자 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기관 주요인사와 사업활동 및 프로그램 현황 소개·공유 ○ 총 3회 해외전문가초청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한나 브로테우스 초청 커뮤니티댄스 워크숍(‘11. 4) - 미국 그레고 초청 연극 워크숍 ‘내안의 나’(‘11. 5) - 미국 필립테일러, 호주 크리스티나 흥 초청 ‘문화예술교육의 평가, 쟁점과 원리’워크숍 ○ 저개발국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문화예술교육시설 활용, 한국문화 이해와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6회 기획 운영(북경, 뉴욕, LA 등 6개 도시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골드스미스 대학 등 협력) ○ 아·태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옹저버토리’ 회원기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 사이트 운영을 통한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네트워크 확장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리소스센터와 포털사이트(아르떼 홈페이지) 통합, 차세대 사이트 1차 구축 완료 (http://www.arte.or.kr) - 모바일 사이트(http://m.arte.or.kr) 개설 및 인트로 사이트 웹접근성 마크 획득 -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 가입회원 수 69,647명, 일일 방문자 수 4,826명, 만족도 조사 점수 74.3점(‘10년 68.8)
<p>7.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교육 기초 및 정책 연구(총 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창의성 지수 개발 연구 - 문화역량 지수 개발 연구 -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총 3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교육 촉진을 위한 자기진단 도구 개발 연구 -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 평가 통계 연구(총 3개 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예술꽃씨앗학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연구 -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교정시설, 소년원학교)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발전 도모를 위한 전문가 참여 콜로кви엄 개최(총 5회, 393명) ○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자율연구 모임 추진

4. 향후 전망 및 계획

문화예술교육은 21세기 창조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창의성 함양은 물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여왔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5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호평과 함께 우수 정책사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은 과거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문화예술교육은 사업규모 및 예산지원 등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이제는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곧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별 특화/심화된 사업모델 구축 및 지역 거점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과 관리시스템(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학교 폭력, 소통 부재 등 사회적 현안을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건전한 생활문화공동체 회복 및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공공 및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분권형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탐구·개발·확산하고 국제 예술교육교육 협력 현장 발굴과 교육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및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제7절 국제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국제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력활동을 통해 문화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세계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는 유네스코(UNESCO)가 선언한 “문화예술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모든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존경, 존엄성 및 가치 인정, 국가독립과 주권의 보장, 상호불간섭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기본원칙 준수 권고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교류에서 상징하는 문화의 개념은 인위적으로 구분지은 경계를 넘나드는 고착화된 활동이 아닌, 항구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성격의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의 경계나 문화권의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해외 문화홍보 인프라 확대

(1) 재외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추진

가. 재외문화원 증설

문화를 통한 교류 및 문화협력 기능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파리·뉴욕·LA·동경 문화원 이외에 추가된 러시아, 독일, 중국, 오사카 문화홍보원이 ‘문화원’으로 개편(2006년)되었으며, 영국, 상해, 베트남, 아르헨티나에 문화원을 신규 설립(2006~2008년)하여 2008년 말까지 총 12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문화교류를 다변화하고 에너지협력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폴란드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3개 지역에는 2008년 9월 문화홍보를 전담할 문화홍보관을 파견하였고, 문화원 신설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9년 문화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문화원 업무를 개시하여 2010년 초 정식 개원하였다. 나이지리아 문화원도 2010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5월 개원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 소속으로 문화원 기능을 수행하던 Korus House를 워싱턴 한국문화원으로 개편하였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동유럽 지역과의 문화교류 확대는 물론 중·동부유럽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도 한류 열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첨단 IT 정보강국 브랜드와 문화강국 이미지를 접목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와 전통문화를 조화롭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하여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동남아, 대양주, 서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스페인 지역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은 문화원 신설 여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0년에 설립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2011년 상반기에 개원하였다. 이후 터키, 헝가리, 멕시코 문화원이 개원하여 2011년까지 모두 23개의 문화원이 개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홍보관 파견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 표 2-7-1 ●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2011)

구분	일본(동경)	뉴욕	L.A.	프랑스
위치	4-4-10 Yotsuya, Shinjuku, Tokyo	460 Park Avenue 6th, Fl. New York, N.Y.	55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lifornia	2 Avenue D'Iéna, 75116 Paris
소유형태	소유	임차	소유	소유
규모	8,349㎡	813㎡	2,540㎡ ²	809㎡
주요시설	전시장, 공연장, 전통악기실, 세미나실, 도서영상자료실 등	전시실, 도서실, 다목적실, 사랑방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영상실	강의실, 도서관, 다목적홀
구분	중국(북경)	독일	러시아	오사카
위치	No.1 Guanghua Xili, Guanghu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34a, Zemlyanoi Val St, Moscow	4th FL, Mindan Bldg, 2-4-2 Nakazaki, Kita-ku, Osaka, Japan
소유형태	소유	임차	임차	임차
규모	6,301㎡	1,337㎡	1,105㎡	501㎡
주요시설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세미나실, 멀티미디어브리핑룸	전시실, 공연장, 강의실, 도서실, 영화관	전시실, 도서관, 영상자료실, 강의실, 전통음악교실	전시장, 다목적홀, 도서실, 강의실

구분	영국	베트남	상해	아르헨티나
위 치	Unit E&F, Grand Buildings, Northumberland Avenue London	49 Nguyen Du Street, Hai Ba Trung District, Hanoi	Room 501, Huizhi Building, No.396 North Caoxi Rd. Shanghai	Diaz 2884, Cap.Fed. 1425, Buenos Aires
소유형태	임 차	임 차	소 유	임 차
규모	907.7㎡	970㎡	2,604㎡	502㎡
주요시설	전시실, 공연장, 다목적홀, 멀티미디어실	영상·음악자료실, 영화관, 도서관, 전시실, 강의실	도서실, 강의실, 다목적홀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구분	폴란드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워싱턴
위 치	Nordic Park Building, 8 Kruczkowskiego, Warsaw	010000 Nur Saulet-2 Business Center, Imanow St. 12Astana	Rivers State Building, 83 Abuja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소유형태	임 차	임 차	임 차	소유(대사관)
규모	852㎡	918㎡	915㎡	1,018㎡
주요시설	사랑방, 다목적홀 세미나실, 도서실, 요리강습실	멀티미디어홍보관, 다목적홀, 도서관, 상의실, 상설전시관	도서관, 컨퍼런스룸, 강의실, 전시홀, 태권도장	강의실, 전시실
구분	호주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위 치	255 Elizabeth Street	Paseo Castellana 15	32nd St. Bonifacio Glibal City, Taguig city	SCBD LOT 9
소유형태	임 차	임 차	임 차	임 차
규모	974㎡	962㎡	955㎡	874㎡
주요시설	다목적홀,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세미나실, 도서실	전시실, 다목적홀, 강의실, 도서실	강의실, 도서관, 전시실, 다목적홀	다목적홀, 도서관, 강의실, IT SHOW ROOM,
구분	터키			
위 치	Paris Caddesi No. 74 Ankara			
소유형태	임 차			
규모	1,250㎡			
주요시설	태권도장, 공예전시관, 강의실, 공연장, 사랑방			

나. 코리아센터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원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민족문화, 문화산업, 관광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재외문화원을 확대·개편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를 동일 장소에 입주시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코리아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착공한 동경코리아센터 신축공사가 2009년 4월 마무리되어 2009년 6월 개원하였다. 최초로 해외에 신축한 동경코리아센터는 신주쿠지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다목적 전시실, 도서실, 사랑방과 전통정원 등을 갖추고 있어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을 이어감은 물론 문화예술, 관광, 문화콘텐츠, 체육 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뉴욕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해 2008년 11월 맨하탄 중심가에 나대지를 매입하였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설계현상공모를 추진하여 12월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한류체험관, 강의실, 창작스튜디오 등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강좌, 작품활동 등 복합 문화활동에 적합한 기능성을 갖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뉴욕코리아센터는 2014년 개원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리아센터는 미국 LA(2006.9), 중국 북경(2007.3), 상해(2007.7), 일본 동경(2009.6)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통·민족문화의 세계화, 한스타일 해외진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를 집중 추진하여 기존 문화원 운영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객 지향의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설확장과 동시에 코리아센터 운영과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2) 재외문화원 운영 활성화

해외에 있는 20개 한국문화원의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중점 사업계획은 해외 한국문화원의 한류확산의 거점 역할 강화와 해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의 현장화, 특성화, 브랜드화 추진을 하였으며,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따른 2011년 추진 실적은 5가지가 있다. 첫째, 지구촌 한류팬의 폭발적 증가로 한국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문화원 주재 지역 팬클럽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지역별 K-Pop 콘테스트, 동아리 주관 한국문화축제 기획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 둘째,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강좌도 대폭 증설되었다. 러시아문화원과 카자흐스탄문화원에 수강 정원이 폭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강의실 공간 추가 확보

및 현지 대학 연계 강좌 상시 운영의 성과가 있었다. 셋째,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을 현지화, 특성화, 브랜드화 하였다. 「1문화원 1대표사업」, 찾아가는 문화원, 한식·미용·패션 등 생활문화 소개 등을 시행하였다. 넷째, 체계적인 문화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문화홍보관 파견교육 강화로 그 일정을 대폭 늘렸으며, 한국문화원 CI 개발 보급, 브랜드화, 회계시스템 구축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섯째, 재외문화홍보관 성과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표 2-7-2 ●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2011)

문화원	방문자 (명)	한국어 강좌 (회/명)	문화 강좌 (회/명)	영화 상영 (회/명)	전시회 (회/명)	공연 (회/명)	홈페이지 접속 (명)	기타 (건축회 등 /명)
동경	66,729	493/7,267	201/2,291	19/6,150	29/10,520	64/21,665	1,151,346	18,836
오사카	49,371	1,781/24,183	413/4,572	24/310	7/2,613	28/11,360	333,465	6,333
북경	73,168	519/13,078	149/3,186	51/2,307	13/1,647	34/7,113	255,742	47,637
상해	46,019	174/12,462	74/1,478	1/152	10/991	25/57,388	82,240	11,159
베트남	28,860	628/18,109	130/2,903	28/98	8/1,047	36/2,790	113,428	3,913
프랑스	31,712	654/10,604	124/1,028	16/ 486	19/24,981	65/4,738	190,081	7,928
독일	16,763	250/ 2,783	329/3,005	12/ 173	14/905	38/3,023	89,661	6,790
러시아	31,712	654/10,604	124/1,028	16/ 486	19/24,981	65/4,738	190,081	7,928
영국	22,420	209/ 2,174	8/782	35/2,226	9/540	53/105,117	162,304	2,220
뉴욕	15,440	-	-	22/2,700	9/7,630	14/52,030	263,000	4,470
LA	98,284	47/ 9,368	15/1,044	41/2,315	12/9,450	23/6,664	367,928	69,443
아르헨티나	46,368	39/ 1,749	-	48/897	7/30,449	-	83,398	103
카자흐스탄	18,027	959/ 9,923	264/2,284	49/1,455	6/19,418	2/3,600	27,503	4,679
폴란드	10,442	1,112/2,410	245/1,796	11/257	5/850	33/1,757	31,581	3,372
나이지리아	14,434	168/1,661	272/3,329	45/807	2/900	22/3,370	8,211	3,819
워싱턴	27,414	74/ 4,350	57/4,680	16/2,100	11/2,030	26/12,260	1,041,116	2,034
시드니	44,792	32/ 1,324	87/836	25/930	1/177	24/25,689	44,562	12,676
스페인	4,129	22/304	51/389	5/157	4/654	2/140	32,055	3,362
인도네시아	13,520	378/3,425	3/80	12/335	17/1,732	23/2,846	38,131	5,102
필리핀	19,182	316/4,926	192/2,463	6/410	62/5,349	24/2,442	44,662	3,592

(3) 문화원 운영프로그램 특화 및 브랜드화

우리문화에 대한 현지 수요 및 수용도 등을 반영하여 각 문화원 별로 특화된 문화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사업계획은 문화원별 특화된 ‘한국문화주간’ 개최와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주재국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문화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류확산 지원을 위한 현지 특성화 강좌 등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2011년 추진실적은 4가지가 있다. 첫째, 「1문화원 1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집중 추진으로 브랜드화를 이끌었다. 그 예로 한일축제한마당(동경), 한국문화의 날(LA), 템즈축제계기 한국문화축제(런던), 중남미K-POP대회(아르헨티나), 한국문화관광축제(상해) 등이 있다. 둘째, ‘찾아가는 문화원’과 현지 사회 기여 프로그램(소외계층 초청 등) 확산 및 한국문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그 예로 찾아가는 문화원(독일, 폴란드, 카자흐), 불우이웃돕기 미술품 자선경매(북경), 지방도시 순회 문화소개(러시아) 등이 있다. 셋째, 한류확산 지원을 위한 현지 특성화 강좌 등을 개설 추진하였다. 그 예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문화원 등에 결혼이민자, 근로자 파견 예정자를 위한 “특별 어학 코스반” 개설 운영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한국 문화(한식·미용·패션 등)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 및 한국 문화 마니아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였다. 넷째, 문화원 우수사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문화원장별로 연간 창의적인 사업과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문화원장 인센티브 제공을 하였으며, 매년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기념패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4) 기타

그 밖에 해외에 한국의 문화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재외문화원 CI 개발 및 보급이다. 최근 한류 붐 등으로 해외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재외한국문화원도 늘어남에 따라 재외 한국문화원의 통일적 이미지가 필요하였다. 통일된 CI 제작 보급으로 한국문화 홍보 거점인 재외문화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할수 있으며 이는 재외 한국문화원 현판, 홍보자료, 뉴스레터, 배너, 기념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재외문화원 회계 시스템 구축이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하여 재외문화원·홍보관 예산회계시스템 웹망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예산집행관리의 체계화·투명화를 추진하였다. 구축내용은 일별, 주간별, 월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데이터화하는 것이며, 예산편성, 집행 내역 등 각종 통계자료 구축과 예산집행 외인 연초 사업계획, 재외 활동상황, 우수사례, 커뮤니티 등이 있다. 셋째, 해외 한류 팬클럽 조사이다. 해외 한국문화원에서는 20개 지역의 한국팬클럽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화원이 있는 20개 지역에는

182개 팬클럽 330만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 유형은 역별조사와 가수별, 연기자별, 영화/드라마, 기타(종합, 일반) 등으로 구분되었다. 특이점은 한류가 확산된 지역일수록 가수별, 연기자별 등의 유형이 세분화되었다. 넷째, ‘K-POP WORLD FESTIVAL 2011’ 개최이다. 킬러콘텐츠로서 K-pop 콘테스트를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우승팀을 한국에 초청하여 결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한류 붐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K-pop 콘테스트와 한류스타와의 합동공연 형식을 추진하여 한류문화 연례 축제를 정례화하였다. 2011 행사는 경남 창원시 실내경륜장 특설무대에서 2011년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행해졌으며, 16개국 17개 지역 우승자(팀) 21개팀 40명이 참여하였다.

2)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 문화동반자 사업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풍부한 문화적 자원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점 또한 문화에 있다. 여기에 문화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문화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친근하고 발전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를 통해 각 나라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각국에 친근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고 경제적 위상에 비해 평가 절하되어 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수 사업이다. 분야는 문화정책, 전통·현대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으며 대상 국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각국이다. 피초청자는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관광·체육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국립문화시설, 산하·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번역원 등 11개 기관이 12개 사업을 통해 78명을 초청했다. 10월에는 3일간 전주를 방문하여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했으며, 12월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9개 사업 144명을 초청하였으며, 전주·경주 및 홍대 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아리랑 TV 등 매체를 통하여 각 기관의 동반자 전문분야 연수와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사업평가, 각 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아시아·남미·아프리카의 29개 국가에서 초청된 문화동반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남미·아프리카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를 통한 쌍방향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한류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0개 국가에서 95명을 초청하였고, 2007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국가군을 초청, 교류가 전무하던 국가들(중앙아시아 국가 증가)과의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르 및 분야의 주관기관들은 전문연수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강화하고 ‘자국문화정책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타 지역 문화관광정책의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한 동반자적 공존 관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7개 국가에서 74명의 문화동반자들이 초청되었다. 또한 체류기간 중 내국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의 경우 외부공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생을 공모하여 문화동반자와 연결해줌으로써 원활한 한국생활 지원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는 문화동반자 사업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초청대역이었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세 대륙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그 초청대역을 확대하여, 아시아 17개국, 남미 5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동유럽 6개국, 총 37개국에서 70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또한, 2005년 시범사업 때부터의 초청자들의 인력데이터를 정비하여 문화동반자 인력풀 가이드북을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및 동사업 관련 협력 기관들에 배포했다.

2011년에는 문화동반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경희대 및 서울대는 한국어 연수를 하였으며, 기숙사에 대한 협약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였다. 문화동반자사업으로 제주도에에서 문화탐방을 하였으며, 국립극장 등 17개 기관에서는 직무연수 및 한국어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 표 2-7-3 ●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 (2011)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10 예산(백만원)	인원
문화관광정책 연구인력 교류 연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정책 공동 연구 ○ 연구발표, 정기세미나 개최	28	2명
댄스교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 한국 무용 및 예술 연수 ○ 공동창작 및 공연 등	58	3명
게임콘텐츠심의 선진화 네트워크 구축	게임물등급위원회	○ 심의제도 및 사례 교육 ○ 국제컨퍼런스 등 개최	40	3명
한류국가저작권 공공부분 인력 연수	저작권위원회	○ 한국 저작권 실무 교육 ○ 저작권 공동연구 등	41	3명
스포츠과학 전문가 교류 연수	체육과학연구원	○ 체육과학연구원 연수 ○ 체육 학술대회·세미나 등	30	2명
태권도 친선교류 연수	국기원	○ 국기원 지도자연수 및 교류 ○ 세계태권도한마당 등 참여	59	4명
무형문화유산(전통공예) 전승자 교류 연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무형문화재보유자 강의 ○ 공동 창작 작품제작 전시회	35	2명
문화재 디지털복원 기술 교류 연수	KAIST	○ 문화유산 기술 교류 지도 ○ 문화재 복원 및 활용 연구	40	3명
제3세계 전통악기 연주자 초청연수	(재)국립극장발전기금	○ 전통악기연주자 연수	372	20명
무형문화유산(탈춤) 전승자 초청 연수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 탈춤 강습, 연수 ○ 탈 창작작품 제작	56	4명
해외방송산업 종사자 초청연수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	○ 해외방송산업 종사자 초청 연수	28	2명
문화동반자사업 지원 (사무국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총괄, 온라인네트워크 ○ 사업홍보기관 프로그램 지원	213	-
12개사업	11개기관		1000	

● 표 2-7-4 ●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 (2011)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10 예산(백만원)	인원
박물관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운영시스템 연수 ○ 해당국 전시 공동 큐레이팅	101	6명
해외도서관 사서 교류 연수	국립중앙도서관	○ 주제정보참고서비스 연수 등	73	4명
현대미술 전문가 교류 연수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현장 연수 ○ 보존수복 전문기술 연수	72	3명
전통예술인 국악교류 연수	국립국악원	○ 국악 연수(이론 및 실기) ○ 아시아 전통음악 상호교류	61	4명
민속박물관 관계자 교류 연수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비교 연구 및 발표 ○ 기획전/특별전 공동 큐레이팅	80	4명
예술분야 교수 연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학교 강좌 참가 및 특강 ○ 분야별 연구, 문화교류페스티벌	73	5명
6개사업	6개기관		460	

(2) 한국알림이 사업

한국 알림이 사업은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한국 알림이’로 지정하여 소양과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교류활동에 필요한 홍보물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민간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추진 방향은 홍보의 효과성과 현지 유용성 등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한국문화를 각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추진성과로는 하계사업으로 2011년 6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좌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강의와 박물관 상설전 관람 및 해설 등을 하였다. 동계사업으로는 2011년 12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좌참석자를 대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강의를 하였다.

● 표 2-7-5 ● 한국알림이 사업 실적 (2006-2011)

구 분	기 간	참가팀	대상 인원	참가 인원	추진 내용
'06년 하계	6월말~ 8월하순경	46개팀	1,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K홍보물(손수건, 티셔츠, 스티커, 독도엽서, 책자 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생사회봉사 협의회 외'와 협조 ○ 46개팀 블로그 개설, 현지 홍보활동 등재(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동결과서 접수(9~10월) 및 결과보고회 개최(11.6)
'06년 동계	12월 중순~ 2월중순	40개팀	956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K홍보물(손수건, 티셔츠, 스티커, 독도엽서, 책자 등) ○ 46개팀 블로그 개설, 현지 홍보활동 등재(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회 개최('06.3.27, 성신여대)
'07년 하계	6월말~ 8월하순경	76개팀	1,411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봉사단 발대식(6.27, 21개국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사단 강당 ○ 홍보물 지원: 홍보동영상 및 책자, 노트, 두건, 필기구세트 등
'07년 동계	12월중순~ 2월중순	70개팀	1,276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17, 홍사단강당, 120여명 참석) ○ 홍보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건, 수첩, 한국소개자료 등 배포
'08년 하계	6월말~ 8월하순경	55개팀	1086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06.17~20,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0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역사, 한지공예, 탈춤, 판소리, 부채춤 등 6개 강좌 운영 ○ 홍보물 지원: 홍보동영상 및 책자수첩, 두건, 볼펜, 티셔츠 등
'08년 동계	12월중순~ 2월중순	41개팀	962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21(일), 코오롱빌딩, 7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역사, 한지공예, 탈춤, 부채춤, 택견 등 6개 강좌 운영 ○ 홍보물 지원: 홍보동영상 및 책자, 노트, 두건, 필기구세트 등
'09년 하계	6월말~8월 하순경까지	31개팀	669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6.26,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떡박물관, 20팀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식, 전통공예, 국가이미지 제고 등 3개 강좌 운영 ○ 두건, 수첩, 한국소개자료(책자 등) 배

구 분	기 간	참가팀	대상 인원	참가 인원	추진 내용
'09년 동계	12월중순~2월중순	51개팀	1,042명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17.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떡박물관, 20팀 참가) - 한국음식, 전통공예, 국가이미지 제고 등 3개 강좌 운영 ○ 두건, 수첩, 한국소개자료(책자 등) 배포
'10년 하계	6월말~8월 하순경까지	68개팀	1,230명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6.23. 한국예술종합학교, 20팀 참가) - 국가이미지 제고, 한·중·일 문화 비교, 전통공예, 사물놀이 강좌 등 ○ 홍보물 지원 : 두건, 필기구, 홍보책자 등
'10년 동계	12월중순~2월중순	25개팀	584명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28.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문화의 본질, 한지전통공예, 국가이미지 제고 등 3개 강좌 실시 ○ 스포츠타올, 필기구 세트, 한국소개자료(책자 등) 배포
'11년 하계	6월말~8월하순	29개팀	595명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6.28. 국립중앙박물관) - 민간외교사절로서 한국알림이(윤덕균교수강의), 박물관 상설전 해설 및 관람 등 실시 ○ 배포물품: 스포츠타올, 필기구 세트, 한국소개자료(책자 및 리플렛)
'11년 동계	12월중순~2월중순	71개팀	1,366명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알리기 강좌 실시(12.5. 국립중앙박물관) - 민간외교사절로서 한국알림이(서경덕교수강의), ○ 배포물품: 티셔츠, 에코백, 한국소개자료(책자 및 리플렛)

(3) 해외문화예술봉사단

본 사업은 문화교류빈도가 낮은 동유럽 지역에 전통예술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확산하고, G20세대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과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에 현지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판소리, 사물놀이, 장구, 민요 등 전통문화 예술 공연과 한국어 강습이 있다.

● 표 2-7-6 ● 문화예술봉사단 사업 실적 (2005-2011)

연도	예산액	참가국	참가인원	파견지역	팀원
'05	1억	2개국	10명	스리랑카	이유진 외 4인
				우크라이나	김은정 외 4인
'06	1.2억	3개국	15명	러시아(연해주)	예술단 가람휘
				우크라이나	김주영 외 4인
				아제르바이잔	(사) 사물놀이 한울림
'07	1.2억	3개국	15명	우즈베키스탄	하늘다래팀
				우크라이나	아우름팀
				벨라루스	김효정 외 4인
'08	1.2억	3개국	15명	카자흐스탄	박윤나 외 4인
				우즈베키스탄	소리울팀
				러시아	송정연 외 4인
'10	1.2억	2개국	10명	카자흐스탄	정다운 외 4인
				벨라루스	조유경 외 4인
'11	1.2억	3개국	15명	벨라루스	윤서희 외 4인
				러시아	유태선 외 4인
				카자흐스탄	풍's 팀

* '09년은 미 실시

(4)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유네스코 신탁기금 자금 출연을 통해, 아태지역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국제연대 및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강화를 도모하였다. 세부사업 내역은 4가지가 있다. 첫째, 브루기나파소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문화산업 육성기관 설립지원'이다. 그리고 음악 산업 기반시설 Reemdoogo센터 설립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20명의 사업가들에게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음악관련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자료 개발 등을 하였다. 둘째, 라오스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라오스 문화산업-창조적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라오스문화산업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문화산업발전 최우선과제 규명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파악 및 연계를 하였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 부문 중 한개 이상의 부문을 위한 개발전략 제안하였다. 셋째, 몽골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몽골의 공예산업

강화'이다. 공예분야에 중점을 둔 고유 접근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기관, 학계, NGO,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결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창조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형성지원 등을 하였다. 넷째, 베트남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광남지역의 공예마을 관광 진흥'이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의 공예마을 관광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였으며, 공예품생산과 관광부분 연결성 강화로 소득창출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프레임 워크의 검증, 시행과정의 문서화를 하였으며, 지방 관광협회 설립 및 운영 등을 하였다.

3)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 확대

(1) 수교 계기 문화행사 개최

국가 간 수교 기념 계기를 활용한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연중 수교기념 행사로,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과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한-그리스 수교 50주년,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추진하였다.

● 표 2-7-7 ● 2011 주요 추진 실적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용	시기	보조사업자
□ 한-호주 수교 50주년 행사			
○ 개/폐막식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크로스오버 음악 (폴림양상블) 연주 등	12월	(사)아트컴판
□ 한-그리스, 포르투갈 수교 50 주년 행사			
○ 50년 우정의 선물, 한국의 향	동서양 음악을 조화시킨 갈라공연	10월	(사)플레이팩토리
□ 한-네덜란드 수교 50,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 행사			
○ 소울해바라기(soul, sunflower) 공연	네덜란드, 벨기에 수교기념 국립국립무용단 대표 래퍼토리 공연	5월	(재)국립극장발전기금
○ 비빙 '이면공작' 공연	전통가면극	6월	비빙
○ 서울시향 로베코여름시리즈 공연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음악홀 정통 클래식 공연	8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악기박물관 한국악기 전시 기념 공연	벨기에 악기박물관에서 전통국악 공연	6월	국립국악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파지나 비앙카	국립극장 초청, 벨기에 현대무용 소개	10월	(재)국립극장발전기금

가.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을 “한국-호주 우정의 해 2011”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하여 양국 간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였다. 개막식공연과 축하공연에는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발레리나 김주원과 이영일의 현대무용, 해금과 기타연주, 무산향과 춘앵전 및 궁중한복 등 갈라 공연이 펼쳐졌으며, 폐막식에는 크로스오버 음악(폴림양상블) 연주 와 소프라노 권혜승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개막식공연에는 1,800여명, 축하공연과 폐막공연에는 각각 600여명, 1,150여명이 참여하여 총 세 차례 공연에 3,500여명이 참여하였다.

나.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한-벨기에 110주년 기념행사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과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에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치루었다. 먼저, 국립무용단에서는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네덜란드 헤이그 루센트 극장과 2011년 6월 1일 벨기에 브뤼셀 국립극장에서 2차례에 걸쳐 소울, 해바라기를 공연하였다. 그 후,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로 2011년 6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면극 프로젝트 ‘이면공작’을 공연하였고,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브뤼셀 악기박물관 공연장에서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8월 19일 세계적인 음악홀 콘서트트허바우(Concertgebouw)에서 열리는 로베코(Robeco) 여름시리즈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가 소개되었고, 한-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 행사로 201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벨기에 현대무용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10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공연을 진행하였다.

다. 2011 APEC 계기 중남미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

중남미 한국문화페스티벌은 2011년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주(하와이·중남미) 지역에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자 진행된 순회공연이었다. 전통·퓨전·현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이 갈라쇼 형식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행사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하와이 호놀룰루에 개최하였다.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평소 한국문화를 자주 접하기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극장 보유 객석수를 초과하는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전통·퓨전·현대 등의 다채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치른 본 행사는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선진적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2-7-8 ● 각 공연 관람객 수

개최지(일자)	관객 수/극장 좌석	공연장소(극장명)
아르헨티나(10.7)	1,500여 명/ 1,000석	부에노스아이레스(Teatro Avenida)
멕시코(10.11)	1,000여 명/ 980석	멕시코시티(Julio Castillo)
하와이(10.14)	1,400여 명/ 1,400석	호놀룰루(Hawaii Theater Center)

(2) 교류의 해 계기 문화협력 활성화

이밖에도 인도, 몽골, 카자흐스탄 등과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인도는 “2011 인도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인도의 해”를 지정하고 2011년 3월 26일 뉴델리 사켓몰 광장과 2011년 12월14일 델리 시리포트 오디토리움에서 두 차례 기념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양국 간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한국과 몽골 역시 2011년 3월 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기념공연 등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쌍방향적 문화교류사업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세번째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기념 개막행사를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개막식은 2011년 5월 5일에, 폐막식은 2011년 10월 20일에 진행되었다.

(3) 문화예술 해외교류

가. 제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11년 1월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나라현 신공화당에서 진행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3국의 문화교류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동북아 문화협력 기반을 조성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 및 심화하여 상호간 교류 확대와 공동 제작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문화재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협조하고, 박물관 차원의 교류를 강화하며,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담당할 국제센터를 각국에 설치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하였다. 셋째, 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교류를 강화하고, 저작권의 보호와 정구 콘텐츠의 유통촉진에 적극협조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국민차원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민간 주도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를 활용한 관광 진흥에 노력하여, 삼국 각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동선언문채택 이외에도 기자회견, 양자회담, 기념석비 제막식, 기념식수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나.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한·일 양국간의 문화교류협력 및 문화교류증진을 통하여 양 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한일문화교류사업(양국 전체회의)과 한중일 문화교류사업(한중일 문화교류포럼, 한중일 예술가 교류)을 추진하였다. 운영예산으로 관광기금 15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3차례의 행사를 진행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2회 전체회의 및 심포지엄은 2011년 3월 10일과 11일에 국민적 차원의 문화교류 확대 '스포츠, 공연예술, 문학'이라는 의제로 진행하였으며, 한류·일류의 상호수용 실태와 '문화현상'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7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및 문화예술공연은 2011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추진 방안이라는 의제로 발표하였다. 제3회 전체회의 및 심포지엄에서는 2011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였으며, 국민적 차원의 문화교류 확대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한일교류의 시대로 '문화협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다. 한일축제한마당

한·일 양국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한일관계 증진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친근감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행사는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경 롯본기 힐즈 아레나에서 열렸으며, 전야제, 개막식, 순수예술(전통, 퓨전, 현대무용), 한류콘서트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K-POP 콘서트에는 2,000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라. 문화소통포럼(Cultural Communication & Forum)

2011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G20문화계 리더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토론회 및 CCF 문화소통의 밤을 개최하였다. CCF 참가자들은 창덕궁 방문, 한식 만찬, 공연 관람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귀국 후 각자 자국에서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CF 토론회에는 17명의 토론회자와 언론인 등 관계자 38명이 참석하였다. CCF Knight에는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22개 언론매체가 취재하고 51회 보도되었다.

(4)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해외 여론주도층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및 우리문화 홍보에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 아사히 방송사 사장, 멕시코 작가, 브라질 상파울루 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카자흐스탄 국립차이코프스키음대 총장, 벨기에 RTBF 음악감독 등 주요 인사 5명을 초청하였다.

● 표 2-7-9 ● 2011 해외 주요인사 초청 실적

초청자	직책	초청기간
와타나베 가쓰노부 (渡辺 克信)	일본 아사히 방송사 사장	5.4 ~ 5.7
후안 비요로 (Juan Villoro)	멕시코 작가	6.1~6. 13
파울로 포르텔라 필유 (Paulo Portella Filho)	브라질 상파울루시립 미술관 교육담당 큐레이터	6.11 ~ 6.18
띠에리 로로 (Thierry Loreau)	벨기에 RTBF 음악감독	10.31~11.7
칼리에바 아이야 (Kaliyeva Aya)	카자흐스탄 국립차이코프스키음대 총장	11.3~11.10

(5) 주한 외국인대상 홍보

주한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은 주한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켜 자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한국문화 홍보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중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주한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문화 이미지 홍보’공모전이다. 미래 여론 주도층에 대한 국가이미지 홍보라는 관점의 전략적 접근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문화체험 제공이 아닌 주한외국인의 능동적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한국문화, 주한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이미지’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행사는 주한미

근대상 한국문화 소개행사로, ‘한국의 흥’을 주제로 한 전통·현대 퓨전 공연을 통해 참석자가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11년 10월 6일 주한미군 부대 내 아메리칸 하이스쿨 강당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공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귀국 후 우리문화 홍보 및 친근한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고자 2011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일요일 당일 프로그램(총2회)과 토·일 1박 2일 프로그램(총3회)을 각각 준비하여 근로자 여건 및 선호도에 따라 선택 추진하였으며, 문화유적 답사, 전통문화체험(놀이, 음식, 주거문화 등) 및 공연관람 등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국가의 주권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한 근대 시기 이전인 고대로부터 행해져 온 국가 간 교류는, 이로 인한 상호 영향의 근거는 박물관의 역사적 유형유산들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인 축적 혹은 일시적 단절을 겪으면서도 면면히 지속되어온 교류 행위는 해당 시기와 공간의 지배적 담론의 특성을 반영한 지향점에 복무했으며, 그 목적에 따라 교류활동의 유형도 달랐다. 문화침략 및 찬탈이 교류로 인식되던 시대, 정치·이념적 동맹을 위한 편짜기형 우호적 교류, 수신과 발신자가 상호 자유롭게 교체되는 문화횡단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되기도 하며 수행되어왔다.

우리나라는 현대 이래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교류도 왕성히 전개해, 현재 UN의 사무총장 배출, UNESCO 아태무형유산센터 설치를 비롯, 부산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등 다자 교류와 양자 교류 면에서 성과를 올리고, 역동적인 대중문화의 교류 결과인 한류에 들뜨거나 성토할 정도가 되었다. 향후에는 국가 간 교류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21세기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과 비전 수립, 문화교류의 현황과 수요 파악, 문화교류 수행체계 정립 등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세계시민들이 함께 창조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횡단형 국제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8절 도서관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육성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서관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지식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도서관 구현 등을 담은 5년간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발표('08.8월)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1차년도 '09년 시행계획('08.12월)과 2차년도 '10년 시행계획('09.12월), 3차년도 '11년 시행계획('10.12월)과 4차년도 '12년 시행계획('11.12월)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건립·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가는 한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의 내실화,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등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도서관·문학관에 문학작가 파견, 우수학술·교양도서 보급, 오픈액세스 등 디지털서비스 기반 구축, 다문화와 취약지역 대상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독서사회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독서진흥정책은 중요한 문화정책”이라는 전제아래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 독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발표(08.6월)하였고, 이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독서환경 조성 ②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③ 독서운동 전개 ④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도서관정책은 문교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고 이와 함께 도서관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는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1년 4월 8일 도서관정책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이관과 함께 어문출판국 도서출판과에서 도서관 및 국민독서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4일 어문출판국 폐지와 함께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 신설과 함께 생활문화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정책과와 박물관과를 통합하여 문화정책국에 도서관박물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 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조직 개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8588호)을 단행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기능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06년 2월에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역단위의 도서관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006년 4월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면서 도서관이 국가 지식정보센터의 중추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7년 4월 5일 『도서관법』 전면개정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조직을 일부개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제20042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는 한편, 5월 22일 문화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6월 12일에는 대통령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추진 및 주요사항의 부처 간 조정과 통합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업무를 이관 받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도서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2008.12.31)에 따라 1월 1일자로 정책기획과·정책조정과·제도개선팀을 도서관정책과·도서관진흥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을 폐지하여 그 업무를 도서관진흥과로 이관하였으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2009.5.4)에 따라 도서관진흥과를 도서관진흥팀으로 개편하였다.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22246호, 2010.1.30)하여 그간 미디어정책국에서 관장해오던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 하여 기존 도서관 업무와 함께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연계하여 사업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관련 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도서관 설립 및 육성 지원,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정보화 정책 추진 등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여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1기(임기: 2007.6.12~2009.6.11)에 한상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3명과 당연위원 9명 등 22명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제2기(임기: 2009.6.12~2011.6.11)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7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7명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11년 6월 11일에 제2기 위원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제3기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차기위원장 위촉한 후, 위원장이 차기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도서관법(2011년 4월 5일 공포)」의 시행시점인 2011년 7월 6일 이후로 위원회 구성일자를 변경하였다. 제3기 위원회(임기: 2011.8.1~2013.7.31)는 제2기의 김봉희 위원장이 연임하고,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4명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소위원회’, ‘대학·전문도서관소위원회’, ‘학교도서관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및 사전 심의하는 등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아울러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도서관정책포럼은 제3기 위원회에서는 4개 소위원회의 주관으로 2011년에는 3회 개최하였다.

● 표 2-8-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구분	제2기 위원회	제3기 위원회
설치근거	○ 도서관법 제12조	○ 도서관법 제12조
설치목적	○ 도서관정책의 수립·심의·조정	○ 도서관정책의 수립·심의·조정
위원구성	○ 27명(당연직 10명, 위촉직 17명)	○ 24명(당연직 10명, 위촉직 14명)
임 기	○ 2년(2009.6.12 ~ 2011.6.11)	○ 2년(2011.8.1 ~ 2013.7.31)
위 원 장	○ 김봉희	○ 김봉희
부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일반현황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 수

● 표 2-8-2 ●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1관당 인구 수

(단위 : 개관/명)

국가	연도	도서관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한국	2011	786	50,734,284	64,547
미국	2008	9,221	302,864,000	32,845
영국	2008-2009	4,517	61,380,700	13,589
독일	2010	8,256	81,750,000	9,902
일본	2010	3,196	128,056,026	40,068

※ 장서수: 인쇄자료에 해당(비도서,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제외)

※ 출처: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2008,

영국 - LISU(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Unit)

독일 - 독일 DBS:German Library Statistics

일본 - 일본도서관협회

2) 전국 도서관 수

● 표 2-8-3 ● 전국 도서관 수

(*11,12,31 현재 / 단위 : 개관)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서울	2,323	3	109	550	85	1,293	280	3
부산	751		31	109	24	616	24	2
대구	561		27	107	16	436	21	2
인천	629		31	116	10	502	15	1
광주	476		16	152	16	307	8	1
대전	496		22	183	18	294	47	1
울산	295		11	53	4	237	6	1
경기	3,378		169	808	82	2,211	101	7
강원	791		47	125	23	640	11	3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충북	654		32	116	18	517	14	3
충남	933		51	157	30	740	7	6
전북	939		47	191	21	725	9	2
전남	1,045		57	162	21	859	7	3
경북	1,162		60	157	39	958	15	8
경남	1,247		55	276	22	946	23	3
제주	300		21	87	5	180	6	1
계	16,674	3	786	3,349	434	11,461	594	47
총계	18,401	병영도서관 1,691개관, 장애인도서관 36개관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 공공도서관 : 2011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 표 2-8-4 ●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도서관 수	471	487	514	564	600	644	703	759
1관당 인구수(명)	102,732	99,761	93,957	86,865	82,114	76,926	70,801	66,556
1석당 인구수(명)	206	196	188	191	175	161	154	158
1인당 책수(책)	0.71	0.79	0.94	1.01	1.02	1.11	1.26	1.34
자료수(천 책)	35,850	40,755	45,411	49,343	50,178	55,227	62,562	67,488
직원수(명)	5,539	5,664	5,840	6,223	6,061	6,388	6,785	7,018
사서자격증보유자(명)	2,023	2,179	2,324	2,560	3,251	3,433	3,811	4,013
운영예산(천원)	354,576	345,624	360,109	418,714	417,438	482,242	605,976	610,044
이용자수(천명)	117,611	133,208	154,712	174,833	186,939	204,919	235,212	258,316
이용책수(천권)	179,668	172,698	213,489	265,501	90,624	93,600	112,998	119,074

출처 : 2007~2010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2006년까지 한국도서관연감, 한국도서관협회

※ 2011년 12월 기준 통계는 현재 통계조사 진행중

● 표 2-8-5 ●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11.12.31 현재)

시·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공립		사립	계	
	지자체	교육청			
서울	83	22	4	109	94,034
부산	15	14	2	31	114,547
대구	10	12	5	27	92,862
인천	23	8	0	31	90,364
광주	11	5	0	16	91,467
대전	20	2	0	22	68,891
울산	7	4	0	11	103,227
경기	152	11	6	169	70,636
강원	24	22	1	47	32,690
충북	17	15	0	32	48,841
충남	31	20	0	51	41,202
전북	28	18	1	47	39,873
전남	36	21	0	57	33,585
경북	31	28	1	60	44,987
경남	31	24	0	55	60,159
제주	15	6	0	21	27,436
계	534	232	20	786	64,547

3. 정책현황 및 주요 성과

1) 도서관 및 독서관련 법제도 정비

(1) 법령 개정 개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의 접근과 이용환경은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으로 급속히 진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접근권의 급속한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기회보장을 통한 평등권 실현의 장(場)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2011년에는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도서관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재운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안(김재운 의원)을 2009년 1월 19일에, 작은도서관지원법 제정안(강창일 의원)을 2009년 1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김재운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 및 지원 관련 법률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어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4월 5일 공포, 7월 6일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도서관의 조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도서관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국회에 도서관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3건 제출되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3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기본계획 수립, 법제 정비,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장애인의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7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수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2월 23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을 도서관법에 반영하고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폐지 및 그 기능을 흡수·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하였다. 본 법률안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어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 8월 7일에 수립·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은 제1차 5개년계획에 해당되며,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방법,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 등을 관계 부처간 협의·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①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 도서관·정보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③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목표에 따르는 8대 정책영역과 29개 주요 정책과제, 71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제시하였다.

● 표 2-8-6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I.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1.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2.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3. 이용자 중심의 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인력 확보
II.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1.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본역량 개선 2.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3.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운영기반 강화 4.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
III.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사회통합에 기여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2.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IV.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운영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위상 강화 3. 국회도서관 입법활동 지원체계 강화 4. 국가 법률정보문화센터로서 법원도서관 육성
V. 교육·학술·연구 핵심지원센터로 대학·전문도서관 진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도서관 연구·교육활동 지원 강화 2. 대학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지원 강화 3. 전문도서관 경쟁력 및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4.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도서관 활성화
VI.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기반 마련 3. 도서관 전문 인력의 재교육 강화 4. 도서관 전문 인력의 지속적 충원
VII.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지식정보서비스 환경 구현 2. 지속가능한 도서관 지식정보 활용기반 조성 3.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도서관 구현 4. 효율적인 도서관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VIII.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 도서관 협력체제 강화 2.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3. 국제 정보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71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는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 2009년(제1차년도)부터 4개년 간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1차년도('09년)와 2차년도('10년), 3차년도('11년), 4차년도('12년)에 확정·발표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가 중장기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도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5개년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과제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에 이바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정책영역 부문에 2009년에는 4,354억 원(총 예산의 80.2%), 2010년에는 5,816억 원(총 예산의 80.3%), 2011년에는 5,526억 원(총 예산의 73.8%)을 중점 투자하는 등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71개 세부추진과제 시행에 대한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총 6,089억원(국고, 지방비, 민간투자

모두 포함)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분야에 가장 많은 4,334억 원의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 6월에 수립·발표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은 제1차 5개년계획에 해당되며,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방법, 그리고 역점 단위과제 등을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였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의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국민 독서 활성화’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 독서환경 조성 ②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③ 독서운동 전개 ④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4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한 22개 단위과제와 52개 세부 단위사업을 수립·제시하였다.

● 표 2-8-7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 단위과제
1. 독서환경 조성	①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②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③ 어린이집,유치원 독서환경 조성 ④ 학교의 독서환경 조성 ⑤ 직장의 독서환경 조성 ⑥ 우수도서 출판 및 보급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추진	①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전 국민 대상 무료 독서교육 실시 ③ 독서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④ 독서정보 DB 구축 및 운영 ⑤ 독서동아리 활성화
3. 독서운동 전개	① 각종 계기별 독서운동 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운동 ③ 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한 독서운동 ④ 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
4.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	① 독서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② 노인의 독서활동 지원 ③ 병영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④ 교도소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⑤ 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⑥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⑦ 독서장애인 관련 제도 정비

또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의 22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16개 시·도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도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11년의 주요성과를 보면, 연령대, 수준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과 계층의 차별이 없는 온·오프라인 독서교육과 독서 관련된 지식정보를 모은 DB를 구축 및 제공으로 국민의 독서활동을 생활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독서의 달(9월) 행사 및 책의 날(4.23/10.11) 등 계기별 기념행사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영·유아 독서운동 ‘북스타트’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 ‘책날개 운동’ 등 읽기와 읽히기 운동을 통해 독서흥미를 유발했다. 지역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참여형 독서운동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와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되는 등 독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소리책나눔터’운영, 대활자본 도서 구입, 어르신 책 읽어주기 전문가 양성, 실버 북카페 운영을 통해서 독서활동을 지원했고, 「도서관법」 개정 추진 등 독서 장애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문화 자료 수집 및 도서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확충을 통한 문화향수권 신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OECD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

정부는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근거하여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인구 약 5만 명당 1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이며 복합문화정보공간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전 국민의 정보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반회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12개 시·도 50개관 519억 원을 지원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중소형, 복합 건물 형태로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존 타 용도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말 기준으로 786개 공공도서관이 (인구 약 6만 5천 명당 1관 수준) 운영 중이다.

2008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련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서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08년에는 3개관, 2009년에는 11개관, 2010년에는 12개관, 2011년에는 12개관 등 총 38개관을 지원하였다.

(2)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4년부터 시작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총 445개관(정부지원 413개관, 기업후원 32개관)을 조성하였다.

● 표 2-8-8 ● 작은도서관 조성실적 및 예산액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계
조성실적 (개관)	25	58	72	69	61	68	60	413
예산액 (억원)	25 (복권 기금)	36.5 (복권 기금)	50 (복권 기금)	48.5 (문예 기금)	35 (일반 회계)	33.8 (일반 회계)	34.2 (일반 회계)	263

※ '11년 현재 총 445개관(300.8억원) : 정부 413개관(263억원), 기업후원 32개관(37.8억 원)

국비조성 이외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추진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2008년부터 민간기업 등의 후원금 유치를 통해 조성되었다. 전국 읍·면·동 마다 작은도서관 1개관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은행, STX, 한국수출입은행이 32개관에 37.8억 원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등 자료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후원에 대한 기업·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발전방향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MBC-TV 특집 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8회 방영하였다.

● 표 2-8-9 ● 민간기업 후원 현황

(단위 : 백만원/개관)

후원기업	2008	2009	2010	2011	합계
국민은행	1,000/10	800/6	850/6	800/6	3,450/28
STX	300/ 3	-	-	-	300/ 3
한국수출입은행	30/ 1	-	-	-	30/ 1
계	1,330/14	800/6	850/6	800/6	3,780/32

(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 사업은 2006년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80개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참여 공공도서관이 300개로 증가하면서 창출 일자리도 832명으로 늘어났다.

직장인·학생 등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자료실을 개방하여 도서관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였으며,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표 2-8-10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도서관 수	80	117	253	257	300
일자리 수	435	400	879	706	832
예산(백만원)	5,675	4,299	6,795	6,441	6,441

(4)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처음 시작하여 2011년까지 매년 8개월간(5-12월) 공공도서관 127개관에 순회사서 각 1명씩을 배치, 총 544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에 파견된 순회사서는 장서관리기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 결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만족도 81% ‘이용자’ 만족도 75% 등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시청각 영어도서관 시범 조성 지원

‘시청각 영어도서관 시범 조성 지원’사업은 글로벌시대 영어 특성화 도서관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 간 독서·교육·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건립 지원 및 기존의 공공도서관, 타용도 건물이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6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자치단체를 통해 공모하였고,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사업의 현실성과 추진 의지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 전북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건립, 경남 양산시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 등의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원 내용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즉 설계비, 리모델링 및 건축 공사비, 시설부대비, 자료구입비 등이고, 지원비율은 총사업비 중 국비 50% 매칭이며, 3개소에 총 29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6)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최근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자료 수집이나 정리·보존·열람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여가 공간이라는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책과 연관된 예술 강좌를 포함해 취미생활 연계교양강좌,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회, 감상회, 연주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해당지역 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공모, 도서관과의 연관성, 전문성, 예산규모, 인적구성,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7개 단체 프로그램을 34개 도서관에 지원하였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 소외계층 아동 및 주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2006년 10월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그동안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 체계 속에서 관 종별로 분산 발전해 온 도서관서비스를 지역중심으로 전환, 광역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조정·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의 수립 지원,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자료의 공동보존 등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서, 해당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도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11년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용증 하나로 해당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부산과 인천 지역 50개 도서관에서 통합도서서비스를 시범운영 하였고, 대구지역의 대구중앙도서관 등 1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광주, 전북, 제주지역 등 3개 지역에 통합도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표 2-8-11 ●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현황 (도서관진흥팀, 2011.12.31)

시·도	지정 및 설립	조례 제정	지방도서관 정보 서비스위원회
서울특별시	건립중 ('12.8, 서울대표도서관)	'08.11.13	검토중
부산광역시	'08.4.29 지정 (부산시립시민도서관)	'08.11.5	추진중 ('12.상반기)
대구광역시	'11.3.1 지정 (대구중앙도서관)	'09.3.10	추진중 ('12.하반기)
인천광역시	'08.4.1 지정 설립 (명칭변경: 인천시립 → 인천미추홀, '09.6.23)	'09.4.6	'10.4.1
광주광역시	'10.12.21 지정 (광주광역시립도서관)	'07.6.30	'11.11.4
대전광역시	'07.9.20 지정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8.1.4	'08.12.20
울산광역시	추진중 (~'16년까지 건립 예정)	'10.4.15	검토중 ('16.)
경기도	추진중	'07.8.6	'09.9.16

시·도	지정 및 설립	조례 제정	지방도서관 정보 서비스위원회
강원도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충청북도	검토중	'11.7.8	검토중
충청남도	추진중 ('13.~'15. 건립 예정)	추진중 ('12.)	검토중 ('13.이후)
전라북도	'10.11.22 지정 (전북도청도서관)	'07.11.2	추진중 ('12.상반기)
전라남도	'11.10.20 지정 (전남도립도서관)	'11.10.20	추진중 ('12.상반기)
경상북도	검토중 ('14. 도청 이전 후 설립)	추진중 ('13.)	검토중 ('15.)
경상남도	검토중	'10.2.11	검토중
제주특별자치도	'08.11.13 설립 (지정변경:우당('07.4.5) →한라도서관)	'08.3.5	추진중 ('12.하반기)

● 표 2-8-12 ● 2011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현황

구 분	지역(도서관)	기관 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부산(부산시립시민도서관), 대구(대구중앙도서관), 인천(미주홀도서관), 광주(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전북(전라북도청도서관), 전남(전라남도립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12년 지정예정: 서울, 경기	8
조례 제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3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인천, 광주, 대전, 경기	4

3) 독서문화 진흥

(1)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활동 지원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여 평생 독서습관을 기르자’라는 취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독서운동이자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 세계 약 15개국에서 실시 중인 북스타트 운동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후원금을 모아 가방과 가이드북을 무상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및 후속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하는 민관협력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타트

운동을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대구광역시, 2008년에는 강원도가, 2010년에는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북스타트를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가 도입하였다. 현재 북스타트 꾸러미 104,982개 영유아 가정에 배포되었으며 북스타트 전문가 교육은 총 42개 기관, 266강이 진행되었고 영유아 독서정보 책자 총 50만 권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209,964권을 배포하였다.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교육 사업을 확대하여 각 지역의 신생아 전원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소년 북스타트 시범적으로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 표 2-8-13 ●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대상 영아 수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율
62,475명	93,197명	104,125명	104,982명	▲0.8%

● 표 2-8-14 ●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율
58개(25%)	88개(37%)	106개(46%)	111개(48%)	▲4.7%

또한,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은 책 읽어주기 관련 문화교육을 이수한 50세 이상의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가 책의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외시설에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에게는 은퇴 후 노인의 문화적 여가활동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며 책을 매개로 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침으로써 각 지역 내 고유의 책 읽어주기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전국 3개 지역에서 2011년 전국 권역별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권역별 다양한 문화단체의 특성과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책 읽어주기 문화나눔 활동을 펼쳤고, 2010년 아동대상방문에서 2011년 노인, 장애인등 수혜대상을 확대 방문함으로써 동세대인 실버세대, 정신적 장애인 등과의 교감 측면에서 전문가의 방문프로그램보다 의외의 실질적인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는 방문처의 의견이 있었고 장기방문요청이 쇄도하였다.

● 표 2-8-15 ● 문화교육활동 지역별 현황

구분	합계(회)	서울(회)	경기(회)	강원(회)	충청(회)	전라(회)	경상(회)
문화교육프로그램	54	10	10	10	6	10	7
교육생	209	34	27	30	37	40	41
활동워크숍	35	7	6	5	4	8	6

● 표 2-8-16 ● 문화나눔활동 지역별 현황

구분	합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문화나눔활동	1,827	500	260	211	276	300	280
활동자(인원)	178	29	27	22	37	30	33
활동기관(개)	390	93	61	53	55	65	63
활동방문	1,831	500	260	211	280	300	280
수혜인원	45,775	12,500	6,500	5,275	7,000	7,500	7,000

● 표 2-8-17 ●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연도별 추진실적

활동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활동	교육(회)	72	106	89
	교육생(명)	84	85	209
봉사활동	방문(회)	278	348	1,831
	봉사단(명)	754	1,011	178
	방문기관(개)	80	107	390
	수혜대상(명)	7,354	10,500	45,775

‘대할자본을 이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은 독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장려하고 공공도서관이 자관 구역 내 노인정 등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할자본 21종 22책(총6,600책)을 제작하여 150개관에 보급하고, 대할자본

을 이용하여 어르신 문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다. 대활자본을 이용한 노인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출판계와 도서관계에서도 대활자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고, 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어르신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1 독서나눔 캠페인-책 읽기에서 책 나누기로’는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간신문사, 유명작가, 유명인 등 사회적 인사와 함께 범국민적인 독서나눔 캠페인으로 독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독서의 필요성과 가치, 나눔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서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국민 독서의 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국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전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전 국민 독서생활화를 위해 독서 DB 운영, ‘손안에서(愛書)’ 독서사진 공모 및 전시, 영유아 독서교재 및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 국민독서의 해 추진, 병영·교정시설에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방과 후 독서지도교사 파견으로 지역아동센터에 40곳, 수혜 아동 560명으로 소외 아동 독서문화 향유권을 증대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전국 거점 도서관8곳에서 지역 사서 및 독서전문가 438명이 이수하였으며, 2012년 국민독서의 해를 맞아 독서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형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를 소재로 한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손안에서(愛書)’에 사진 및 포스터 41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37회 전시를 개최하였고 총 54,610명이 관람하였다. 그 밖에 교정시설 수감자에게는 독서치료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병영 독서활동을 지원의 경우는 인문학 중심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독서교육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서울, 경기도권), 공공도서관, 각급 교육청에 유치원 독서교육 길라잡이 책 18,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유치원과 경기수도권 어린이집에 배포하였다.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책놀이 사례집을 총 4종 각 33,000부씩 총 13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의 아가와 기관에 배포하여 영·유아 독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3개 기관에 각 단계별 150부씩 4종 총 600부씩 배포를 하였다. 실제로 아가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부모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책 읽는 가족, 책 읽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공동육아·폼앗이 육아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했다.

4)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1)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도서관법 개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과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대상 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지원센터는 2007년 5월부터 2011년 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장애인도서관, 특수학교 등에 대체자료 10,516종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온라인(able.dlibrary.neet)에서는 252만명(2010년 12월말 기준)의 등록장애인에게 스트리밍·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정보누리터를 운영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장애인서비스의 롤 모델을 제공했다. 또한, 72관 20만 건의 종합목록DB를 구축하고 상호대차 37개관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실시한 장애인무료 우편서비스와 웹용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도서를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파일로 변환·발전시킨 포맷) 저작물을 개발·보급을 하였다.

그동안의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보급·표준제정·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조직형태,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시행령)를 개정할 예정이다.

가. 장애인의 도서대여를 위한 무료 우편서비스 추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대여 무료 우편서비스 제도로, 2011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행되던 무료 보통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은

등기우편 및 우체국 택배로, 중증 청각·지체장애인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2011년 기준으로 전국 360여 개의 공공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무료우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성 논란과 이용불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는 효과적인 지식정보의 접근 및 제공의 기회가 되었다.

나.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공공 도서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고 다문화 도서관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족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교육·치료를 통한 문화차이 해소와 타 문화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표 2-8-18 ●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연도	다문화자료실 조성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백만원)
2009	2개관	김해다문화도서관, 성환읍다문화 도서관	12개관	강동구립성내, 달서다문화가족, 광주시립산수도서관 등	182
2010	6개관	부산시민, 인천중앙, 한밭도서관 등	16개관	동대문, 안산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346
2011	11개관	은평구립,영통, 목포공공도서관 등	30개관	고척, 사상, 인천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570

(2) 취약지역 도서 보급

2009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 이관 받아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구입하여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교정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시설에 보급하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평론가, 시민평가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분기별로 14명씩 달리 구성하여 2011년에 시 61종, 소설 61종, 아동청소년문학 74종, 수필 27종, 평론 17종, 희곡 1종 총 241종을 선정하였다. 총 2,814개 보급처에 배부하고, 보급처의 도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모니터링평가단을 파견하여 현장 요구 및 후속지원 사항 등을 점검하고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증대로 문학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연 2회 독서감상문대회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뉘어 개최되었으며 각각 210편의 응모작 중에 25명이 수상을 하였고,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가 최종 선정된 108개 단체(학교)에서 개최되어 우리문학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고 미래의 문학 독자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8-19 ● 취약지역 도서 보급처 현황 (2011)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급처수	2458	2471	2469	2814

● 표 2-8-20 ● 취약지역 보급 도서 선정종 수 (2011)

분기	시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	평론	희곡	합계
1	15	15	17	6	4	0	57종(57권)
2	14	14	17	6	4	0	55종(55권)
3	16	16	20	7	4	1	64종(64권)
4	16	16	20	8	5	0	65종(65권)
계	61	61	74	27	17	1	241종(241권)
×	2000부	2000부	2200부	2000부	1000부	1000부	·
보급	122000	122000	162800	54000	17000	1000	478800 (권)

(3)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아프리카 등 해외 저개발국의 교육·문화 환경 개선 및 독서진흥을 위해 2007년 아프리카 가나에 작은도서관 2개관 시범조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6개국에 32개관을 조성하였다.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도서, 서가 등의 도서관 물품, 도서·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15개관(1개관 당 35백만원 내외, 총 5억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학습·독서능력 향상, 한국의 인지도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표 2-8-21 ●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	비고
2007	아프리카 가나	2개관	30,000	복권기금
2008	아프리카 모잠비크	5개관	150,000	문예기금
2009	아프리카 탄자니아	4개관	300,000	관광기금
	아프리카 가나	4개관		
2010	아프리카 가나	2개관	70,000	관광기금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개관	500,000	일반회계
계		32개관	1,050,000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1) 디지털콘텐츠 공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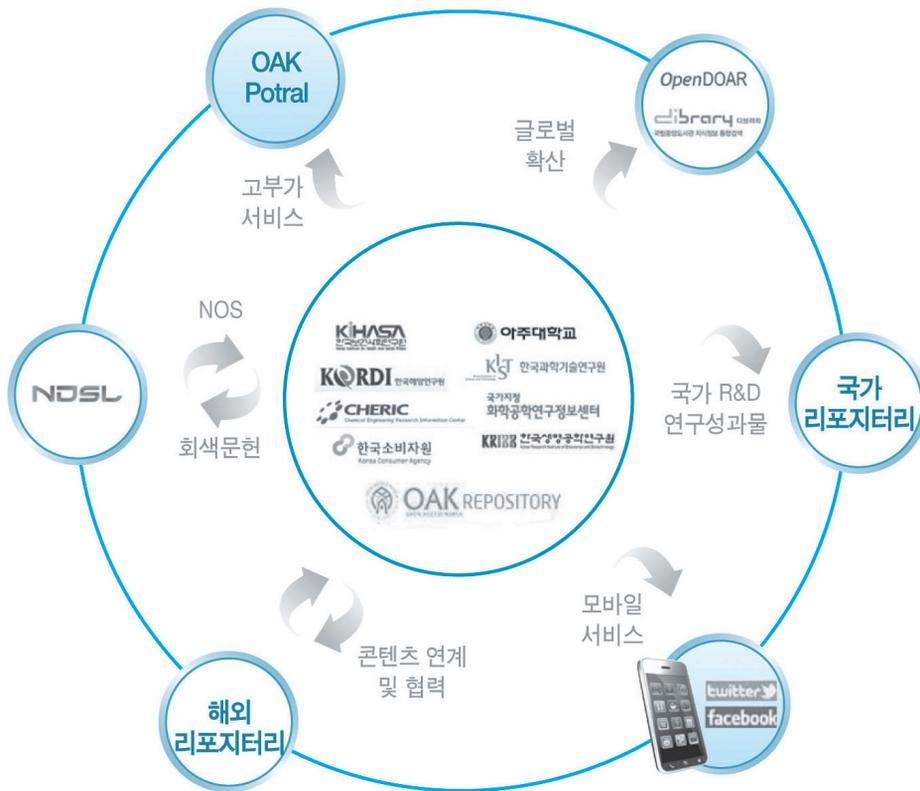
오픈액세스는 고비용, 비효율적 학술정보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이용료, 저작권 등의 장벽 없이 학술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09년 3월부터 추진중인 동 사업의 주요 세부성과로는 국가 지식정보의 오픈액세스 정보유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기관 리포지터리인 OAK Repository(Open Access Korea Institutional Repository)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내의 지식자산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1년 12월 21일 모바일 서비스 오픈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내 기관리포지터리에 구축되어 있는 논문, 보고서, 특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 학술지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국내 14종의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발굴하였고, 미국의학도서관의 PMC Journal Publishing DTD 3.0 분석을 통해 XML Full-text 워크벤치를 개발하여 학술논문을 효과적으로 구축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언어자원과 의미기반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언어자원 생성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콘텐츠의 검색기능을 향상하였다.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공공연구성과물 공공접근정책 공개토론회를 2011년 11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매년 오픈액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

적인 Open Access Week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외 오픈엑세스의 활동과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국내 오픈엑세스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최근 도서관 RFID 기술이 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첨단화 해주는 기술로 국내외 도서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RFID 기술은 도서관 소장 장서에 바코드 대신 소형 전자칩을 부착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사서인력을 보완하고, 장서점검 및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8-1 ● 오픈엑세스 지식정보의 유통 흐름



● 그림 2-8-2 ● u-도서관 서비스 지원 환경 구성도



이와 같은 도서관 정보화에 흐름에 발 맞춰 행정안전부의 ‘u-기반 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RFID 환경하의 도서관리 및 스마트폰 기반의 도서검색, 자동 도서 대출/반납,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 등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u-서비스 기금으로 2010년 u-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한 서울시 강북구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한 관내 5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새마을문고를 통합하고,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역사에 예약대출기 및 자가반납기를 설치하여 ‘강북 u-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한 자료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무인예약대출 서비스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2년 1분기에만 7,260건(총 대출량의 4.5%)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호대차 서비스 6,357건(총 대출량의 4%), 무인반납 서비스 11,577건(총 반납량의 7.2%)의 이용실적으로 총 대출반납건수의 약 8%의 분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까지 u-도서관 서비스가 구축된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이외에 서울시 성북구(6개관), 강원도 동해시(2개관), 광주광역시(2개관)로 도서관

자료의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였다.

(2)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조사 내실화

가.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2003년까지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유도하여, 문화기반 시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국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2007년 공공·대학·학교·전문·병영·교도소도서관 등 6개 관종 56개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완된 평가지표로 2008년 처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5개 관종 총 2,319개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2차년도인 2009년에는 761개관이 늘어난 5개 관종 총 3,080개관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5개 관종 2,507개관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기준은 전년도 도서관 운영 실적이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이 확정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0년부터 서면평가 우수기관인 현장실사 기관에 대한(’09년 54개관, ’10년·’11년 60개관) 이용자만족도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수기관 심의에 반영하였다.

200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도서관계에서 처음으로 정부포상 도서관 단체상이 배정되었으며 2009년, 2010년도와 동일하게 2011년도도 우수도서관 유공자에 대한 개인유공 표창 및 평가추진 유공자 표창 또한 장관표창으로 단체상과 함께 수여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우수도서관 시상식을 전국 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욱 높였다.

● 표 2-8-22 ● 관종별 평가참여율 및 평가기관 수 (2011)

구분	공공	학교	전문	병영	교도소	계
대상	699	10,937	586	1,587	46	13,855
응답기관	699	1,707	65	117 (육군 97, 해군10, 공군10)	46	2,634
응답율	100%	공모	공모	국방부 1차 추천	100%	

● 표 2-8-23 ●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 (2011)

정부표창				
대통령상	공공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무룡초등학교(울산)		
국무총리상	공공도서관	정독도서관(서울)		
		영암군정보문화센터 삼호도서관(전남)		
		제천시립도서관(충북)		
		노원어린이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대전구봉초등학교(대전)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강화초등학교(인천)		
전문도서관	한국해양연구원(경기)			
병영도서관	군수사령부 종합정보청(육군)			
특별상				
공공도서관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09년 국무총리상, '10년 장관상)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10년 국무총리상)			
학교도서관	범서초등학교('09년 국무총리상, '10년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공공도서관	1	도봉도서관(서울)	6	김해도서관(경남)
	2	원주평생교육정보관(강원)	7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부산)
	3	장성공공도서관(전남)	8	원주군립고산도서관(전북)
	4	성남시수정도서관(경기)	9	해남군립도서관(전남)
	5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경기)	중학교	사천중학교(경남)
		매곡초등학교(대구)		성남보평중학교(경기)
		예하초등학교(경남)		성남동중학교(경기)
	고등학교	계창초등학교(경남)	고등학교	금옥여자고등학교(서울)
		용마초등학교(경기)		포항고등학교(경북)
		예산초등학교(충남)		
병영도서관	육군	제27사단 78연대 2대대(강원)		
		제53사단 127연대(울산)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경남)		
공군	15혼성비행단(경기)			
전문도서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		
교도소도서관	1	충주구치소(충북)		
	2	안동교도소(경북)		

나. 도서관 통계조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①도서관 전체 관중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 작성, ②도서관 정책 추진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③통계조사 결과공유를 통한 부처간 중복조사 방지 및 통계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08년 8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발’ 및 ‘전국 도서관 통계’의 국가통계로 승인, 2008년(1차년도) ‘전국도서관통계조사’ 실시 및 2009년 2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통’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조사·수집된 도서관 통계 정보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도서관통계”의 조사대상은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서관으로, 조사범위는 도서관 기본정보를 포함한 8개 영역(소장자료, 시설·설비, 인적자원, 예·결산, 이용자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이다. 통계작성은 관중별 도서관 통계담당자가 웹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통계 설문에 응답하는 ‘보고통계’ 형태로 추진되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또한 통계작성의 중복 방지 및 관중별 단위도서관의 업무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도서관 통계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도서관 통계담당자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서관 통계의 품질 제고 및 신뢰도 있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표 2-8-24 ●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 (2011)

조사 대상	대상기관 수	조사 방법	통계 협력기관	
1. 국립도서관	3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 공공도서관	786		16개 시·도 (시·도 교육청 포함)	국방부 법무부
작은도서관(문고)	3,349			
장애인도서관	36			
병영도서관	1,691			
교도소도서관	47			
3. 대학도서관	434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학교도서관	11,461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교육과학기술부	
5. 전문도서관	594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계	18,401			

4. 국립중앙도서관

1) 조직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지적 문화유산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의 총보고'이다.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인수하여 '국립도서관'으로 개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부 1관 1연구소 1센터, 11과 2팀으로 개편·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 인원은 309명으로 사서직 170명, 행정직 45명, 전산직 17명, 기술직 8명, 별정직 15명, 학예직 2명, 계약직 5명, 기능직 47명이다.

2011년 세입예산은 재산수입(토지·건물대여) 117,441천원, 경상이전수입 6,000천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220천원, 수입대체경비수입 345,400천원 등 총 476,06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금액은 592,202천원으로 예산액과 대비하여 116,141천원(24.4%)이 초과 징수되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36,321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5,004,325천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율은 97.8%(53,796,743천원)이고 이월액은 24,090천원, 불용액은 1,183,491천원이다.

2) 주요성과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관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능으로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납본을 통하여 국내 출판물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납본법 시행 이전(‘65)에 발행된 국내자료와 국외 발행의 한국학관련자료, 북한서 및 서양서 등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대국민 도서관증운동인 ‘책다모아’ 사업을 운영하여 미소장 국가문헌을 확충하고, 국제자료교환을 통하여 각 국의 출판정보,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시스템을 운영하여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자료의 수집 강화 및 체계 개선을 위하여 납본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법적 납본기간인 출판 후 30일 이전과 이후로 차등지급하고 출판유통사(교보문고 등) 및 릴리스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을 강화하였다. 납본안내 홍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관보), 출판유관기관, 전국 16개 시·도의 출판사신고필증에 납본문구(도서관법 제20조1항) 기재를 요청하였다.

2011년도에 납본, 구입, 기증을 통하여 46만여 책의 자료를 수집, 2011년 12월말 기준 845만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적문화유산 수집에도 노력을 기울여 『자치통감』 등 72종 1,097책의 고문헌과 『조선지도』 등 고지도 21종 22점을 구입하였다. 아울러 국외 소재 한국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녹봉증서 등 미국예일대학도서관 및 프랑스 끌레쥬드프랑스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80종 169책을 18,836면의 이미지파일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한미관계 및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중요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관련 자료를 디지털 영인하여 수집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247,954면을 수집, 현재까지 총 1,682,592면을 수집하였다.

2011년도에는 해외수집기록물 224,924면을 정리하여, 현재 총 23,251건의 서지목록데이터베이스와 1,632,938면의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의 분류·목록 등 자료정리 작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1년도 자료정리실적은 국내서·중국서·일본서 349,594책, 고서 1,497책, 서양서 39,256책 등 총 390,347책과 비도서 자료 68,326점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국가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서지정보를 제공하였다.

● 표 2-8-25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2011년 12월)

구 분	한국서	일본서	서양서	고 서	비도서	계
수량(책·점)	5,779,192	343,844	712,479	271,288	1,349,636	8,456,439
점유율(%)	68.3	4.1	8.4	3.2	16	100

국가문헌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우리나라 지적문화유산 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개설된 자료보존센터는 총 7개의 전문 자료보존시설과 국제도서관연맹(IFLA)보존·복원분과(PAC)한국센터 사무실을 겸한 자료보존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자료보존처리 및 전자매체 보존 등 다양한 보존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로 귀중본 「소년」 창간호 등 8책을 복원하고 수선·복원, 소독, 탈산처리 등으로 88,000여권을 처리하였으며, 관보, 연속간행물, 신문 등의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복제(730롤)작업을 하였다. 또한 해외한국자료 복원사업으로 미의회도서관과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고지도의 복원 협약을 통하여 2011년 「조선여지도」 등 4종(1장, 3책)을 복원처리하고 DB로 구축하였다.

IFLA PAC 한국센터는 2011년 보존기술 자료집 번역·발간 사업, 해외 보존기술 조사·발표 활동, IFLA PAC 한국센터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가. 디지털 지식정보 콘텐츠 확충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날로그 책자형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보존과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소장자료 중 40만권을 원문DB로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의 가치 있는 자료를 웹로봇을 통하여 아카이빙하는 오아시스(OASIS)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에는 웹문서 128,822건, 웹사이트 5,012건, 총 133,834건의 공개용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1년 12월 기준으로 718,399건의 공개용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오아시스 및 디브리리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 전자잡지와 같은 판매용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하여 2011년에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전자책 7,593책, 학회지 909종 160,569건, 이미지 9종 37,122건, 오디오북 59종 643건, 이러닝자료 15종 215건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장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 보존되고, 디브리리 포털을 통하여 관내이용자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수집 온라인 자료 중 학회지의 경우에는 협약 공공도서관에서도 서비스하며, 전자책 3,316책은 전국 884개 농산어촌 작은도서관에도 제공하고 있다.

나. 디브리리 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 공간인 “디브리리 포털(www.dibrary.net)”은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25일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공공·민간 지식정보기관들과 폭넓게 데이터를 연계하는 협력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디브리리 포털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 한 원문DB(42만책),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992,183건)를 비롯하여, 국내외 1,356개 기관과 연계한 1억 건 이상의 디지털 지식정보가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특성화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서 디브리리 블로그(<http://blog.naver.com/dibrary1004>)와 트위터(<http://twitter.com/dibrary1004>)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 정보광장 (IC : Information Commons) 운영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공간인 정보광장은 모든 방문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기 및 자료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메인 로비로서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광예술관, 디지털신문대, U터치 테이블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 디지털 정보 및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하3층과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원문자료 및 각종 웹DB, 학술저널, 논문 등 온라인 정보자원을 열람하고, 문서편집을 할 수 있는 디지털열람실과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과 이미지·영상자료를 편집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센터가 있는 지하2층이 있다. 이외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011년 운영일수는 304일이었고, 총 351,430명이 이용하였다.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21강좌 116회를 운영하였고 총 수강인원은 2,402명에 이른다.

(3) 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및 다양화

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선진화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5월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고,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 및 고품질화를 촉진하는 실용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내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책무를 강화해 오고 있다.

도서관연구소는 2011년도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연구’, ‘전문사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 과목 정비방안연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모델개발연구’, ‘도서관이용자응대서비스 매뉴얼개발연구’ 등 4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부서, 주요 관련기관 및 도서관에 참고자료로 보급하였다.

한편, 2011년 상반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부서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만족도 증진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도서관현장연구협의회로부터 과제추천을 받아 ‘자치단체 단위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기본모형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관련기관에 보급한 바 있다.

도서관연구소는 해외 최신동향과 도서관정책자료 등 다양한 학술자료를 번역 소개하는 ‘도서관연구소 웹진’을 연 12회 발간하고 ‘주요국 도서관법령 III’,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V’, ‘외국도서관 최신동향 V’, ‘도서관용품 구매 및 관리 실무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하였다.

아울러, 2011년도에도 현장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우수 운영사례 및 우수 논문을 심사하여 포상하는 ‘제5회 도서관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와 ‘제3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나.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0월에 구축된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INKSLIB)’는 2011년 12월 현재 26개국 93명의 한국학사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www.nl.go.kr/inkslib/)를 통하여 한국학사서들의 정보교환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다.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본관에 주제별 자료실과 학위논문실, 연속간행물실, 정부간행물실, 고전운영실, 장애인정보누리터 등 총 15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16세 이상(2008. 9. 1부터 시행)이며, 16세 미만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입관을 허용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2011년 도서관 개관일수는 328일이고, 방문이용자는 831,143명(1일 평균 2,533명), 온라인이용자는 5,241,151명(1일 평균 15,979명)이었다. 또한 낮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 등을 위하여 야간도서관을 18:00 ~ 22: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는 주말에도 야간도서관을 확대 운영하였다. 야간도서관 이용자는 98,169명이며 이용 책 수는 222,563책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웹상(www.nl.go.kr/ask)에서 국민들의 지식·학술정보 질의에 대해 사서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CDRS)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341개 도서관이 1,302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4) 전국 도서관 사서 교육 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유일의 사서직 교육훈련 전문기관¹⁾으로 전국의 각종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서교육훈련 교육과정을 총61개 69회 운영하였으며, 전국 국·공립도서관 사서 8,345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도서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사서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취약한 관중 도서관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은 물론 병영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1년에는 급증하는 사이버 교육인원에 따른 다양한 교육요구와 보다 편리한 교육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학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사이버 사서교육시스템(<http://edu.nl.go.kr>)을 개발하였다.

(5)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료의 공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도서관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을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업무)

위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의 개발·보급, 지식정보 표준화 도구개발 및 국가 전자도서관 연계·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가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를 정식 운영, 2011년 12월까지 전국 공공도서관 582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해 2011년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실태조사”를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2011.12.9)을 포함하여 영국, 러시아, 체코 등 세계 15개국 16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꾸준히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5월 17일 18개국 국립도서관장과 관계자 등 24명이 참가한 제19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 산후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Special Interest Group, NILP SIG)’ 예비회의(8.18)를 개최하여 60여 개국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1963년 외국 국립도서관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각국 주요 국립·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99개국 297개 기관과 자료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도서관의 한국자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11.3~7월)하여 한국자료 운영 현황 및 자료지원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2011년도에는 자료교환을 통해 5,816책 2,927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UN 등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444책을 기탁받았다. 그리고 23개국 60개 한국학관련연구소, 주요 도서관 등에 9,093책의 한국관련 자료를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터키국립도서관, 이집트국립도서관, 스페인 말라가대학도서관,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였으며 기 설치 한국자료실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5년간 약 200책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6) 전시문화행사 개최 및 홍보

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문학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심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11년에도 조선일보·교보문고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 캠페인을 펼쳤다. 인문학 저서와 인문학 선현들의 자취가 깃들여 있는 현장을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 찾아가는 14회의 ‘인문학 현장탐방’과 13회의 사전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길위의 인문학’이 확산될 수 있도록 70개의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체적으로 기획한 인문학 강연과 탐방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였다.

● 표 2-8-26 ● 2011년 '길 위의 인문학' 현장 탐방 일정표

월	날짜	지역	탐방주제	탐방장소	초빙강사
3	26(토)	경기 화성 · 수원	정조대왕의 마음을 따라가다	장안문-화성서장대-화성행궁-방화수류정-용주사-윤건릉	신병주, 안대희
4	9(토)	충남 서산 · 태안	마애불의 미소를 배우다	서산 마애삼존불-보원사지-개심사-태안 마애삼존불-해미읍성	이태호, 이정록
	22(금)~23(토)	전북 부안 · 고창	실학과 미당의 시심을 찾아가다	(1일차) 유형원 유적지-황윤석 생가-미당 시문학관-서정주 생가-질마재길 (2일차) 선운사-고창 고인돌 공원-고창읍성-신재호 고택-판소리박물관	최영성, 문태준
5	14(토)	충남 태안	시 나무 따라, 행복한 인문학 따라	천리포수목원-천리포, 만리포 해변	고규홍, 손택수
	27(금)~28(토)	강원 삼척 · 경북 울진	기업정신의 뿌리, 보부상의 길을 걷다	(1일차) 죽서루-망양정-월송정 (2일차) 내성행상불망비-보부상 옛길 제1코스-금강송 군락지	이현창, 김주영
6	24(금)~25(토)	전남 진도 · 나주	남도예술의 혼	(1일차) 진도 용장산성-운림산방-진도역사관-쌍계사 (2일차) 목포남농기념관-유달산-영산강길-나주 천연염색문화관	허진, 김현성
7	8(금)	경북 영주	선비의 거처, 사상의 거처	부석사-소수서원, 선비촌-순흥향교-무섬마을	신창호, 김현성
8	26(금)~27(토)	경북 군위, 경주	이야기 창고, 삼국유사	(1일차) 황룡사터-분황사-감은사터-수증릉-진평왕릉 (2일차) 흥덕왕릉-거조암-군위삼존석굴-인각사	이종문, 고운기
9	17(토)	충북 영동, 제천	시 따라 음악 따라	난계국악박물관, 생가-정지용 생가, 문학관 -정지용 시비	정호승, 정세균, 차복순
	24(토)	충북 단양	온달과 평강의 연가	단양 사인암-도담삼봉, 석문-온달산성, 온달동굴	정민, 이도학
10	8(토)	인천 강화	양명학의 정신을 따라 걷는다	정제두 송모비, 정제두 묘소-이건창 묘소-이건창생가-광성보-강화나들길 트레킹	이희목, 함민복
	20(목)~22(토)	제주	신화의 섬, 상상력의 섬 제주를 읽다	(1일차) 삼성혈-민속자연사 박물관-괘뉘깃당-김영사굴-송당 본향당 (2일차) 영실기암-이중섭미술관-서복전시관-정방폭포-올레6코스 (3일차) 돌문화공원-물영아리오름, 습지-제주민속5일장	정재서, 김인숙
11	11(금)~12(토)	경남 합천	천년의 지혜 고려대장경을 만나다	(1일차) 부인사-해인사-성보박물관 (2일차) 소리길-우포늪-진흥왕척경비	박종기, 한형조
	26(토)	강원 원주	남한강 따라, 옛 절터 따라	고달사지-흥법사지-흥원창-법천사지-거둔사지	이인재, 곽효환

나. 휴가철 숲속문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휴가 보내기와 함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들과 함께 매년 휴양지에서 운영하는 ‘휴가철 숲속 문고’를 2011년에는 8월 3일(수) 포항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선정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으로 숲속문고를 설치하여 주민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시가 흐르는 여름 밤’ 명사들의 애송시 낭송, 저자와의 만남,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노래가 된 시’ 연극 ‘낭독극장도화만발’ 등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다. 전시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확대, 대외적 홍보활동 강화 및 폭 넓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기별로 다양한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전시는 전시콘텐츠로도 구축하여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 표 2-8-27 ●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 (2011)

전시명	전시기간	주최	전시내용
책과의 소통에 관한 4가지 전시	‘11.1.5 ~5.29	국립중앙도서관 환기미술관	3부, 책과 놀이 한다 :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전시 등 4부, 책 속으로 들어 간다 : 디지털시뮬레이션 설치 등
故 박완서 작가 추모 기획전	‘ 11.2.15 ~4.17	국립중앙도서관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 박완서 작가의 도서, 영상자료 등 문학작품 65여점 전시 및 소장자료 목록 발간 배포
영원한 우리바다, 동해	‘11.2.14 ~12.31	국립중앙도서관	동해의 명칭 및 표기 변천을 알 수 있는 『ROYAUME DE JAPON(우리나라와 일본)』등 고지도 20여점 전시
도서관 그리고 시 · 시집전	‘11.4.23 ~6.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시인협회	시인들이 자필 서명하여 기증한 시집 1,120책 전시
「대동여지도」 발간 150주년 기념 특별전시	‘11.6.14 ~7.8	국립중앙도서관	“김정호의 꿈, 대동여지도의 탄생”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대동여지도 등)와 지리지 등 59종 371점 전시
잃어버린 한국해를 찾아서	‘11.8.10 ~8.18	국립중앙도서관, 동해포럼	1760년에 제작된 『세계지명사전』과 한국해 표기 일본지도, 동해표기 관련 영상물 등 지명관련 자료 100여점 전시 (동해포럼 공동주최)

전시명	전시기간	주최	전시내용
2011 손안에서 공모전 수상작 전시	'11.9.15 ~9.28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1 손안에서 공모전' 수상작 (사진, 포스터) 30여점 전시
디자인이 좋은 책 전시	'11.11.2 ~11.18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1 디자인이 좋은 책' 선정 당선작 9종 11권 전시
『열두 서고, 열리다』 - 국립중앙도서관개관 66주년기념 특별전	'11.11.16 ~12.2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보·보물 자료, 잡지창간호, 신문귀중본 등 독보적인 12가지 주요 소장 컬렉션 자료 등 300점
고문헌 테마별 전시	'11.1월 ~12월	국립중앙도서관	옛 기록에서 본 우리 강산(1~3월) 효(孝)와 행실도(4~6월) 하늘의 이치와 별자리 이야기(7~9월) 한글노래와 풍류(10~12월)
창작 그림책 전시회 '책놀이터와 쓱쓱뚝뚝'	'11.1.14 ~2.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놀이터	창작그림책 원화 및 더미북 60여점 전시 등
안녕? 애들아! : 아우와 함께 가보는 지구촌 세상展	'11.3.18 ~5.2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 및 문화 소개 및 관련 아동도서 113책 전시, 지구촌 어린이를 표현한 아우인형 전시 등
사서가 추천하는 현대 그림책 원화전	'11.7.1 ~7.2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어린이출판협회의회	사서추천 그림책 원화 60점 및 작품설명 소개, 관련 도서관 소장자료 50책 전시 등
이원수·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 그림전 : 고향의 봄을 그리는 소년	'11.8.1 ~9.2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산문화재단, 고향의봄기념사업회	이원수, 윤석중 관련 도서관 소장자료 105책과 작품 내용을 형상화한 미술품 37점 전시 및 관련 동시 소개 등
태권도현대사, 그 희망과 도전의 발자취 : 태권도공원 전시관 수집자료전	'11.9.30 ~10.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관련 도서관 소장자료 및 기증자료 전시, 옹품변천사 소개, 국내외 대회 기념품 및 태권도 희귀 영상자료 전시 등
제1회 다문화 독후감 및 제5회 독서공모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 책 속에서 찾은 다섯가지 이야기展	'11.11.1 ~11.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5회 독서신문 및 독서감상문 수상작 150점 및 제1회 다문화 독후감대회 수상작 47편, 관련도서 105책 전시 등
창작 그림책 전시회 : 알록달록 책놀이터[대관전]	'11.12.2 ~12.11	책놀이터	창작그림책 원화와 더미북 전시, 뱃지 만들기 체험 등 운영
스웨덴 문화 체험전 : 안녕? 스웨덴	'11.12.15 ~12.2.2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 아동도서 151책, 스웨덴 대표 발명품 및 발명품과 유명인물 소개패널 전시, 영상물 상영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라. 홍보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www.nl.go.kr>)를 통해 각종 홍보영상물 및 소식, 보도자료, ‘오늘의 도서관’ 등 발간자료에 게재하여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개관 66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중 열두 분야의 주요 장서를 선정하여 한국 지식문화의 유산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열두 서고, 열리다’에 언론관계자(출판/학술, 전시 담당기자)를 초청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1일(금) 개최된 기자간담회에는 20여명이 기자들이 참석하였고 각 방송 및 신문, 인터넷 언론 등 약 36회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이번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발표, 해외도서관에 한국자료실 개실,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DNL-AO) 개최, 책다모아 개최, WLIC SIG 성공적 개최 등 총 67건의 보도자료를 주요 일간지 및 관련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 총 788건이 게재되어 도서관의 여러 사업과 행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7)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체자료 제작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도에는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 2,205종, 전자점자도서 96종, 점자악보 548종, 화면해설 영상물 65종, 수화영상도서 220종, 자막영상도서 110종을 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0,710종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작된 대체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하위포털 “장애인정보(<http://able.dlibrary.net>)”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의 국내 표준화 추진 및 시각장애인용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의 한국표준을 제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2009년 4월 13일 개실한 장애인정보누리터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1:1 개별 맞춤서비스로 대면낭독, 영상대필, 논문작성 지원 등 다양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안내를 위해 문자·영상 전화 안내서비스도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장애인 이용자 231명이 등록하여 5,177명이 이용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자료실 전국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는 삼척평생교육정보관 등 16개관을 대상으로 총 1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까지 전국 100개 도서관으

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우편서비스 “책나래”를 2011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서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책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독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를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 장애인서비스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협력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책 읽어주는 전화음성정보서비스,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전용전화(T.1644-6044) 운영 등 장애인들의 도서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29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11.7.29일자) 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계의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2006년 6월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선진화를 모색하여 왔다. 도서관 어린이서비스의 기반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독서진흥사업 및 어린이담당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 및 워크숍(총 12개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 이야기>를 발간(총 10회)하였다.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사례연구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 어린이 도서관과 상호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어린이담당사서 연수(10개국 20명)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 진흥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제5회 전국어린이·청소년 독서신문·감상문 공모전’(1,590점)을 개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을 운영(880개관, 33,218명)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사업운영 지원(40개 중고교), 청소년추천도서목록개발·배포(200종)와 온라인커뮤니티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프로젝트도 수행하였다.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프로그램을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함께 추진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보육원, 고아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어린이 밀집기관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에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전래동화 콘텐츠를 개발(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언어 번역)하여 총 50,000책을 보급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비스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언어지원은 물론 이를 통한 문화편견 해소와 사회통합 촉진에 노력하였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웹진(“어린이청소년연구 e-partner”)을 매월 발간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는 동화구연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건립지원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13년 6월 준공 예정인 국립세종도서관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정책 분야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고급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1년 국립세종도서관 공사 착공(‘11.8.22)이 이루어졌으며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TF팀을 구성(‘10.7)하고 연구용역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10.10~‘11.3)’와 ‘국립세종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11.8~12)’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운영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여 개관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표 2-8-28 ●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추진실적

추진과제	내용
도서관 핵심역량 (장서, 사서, 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 정책 획기적 개선 및 수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 중장기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제도화 - 국내 납본수집 강화 및 체계 개선(414,040책·점) - ‘책다모아’사업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17,000책) 및 소외지역 도서관 지원(18,000책) - 외국자료 구입 다양화,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및 고지도 발굴 수집 강화 등 ○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온라인 자료 33만건, 메타데이터 50만건, 웹 콘텐츠 6천건, 국가자료종합목록 DB 60만건 등) - 디지털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운영

추진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사서 역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61개 과정 69회, 8,345명) - E-learning 확대를 통한 사서의 교육기회 확대(22개 과정) - 교육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직원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 ○ 세계 주요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및 인물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국립도서관 등과 업무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 인적교류를 통한 국가대표도서관 사서 역량강화 - 해외 사서 연수 및 상호교류를 통해 전문성 증진 □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융합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데이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서지정보센터’ 운영 - 아날로그와 디지털자료 융합 서비스를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자료보존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 한국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내·외 자료 과학적 보존 및 복원처리 - 행정중심복합도시 분관 개관 준비팀 운영
<p>국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서비스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 원문DB 안방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허락제도 간소화를 통한 디지털도서관 원문DB 서비스 확대 - 저작권 공유가 가능한 공공저작물 및 만료저작물 등 수집확대 - 디지털자료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디지털화 단계적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이용 스마트 폰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자료 통합검색 및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서비스 제공 - 이용자별 개인화 서비스 강화 - 스마트 폰 이용자의 온라인 예약 및 신청서비스 확대(모바일 접속건수 : 15만건) -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 - 도서관 전시·행사, 사서추천도서 등 유용한 콘텐츠 확대 서비스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서비스의 고품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광장 디지털 정보자원 제공 서비스 - 정보광장 공간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고품격 서비스 지향 및 디지털도서관 홍보 제고 □ 도서관 선진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정보 신속제공 및 검색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정보 구축 및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 운영을 통해 전국도서관 지원 - 다양한 검색 접근점을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국가종합DB 구축 (종합목록DB 60만건, 목차정보DB 3천책, 연속간행물 기사색인DB 5천건)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CDRS)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확대 운영(341개관)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참여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추진과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차서비스 확산 및 통합도서서비스 기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차 서비스(책바다) 참여기관 확대(582개관) -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기능 개선 ○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선진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기반 강화
<p>도서관을 통한 국민 문화향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회(13회) 및 현장탐방(14회) - 책과 연관된 수준 높은 독서 문화 강좌 제공 -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사서 우수 추천도서 선정 및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사서 추천도서 선정 및 일간지 등 게재 - 휴가철 독서문화 행사 추진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 견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서관을 통한 국민 모두의 문화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소장자료 기반 특별전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소장자료 가치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시 기획 - 소장 희귀본 및 귀중자료, 고지도 등 특별전시 - 사서가 추천하는 현대 그림책 원화전 개최 ○ 계기별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및 공공도서관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기별 도서관 문화행사 전국 도서관 연계 운영 - 도서관 주간(4.12~18), 책의 날(4.23) 계기 도서관기증 특별행사 개최
<p>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독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및 정보 접근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확대 - 지역생활권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원 확대 - 지식 나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 확산 ○ 지식정보취약계층 디지털자료 이용료 무상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원문DB 및 전자저널 무상제공 -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 디지털자료 이용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무상 지원 - 작은도서관(해외문화원자료실, 다문화센터 등 포함) 원문DB 서비스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독서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함께 하는 독서진흥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확대 - 농어촌, 도서벽지의 초등학교 ‘도서관 책 꾸러미 돌려보기’ 지원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독서한마당’ 개최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자료 수집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보급

추진과제	내 용
세계 도서관계에서 한국 역할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주요 도서관과의 전략적 교류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국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CJKDLI)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반 구성 및 회의 개최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개최(5.16~5.19, 20개국 30여명 참가) ○ 외국 국립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 확대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등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도서관대회 국제도서관연맹(IFLA)이사, 상임위원 추천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등 참가 □ 외국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학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자료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신규 설치기관 4개국(터키, 이집트, 벨기에, 스페인) 선정 - 해외 주요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자료 지원확대 - 해외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KSLIB) 운영 ○ 외국 주요 도서관 등 한국자료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주요 도서관 한국자료 운영 실태 설문조사('11.2~7월) □ 문헌정보, 메타데이터 분야 국제 표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표준(MODS)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자료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표준(안) 작성 ○ 국제표준화위원회(ISO) 표준에 대한 국내 대응표준 제정(2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대상 : ISO 대응 KS 표준 ○ 효율적인 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강화를 위한 업무망/인터넷망 운영 안정화 추진 - 도서관정책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통계분석시스템 확대 개선 - 도서관 EA(정보기술 아키텍처) 변화관리 시스템 운영 - 아시아(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5. 향후 전망 및 계획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를 통해 국민 독서력의 증진을 선도하는 핵심 문화기관이다. 이제 도서관은 기존의 공부방으로서의 열람, 책 대출반납 위주의 단순한 지식정보제공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기능,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제공 기능 등으로 다양화,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국가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도 도서관을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하듯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서관 건립에 중점을 두고 도서관정책을 추진해 오던 것에서, 점차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측면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도서관이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아카데미 육성,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독서마니아 클럽 육성 지원, 문화프로그램 은행 구축,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시낭송회 개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법·제도 개선, 국민 독서진흥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도서관 건립 및 순회사서 지원, 도서관 야간개관 지원, 우수 문학도서 선정·배포, 도서관 문학작가파견, 장애인 및 다문화도서관 서비스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디지털콘텐츠 공유 확산 및 도서관 오픈액세스 활성화, 도서관 설립·운영 컨설팅,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등의 굵직굵직한 도서관 관련 사업 및 임무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2012년은 ‘독서의 해’로 선포하여 국민의 독서력 증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부는 올 한해 이러한 도서관 및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및 독서 수준을 점차 OECD 선진국 수준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3년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5개년 국가중장기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과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1차 『독서문화진흥계획』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부에서는 지난 5개년 동안의 추진실적과 시행착오를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앞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다양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한 친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 속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9절 박물관정책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박물관은 역사·고고(考古)·인류 및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항구적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꾸준한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2007년에 500관 이상의 박물관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총 694관(국립 30관, 공립 312관, 사립 262관 및 대학 90관)이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및 지역별 박물관 현황은 각각 <표 2-9-1>, <표 2-9-2>와 같다.

● 표 2-9-1 ● 연도별 박물관 현황 (1999~201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박물관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562	579	630	655	694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28	27	29	30	30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238	255	282	289	312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214	215	234	251	262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82	82	85	85	90

● 표 2-9-2 ● 지역별 박물관현황 (2011)

(2011년 기준)

시·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서울시	10	10	63	23	106
부산시	-	3	3	6	12
대구시	1	4	5	3	13
인천시	-	11	10	1	22
광주시	1	4	1	2	8
대전시	-	4	6	6	16
울산시	-	7	1	1	9
경기도	2	53	53	11	119

시·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강원도	2	41	21	5	69
충청북도	1	25	9	6	41
충청남도	5	21	14	3	43
전라북도	1	22	6	4	33
전라남도	1	26	8	2	37
경상북도	2	36	11	11	60
경상남도	3	30	13	5	51
제주도	1	15	38	1	55
계	30	312	262	90	694

박물관의 양적 성장과 함께 박물관 소장유물의 다양화로 인해 테마와 콘텐츠가 다양화·전문화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 박물관은 ‘유물’을 소장, 보존, 전시, 조사·연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전문박물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능도 다양화되었다. 즉, 수집 및 전시·보존 등 박물관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분야와 함께 대중을 위해 체험·교육 및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에서 수행해 오던 박물관 정책업무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되었다. 2004년 당시 현장에 가까운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사립박물관 지원 등의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최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로 정책업무가 재이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기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정책 TF를 구성하고, 법·제도 및 지원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TF 결과를 토대로 2008년 12월 ‘박물관 진흥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박물관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예인력 지원, 전시 해설사 지원,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공·사립박물관 지원 현황 등 주요 박물관 정책을 살펴본다.

1)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2011년은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무료관람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수준 높은 기획전의 지속적인 개최 등으로 국립박물관 기준(중앙 및 지방 11개관) 전체관람객이 전년 대비 2.9%(8,180,522명→8,417,443명, 236,921명 증가) 증가하였다.

무료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개 기관과 국립고궁박물관·목포해양유물전시관(문화재청 소관) 및 등대박물관(국토해양부 소관) 등 총 15개관에서 이루어졌다. 무료관람 실시 기간 중(2011.5~12기준) 관람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기준 총 8,353,285명으로 무료화 이전(2007.5~12 기준)의 총 5,771,954명 대비 약 44.7% 증가하였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전시 및 문화향유 증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복합문화시설 건립 시 50% 지원)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박물관 시설 확충 중심의 박물관 정책에 따른 건립 후 운영 부진, 공립박물관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설립단계에서부터 인력 운용 및 소장품 수집 계획, 건립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996년 이래 2011년 말까지 총 119관, 2,00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011년 말 현재 90관이 개관하고, 29관이 건립 중(20관 건립포기)에 있다.

● 표 2-9-3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지역	지원관 수 / 개관 수	국고 지원액							
		계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5 / 2	251	68.6	-	-	32.5	47.5	50.2	52.2
부산	5 / 4	49.5	31.0	-	-	5.0	3.5	10.0	-
대구	1 / 1	36.36	36.36	-	-	-	-	-	-
인천	11 / 9	111.8	28.5	9.0	17.5	16.7	21.5	18.6	-
광주	3 / 3	34.0	25.0	-	-	-	9.0	-	-

지역	지원관 수 / 개관 수	국고 지원액							
		계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전	2 / 1	7.8	-	-	-	4.7	1.5	-	1.6
경기	15 / 11	290.91	109.95	12.0	62.9	32.38	10.0	34.68	29.0
강원	14 / 10	211.6	153.6	1.0	-	-	15.0	30.0	12.0
충북	7 / 5	133.79	86.0	12.73	-	0.56	9.0	13.4	12.1
충남	10 / 9	129.0	117.5	4.5	-	3.0	-	4.0	-
전북	11 / 9	297.1	254.6	12.5	-	-	15.0	5.0	10.0
전남	9 / 7	58.1	51.1	-	1.8	-	2.0	2.0	1.2
경북	11 / 8	148.05	77.4	12.25	3.0	-	26.2	19.7	9.5
경남	11 / 8	162.48	70.1	17.63	16.75	3.0	5.0	15.0	35.0
제주	4 / 3	79.6	77.0	-	-	-	-	-	2.6
합계	119 / 90	2,001.09	1,186.71	81.61	101.95	97.84	165.2	202.58	165.2

3)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현재 전체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해당한다. 열악한 재정·인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립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현재 등록 사립박물관 중 81개관에 한하여 전문 인력(학예인력/관 당 1명)에 약 13.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 표 2-9-4 ●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추진 실적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관 수	85	86	91	77	81
지원인원	102	110	105	97	97

또한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박물관협회를 네트워크를 중심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박물관 활성화 운영 내용은 <표 2-9-5>와 같다.

● 표 2-9-5 ●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		신청액(천원)
박물관 100번 가기		12,300
국제 교류 및 협회 운영 활성화	운영역량 강화사업	18,595
	주요 해외 국제행사 참가	29,000
	홈페이지 보강 및 유지	15,000
	협회 7개 위원회 활성화 사업	10,405
제4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35,000
대학박물관 방학캠프 프로그램		49,500
박물관 우수 사업 및 학술 지원		30,200
계		200,000

3. 국립중앙박물관

1) 조직현황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관람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전통문화를 홍보·보급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는 창경궁 제실박물관이 1909년 11월 1일 일반인들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박물관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창경궁 안에 있는 환경전, 명정전과 양화당을 비롯하여 부속 전각 등을 일부 개조하여 전시실로 활용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 병합이 되자 제실박물관은 그 이듬해에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다. 이것이 1938년에 창경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전하면서 <이왕가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해방이후에는 <덕수궁미술관>이 되었다.

한편 일제는 1915년에 조선총독부의 施政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건물을 활용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으로 지방에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을 두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개관하게 된다. 정부가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이 개관된 것은 근대사회에서 정통성은 박물관에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은 지방에 경주분관, 부여분관, 공주분관, 개성분관을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박물관 체제로 시작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주요 활동으로 광복과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리를 잡아가던 이러한 시기에 한국전쟁(1950년)이 일어나 국립박물관은 큰 시련을 겪었으나,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유물들을 부산으로 피난시켜 보존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립민족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 흡수 통합되어 남산분관이 되었다. 이후 국립박물관은 서울 남산분관 자리로 옮겨졌으며 1955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되었다가, 1969년 덕수궁미술관과 통합되었다. 이것은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한 한국의 최초 박물관이 하나의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덕수궁에서 하나로 통합된 국립박물관은 1972년에 다시 경복궁 안에 있는 새 건물(현 국립민속박물관)로 이전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86년에는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수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취지에서 1996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용산에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여 2005년 10월 28일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웅장하게 개관하였다.

1909년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을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100년, 그리고 1945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후 60년의 역사 속에서 6차례나 이전하는 시련을 겪어야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산하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하여 11개의 지방 국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은 2단·1실·7과·5부·3팀, 11개 지방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기획운영단 105명, 학예연구실 86명, 교육문화교류단 55명, 지방박물관 308명으로 총 554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916억 77백만원, 관광기금이 39억 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956억 7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였다.

2011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총 3,239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관람객은 2011년 3,106천명으로 2010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관람객은 9.7% 감소하여, 총 관람객 수는 2010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총 관람객 대비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4.1%를 점유하고 있다.

● 표 2-9-6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07	2,188,072	93,628	2,281,700
2008	2,188,659	94,766	2,283,425
2009	2,634,255	119,399	2,753,654
2010	2,900,053	145,300	3,045,353
2011	3,106,828	132,721	3,239,549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2) 주요성과

(1) '11년도 주요계기 기념행사

2011년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제1회 국제청방패위원회(ICBS)²⁾ 세계대회' 및 '박물관 주간(Museum Week)'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왕실 의궤가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귀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안착한 계기로 열린 행사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4월 14일 75책 귀환을 시작으로 4월 29일 73책, 5월 12일 75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73책이 5월 27일 귀환하게 되었다. 이 의궤는 대부분 임금이 보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한 이른바 '어람용' 의궤이며, 전체 297책 중에는 국내에 없는 유일본 30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을 범국민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 11일 '외규장각 의궤 귀환 기념 국민 환영대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의궤를 볼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9월 18일(62일간)까지 특별전시 "145년 만의 귀환-외규장각 의궤"를 개최하였고, 이후 강화도역사박물관에 순회 전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2)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ld)는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ICOM(국제박물관협회),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 ICA(국제기록관리협회), CCAAA(국제시청각기록협회) 등 5개 국제기구 연합체이다. 주요 업무는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전문인력 훈련 및 국제회의 운영, 자연재해 시 박물관 등 문화기관 피해 상황 보고 및 복구 지원 등이며, 최근 『문화적십자(Red Cross of Culture)』로 불리며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 사진 2-9-1 ● 외규장각 의궤



외규장각 의궤 격납



외규장각 의궤 귀환 국민 환영대회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시

‘제1회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세계대회’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11.12.8(목)부터 12.10(토)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Protecting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Change: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변화하는 시대에서의 세계 문화유산의 보호: 비상 대비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 무력충돌·정치적 소요사태 상황 하에서의 문화유산의 보호, 새로운 기술·새로운 위협 그리고 새로운 대응, 다양성 인식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호,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의 대비와 대응, 문화유산 보호의 개선, 국제적 접근 방안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여 국내외 주요 석학 19명이 기조연설, 세부 주제발표, 라운드 테이블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은 ICBS의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ICBS 세계대회 ‘서울선언’을 통하여 우리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UN, UNESCO, 유럽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 석학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였다.

이 외에 행사로 5월 18일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이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사)한국박물관협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박물관 주간(Museum Week, ‘11.5.14.~5.27.)을 국내 최초로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박물관이 갖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면서 함께 즐기는 박물관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행사, 공연, 학술대회 등 박물관·미술관 행사 등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박물관 주간(Museum Week) 행사는 전국의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내실있게 추진하여 박물관과 국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2) 유물관리 및 조사연구

가. 소장품 수집과 등록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구입 및 수증을 통해 전시 및 연구에 활용할 소장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211건 619점의 유물을 구입하였다. 먼저 아시아관의 전시 다변화를 위하여 무굴제국(Mughal) 시기에 그려진 세밀화를 구입하였다. 차분하고 정적인 공간에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왕족과 관리, 이상적인 여인의 사실적인 모습은 무굴제국 시기 궁정회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음계를 음악과 시, 그림으로 표현한 라가말라(Ragamala) 시리즈도 확충되어 인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왕과 신주(神主)를 호종하여 공신녹권을 받은 이경검 李景儉의 <호송공신녹권 護送功臣錄券>을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도성별 지도와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총도와 도성첩>, 조선조 세조世祖가 <능엄경>에 한글로 구절을 달아 번역하게 한 <능엄경언해 楞嚴經諺解> 등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전적과 고문서를 구입하였다. 정조 때 궁중화원으로 활약했던 초전 오순 焦田 吳珣의 <산수도>, 임진왜란 당시 순천왜성전투, 노량해전 등 마지막 전투의 기록을 담은 <정왜기공도병征倭紀功圖屏> 이 박물관의 신수 유물로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청대 초 문인이자 강희제康熙帝의 서예 스승이었던 심전沈荃(1624~1684)이 당대唐代 최고의 서예가인 안진경(顏真卿, 709~785)의 <고신첩告身帖>을 입서한 서예를 구입하였다. 이들은 박물관의 정식 유물로 등록되는 절차를 거친 후 국립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국외 한국실 등의 전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2년도에는 2011년에 실시해 온 구입 루트 다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소속 박물관 특성화를 위한 구입을 강화하고 전시 활용도가 높은 중요 문화재 구입을 위해 보다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에는 모두 321점의 문화재를 수증하였다. 이 중에는 조선 후기 이수광(1563~1628)이 편찬한 <지봉유설 芝峰類說>과 내각장판內閣藏版 <대학大學>, <장릉지莊陵志> 등 조선 후기 인쇄본, 청풍김씨 가전문서로서 충주목에 거주하던 김교리택金校理宅의 토지대장인 전안田案 등 99점의 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 범위를 넓혀 중국 갑골문甲骨文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동궐빈(董作賓)의 갑골문 자료와 위유린(于右任), 푸루(傅傳), 호리에 토모히코(堀江知彦) 등 중국, 일본 서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김은호金殷鎬, 허련許鍊, 지창한池昌翰, 김용진金容鎭, 김기창金基昶, 이상범李象範, 고희동高羲東 등 한국 근현대기에 활동했던 서화가들의 작품 50여점을 수증하였다. 그밖에 오르도스식

청동제 동물모양 장식과 화살촉 등 모두 147점의 아시아 지역 유물이 기증으로 추가되었다.

소장품 등록은 2010년에 이어 장기 미등록유물의 등록에 힘을 기울인 한 해로, 약 11만 4천여 점을 등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제강점기 조사 유물은 경상남도 김해패총 출토 유물을 포함하여 33,676점을 등록하였고, 인천 영종도 유적 출토 유물 등 76,078점의 국가귀속 매장문화재를 등록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촬영 자료인 유리건판 2,400점과 2005~2008년에 걸쳐 구입·기증된 1,720점 등 최근 수집 유물을 등록하여 최신 자료 활용과 소장품 정보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년까지 이어지는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 등록사업은 2013년까지 총 53억의 예산으로 장기 미등록유물의 등록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유물의 명확하고 신속한 등록을 통해 소장품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진 2-9-2 ● 2011년 신규 구입유물



2011년 구입 <황제의 초상>
무굴제국 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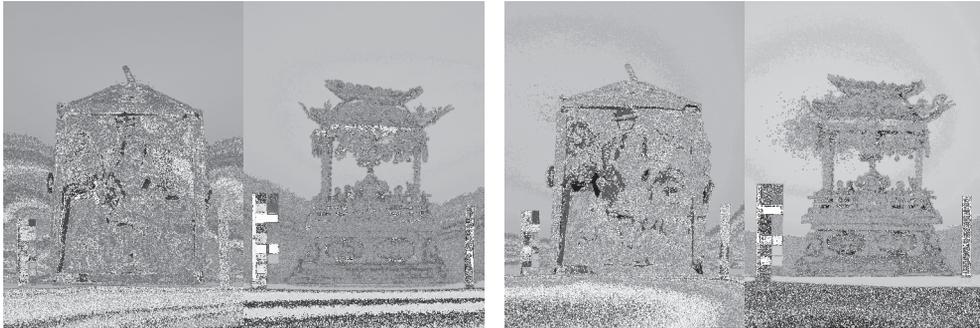


<정왜기공도병>, 19세기

나. 과학적 보존처리

1976년 2명의 학예원으로 출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분야(당시 보존기술실)는 현재 1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존과학팀으로 발전되어 박물관의 기본 기능인 소장유물의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존과학팀은 특히 일반적 수리·복원이 아닌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손상원인 규명과 보존처리, 재질성분분석, 예방보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9,700점의 소장유물과 발굴매장문화재를 보존처리하여 국내외 상설전시 및 특별전에 필요한 전시유물 확충에 기여하였다.

● 사진 2-9-3 ●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보존처리 전)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보존처리 후)

2011년에는 보물 제1359호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포함하여 1,890여점의 보존처리가 진행되었고, 발굴·소장품을 포함하여 430여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고고학, 미술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 훈증, 생물학적 피해조사 등 보존환경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지방국립박물관 및 외부기관의 보존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유물 47점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완료하였고,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 업무를 지원하였다.

● 표 2-9-7 ● 보존처리 현황 (2011)

구분	재 질	내 용
전시유물	금속	보물 제1359 감은사지 사리장엄구 등 2점
	목칠공예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 전시 갑골문 2점
	서화/지류	외규장각의궤 특별전대비 '강도부지도' 2점
	토기/도자기	미술부의뢰 부안 유천리 전시관련 청자국화당초문완 37점
	벽화/석재	미술부의뢰 신수2935 옥책 2점
	직물	아시아부의뢰 일본실 전시 Y868 갑주 14점
소장유물	금속	일제강점기유물 2차 은제대금구 등 181점
	목칠공예	덕수1780 목제지장보살입상 등 43점
	목제	다호리출토 바구니 29점
	서화/지류	신7361 박진복권 등 281점
	토기/도자기	연구기획부의뢰 동원 기증품 분청사기인화명문접시 등 600점
	벽화/석재	고고역사부의뢰 용호동 갈판 57점
	직물	유물부의뢰 증7555 아암 등 323점

구분	재 질	내 용
지방박물관 지원	금속	국립대구박물관 복식실전시품 신수14783 금동장신구 등 57점
	서화/지류	국립청주박물관 보물 제1629 신한첩 등 10점
	직물	대구박의리 청9099 솜장의 등 18점
국제사업	금속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금속유물 97점
	목칠공예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칠편 및 관장식 85점
	토기/도자기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옥제품 3점
외부 지원	토기/도자기	중요 기증자 소장유물 청화백자용문호 등 4점
	목제	한양대 이성산성 목제품 41점
	벽화/석재	유물관리부의리 계명285 마제석검 1점
	직물	육군박물관 이봉상 갑옷 1점
합 계		1,890점

● 표 2-9-8 ● 분석조사연구 현황 (2011)

구분	내 용
소장품분석	문묘세자 보양청계병 안료분석 142점
외부지원	몽골 도르릭나르스 출토 장신구 및 유기물 21점
목제 수종 분석	무령왕릉 출토 목제품 수종분석 등 8점
서화 조사	초상화특별전 황현초상 적외선 조사 등 1점
직물 분석	무령왕릉 출토 직물류 섬유조사(1차) 27점
금속	광주 신창동 출토 철경부동촉 등 4점
X-선 조사	고려 동경 조사 사업 고려 동경 229점

● 표 2-9-9 ● 환경조사 현황 (2011)

구분	기 간	내 용
환경측정	연중	전시 및 수장공간 온습도 및 유해가스 (SO ₂ , NO ₂ , NH ₄ , CO ₂ , O ₃) 측정 12건
훈증소독	연중	국가귀속, 대여, 구입 유물 훈증 19건
수장고 소독	11월	수장고 방제 소독 1건
생물학적 조사	2 - 11월	수장고 생물피해 예방 조사 4건
국공사립박물관 환경측정 지원	연중	현충사, 여주박물관, 장서각, 강화역사박물관 등 7건

다. 유적발굴 · 학술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2011년에는 다양한 방면에 걸친 유적발굴과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외 조사연구를 기획하여 몽골, 베트남,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관련 기관과 공동 발굴·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양국 간 문화 형성 과정과 교류 관계 규명 및 향후 양 기관 공동전시시 중요한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확인과 같은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 사진 2-9-4 ● 유적발굴



몽골조사 모습



베트남 조사 모습

앞으로도 발굴 및 학술조사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 나갈 예정이며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9-10 ● 유적발굴 · 학술조사 현황 (2011)

내용	대상	기간	비고
문화유적 지표조사	강원도 영월 연덕리 꽃병굴 유적 조사	9.19~11.19	
한일고대 문자자료 조사	일본 내 고대 문자 자료 조사	1.25~2.23	
한-몽 공동학술 현지조사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조사	7.6~9.1	
한-일본 학술교류	한일 초기농경문화 관련 공동연구	11.1~12월	
한-중국 학술교류	내몽고 소재 암각화유적 및 신석기 청동기시대 자료 조사 및 비교연구 협의	5.31~6.9	
한-러시아 학술교류	러시아 소재 발해유적 관련 자료수집	11.1~12월	
한-베트남 학술교류	베트남 코로아성 단짱유적 발굴조사	11.15~11.19	
중앙아시아 석굴사원 조사	아르호 석굴사원, 베제쿨릭 석굴사원 등	10.11.~10.20	

2011년에는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아울러 외부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표 2-9-11 ● 학술심포지엄 개최 현황 (2011)

제목	내용	기간	비고
문자로 본 고대인의 생활	한일 고대 문자를 통해 다양한 고대인의 생활상에 대한 경향 고찰	10.14	
“아시아 미술 전시의 회고와 전망” 국제학술심포지엄	“아시아 미술”이란 개념의 형성과 컬렉션의 형성, 박물관 컬렉션에 끼친 수집가들의 역할, 그리고 컬렉션의 연구와 전시 경향에 대해 국내외 학자 7명의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	10.28	

(3) 전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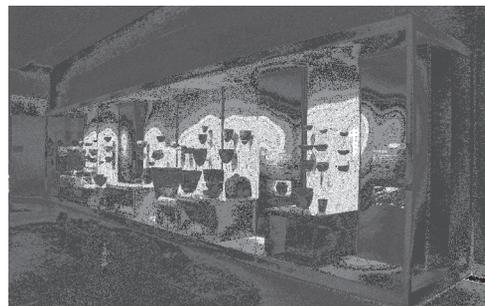
가. 상설전시실 개편

2011년에는 선사·고대관 중 선사 전시영역 중 구석기실에서 신석기실에 대한 전시개편을 실시하여 새롭게 발굴조사된 다양한 자료를 주제별로 전시하고, 대형급 신석기시대 전사된 토층을 직접 전시함으로써 고고학적 층위에 대한 해석을 알기 쉽게 전시하였다. 특히 신석기시대 유적에 발굴된 인골의 출토상태를 보존처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중·근세관의 경우 서화류 및 문서류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를 통해 전시 보완을 진행하였다.

● 사진 2-9-5 ● 상설전시실



구석기실



신석기실

나. 기획특별전 개최현황

「실�크로드와 둔황」 전(‘10.12.17 ~ ‘11.4.3)에서는, 특히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국내 최초 공개로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전시뿐만 아니라 잉카 문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실�크로드 문명 <왕오천축국전> 관련 전문 강연도 국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국민들의 세계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전」(5.3 ~ 8.28, 약 16만명 관람)을 개최, 국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장식 미술을 소개하여 바로크·로코코 미술품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중·일 초상화와 서양의 초상화를 한자리에 소개한 대형전시 「초상화의 비밀」(9.27 ~ 11.6, 약 4만명 관람)을 개최하여 국내외 소장된 명화의 탐구 기회를 마련하고 감상의 대상으로서 초상화의 조형미를 부각하여 초상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표 2-9-12 ● 2011년 기획특별전 개최현황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 용
‘10.12.17 ~ ‘11.4.3	세계문명전 ‘실�크로드와 둔황’	· 중국국가박물관 소장품 등 200여점 · 유료전시(개인10,000원, 청소년 9,000원, 초등생 8,000원, 유아 6,000원) · 총 131,749명 관람
5. 3 ~ 8. 28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	·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소장 유물 101건 · 유료전시(성인 10,000원, 청소년 9,000원, 초등학생 8,000원, 유아5,000원, 65세 이상 5,000원) · 총 162,448명 관람
9. 27 ~ 11. 6	『초상화의 비밀』	· 태조어진 등 170건 200점 내외 · 유료전시(성인 5,000원, 중고등생 4,500원, 초등생 4,000원, 아동 및 노인 2,500원) · 총 37,189명 관람

다. 특별전·테마전 개최 현황

우리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등 다양한 특별전과 테마전을 개최하였다.

● 표 2-9-13 ● 2011년 특별전·테마전 개최현황

구분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특별전	3.1 ~ 4.17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사도세자 묘지명 등 554점 전시
	5.10 ~ 6.26	우리 악기, 우리 음악	국립국악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시로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악기류 등 247점 전시
	7.19 ~ 9.18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의궤가 반환된 것을 기념하여 풍경도감의궤 등 104건 165점을 전시하여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 조명
	10.5 ~ 11.27	문자, 그 이후	광개토왕비 원석탁본 등 한일 고대 문자자료 등 323점 전시
	12.20 ~ 12.2.19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 호수에 비친 극락왕생의 염원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호를 품고 있는 시가현滋賀県の 불교 문화재 60여건(국보 4건 포함)을 통해 일본 불교미술의 지역적 흐름에 대해 조망
테마전	1.2 ~ 2.27	재치의 묘, 토끼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 속의 토끼의 의미를 재조명. 십이지신 토끼상 등 총 18건 18점 전시
	3.24 ~ 8.15	차와 향, 그리고 혼을 담다 신안용천청자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용천요 청자 90여점을 통해 용천요 청자의 미와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
	4.5 ~ 8.28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고려시대 왕실용 청자를 생산했던 전북 부안 유천리 가마터 출토 고려청자 파편을 전시
	4.26 ~ 7.24	대동여지도, 지도에 담은 동방의 큰 나라	대동여지도 등 고대 지도류 정리하여 전시
	5.10 ~ 8.28	내소사 괘불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 대어 전시
	9.20 ~ 11.27	The Last Harvest 타고르의 회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 국립근대미술관과 공동으로 타고르의 회화작품 49점 및 타고르 관련 서적을 전시
	10.27 ~ '12.1.15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	조선시대 500여회에 걸쳐 중국에 파견된 사행단에 속한 화가들의 서화작품을 통해 중국문화의 수용과 창조적 대응, 사행에서 화가의 역할 등을 조명

라.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 공간이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체험과 학습, 여가활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험전시실을 중심으로 물품보관소, 대기 공간, 도서 공간, 영상실, 유아공간, 어린이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936㎡, 전시실 면적은 1,123㎡이다. 전시실은 “옛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체험식 전시로 구현하여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박물관 내에서 제공하는 12종의 교육활동에 13,389명이 참여하였으며, 연 321,813명이 어린이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한 전시물 교체·개편을 완료하고, 어린이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추가적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사진 2-9-6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경



어린이에너지놀이터



교육프로그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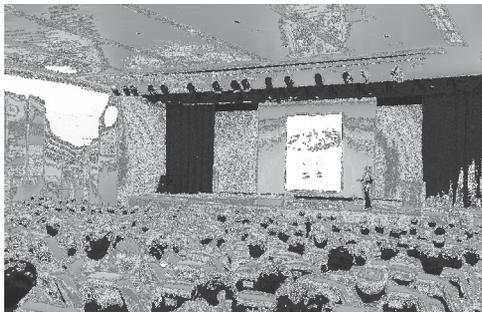
어린이날 '어린이박물관 역사 왕 대회'

(4) 교육, 문화행사 및 도서발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시 이외에 국민들에게 우리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여가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1년

도에는 학습 방식에 따라 지식 공감형, 자기주도 학습형, 체험 학습형 프로그램을 구분, 학생, 교사, 성인, 어르신, 전문 인력, 외국인,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100,303명을 대상으로 29종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1개 지방박물관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진 2-9-7 ● 2011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



지식공감형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형 프로그램



체험 학습형 프로그램



기획 행사

● 표 2-9-14 ●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2011)

구분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프로그램 수	29개 과정	24개 과정	33개 과정	15개 과정	30개 과정	18개 과정	20개 과정	25개 과정	26개 과정	18개 과정	41개 과정	30개 과정
총 실행횟수	792회	355회	613회	326회	157회	176회	228회	144회	899회	593회	454회	156회
참여인원	100,303	15,810	49,638	83,789	114,180	16,974	37,189	17,096	79,872	21,329	42,954	76,972

그리고 박물관의 본래 기능인 전시, 교육 뿐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시」,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전」 등 전시와 연계한 기념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방박물관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전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9-15 ● 문화행사 현황 (2011)

구분		횟 수	관람객(명)	구분		횟 수	관람객(명)
지역	행사			지역	행사		
중앙	계기별 문화행사	4	6,178	청주	계기별 문화행사	38	46,362
	전시연계 문화행사	40	8,438		가족 영화감상	106	10,505
	토요 문화마당	18	12,024		박물관음악회	3	856
	합 계	62	26,640		문화단체초청 및 특집공연	5	1,414
경주	문화행사	41	5,550	김해	계기별 문화행사	65	31,411
	합 계	41	5,550		야간개장연계 문화행사	13	2,056
광주	문화행사	163	344,240	제주	계기별 문화행사	22	31,975
	합 계	163	344,240		토요 야간개장	49	5,992
전주	계기별 문화행사	22	31,975	춘천	계기별 문화행사	4	6,616
	토요 야간개장	49	5,992		야간개장관련 문화행사	43	8,087
	합 계	163	344,240		정기문화행사	138	10,411
					지자체공동행사	3	5,021
부여	계기별 문화행사	26	15,506	진주	계기별 문화행사	25	39,785
	합 계	26	15,506		3D상설입체영화	2,536	136,999
					3D토요가족영화	10	364
					야간개장 문화공연	15	3,137
대구	계기별 문화행사	102	25,099	공주	계기별 문화행사	63	12,621
	합 계	102	25,099		야간개장기념 문화행사	3	949
					박물관음악회	2	720
					합 계	68	14,290

이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성과물로 다양한 방면의 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한 심도 있는 자료수집 및 소장 역사자료와 유물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조사하여 공개하고, 관련 학술연구와 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집 및 각종 도서를 기획·발간하였다. 발간된 자료집 및 도서들은 관련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표 2-9-16 ● 도서발간 현황 (2011)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비고
논문집	『미술자료』 80호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관련 연구 논문과 자료 소개를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 제80호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유리공예, 불교 회화, 회화 관련 논문 3편과 회화 자료 소개 1편을 수록	
논문집	The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eology(JKAA) 5집	국내 최신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 조선시대 초상화 특집으로 4편, 고고학·미술사 논문 3편, 박물관 컬렉션 소개 1편 수록	영문
논문집	고고학지 17집	고 한병삼 관장 10주기 추모집으로 고고·미술사로 구분하여 연구 논문 수록	
자료집	『조선묘지명 I 자료집』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묘지명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 정리	
논문집	『박물관 보존과학』 12집	보존과학 관련 연구논문과 자료소개를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 「석조불좌상의 보존과 과학적 특성 연구」 등 논문 11편과 자료 1편을 수록	
논문집	『Conservation Science for Asian Cultural Heritage』 Vol. 2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간한 『박물관 보존과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11편을 선별,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존처리 및 분석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소개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100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서 엄선한 유물 100점에 대한 사진이미지 및 한·영문 설명 소개	ebook
도록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특별전 유물소개	
도록	초상화의 비밀	‘초상화의 비밀’ 특별전 유물소개	
도록	Celebrating Events with Banquets and Ceremonies	‘향연과 의례’ 영문판 도록	영문도록
도록	『살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2011년 개최된 특별전 “살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 전시품 수록	
도록	『우리 악기, 우리 음악』	2011년 개최된 특별전 “우리 악기, 우리 음악” 전시품 수록	
도록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전시내용 수록	대도록 및 소도록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비고
도록	『문자, 그 이후』	2011년 개최된 특별전 “문자, 그 이후”의 전시품 수록	
도록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 호수에 비친 극락왕생의 염원	동명의 특별전 도록으로 전시 출품작 60여건의 도판 수록 및 관련 논고 5편 수록	
도록	The Last Harvest 타고르의 회화	동명의 테마전 도록으로 전시 출품작 49점의 도판 및 관련 논고 2편 수록	
도록	『내소사 괘불』	2011년 5월에 개최된 테마전 “내소사 괘불”의 전시내용 수록	
도록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	2011년 10월에 개최된 테마전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의 전시내용 수록	
도록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	2011년 4월에 개최된 테마전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청자”의 전시내용 수록	
보고서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이 1966년 발굴한 전북 부안 유천리 도요지 출토품을 정리하여 소개한 학술조사 보고서	
보고서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3집 『남원 지역의 철불』	2009년과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실상사實相寺, 선원사禪院寺, 대복사大福寺 소장 철불 조사 자료를 수록	
보고서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9집』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시리즈의 19번째 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궁중행사도 중 진찬도, 진하도를 제외한 중요 행사도를 시기순으로 수록	

(5)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등 국제교류

가.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2011년 한국실 지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국외 기관의 한국실에 대한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미국 LA카운티박물관과 한국실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하였다. 향후 전시해설 기획, 전시디자인, 전시그래픽 등 전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고려미술관과는 한국실 특별전 전시도록 발간 관련 MOU를 체결하여 도록발간 사업을 지원하였고, 미국 휴스턴미술관,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에는 한국실 상설전 유물 대여를 계속하여 한국실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지난해 한국실 개편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던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박물관 한국실의 성공적인 재개관을 위하여 소장 한국유물을 감수하고, 관련 사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시실 개편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국 박물관 한국실 전시 및 한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관 국외 특별전시 “장인정신:

한국의 금속공예” 도록 495부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한국실 운영 외국 박물관 및 유관 기관, 재외 공관 등에 배포하였다.

나. 우리문화재 국외박물관 전시

호주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특별전 『장인정신: 한국의 금속공예』를 개최하였다. 금속공예가 시작하는 청동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장인정신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금속공예품을 소개하여 약 4만명이 관람하였다.

● 표 2-9-17 ● 2011년 국외전시 현황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11. 10. 29 ~ ‘12. 2. 1	『장인정신: 한국의 금속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마총 금관(국보 제188호) 등 117건 141점 및 참고품 2건 2점 출품 · 총 38,308명 관람

다. 국제교류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2011 총회(2011.6.7~6.8/프랑스), 제6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 회의(2011.9.23/중국) 및 제3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이사회(2011.9.23/중국), 아시아·유럽박물관네트워크(ASEMUS) 2011 집행위원회(2011.10.8~10.9/스웨덴) 등에 참석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1회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2011 세계대회를 개최(11.12.8~12.10)하여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박물관 인적교류 사업으로 해외 전문가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avid Stark, Lynn Russell(미국 교육전문가 2명, 8.22~27), Frans Bevers(네덜란드 OPERA 전시총괄디렉터, 9.25~27), Toby Tannenbaum(미국 교육전문가, 10.22~29), Matthias Forrer(네덜란드 일본·한국실 담당큐레이터, 11.5~18)등 5명을 초청하였으며,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문화동반자사업)으로 3개국 4명(중국2, 몽골1, 베트남1)을 초청(2011.6.1-11.17, 약6개월)하여 비교연구, 한국어 연수, 문화탐방, 학예 및 교육프로그램 실습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중·일 학술인적교류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였다

- 한·중 학술인적교류 (박물관 디지털화 관련 교류 협력)
 - 파견(2명, 8.20~9.2.), 초청(4명, 12.11~12.17)
- 한·일 학술인적교류 (유물조사, 학술발표회 실시)
 - 파견(2명, 10.25~11.5, 11.7~11.20), 초청(2명, 7.6~7.15, 11.28~12.5)

이와 더불어 100여개 해외 박물관, 도서관,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료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6) 박물관 협력망 및 인프라구축

가.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011년도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 대표박물관과 박물관 협의회가 협력망 사업 네트워크 및 각 박물관 역량 강화,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연합전시, 박물관 탐방, 안내 리플렛 발간, 큐레이터 워크숍 추진 등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국 대표박물관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1회), 박물관 협력망 사업과 연계한 박물관 주간행사(Museum Week) 및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 민간단체(박물관 뉴스 사이트 [www.museumnews.kr] 운영 등)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전남)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 “박물관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와 문화 나눔, 문턱 없는 박물관을 위하여 매월 1~2회 운영되었다. 주요 대상은 서울시내 보육시설 어린이, 청각장애인,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후손 등으로 초청자들은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시실 관람, 어린이박물관 체험 등의 일정을 가졌다.

나. 지방지원 및 건축시설관리

지방특성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 박물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고고·미술사 중심의 획일적인 상설전시를 각 지역의 역사·문화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전시환경 및 전시실을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2010년에는 80억원('09년에는 73억원)을 들여 광주박물관 리노베이션 및 대구박물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관하였으며, 청주박물관 전시실 리노베이션과 경주박물관 정문 이전을 위한 남측 매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예산은 82억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경주·진주·청주박물관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9-18 ● 2011년 지방박물관 특성화 사업

구분	대상	내용
리노베이션	청주박물관	전시관 새단장
시설개보수	진주박물관	지하 수장고 확충 및 기계·전기·소방설비 등 보완
	6개 박물관	경주·광주·전주·부여·대구·진주박물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기타(시설건립)	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 남측 일부 부지매입(24,163㎡), 정문·주차장·편의시설 조정

또한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남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립나주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박물관 부지면적은 89,896㎡, 연면적은 11,086㎡이며, 국내 최초로 수장전시 기법을 도입하여 전시뿐만이 아니라 유물의 발굴조사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 및 보관, 전시 및 조사연구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람객이 볼 수 있어 관람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문화향수권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박물관에 찾아온 장애인 및 어린이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고 어린이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1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지하보도(무빙워크) 공사를 이촌역에서 박물관 남측광장까지 '12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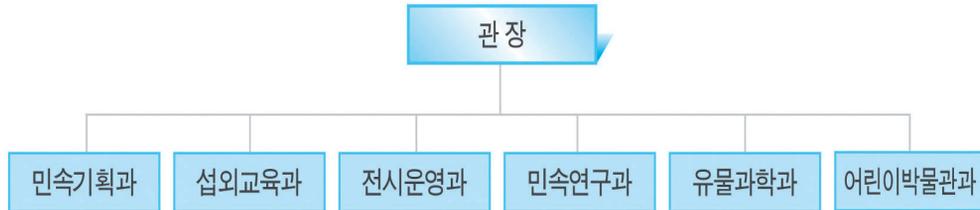
4. 국립민속박물관

1) 조직현황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의 조사·연구, 민속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민족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을 목적으로 1945년 11월 8일 '국립민족박물관'을 창설하고, 1946년 4월 25일 개관(일제시대 시정기념관 건물)하였다. 그 후 1966년 10월 4일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민속관'(경복궁 내 수정전), 1975년 4월 11일 '한국민속박물관'(경복궁 내 구 현대미술관 건물)을 거쳐 1979년 4월 13일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9419호)으로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이었다가 1992년 10월 30일 문화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13752호)되었고, 1993년 2월 17일 현 건물(경복궁 내 선원전)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2003년 2월 17일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물과학과, 어린이박물관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일반직 67명, 별정직 6명, 기능직 20명)이다.

● 그림 2-9-1 ●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누리집(홈페이지): www.nfm.go.kr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5억 3백만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8억 9,200만 원으로 인건비 44억 9,000만원, 기본경비 6억 4,000만원,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등 9개 사업의 주요사업비가 147억 6,200만원이다. 관광기금은 6억 1,100만원으로 외국박물관 한국민속실 설치 지원 400백만 원,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211백만 원이다.

2011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은 총 2,35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관람객은 2011년 1,092천명으로 2010년 대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외국인 관람객은 2007년 916천명, 2008년 954천명, 2009년 1,018천명, 2010년 1,129천명, 2011년 1,26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관람객 수는 2010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52%를 점유하고 있다.

● 표 2-9-19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07	830,239	915,867	1,746,106
2008	972,561	953,932	1,926,493
2009	850,913	1,018,139	1,869,052
2010	1,116,129	1,129,304	2,245,433
2011	1,092,262	1,263,694	2,355,956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2) 주요성과

(1) 유물관리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년부터 자료수집 범위와 지역을 세계 민족학 자료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집시기 역시 근·현대로 그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수집 노력에 힘입어 2011년 소장 자료는 52,852건 102,393점에 달하며, 2009년에 변수 묘 출토 복식자료가 중요민속자료 264호로 지정됨에 따라 총 7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2011년에는 근현대시기를 대표하는 등록문화재 1건을 추가 소장하고 있다.

● 표 2-9-20 ● 2011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지정번호	명 칭(소장품번호)	수량		지정년도
		건	점	
보물 1318호	신·구법천문도(민속15666)	1	8	2001
보물 1319호	경진년 대통령력(민속22638)	1	1	2001
보물 1478호	조씨삼형제 초상(민속15295)	1	1	2006
중요민속자료 13호	정원용(1738-1873) 유품 적초의(민속4989) 등	31	31	1968
중요민속자료 230호	산청 전주 최씨 고령댁 상여(민속15701)	1	1	1996
중요민속자료 241호	장영직(1861-1944) 유품 주머니(민속11152) 등	41	41	2001
중요민속자료 264호	변수묘 출토 유물(민속20937-20979, 43577)	44	44	2009
총 계	7건	120	127	

● 표 2-9-21 ● 2011년도 등록문화재 소장 현황

등록번호	명 칭(소장품번호)	수량		지정년도
		건	점	
제477호	용탄어수(상)(민속64686) 등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1	577	2011
총 계	1건	1	577	

또한, 2010년에는 급속히 소멸하는 근·현대 자료의 확보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연계, 그리고 박물관의 향후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대생활자료 및 민족학자료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525건 2,276점을 구입하였으며, 52명으로부터 총 1,114건 2,236점을 기증받았다.

국가귀속 작업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8년부터 ‘가등록’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귀속 처리 속도 및 소장 자료의 전시활용도를 높였으며, 2011년에는 ‘저고리’ 등 2,917건 4,077점을 국가자료로 등록하였다. 또한,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낡고 오래된 수장고의 내부 환경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5·7·11 수장고(총 505,28㎡)의 수장대, 조명, 단열보강 등이 개선되었고, 22,702점의 소장자료를 재질별로 이전정리를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민속자료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들로, 훼손되거나 오염·변색되어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민속박물관은 2002년 보존과학실 설치 이후, 민속자료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환경 개선, 재질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아울러 국내외 민속자료 보존기술 지원 및 보존처리 실무자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민속자료 보존 분야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섬유, 서화, 목재,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보존처리 231건 236점, 상태조사 3,145건 3,894점을 실시하였으며, 구입 및 기증 자료에 대한 훈증, 수장고 등의 해충 모니터링, 방역,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보존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유해생물 제어시설을 신축(332.3㎡)하였으며, X-ray 챔버, 시험용 저산소 농도 살충 챔버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전시

가. 상설전시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은 크게 3개 전시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전시관(한민족생활사)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연대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전시장 안에 소규모의 현대생활사 전시를 4회 운영하였다.

제2전시관(한국인의 일상)은 일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업과 사계절 변화에 맞춰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2011년에는 전시관 내의 노후 영상 장비를 교체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제3전시관(한국인의 일생)은 조선시대 양반가 사대부들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의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전시관 출구에 ‘기증자의 벽’을 새로 설치하여

기증자 예우 및 활발한 기증 문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기증전시실에서는 손경자 기증 특별전 “옷에 날개를 달다” 등의 기증전시를 2회 운영하였다.

나. 기획 및 특별전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를 의미한다. 전시공간으로는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를 위한 2개의 전시관(기획전시실 I, 기획전시실 II)을 갖추고 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7회의 기획·특별전시를 개최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들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 표 2-9-22 ● 2011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전시명	기간	장소	내용	관람인원
모자와 신발	2011.4.20~6.13	기획전시실 I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모자와 신발 속에 담겨진 의미와 상징, 형태미, 장식미, 조형미, 등을 살펴보는 전시로 머리쓰개와 신발 등 463점 전시	206,760명
정성채박사 화폐 기증전	2011.5.18~7.11	기획전시실 II	정성채 박사가 기증한 한국 화폐를 소개하는 전시로 화폐 4,978점 전시	242,948명
소금꽃이 핀다.	2011.7.20~9.13	기획전시실 I	‘전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전시로 전라남도 특화 사업인 소금을 주제로 생산 도구와 소금 관련 다양한 생활자료 등 225점 전시	508,446명
인도로 떠나는 신화여행	2011.8.10~9.19	기획전시실 II	2011년 한국-인도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고, 인도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인도 신화 자료 91점 전시	405,515명
제3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2011.10.5~10.24	기획전시실 I	전통공예의 전승·발전을 위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일반 공모, 선정된 작품 301점 전시	98,299명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사면	2011.11.30~2012.2.27	기획전시실 I · II	국립민속박물관의 국내·외 샤머니즘 조사 사업의 결과를 집대성한 전시로 한국은 물론 히말라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사면 무복(巫服), ‘사면 복’ 등의 무구(巫具)와 ‘정령신상’, ‘정령마스크’ 등 522점 전시	541,178명
용, 꿈을 꾸다!	2011.12.7~2012.2.27	특별전시실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띠해를 맞아 용 관련 자료 114점 전시	506,068명

다. 야외전시

관람객들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개관 이후 보다 열린 야외전시장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야외전시장은 ‘추억의 거리’, ‘인쇄소’, ‘개항기 거리’ 등의 근·현대 생활사 전시장과 돌탑·장승, 물레방아, 연자방아 등을 비롯해 경북 영덕에서 옮겨 다시 지은 전통가옥인 ‘오촌댁’, 전북 부안에서 옮겨 다시 지은 ‘효자각’ 등의 전통마을 전시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11년에는 여기에 물레방앗간, 디딜방앗간, 오촌댁의 뒷간 등을 새로 설치하여 전통마을 전시장을 개선하였다.

● 사진 2-9-8 ●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박물관 앞마당에 자리한 ‘오촌댁’



70년대를 재현한 ‘추억의 거리’

라.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상설전시 ‘심청이야기 속으로’는 고전소설 ‘심청전’을 재해석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특별전시 ‘우리 같이 놀래?-말과 판, 주사위의 세계’는 윗놀이, 체스와 같은 동서고금 전통 판놀이(Board Game)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지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통해 월 평균 2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이용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 사진 2-9-9 ● 어린이박물관



심청이야기 속으로



우리 같이 놀래?

(3) 박물관 교육

1988년 할머니·손녀 공예교실로 시작한 박물관 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해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 고취,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신설되었고, 2011년도 한 해 동안 성인, 어린이·가족, 어르신, 외국인, 소외계층 등 총 42,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2-9-23 ●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1)

분야	교육명	내용	교육횟수	참여인원
성인교육	성인민속교실	전통매듭, 염색, 염색, 칠보 등 실기강좌	96	147
	세계 민속을 만나다	일반인 대상 세계민속문화 강좌	16	641
	전시연계교육 - 해설이 있는 곳 앤 댄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한 교양강좌	8	636
전문가교육	초등교원 우리민속연수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학 심화 강좌	2	75
	국제지역 전문가 과정	다양한 국제지역 문화 관련 교육	2	171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국 박물관 학예인력을 대상으로 유물관리 및 등록 실무 교육	2	82
	예비큐레이터 인턴십 과정	박물관 관련 학과 학생들 대상 실무연수 프로그램	1	24
청소년교육	CGlobal Weekend, 박물관에서 세계를 만나다	교과연계 세계 생활문화사 체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 고취	12	271

분야	교육명	내용	교육횟수	참여인원
	이팔청춘 조선탐험대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와 연계한 한국생활문화사 체험 교육	5	116
소외계층 교육	민화가 들려주는 병풍 속 숨은 이야기	민화 이해를 위한 장식병풍 만들기 체험	4	80
	오감만족 민속체험	시각 장애인 대상 우리민속문화 체험교육	7	114
	그림으로 말하기, 민속으로 안아주기	열두띠 동물을 소재로 한 미술치료프로그램	10	18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찾박버스 전시관람, 한지상자만들기, 북청사자놀이 배우기	48	4,855
	다문화꾸러미 체험교육	재미있는 문화체험상자인 몽골꾸러미 및 베트남꾸러미를 탐색하면서, 오감체험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2	1,118
	밝은 누리 우리 박물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 상설전시실 관람 및 한지공예, 탈춤 등 전통문화 체험	10	276
	늘푸른 새싹교실	어린이병원학교 장기입원 환자 및 소아암어린이 대상 전통문화체험 교육	71	853
	우리 돌이 박물관 나들이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어린이 대상 전통문화체험 교육	25	305
	마음으로 보는 우리	시각장애어린이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교육	6	12
	외국인교육	외국인과 함께 하는 우리민속나눔교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규방공예, 탈만들기, 시물놀이 등 우리 민속문화 체험 교육	27
외국인 전통연희교실		한국 체제 외국인들을 위한 중·단기 전통연희 프로그램	60	216
세시풍속 체험행사 및 전통요리 체험		외국인 대상 설, 추석 등 세시행사 체험 및 전통요리 만들기 등	3	111
재외한국문화원 문화교육		해외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5	350
외국인 말하기 대회		‘한국의 민속’이라는 주제로 5분 한국어 스피치	1	24
가족교육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	박물관 전시 및 우리 민속문화의 주제별 이해	48	2,022
	우리 물건 우리 솜씨	지정무형문화재(나주소반) 장인에게서 배우는 우리 공예문화	10	298
	우리 최고의 맛과 멋	종가음식 또는 지역별 음식 만들기(한과, 떡, 김장)	5	196
	신나는 토요일	2, 4주 토요일에 배우기, 풍물 전래놀이, 만들기의 체험식 교육 운영	48	887

분야	교육명	내 용	교육횟수	참여인원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마당	박물관 야외 전시물을 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듣기	5	179
	야(夜)~호(好) 문화공감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체험과 연계한 박물관 야외 공연 관람	4	1,429
	아리랑 교실	각 지역의 아리랑을 배우고 장단에 맞춰 아리랑을 불러보며 아리랑에 대한 소중함을 배운다	20	197
	가자 1박2일, 민속마을로 함께 떠나요	‘전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 연계, 충남 6개 마을 전통민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479
	우리강산과 함께 자라요	자연환경 찾아다니기, 문화환경 찾아다니기, 박물관 마당 속 문화 읽기	24	425
어린이교육	박물관에서 놀아요(방학교육)	방학기간 박물관 학습 및 현장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 이해	25	1,192
	병아리 민속교실	유치원 및 미취학 아동 대상 눈높이 민속 교육	22	497
	우리들이 만드는 민속이야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전래놀이, 전통보자기 만들기 등 체험교육	12	280
	신기한 박물관 큐레이터 이야기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민속유물을 관찰하고 실제 큐레이터가 되어보는 체험 교육	18	514
	학교 갔다 박물관 가지(방과후)	종이공예 등 만들기, 타문화 알기, 타박물관 교육연계, 판소리 배우기 등	70	1,575
	깊이 있는 전시, 재미있는 설명	전시연계교육, 구연동화 듣기, 놀잇감 만들기 등	43	1,568
	즐거운 명절, 신나는 박물관	인형극, 어린이놀이마당 공연, 세시관련 체험교육(설.대보름, 어린이날,단오,추석,동지)	5	19,115
총계			826	42,520

(4) 공연 및 민속행사

2011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계기별 행사를 연중 운영하였다. 이러한 행사와 공연들은 우리 문화의 역동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는데, 특히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주말 상설공연, 우리민속한 마당’은 박물관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은 토요일상설공연과 일요일린민속무대,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로 나누어지며 2011년에는 총 101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약 43,933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표 2-9-24 ● 2011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구분	횟수	관람인원	장르별				
			기악	성악	무용	풍물	기타
토요상설공연	47	9,503명	8	12	20	5	2
일요일리민속무대	22	8,850명	1	1	0	17	3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17	3,580명	7	4	1	5	0
계기별 특별공연	15	22,000명	풍물(농악, 사물놀이, 타악), 기타(재담극, 약극, 무예, 가면극, 굿판), 외국민속공연 등				
합계	101	43,933명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 및 세시별 민속의 재현을 통하여 전통 민속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꾀하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전통문화와 다문화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에는 입춘첩 시연을 통해 새해의 복을 기원하였고, 설과 대보름, 한가위, 동지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민속공연 및 각종 체험·시연을 통해 훈훈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 사진 2-9-10 ● 공연 및 민속행사



우리민속 공연



세시행사(설)

(5) 문화교류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에 한국 민속문화를 알리고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해외 유수의 문화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덴마크 국립박물관과

문화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실 개선 및 유물대여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역사박물관과 한국실 설치 및 박물관 전문인력 상호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1년 10월 27일~28일 양일 간 국내외 박물관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박물관 교육 발전방안 모색 및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박물관교육혁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기존에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의 진단·평가 등 박물관 교육과 관련하여 다채로운 논의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연구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산간민속을 주제로 한국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시를 일본측에서는 후지산을 끼고 있는 동경 서부의 산간지역인 야마나시현을 공동 조사하였다. 또,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과는 공동사업으로 한국 문화영상콘텐츠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입영’, ‘떡볶이’, ‘군산근대문화’ 3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6) 학술활동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문화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술조사 및 사진, 조사보고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조사로는 ‘2012년 충북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둔율마을(농촌)과 보은군 사내리(사하촌)의 민속과 생활상을 조사·연구하였다. 또한 ‘목포시 유달동, 만호동(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민속조사와 살림살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민속조사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문화에 대한 기록에서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민속 조사의 영역을 확장한 조사이다.

국외조사로는 2010년 히말라야 네팔 지역의 샤머니즘 학술조사에 이어 2011년에 네팔 지역 소수민족의 혼례문화 학술조사를 실시했다. 네팔 소수민족의 다양한 혼례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혼례 관련자료 및 생활 자료를 수집해 2012년에 열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샤먼 특별전’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 외에 주제별 조사로써 현대의 임신·출산·육아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신·출산·육아조사는 2009년에 출생한 김아라찬의 엄마가 직접 조사자가 되어 임신과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보자들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의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육아용품에 대한 살림살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년부터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그 해에 <무속신앙편

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 1·2권>을 발간하였고, 2011년에 <가정신앙편 1·2권>을 발간함으로써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일단락하게 되었다. 2011년에 발간된 <가정신앙편 1·2권>은 집안의 최고 신이라고 하는 성주신을 비롯하여,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신, 부뚜막에 거주하며 불의 신[火神]인 조왕신, 재물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업신, 심지어 변소에 거주한다는 축신까지 다양한 집안 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풍부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문판 한국세시풍속사전』(Encyclopedia of Korean Seasonal Customs—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I)에 이어 2012년부터 『영문판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세시풍속 국문·영문 웹서비스·한국민속신앙 웹서비스와 병행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조사보고서로서는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한 학술조사사업의 결과로, 전남 지역 민속지 2권, 살림살이보고서 2권, 전남의 민속문화 1권 등 총 5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2목포 유달동 및 만호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속조사의 결과물로 ‘목포 도시민속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민속지와 살림살이에서는 7개 마을이 금곡평야를 중심으로 등글게 어울려 있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조선시대부터 대표적인 항구도시였던 영광군 법성포, 1897년 목포 개항 후 1980년대 초까지 목포에서 가장 변화한 중심 거주지였던 유달동과 만호동을 다루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장례의궤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의 전통 상례인 소운 김시인과 화재 이우섭의 삼년상과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삼년상과 선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외조사보고서로는 2010년까지 중국 여러 지역의 혼례풍습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한데 이어 2011년에는 히말라야 네팔 지역의 샤머니즘과 생활문화를 조사해 그 결과물로 조사보고서 ‘네팔 히말라야 샤머니즘’을 발간하였다.

또한, 민속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공간 제공으로 ‘민속학연구 28·29호’ 등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 표 2-9-25 ●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 (2011)

연도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비고
2011년	조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민속조사보고서①-전남의 민속문화 · 전남민속조사보고서②-칠리안속 상금마을 · 전남민속조사보고서③-백균·운영남덕 살림살이 · 전남민속조사보고서④-영광군 법성포 · 전남민속조사보고서⑤-오정환덕 살림살이 · 도시민속조사보고서①-목포 유달동, 만호동 	

연도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속조사보고서②-목포 만호동 아리네 살림살이 · 네팔 히말라야 사머니즘 · 2010년 중국농업박물관 전문가 교류 연구결과 보고서 ·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현대 임신·출산·육아조사 보고서 · 삼년상-소운 김시인·화재 이우섭 · 선종-김수환 추기경 	
	사진·웹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1, 2권 · 영문판 한국세시풍속사전(Encyclopedia of Korean Seasonal Customs-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e 1) · 네바강변에 피어난 한국-포르르대제 인류학민족지학박물관 소장 한국자료 	
	전시도록·사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와 신발 · “소금꽃이 핀다” 전남민속문화의 해 · “정성채 화폐” 기증 · “인도로 떠나는 신화여행” 다문화 · 제3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사면 · “용, 꿈을 꾸다” 	
	정기간행물·학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학연구 28, 29 · 박물관형 민속조사 연구과 역할 · 용띠학술강연회집 · 생활문화연구 26호 · 민속소식 · 민속연보 ·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5호 ·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자료집·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백서 · 이진승 묘 출토복식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소장품 관리 일반과 실제 · 교과서와 함께하는 민속여행1 · 생각하며 자라기1~3 	

(7)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수집·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76,034여 점을 비롯해, 그동안 추진한 민속조사 결과물과 전시를 통해 생산된 자료, 박물관 교육·행사를 통해 축적된 사진, 필름, 민속음원, 비도서 등 총 407,521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1년도에 후지모토 다쿠미의 민속생활사 아카이브자료 46,377점 등 85,289점의 자료를 수증하였고, 전시, 민속조사·연구, 교육 등을 통해 생산된 아카이브 자료 8,610점을 수집하였다.

한편 2010년 Charles J. Burstone으로부터 수증한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을 정리하여 전쟁기간 중 일상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KOREA 1952” 기증 사진집 발간과 전시를 개최하여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김영진으로부터 수증한 충북지방 무속 및 민속분야 아카이브자료들을 정리한 “충북민속의 현장” 기증 자료집 및 “사라지는 일상의 흔적들” 기록화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아카이브자료의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생활민속아카이브 이미지 활용을 보여주는 교육 및 출판 등의 자료복제 수량이 2010년도 3,196점, 2011년도 3,822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민속아카이브 자료의 효용성과 중요성의 반증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민속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이용과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9-26 ●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종류	자료구분	수량	비고
도서/비도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	76,034권(점)	
아카이브	필름	152,877점	
	사진	172,425점	
	CD/DVD	1,416점	
	테이프	2,035점	
	LP(레코드)	31점	
	설계도면	255점	
	음원	2,342점	
	판넬	9점	
	액자	33점	
	엽서/스크랩	64점	
총계	407,521점(권)		

● 표 2-9-27 ● 2011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구분	기증자	자료내용	수량
아카이브	후지모토 다쿠미	민속생활사	46,377점
	정상박	경남민속	7,517점
	오정희	개성 훈례사진	5점
	이진보	제주도 무속	120점
	이용범	마을제, 허수아비 등	24,037점
	임동권	한국 및 일본 민속	7,163점
	이경현	섬유산업 모습	68점
	김관태	한국전쟁 사진	1점
	박남식	영결식	1점
도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발간자료	103권

5. 향후 전망 및 계획

최근 인구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주5일 수업제 실시 및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가족 여가활동 수요 급증 등 박물관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박물관의 양적확충 뿐만 아니라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종별 특성에 맞는 운영 내실화·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국민 수요의 다양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주제 및 콘텐츠에 따라 특화된 박물관 건립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물관 종별로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공립박물관의 경우 그간의 양적 확충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건립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여 질적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박물관의 경우 재단법인화를 지원하여 설립 및 운영제도를 체계화하고, 학예사·에듀케이터와 같은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향후 박물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박물관이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박물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제10절 문화다양성정책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문화다양성정책은,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중심의 편중된 정책 대상에 대한 한국문화 이해 교육 위주의 기존 동화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주류사회가 소수문화를 포용하고 문화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어 온 소위 ‘다문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결혼 이주자,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제도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래적의미의 다문화정책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등을 통해 부처 간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다양한 부처가 고유의 기능별, 영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착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변화에 대한 고려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 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식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민에게 자국문화 표현기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여 자부심 및 주체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이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 정책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사회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종사자와 문화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는 바탕 아래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러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1,395,077명으로, 지난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등록(장기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어서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386,972명)에 비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향후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5%,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정주형 체류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에 따라 이주민 모국문화의 향유와 욕구가 늘고, 이주민 출신국(모국)문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명목상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위 정책들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국인과 이주민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존중하여 여러 문화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인식 개선 및 이주민과 내국인의 문화교류와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05년 3~9월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 탐승팀」(18개 사업 발굴·추진), 2006년 5~10월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 TF」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는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적응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상호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위해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①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사업 ②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사업 ③ 지역다문화프로그램 ④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이주민의 사회참여 욕구와 현장의 다문화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형 정책으로서 다문화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양질의 다문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기반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이해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문화 교육인력을 양성하여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등에 파견해왔다. 2011년에는 각 지역에서 늘어나는 다문화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문화강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 지역별 다문화 교육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교육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강사를 선발·양성하고 민·관 다문화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확대하였다. 2011년 부천, 인천, 충북 등 5개 기관을 통해 다문화강사 총86명(한국인 38명,

● 사진 2-10-1 ● 다문화 교육 교구 사진 자료



이주민 49명)이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전년도 56명에 비해 확대), 초등학교, 문화기반시설 등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수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인력 및 매개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현장의 다문화강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문화 교육 콘텐츠 사례집』과 『다문화교육 교구(내 손안의 다문화)』 학습카드를 8개 국가(멕시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 태국) 언어로 제작하고 강사 및 유관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³⁾.

(2)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

우리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에서 관객 만족도 설문을 분석한 결과 주로 언어적 문제,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이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보다는 가까운 이웃,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문화예술 공연은 정서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어서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 및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2011년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소통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며, 더불어 이주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는,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되었다.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다문화지역순회공연사업은 지역별 다문화 공연 사전 수요조사(11년 2월)를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총 5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5월~10월까지 6개월간 24개 지역에서 30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고, 8,455명의 참여자 및 관람객이 함께 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표 2-10-1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2009-2011)

구분	2009	2010	2011
사업명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지역순회공연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지역순회공연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목적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 -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소통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 -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주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 -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소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일시	2009.2.21(토) ~2010.3.29(일)	2010.7.30(금) ~2010.8.22(일)	2011.2. ~2011.10
참여공연 단체	1개	1개	5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원연합회, 소리나루	한국문화원연합회, 소리나루	한국문화원연합회, 각 공연단체, 지자체
관람객	다문화가정(30%) 소외계층(30%) 일반인(40%)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50%) 일반인(50%)	다문화가정(30%) 일반인(70%)
공연횟수	12개 지역 12회	10개 지역 10회	24개 지역 30회
총관객수	6,742명	4,940명	8,455명
사업비	3억원 (1회공연 25백만원)	3억원 (1회공연 25백만원)	3억원 (공연단체별 차등지급)

● 표 2-10-2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공연단체별 총 관람객 (2011)

공연단체	공연명	횟수/지역	관람객수
마당극패 우금치	선녀와 나뭇꾼	7회(6지역)	2,862
(사) 아리수	우리 하나가 되어	5회(5지역)	960
(주) 아트브라이트	게르아저씨	7회(3지역)	524
(주) 파임커뮤니케이션	아시아 동화여행	7회(6지역)	3,309
극단 Art-3 Theater	콩콩이와 친구들	4회(4지역)	800
합계			8,455

● 사진 2-10-2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공연현장 (2011)



선녀와 나뭇꾼



우리 하나가 되어



게르아저씨



아시아 동화여행



콩콩이와 친구들

2011년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에 대해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주체별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관람객 5.6점, 공연단체 4.8점, 지역주관 담당자 6.0점으로 사업에 대해 보통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표 2-10-3 ●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사업주체별 만족도 (2011)

구분	관람객	공연단체	지역주관 담당자
만족도	5.6	4.8	6.0

이외에도 부내 정책기자단과 연계하여 다문화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정책 홍보(11.5~7월, 총 17건 다문화 관련 기사 탑재)를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문화다양성 정책개발 방향연구’,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개성방안’과 ‘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법제 연구’,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기초연구’ 등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2)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내국인이 이주민의 소수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민들이 자존감이 낮고 소외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문화사회에서 내국인은 이주민과 다양한 문화를 배척하기 보다는 상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정서적 친밀감을 확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 간의 교류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

(1)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언어와 문화차이로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간 갈등, 자녀의 교육문제 등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우수한 다문화 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다문화 사업 저변 확대 및 문화적 관점의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 여건 및 이주민(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민과의 이해 증진 및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내국민들의 문화적·언어적·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증진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다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지역주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이끌어내는 장기적,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주민과 내국인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50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25개 단체, 2010년 28개 단체)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지원 대상을 다문화관련 전문문화예술 생산주체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이주민·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공동체 중심의 ‘일상문화’ 분야로 세분화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기반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을 강화 하였다.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괄하여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 일상문화로 유형화하여 진행하고, 다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연구 등을 통해 방법론을 정리하는 등 다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유형화·체계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워크숍, 성과발표회(11월 22일 ‘이주민과 지역주민, 이제는 문화로 소통한다’라는 주제로 인천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 등을 통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 표 2-10-4 ● 2011년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선정 사업 현황

구분	지역	시/군/구	단체명	프로그램명	유형
1	서울	종로구	극단사다리	연극을 통한문화프로그램 (지구마을 문화여행)	문화예술
2		관악구	한국다문화센터	레인보우합창단의 활약을 통한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진입 (2년연속 지원사업)	문화예술
3		영등포구	예술과시민사회	<도시속 이주민 가족>의 가족관계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일상문화
4		서대문구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6차 이주여성 영화제작 워크숍 (2년연속지원사업)	일상문화
5		종로구	놀자 프로젝트	지구마을 어린이여행단	문화예술
6		중구	(사)세계화교육재단	지역주민과 이주민이하나되는 히코합창단설립/운영	문화예술
7		구로구	(재)구로문화재단	사달수드	문화예술
8		영등포구	(주)노리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 자녀소통 워크숍	일상문화
9		중구	(사)여성 문화네트워크	이주여성의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이음>	일상문화
10		종로구	(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세시음식문화활동을 통한 남북한주민하나되기프로젝트	일상문화
11		동대문구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함께 떠나는 어머니라 동화여행 III (3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구분	지역	시/군/구	단체명	프로그램명	유형
12		중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	동그란 세상, 무지개 책 Ⅲ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13		종로구	(주)아시아트레저네트워크	HOPE KIDS 오감 공동체	일상문화
14		마포구	사립고지법인 우양	우양 통일축구	일상문화
15		구로구	(사)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방송 MNTV	다문화 영상 제작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16		종로구	(재)무지개청소년센터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17		남구	(사)광주다문화지원 네트워크협의회	엄마의 손맛	일상문화
18	광주	동구	아시아박음공동체	이주민 모국 전래동화 만들기	일상문화
19		광산구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자장자장우리아가”전래동요를 통한 엄마나라이해하기	문화예술
20		북구	선련종합사회복지관	우리마을-다문화 컨텐츠 (2년연속 지원사업)	문화예술
21	대구	서구	대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olorful Dream 합창단	문화예술
22		중구	영남노동교육위원회	다문화가정 ‘꿈여울’ 다원예술발표회	일상문화
23	부산	진구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지역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동요부르기“오색타래”	문화예술
24	울산	남구	울산미디어연대	다문화, 예술로 통(通)하다.	일상문화
25	인천	부평구	부평아트센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린이 창작극 “네 꿈을 펼쳐라”	문화예술
26		연수구	교육극단 보물상자	다문화가정의즐거움어머수는 곳 다(多)락(樂)방	문화예술
27		안산시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경기지부	우리 함께 we together	일상문화
28		가평군	창평문화예술학교 가평예술단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문화예술
29	경기	고양시	고양송포호미결이보존회	한국판 “엘시스테마” 레인보우사물놀이 난타놀이단	문화예술
30		안산시	극단복새통	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T.I.E. 공연 〈코리아쉐이크〉(2년연속 지원사업)	문화예술
31		안산시	(사)한국민예총 안산지부	이주여성의 도약 ‘꿈꾸는 뮤직다큐’	문화예술
32		춘천시	(재)춘천인형극제	다문화가정을위한인형극 공연/축제/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33	강원	영월군	영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함께 춤 춰요	일상문화
34		횡성군	(사)횡성여성농업인종합 지원센터	보금자리 문화활동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35	충북	청주시	극단새벽부설 교육연극연구소 “해맞이”	“마주잡은 손” 어깨동무 교육연극	문화예술
36		충주시	창작극단 하다	바다를 건너온 전래이야기 책과 연극이 되다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구분	지역	시/군/구	단체명	프로그램명	유형
37	충남	천안시	베아또아트컴퍼니	하늬바람 다문화 여성 합창단	문화예술
38	경북	구미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외국인근로자 락밴드 ‘두드림’	문화예술
39	경남	창원시	창원YMCA	창원YMCA ‘하나올림’ 다문화여성합창단 (3년연속 지원사업)	문화예술
40		창원시	창원 대신미술관	하나되는 다문화 여행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41		창원시	희망나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통-연극 어머니	문화예술
42		김해시	김해YMCA	다문화가정과의 행복한동행을위한 교육및체험활동	일상문화
43		창원시	(사)경남독립영화협회	다문화가정아동문화예술교육 <우리들의동화만들기>	일상문화
44		진주시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다문화동아리찾아가는문화나눔활동 “다문화수다방” (3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45	전북	완주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아리랑 in 아시아	문화예술
46		전주시	(사)달란트연극마을	유치원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젝트 먼 나라 이웃나라 전래놀이 ‘change up’ (2년연속 지원사업)	일상문화
47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시연계프로그램 “세계속의가면무도회”	문화예술
48		완주군	완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다의 수다여행	일상문화
49	전남	영암군	아천미술관	희망예찬	문화예술
50		무안군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사랑 문화릴레이	문화예술

(2) 이주청소년 문화감성증진 사업

〈표 2-10-5〉와 같이 다문화가족 2세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이주 청소년 문화감성증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2-10-5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연령별 현황 (2011)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2011)

구분	계(명)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51,154명	93,537명	37,590명	12,392명	7,635명
비율	100%	61.9%	24.9%	8.2%	5.1%

4) 2010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취학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42,676명으로 이들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83% 밖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2012년 3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괴리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된 사업이다.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문화예술 전공자, 유학생, 이주민 문화생산자의 재능나눔과 연계하여 문화를 통한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AMA), 서울예술대학(대학생), 무지개청소년센터 등의 참여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중도입국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마음으로 여는 마음', '아트캠프')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와 가족구성원을 위한 1:1방문형 문화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콘서트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뮤지컬, 연극놀이 등)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마임협회(강정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학생(AMA) 등의 재능기부 등 문화예술인, 유학생, 이주민, 지역사회 간의 자발적 재능나눔 인력풀 구축을 시도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예술인과 유학생 등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실천해본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사업'으로 겨울방학동안 추진된 5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표 2-10-6 ● 2011년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사업 프로젝트

정책 대상	내 용
중도입국청소년	한국마임협회와 연계, 마음으로 여는 마임수업 진행
이주여성 자조모임	뮤지컬 전문가와 연계,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기반 한 콘텐츠 창출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2세	엄마(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놀이), 자녀(연극놀이) 간 문화를 통한 소통과 동질감 도모
다문화가족	예술가가 외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제공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2세	한예종 AMA 장학생과 연계, 영화·무용·합창·마임 등 장르별 콘텐츠를 생산·공연하는 문화캠프 추진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2. 3. 24(토) '꿈-아트 페스티벌'과 '라운드 테이블 -이주와 청소년 그리고 예술'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를 갈무리하였다. 이주민을 정책의 수동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자 예술활동의 주체로서 '이주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번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키운 자신들의 꿈을 이어나가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소외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이주청소년 문화감성증진 프로젝트 사업을 계기로 위축되어 있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 사진 2-10-3 ● 3. 24.(토) 대학로 엘림홀 '꿈-아트 페스티벌' 현장



다국적악기공연 팀의 축하공연



중도입국청소년의 '마임' 공연



다문화가족 2세 자녀의 '연극놀이' 공연



이주여성 자조모임의 '한국어 학당' 뮤지컬 공연

3. 향후 전망 및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까지 다문화정책이 소수자 대상의 주류 문화 동화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진 한계를 넘어, 주류사회가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넓힐 수 있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주민 자조모임 및 풀뿌리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 기회 제공 등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이주민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넘어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의 역할을 제고하여 문화 간 공존·상생을 지향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방송 및 문화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안내서(guideline)를 제작하여, 문화콘텐츠 창작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급,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 관련법에서의 문화정책의 지향점으로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강화 조항을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을 '문화다양성의 해'로 지정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술,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제1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지역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이다.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주변에만 머물던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인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동·서 문화의 균형과 개방·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문화와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도시나 국가의 성장에서 하위개념이 아니라 중심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범아시아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분야나 지역별로 접근하는 기존 문화정책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원과 지역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 다양한 단위의 협력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목표는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인 ‘아시아 문화교류의 도시’,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연구·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에

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평화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경제를 구현하는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2/3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회의 대륙이다. 최근 서구중심주의로 인해 저평가되고 소외되었던 아시아의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문화’는 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진수를 발굴하고 아시아 국가간 문화협력과 연대를 평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구심점을 의미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는 ‘광주’는 시민참여를 통한 개혁의 경험을 가진 도시이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근대화 과정은 아시아 각국 사이에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더불어 남도문화의 집결지 광주의 가사문학, 남종화, 판소리와 같은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 개최로 이미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광주의 이러한 역량과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문화 주체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교류와 소통, 창조가 선순환하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미향, 예향, 의향, 교육의 도시 광주는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의 장이 되어 아시아 문화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아시아 예술가들의 실험, 창작, 연구,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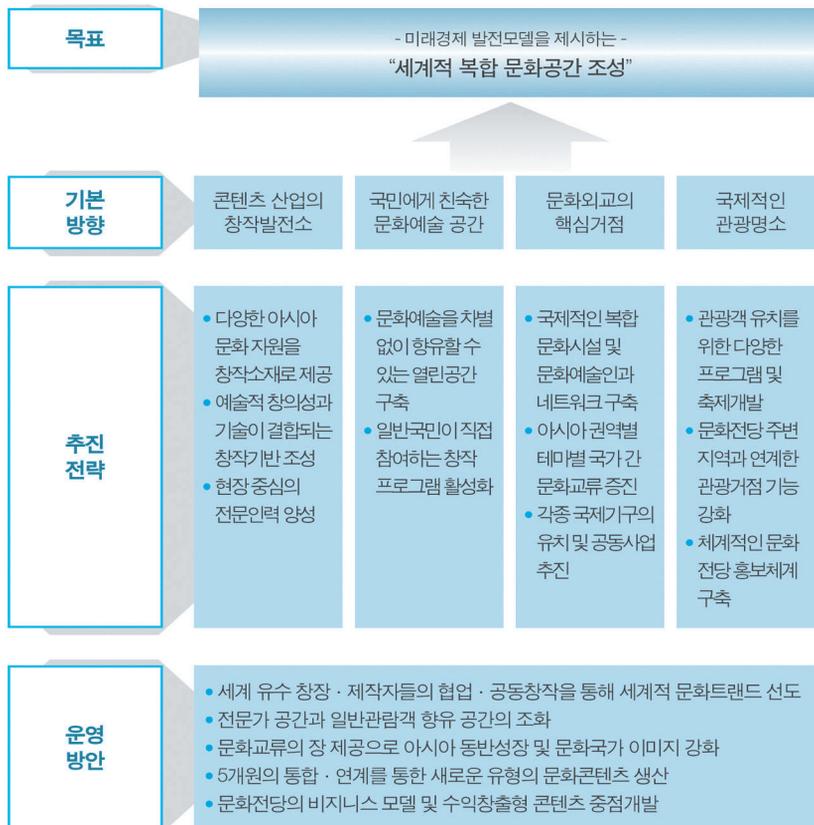
(1) 추진방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발전소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창작·마케팅하며, 국제적인 명소인 동시에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문화외교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의 신화, 역사, 음악, 생태 등 콘텐츠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자원에 기반한 스토리뱅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의 이야기 자원을 개발하여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제공하게 된다. 전시·공연·시각예술·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작업을 기획·지원하며, 창작자들의 미래형 문화콘텐츠 개발·상품화·마케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적 창의성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융합문화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의 기획·창작·기술·비즈니스 분야의 현장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한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을 차별 없이 열린 공간으로 구축, 국가의 브랜드 가치제고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의 설립을 지향한다.

● 그림 2-11-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건립 개요 및 세부시설 기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국제건축설계경쟁기에서 당선한 <빛의 숲>(설계자: 우규승)이라는 건축물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구)전남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다. 건립기간은 2004년~2014년으로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화전당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로는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이 있다.

● 그림 2-11-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3,540㎡의 규모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구)전남도청 일원에 세워지는 문화전당은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의 순환·연계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핵심거점시설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문화기관이다. 문화전당은 민주인권평화 기념관,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경영전략지원센터로 이루어진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아시아문화아카데미로 이루어진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와 문화콘텐츠제작센터 및 복합전시관으로 이루어진 문화창조원, 대극장과 중극장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예술극장, 그리고 문화예술콘텐츠개발센터와

어린이체험관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문화원의 5개원, 13개 시설로 구성된다.

(3) 건립 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2003년 1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보고회’에서 전당에 관한 큰 틀이 드러나 문화전당 건립후보지 선정을 거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2004년 11월 긍정적인 사업타당성 결과가 나왔다. 이후 문화전당 건립부지 선정 발표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였다.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경기’에서 우규승 건축가의 〈빛의 숲〉이 당선되어 개략적인 모습이 선보여지게 되었고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건립부지의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건립부지조성 공사를 2007년 12월에 끝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실시를 위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8년 4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문화전당 건립 기공식(2008.6.10)을 개최하였다.

2008년 광주읍성, 재명석 등 문화재에 대한 해체공사와 지하연속벽 설치 등 흙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5·18단체의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농성 시위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9년 2월에 천막농성이 일부 해제되어 문화전당 공사를 재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문화전당 기계설비공사를 착공하고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개통하였다. 이후 구)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식에 대해 문화부장관과 지역대표간 별관 보존방안 합의('09.9.2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09.12.30)이 이루어졌고, 2010년 12월 23일 구)전남도청 별관 최종 보존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광주광역시가 수용(2010.12.30)함으로써 별관 보존문제는 일단락된다. 이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되어 2011년도에는 비록 어린이문화원은 터파기공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주요 4개원에 대한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어 전당의 외형이 갖추어 졌다. 또한, 2011년에는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산물들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보존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되고, 지붕층 조정구간에 대한 방수공사가 추진되었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이러한 운영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전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각 시설별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운영시에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문화전당은 2014년 개관을 목표로 2007년 10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이후 『종합계획』)을 근거로 문화전당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후, 전당의 목표 및 추진전략, 5개원 구성 및 운영체계와 각 원별 운영프로그램 및 세부운영계획, 재정자립도 강화방안 등을 검토·보완하여 2010년 4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총괄계획』(이후 『총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전당 개관준비 추진일정을 5개원별 세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준비단계(2008~2010)’와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실행단계(2011~2014)’를 거쳐서 개관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06년에는 5개원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개원의 시설이 보다 세분화되고 특성화되어 본격적으로 5개원별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어 5개원의 각 시설별로 운영체계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해서 개관에 필요한 해당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힘썼다.

운영체계 구축사업은 2014년 문화전당의 개관 전까지 단계별로 계속 추진될 계획이며, 향후에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구체성을 확보할 것이다.

(1) 민주평화교류원

민주평화교류원(이하 “교류원”)은 문화전당의 총괄적 운영 및 교류·협력의 헤드쿼터로서 5개원 연계·융합·생산의 핵심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민주·인권·평화정신의 문화적 승화를 통해서 아시아와 연대·교류·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교류원내 총괄적 경영헤드쿼터역할의 경영전략지원센터,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문화의 전당의 교류·협력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가 있다.

2011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본부로 가시화하면서 ‘14년 개관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최소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반영, 전당의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 효율적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에 착수하였다. 2011년 말 현재로 시설중심의 전당 조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진행중이며 일반적인 국가기관의 기능중심의 조직체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연구 중이다.

● 그림 2-11-3 ●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



(2)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를 서구에 의해 재단되고 파편화된 주변 지역이 아닌 21세기의 문화 중심지로 인식하고, 그 문화적 원형을 발굴함으로써 문화전당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 다양성 연구 및 콘텐츠 소재 발굴을 위한 아시아문화자원 조사·수집을 실행한다. 또한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원천소스 제공하고, 문화자원 아카이빙, 문화기획 전문 인력 양성, 문화자원을 정보열람,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체험 제공한다.

2011년에 5건의 운영조직화 사업과 1건의 시범사업으로 아시아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3) 문화창조원

문화창조원은 ‘미래형 문화예술콘텐츠의 창작발전소’이다. 이를 위해 순수예술부터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융·복합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제작 및 전시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제공한다.

2011년에는 창작제작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합전시관 개관 콘텐츠를 1차 제작하는 등 창조원의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은 아시아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센터로서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고, 다양한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공연장 및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협력 프로젝트, 국내외·아시아를 대상의 예술교육, 예술가·단체이주, 컨설팅 프로그램, 관광공연 등 아트매니지먼트 사업과 창·제작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관 축제 프로그래밍 및 공연 시즌 운영 프로그램 구축 등을 위하여 예술감독 국제공모 사업과 2010년에 이어 2011년 2차 기회안 국제공모 및 창작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아시아신화 설화 작품들을 제작하여 아시아문화 자원을 활용한 공연제작 운영 모델을 수립하였다.

(5) 어린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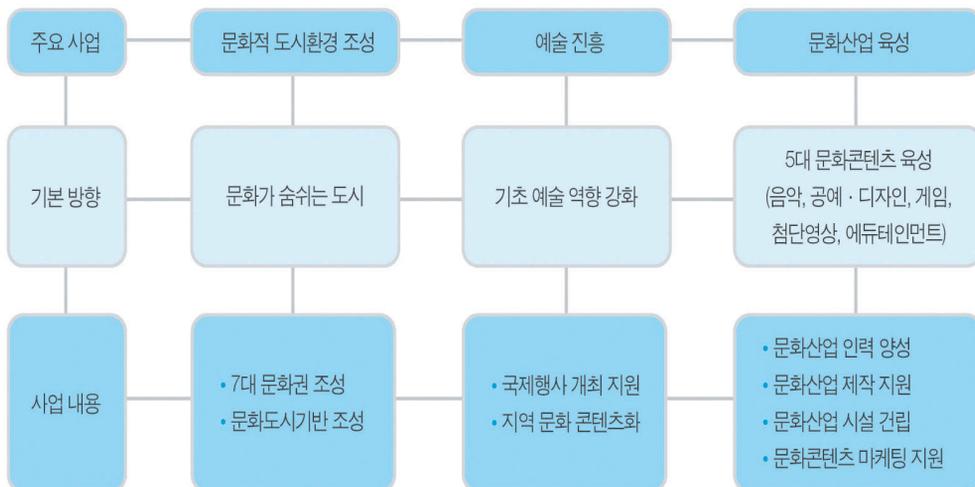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를 위한 미니전당으로서, 문화예술 기반의 통합교육적 문화체험 및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2011년에 전시와 교육 분야에 각각 1건의 사업(총 2건)을 추진하였다. 문화예술교육콘텐츠 지향에 부합하는 어린이문화원 전시주제를 발굴하고, 전시주제에 따른 기획안을 개발하는 전시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 추진된 창작프로그램 국제공모사업에 이어, 어린이문화원만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창작프로그램안(5개)를 개발 및 시범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3) 문화적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하나의 복합문화시설에 의지한 단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가 도시와 시민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 진흥’ 사업,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산업 육성’ 사업 등이 조성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별된다.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은 각 권역의 특징에 따라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누어 문화전당의 기능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은 문화적으로 재창조된 중소거점을 7대 문화권과 연계하고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을 통해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 진흥’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거나 지역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조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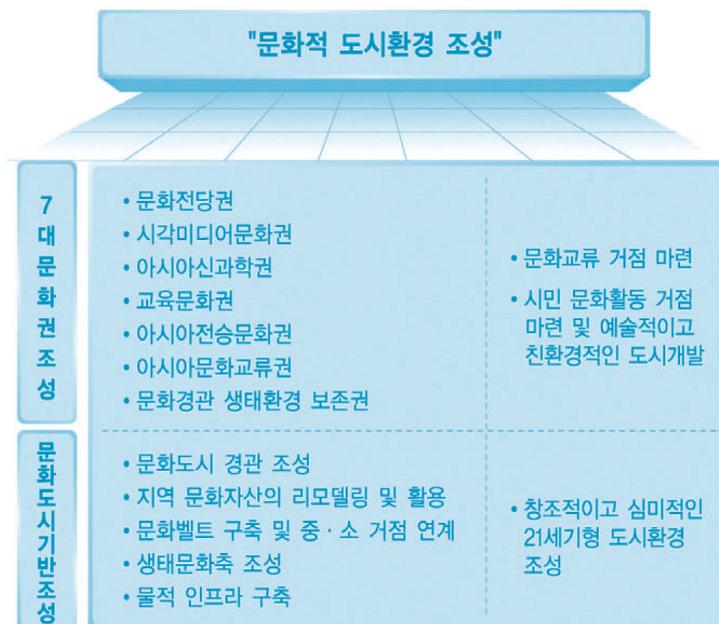
● 그림 2-11-4 ● 문화도시 환경조성·문화산업육성 사업 기본방향 및 내용



(1)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7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은 ‘광주도시기본계획 2020’과 연계하여 도시내 핵심 기능별로 문화권을 설정하는 사업이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문화도시 경관조성, 지역문화자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중소 문화거점과 7대 문화권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 그림 2-11-5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본 방향



2011년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중 아시아창작교류센터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및 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의 문제 미해결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과 중외인터랙티브 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은 중외공원일대를 문화예술 벨트로 조성하는 중외종합예술공원사업과 통합 추진을 검토하고자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을 주변으로 예술공방 및 레지던시 등을 운영하여 전당주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직공원내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폴리를 설치하였고, 의재로 주변 무등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개최, 아시아“산”스토리 발굴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자연생태와 문화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예술 진흥

광주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친 이들이 많아 ‘예향’으로 일컬어지고 이는 ‘광주국제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등의 개최에 원동력이 되었고 점차 도시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전국화·세계화로 예향 광주의 정체성 홍보와 도시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 진흥사업은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설 설치·운영, 전통 및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전문예술법인 육성, 문화예술시장 조성기반 구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광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문화 콘텐츠를 문화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지원, 전통문화 발굴·보존, 미술시장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예술진흥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전통문화교류’, ‘광주국제아트페어’, ‘임방울국악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계승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 확보, 공연 문화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국제규모의 미술시장을 통한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한다.

(3) 문화산업 육성

광주는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5대 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 등 4개 지역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도 문화산업 육성에 집행된 예산은 총 185억원으로, CGI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제작 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시설 및 단지 조성, 투자기반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안정적인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2012년 11월까지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

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교류지역 편중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중앙아시아권, 남아시아권, 서아시아권 등 아시아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교류 대상지역의 다변화·입체화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에서는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문화교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기구, 정부 및 비정부 기구, 각국의 문화도시, 국제예술단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 및 입체화를 위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및 단체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UNESCO), 아시아유럽재단(AS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아시아문화도시협의체 구축 및 교류 주간 정례화를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류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집 제작, 온라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세계문화도시 통신원제를 운영하였다. 물적 토대 등 직접 교류기반 조성을 위하여 쌍방향 교류 확대, 아시아 문화자원의 세계 공동 문화자산화 추진, 아시아 예술가들과의 공동 창·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동남아시아 10개국과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등 ‘아시아 전통음악 위원회’ 사업,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신화·설화·영웅서사시 등 이야기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한-중앙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 등 ‘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 사업, 동·서남아시아 15개국과의 무용 자원 기반의 협력사업인 ‘아시아 무용작품 안무계획안 국제공모’ 등 ‘아시아 무용 위원회’ 사업을 통해서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하였다.

국제기구 및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의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 지역 내에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시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 주요사업으로는 유네스코 걸처링크 아태지역센터 운영 지원, 제1회 아시아 청소년 문화축전, 아시아 문화이해 공개강좌, 2011 아시아문화포럼 등이 있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궁극적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각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동·서 문화의 균형과 개방·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국가경쟁력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와 창작·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광주가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아시아 문화경제도시’가 되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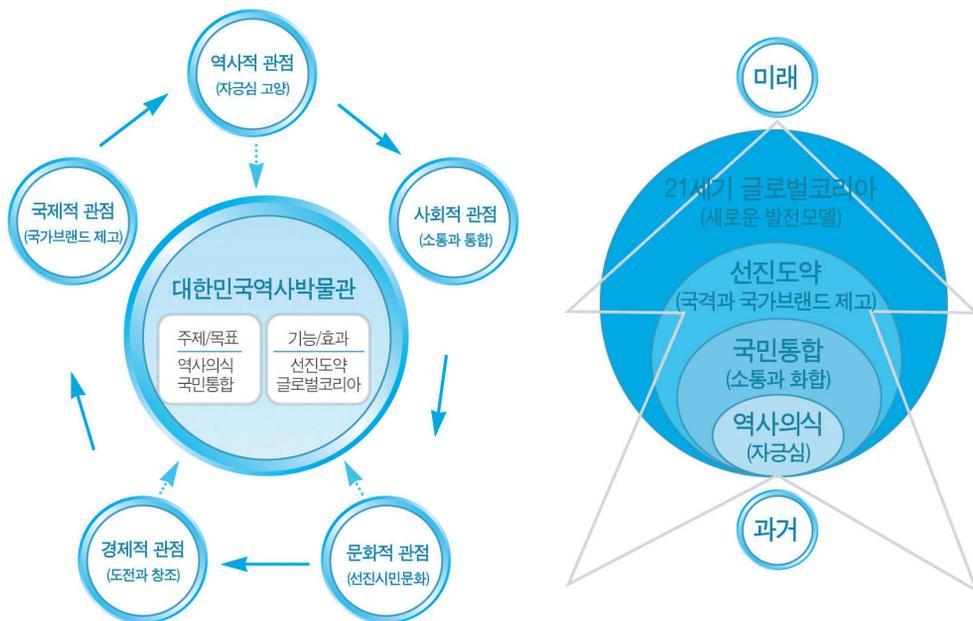
제12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은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립이 공표된 후,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수도 서울의 국가상징거리에 위치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뒤편에 일부를 증축하여 2012년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기록·전시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한눈에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림 2-12-1 ●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와 세계를 여는 박물관



2. 건립사업 주요성과

사업추진 첫 해인 2009년에는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심의기구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09.4.16./29명)와 사업추진부서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09.5.4./15명)을 구성하였다.

2010년에는 건립위원회와 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마스터플랜인 건립기본계획을 확정·발표('10.3.12.)하고,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공사('10.11월)와 전시물 설계·공사('10.12월)에 착수하였다. 착공식('10.11.25.)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활발히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2011년에는 대통령의 협조지시('11.1.18/국무회의시)로 정부 각 부처가 소장하고 있는 전시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건립공사 및 전시설계 개념 안에 대한 대국민보고('11.2.25, 국립민속박물관)를 통해 관계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기증과 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오고 있다.

1) 건축설계 및 건립공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화문 국가상징거리의 축에 위치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부지를 일부 증축하여 2010년부터 2012년 11월을 개관 목표로 총 454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건립규모는 전시실 3,086㎡, 수장고 433㎡, 교육시설 512㎡ 등으로 총 부지면적 6,445㎡(1,950평), 연면적 10,734㎡(3,247평)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감안한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건축개념설계안 공모('10.2~4월)를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작과 가작 각 5작품을 선정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설계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정립건축·대림산업 컨소시엄, 가아건축·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조달청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정립건축·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는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2010년 11월 1일에 착수되었다. 2010년 11월 25일에는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 2월 25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별들재에서 건립공사에 대한 대국민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17일에는 실시설계안을

건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본관·별관 철거 및 구조보강을 완료하고, 본관 내부벽체, 공조시설 설치 및 외부 창호 공사를 추진 중이다.

2011년 12월 말 현재 70%(본관 보수·보강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5월 23일 준공(100% 공정율)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11월에 시설물 시운전 및 개관준비를 하여 2012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 그림 2-12-2 ● 구(舊)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자리에 들어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상부에서 바라본 박물관



미 대사관에서 바라본 박물관

2) 전시설계 및 전시공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균형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전시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시대별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시대상은 개항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물은 스마트월, 3D 맵핑영상, 미디어월 등의 첨단 전시매체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시콘텐츠의 전시효과를 체험과 감동, 몰입과 흥미 등 주제전달력의 극대화를 위해 첨단 IT·CT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접목된 디지로그(Digilog) 전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제국, 3·1운동, 6·25 피난민의 애환, 포니 수출, 새마을 운동 등 소통과 공감을 위한 스토리텔링 및 테마형 전시를 구성하고, 전시 주제별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 재미있는 박물관, 만지고 느끼는 박물관을 구현하여 다감각·다차원 전시로 박물관 전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관람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 전시 환경(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다국어 전시 안내 등 정보 제공)을 조성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종합된 전시주제 구성을 위해 건립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세계화’ 등 4개의 대주제와 13개의 중주제를 선정(‘10. 1월)하였으며, 전시연출소위원회의 논의(‘10. 2~5월)를 통해 43개의 전시키워드를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 주제별 중심 스토리·주요 전시내용·전시대상 등을 건립위원회 워크숍(2회, ‘10. 5월·8월)을 통해 확정하여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전시프로그램을 토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시공테크 컨소시엄)를 선정(‘10. 12. 1)하고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전시분과위원회(‘11. 6. 16/ 전시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의 논의를 거쳐 전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11년 9월~‘12년 5월까지 전시인테리어 및 전시물을 제작하고, ‘12년 6월~ 10월까지 사인 및 전시물을 전시장에 설치하여 ‘12년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3) 전시콘텐츠 확보

전시 자료의 수집은 2010년부터 2012년 개관까지 전시를 위한 자료수집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30,000점(구입 22,000점, 기증 8,000점)을 목표로 총 45억(‘10년 8억, ‘11년 23억, ‘12년 1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관련 규정(『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5호, ‘10. 4. 23)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를 통해 자료의 구입·기증의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내 임시 수장 공간을 대여(581㎡)하는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10. 6월부터 ‘범국민 자료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5만부)하여 유관기관·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10. 7월)하였고, 주요 일간지 광고 및 국정홍보 간행물인 『위클리 공감』에 기증 광고 게재, 기증참여 라디오 캠페인, 도심 옥외 전광판 스팟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자료기증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갔다. 특히 ‘10년 11월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가고, 11월 30일 KBS 아침마당에 김진현 위원장의 인터뷰가 소개된 이후 기증 신청이 이어졌다. 그 결과 공재연 씨 등 18명이 2,367점의 자료를 기증하였다. 이 자료들은 성적표나 통지표, 신분증 등 개인적인 기록들부터 정부종합청사 신축계획개요 팜플렛, 올림픽 기념품, 독도관련 지도 슬라이드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이면과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1,466점(구입22,081, 기증 9,385)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갖는 기대와 관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 외에 국방부 등 27개 정부기관 소장자료 목록으로 9,594점을 확보하였고, 국가 원로 등 주요 인사 소장자료 기증을 추진하여 4,600여점을 확보하였다.

2011년 2월 24일에는 2011년도 자료구입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총 6차에 걸친 공개구입과 4차에 걸친 경매구입 및 자료기증이 있었으며, 자료수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설로 되어 있던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구입심의위원회'와 '수증심의위원회'를 분리하고, '경매 및 현지구입' 단서 조항 추가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1.7.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0호) 하였다.

● 표 2-12-1 ● 2011년 자료수집현황

수집경로	수집기간	자료 수	자료 내용
자료구입1차	3.24~4.1	2,637 점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실물 역사자료
자료구입2차	4월~6월	2,311 점	초기칼라 TV 등
자료기증 1,2차	4월~5월	2,043 점	박상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자료' 외 30명 기증자료
자료구입 3,4,5차	7월~9월	7,670 점	기아마스터 T600 등
자료기증 3,4차	7.12~8.30	1,429 점	황인덕 '구두땀이통' 외 17명 기증자료
자료구입6차	10월~12월	3,153 점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자료
경매구입4차	10월	7 점	윤보선 휘호
자료기증 5차	9월~12월	3,542 점	이한림 '경부고속도로 위령탑 모형' 외 24명 자료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국민 기증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애환이 담긴 자료 및 이야기 수집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증활성화 추진과 역사적 사건 및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실물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계획 하에 연간 4~6회 공개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정부부처 소장자료 중 전시대상 자료를 선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현대사 관련

중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에 걸맞고, 그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전시콘텐츠 수집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4) 건립사업 대국민 홍보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1년에는 주요 국가적 기념일 및 명절 등을 계기로 건립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홍보하고 자료기증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3·1절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3월호에 건립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4·19 및 5·18을 전후로 무가치에 기증물품 사연 소개 등의 기획기사를 시리즈로 연재(4.19~5.17, 포커스 4회) 하였다. 이어 현충일을 계기로, 한 달간 라디오 캠페인을 전개하고(6.3~7.2, TBS 30회) 광복절을 전후로 지하철 내부에 액자형 광고를 게재하여(8.13~9.12, 서울 및 부산 지하철 100량)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귀성객에게 배포되는 간행물(고향가는 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홍보 대상 및 홍보 매체의 외연 확대를 시도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동포재단등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사회에 홍보 리플릿과 보도자료를 배포(8~9월, 리플릿 12,000부 등)함으로써 홍보대상을 국외로 넓혔으며, 박물관 건립공사의 가림막과 펜스를 활용해 대형홍보물을 게시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도심건물 전광판(10~11월, 고려빌딩 등 7개소) 및 편의점 내 영상매체(10~11월, 세븐일레븐 등 200여개소)에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홍보매체의 공간적 확대를 꾀하였다.

아울러 준공 후 박물관 청사진 및 전경 이미지, 대한민국과 박물관의 정체성이 반영·제작된 박물관 로고(MI, Museum Identity)를 대내외 기관 등에 배포되는 각종 기념품(수첩 2,000부, 명함집 및 거울 700개 제작·배포)과 인쇄홍보물(리플릿 12,000부, 메모지 500개 제작·배포)에 활용함으로써 박물관 브랜드 소개와 인지도 제고에 힘을 기울였으며, 건립위원회 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언론기고와 인터뷰(건립위원장 및 외신기자, 중앙일보 등 5회)도 꾸준히 전개하여 박물관 건립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유도하였다.

온라인 부분의 홍보도 강화하였다. 6·25 및 제헌절을 전후로 '나의 애장품에 담긴 이야기' 이벤트 등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여(6.24~7.15) 건립사업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2,230명 참여)를 이끌어 냈고, 건립위원회 홈페이지와 자료기증 사이트를 통합, 콘텐츠를 보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며(6월), '미리보는 박물관'을 구축하여 전시실별 대표 전시물을 소개하는(11월) 등 네티즌들에게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박물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박물관이 준공되고 전시실이 개관되는 2012년에는 건립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개관 소식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2012년 5월에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의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록 발간, 전시안내시스템 설치, 자원봉사자 선발·교육,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여, 2012년 11월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제3장 예술정책

-
- 제1절 예술정책 일반
 - 제2절 문학정책
 - 제3절 공연예술정책
 - 제4절 시각예술정책
 - 제5절 전통예술정책
 - 제6절 디자인공간문화정책

제3장



예술정책

제1절 예술정책 일반

1. 예술정책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문화예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창의성과 다양성의 핵심가치이다. 이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사회경제발전의 중심에 창의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술 그 자체’로서 또는 ‘개인적 만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 성장기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분야를 정책대상으로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가치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경쟁을 통해 ‘예술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외계층 등과도 다함께 누리는 예술로서 환경조성 마련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정책 방향은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법·행정적 지원, 인프라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예술정책은 ‘예술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국가’라는 비전아래 ‘나눔과 상생의 문화예술 실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대 중점과제와 12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예술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의 나눔 및 공정한 향유 기회 확대이다. 개인의 기부접근성 편의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기업-예술단체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결연 지원(83건), 문화취약지역

의 ‘찾아가는 문화순회’ 및 ‘사랑티켓’ 사업 확대, 소외계층 우수학생 특별전형 실시(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갈증과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이다.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매칭을 통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87개 공연장, 109개 단체 지원)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연중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국 문예회관에는 무대기술·공연기획·홍보마케팅 분야 연수단원 배치를 지원(37명 배치)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CEO, 공연·전시기획, 홍보·마케팅, 서비스인력관리자 과정 등 4개) 및 운영 컨설팅 제공,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139개 문예회관, 275개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었다. 현장 예술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서 대학로 ‘예술가의 집’도 운영되고 있다.

셋째,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이다. 우리나라 공연·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환경 개선 필요로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을 거점 축제 및 극장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미술의 상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온라인 가상미술관 시스템(www.koreanartistproject.com)을 구축·운영하여 국내 주요 전시·행사를 실시간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구글 아트프로젝트와의 연계도 함께 진행되어 적극적 해외 소개로 좀 더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미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넷째, 삶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 창출이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의 생활공간 자체를 예술향유의 공간으로 형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산업 유휴시설(폐채석장, 폐염전 등)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공예분야에서도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참여, 미국 코리안헤리티지 전시 등 해외문화교류 사업으로 주요 거점을 확장하는 등 한국 공예디자인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의 법 개선 및 인프라 강화로 국민의 예술 창작·향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자인 예술인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제정(2011.11.17)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표 3-1-1 ● 예술정책의 4대 중점과제 및 12대 이행과제

4대 중점과제	12대 이행과제
1. 문화예술의 나눔 및 공정한 향유기회 확대	① 문화나눔·기부 활성화 ② 기업과 예술의 동반자 관계 형성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술향유 기회 제공
2.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 확충	④ 변화된 예술 지원체계의 현장 정착 및 예술단체 체질개선 ⑤ 지역 문화활동 지원 강화 ⑥ 예술 창작 활동 여건 제공
3.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⑦ 예술 한류를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⑧ 공연 마케팅 활성화 ⑨ 예술에 대한 소비향유 기반 확충
4. 삶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 창출	⑩ 일상 공간의 예술적 재창조 ⑪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⑫ 한국 공예의 경쟁력 강화

2. 주요 추진성과

1) 사회적 약자의 향유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여건 개선

(1) 사회적 약자의 향유기회 확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문화예술 향유 및 소비·교육 등에 있어서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의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접근기회를 확대 하고자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생활 속 예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으로 소외 지역·계층의 문화기반 시설 등에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적 갈증과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적합한 예술교육을 받지 못한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특별전형(한국예술종합학교)을 실시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강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취약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2004년 40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 75억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억원, 2009년 58억원, 2010년 58억원)으로, 엄선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80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150개 단체가 1,964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464,031명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순회 대상처 및 예술단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사랑티켓 사업 강화

사랑티켓 사업은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등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여건 및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잠재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이상의 인원으로서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1991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시작하였으나 2006년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입되었고,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주관기관이 변경되었고 2011년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서 총 45억원(복권기금 2,400백만원, 지자체 매칭 2,138백만원)을 지원하여 3,146개 프로그램, 총 467,938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소외계층 예술영재 특별전형 도입

사회·경제적 이유로 재능에 적합한 실기교육을 받지 못해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교육기회 제공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선발대상은 사회적배려대상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실시된다. 2012학년도 전체 선발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가능하며, 중증장애인 2명, 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선발되었다.

더불어 예술영재교육 양성 기반 확립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재교육 현장과 연계한 체계적·실질적 연구 강화를 위하여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개발 등 영재교육

전반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심화연구 진행(10개 연구과제)하였다. 그리고 예술영재 교육 전문인력 연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기초연수, 관리자연수, 강사연수, 현장적용연수 등 4개 과정 운영하였으며, 관련 포럼과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예술영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2) 창조적 예술 창작여건 개선

공연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마련과 이에 따른 창작물의 소비·유통의 활성화 지원이다. 이에 관련된 주요 정책대응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사업 및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을 위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공연예술의 소비·유통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외 거점 축제와 주요 극장 등에 대한 전략적 해외진출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가. 지역 공연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예술단체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자 지역 문화예술회관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예술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건당 연간 5천만~1억 5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 조성으로 예술 창작여건 개선에 도모하였다. 상주단체는 연습·행정 공간 등 물적 기반 마련 및 홍보·마케팅 등 유통기반 활용,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등으로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우수 프로그램의 향유 기회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진다. 2009년은 시범사업으로 14개 공연장 27개 단체 지원, 2010년은 80개 공연장 107개 단체 지원, 2011년은 87개 공연장 109개 단체(11년 87억 5천만원, 문예기금·지방비 포함)에 지원 하였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에는 120개 문예회관 213건 프로그램, 2010년 126개 242건, 2011년 139개 275건(복권기금 4,800백만원, 지자체 매칭 5,53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나. 예술활동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권역별·국가별 공연시장 특성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아비뇽 축제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와 같은 거점 축제 및 파리 국립민중극장, 이스라엘 수잔텔라센터와 같은 주요 극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집중 지원을 향후 다른 축제와 극장 등으로 확산되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해외 투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미술작가 해외 소개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가상미술관 구축』(www.koreanartistproject.com)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립미술관이 발굴한 우수작가의 온라인 전시장 및 작가 아카이브 구축을 하였으며, 국·영문 서비스 제공 및 해외 미술계 주요기관·인사 대상 네트워킹 홍보를 하였다. 2011년에는 21명의 주요작가 선정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2단계) 40명 내외, 2013년(3단계) 40명 내외의 작가를 추가 선정하여 총 100여명 작가의 가상미술관 구축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구글아트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가상미술관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글 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2011.9월) 하는 등 시각예술의 전 세계 소개를 위한 발판도 마련하였다.

(3)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가.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개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문화접대비 제도의 본격 시행(2007.9.1)과 더불어 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문화경영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문화로 변화하여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활용한 창의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수요의 확산과 함께 예술단체의 자생력 증진과 연계되어 간접적 창작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경우 전경련 등 9개 경제단체 방문 설명(2007.8월), 중소기업 CEO 대학로 초청 기업과 예술의 만남(2007.9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2007.10월), 고3 및 수능생 대상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2007.11월) 등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전국 시도 홍보 컨설턴트 100인 위촉(2008.1.15)을 시작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인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중소기업CEO 800명 초청 신년음악회

(2008.1.4), ‘문화로 인사합시다’ 출범 기념 음악회(2008.5.15)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08년 5월 15일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09년에는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9년 신년음악회(2009.1월)는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중소기업 신년음악회’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제1기 SB문화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여 55명의 중소기업 CEO에게 14주간(2009.9-12월)동안 문화경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디자인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디자인문화경영자과정을 상·하반기 운영하였다.(2009.6월·11월, 110명). 또한 문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기획보도(‘중소기업경영, 문화를 만나다’, 2009.11월, 3회),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09.5-12월, 21개 중소기업, 4,450명 관람),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 발간(2009.12월), 기업의 기부금 후원을 통한 ‘문화나눔 세상공감’ 사업(2009.12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문화접대비 제도개선 및 문화경영 활성화 포럼 개최(2009.5), 문화경영위원회 운영(2009.11), 중소기업 문화대상 시상(2009.12)등을 통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 및 중소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활성화 하였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CEO 대상 SB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2010년 54명, 2011년 33명),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10년 20개 기업 5150명 관람, 2011년 18개 기업 3,620명 관람),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2010.11.24),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연 1권), 중소기업문화대상 시상(연 1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을 ‘즐거운 예술’과 함께 ‘신나는 일터’로 만들자는 사업의 시작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현장체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경영 인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문화접대로 전환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현황조사도 실시되었다. ‘기업 문화경영 효과’와 ‘문화접대비의 세제 효과 분석’ 조사연구는 문화경영을 통한 긍정적 효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011년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서, 이러한 현황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는 2014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접대비 초과한도를 3%에서 1%로 기준을 완화·적용하게 되었다.

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지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호 결연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예술에 대한 창작지원과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직접적·지속적인 교류활동 지원 및 사업추진조직 간 결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은 분위기 조성 시기로 준비기, 시스템 구축기, 실행기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준비기에는 경제단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참가의사 확인 및 참여유도,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실무 추진조직 구성 및 사전 의견을 조율하였다. 시스템 구축기에는 결연 중재, 상담, 모니터링 관련 세부실행 툴(tool) 개발, 결연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 기업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구축, 구체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누리집(홈페이지) 개발·구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보하였다. 실행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발대식 개최, 기업·예술단체 간 결연 및 교류사업 본격 실행 등 추진단 출범 및 사업을 실행하였다.

2006년은 확산 단계로 기업·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지원 Finding Program을 개발 및 운영하였고, 기업·예술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업·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연 건수의 확대와 대기업의 부서별 및 사업장 단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발표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확산하였다.

2007년은 정착시기로 기업·예술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켰다. 특히 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국 A&B의 뉴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매칭펀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매칭펀드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에 6억을 투입하였으며, 27건의 결연을 성사시켜 12억(정부지원 6억원, 중소기업 6억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였다. 대기업 결연 14건을 포함하면 총 41건 23억원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지원금액이 각각 27%, 192% 증가한 것이다.

2008년 이후는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진 시기로 결연 카운슬링,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예술 간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A&B 포럼’ 활성화 및 ‘기업인 문화예술체험·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기업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

선 활동에 힘입어 2008년 대기업 22건 중소기업 41건 등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63건의 결연이 성사되었고, 2009년은 대기업 결연 20건 중소기업 결연 45건 등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총 65건이, 2010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결연 50건, 2011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60결연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시스템 도입

문화예술분야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 소액모금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예술가(단체)에 대한 개인 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중심의 문화예술 기부문화를 개인으로 확대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등 편리한 접근방식(fund.arko.or.kr)을 통해 예술가 및 소규모 예술단체의 모금 창구를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 추진하였으며,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 500만원 모금을 조기 완료하였다. 그 밖에 시범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예술단체 모금프로젝트 접수 및 홍보 연계를 지속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개선과 홍보 확대를 통해 일반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크라우드 펀딩 : 익명의 다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금 기법으로 예술단체(예술인)이 프로젝트 계획 및 모금목표액을 온라인사이트에 게재하고 일정기간동안 모금 진행

(4) 일상생활 속 예술가치 확산

가.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적 팽창 위주로 형성되어 온 우리의 도시 공간을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디자인과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문화적·예술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가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확장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적 도시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안양 시범도시 선정 이후 양평, 안동, 부산, 익산, 청주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만 조성되던 학교 공간을 문화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9개 학교를 지원하였다. 2008년 이후 총 35개 학교에서 학교 내 유휴공간이 문화쉼터, 갤러리,

동아리방 등으로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선정된 학교의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과 건축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를 도출하는 등 과정을 중요시함에 따라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산업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의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이 '08년 선정된 5개 대상지(대구, 포천, 아산, 신안, 군상)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11년에는 리모델링 공사 지속 추진 및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시범사업 중에서 '포천 아트밸리'는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사례로서 언론 홍보와 중학교 교과교과서 수록, 연계 관광상품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장 이후 2011년 총 방문객이 약 13만명을 넘는 등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확산을 위해 간이역을 문화적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 2011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등 사업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확산을 위해 2011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젊은건축가상 시상,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문화대상' 선정·시상 등을 추진하였다.

나. 한국 공예의 대중화·세계화·산업화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하여 생활 속 공예디자인 문화 확산, 공예디자인의 산업적 발전 지원을 위한 R&D,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공예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대학생, 전문가, 일반인, 외국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예·디자인 정책 연구·조사·통계 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로 2011공예백서(선행연구)가 발간되는 등 체계적인 조사 연구 틀을 세우고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문화교류 사업으로 세계 유명 공예품과 생활용품 박람회인 '메종&오브제' 참여 지원 등 해외 주요 거점에 공예디자인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일에 노력하였다.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전시(12팀 작가), 미국 코리안헤리티지 전시(41종 51점 작품) 등 주요 거점을

확장하고 각 거점을 통한 한국 공예디자인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운영 및 작가 지원, 디자인 큐브·녹화벽 등 다양한 기획전시를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제6회 ‘2011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마켓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2) 문화예술분야 법·인프라 강화로 예술역량 선진화 지원

(1) 문화예술 분야 법 강화

가. 예술인 복지법 제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예술영역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 설정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예술계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정관·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 창작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창작 기반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1. 5. 25.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 11.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개정 시행령에는 통일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 마련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시 구체적 방법,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의 광역 지자체로의 일원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 절차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리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청서, 정관, 조직현황, 실적 등) 및 심사 기준(조직·인력 적정성, 재정건전성, 완성도 등),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여 지정 법인·단체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제도의 경우 지정 내용을 변경(단체명, 소재지 등)하고자 해도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정권자(문화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단체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매년 지속적인 공연·전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정 법인·단체를 취소토록 하는 사후 관리 조항을 통하여 제도의 질적 수준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전문예술법인에만 인정되던 기부금품 모집 권한을 전문예술단체에까지 확대하여 간접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둘째,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와 관련해 건축주가 미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방법(시·도지사 및 문화예술위원회에 계획서 제출, 기금 출연, 위원회 확인서 수령) 및 금액(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70%) 등 명확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출연된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 공공미술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역·기초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심의 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행정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지원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미술 작품 DB 포털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 공연법 개정

공연연습장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연법이 2011년 5월 25일 개정되어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연습장 설치·운영 및 경비보조에 대한 근거 마련,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제한 사유 중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 삭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결과 확인 및 평가 신설이다.

첫째, 공연 연습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연연습장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여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하였다. 셋째,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 등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안전검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 공연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문화접대비 제도 연장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 및 문화예술 소비 증대를 통한 기초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2007년 6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어 2007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기업의 전체 접대비 지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3%(2012년부터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기업 접대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 유도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문화·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일몰 예정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적용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뒷받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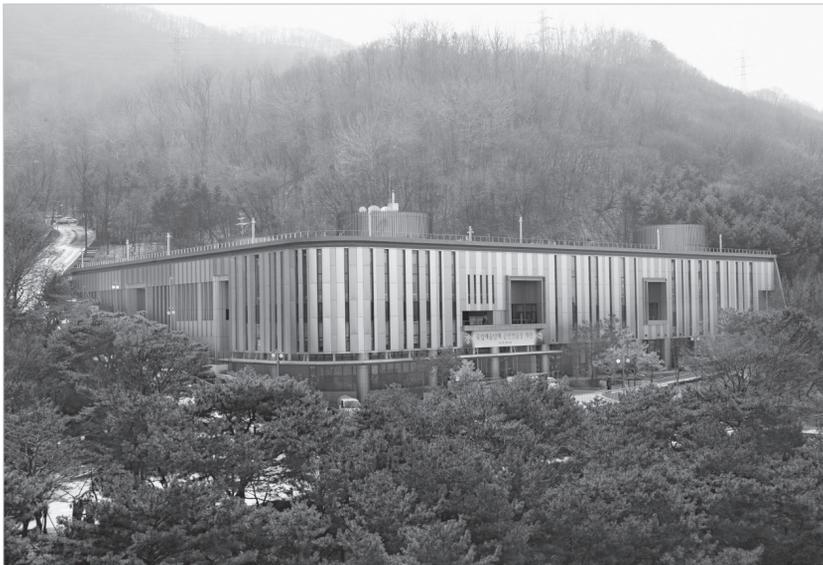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구입 ②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③비디오 물의 구입 ④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간행물의 구입 ⑥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⑦관광공연장의 입장권(공연물 관람가격) ⑧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등이다.

(2)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가.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연습실 부족으로 인한 공연준비의 애로사항 해소와 국립예술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공연수준 확보를 위하여 예술의전당 부지 내 전용 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국립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체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예술의전당 내 야외공연장 부지에 연면적 6,344㎡ 지하1층, 지하1층 규모로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을 건립하여 2011년 3월에 개관하였다.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은 대연습실 5개, 중연습실, 2개, 소연습실 2개를 갖추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을 구비하였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다.

● 사진 3-1-1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나.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2월 27일 용산구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대 부지를 열린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2010년 7월 14일 국방부와 부지사용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7월 30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10년 말 완공된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과 재단법인 국립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본 공간은 연극계 원로인 백성희, 장민호 선생의 이름을 딴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관, 연습장인 스튜디오 하나, 스튜디오 둘, 그리고 사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단법인 국립극단을 중심으로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 공간으로 2011년부터 본격 활용되고 있다.

● 사진 3-1-2 ●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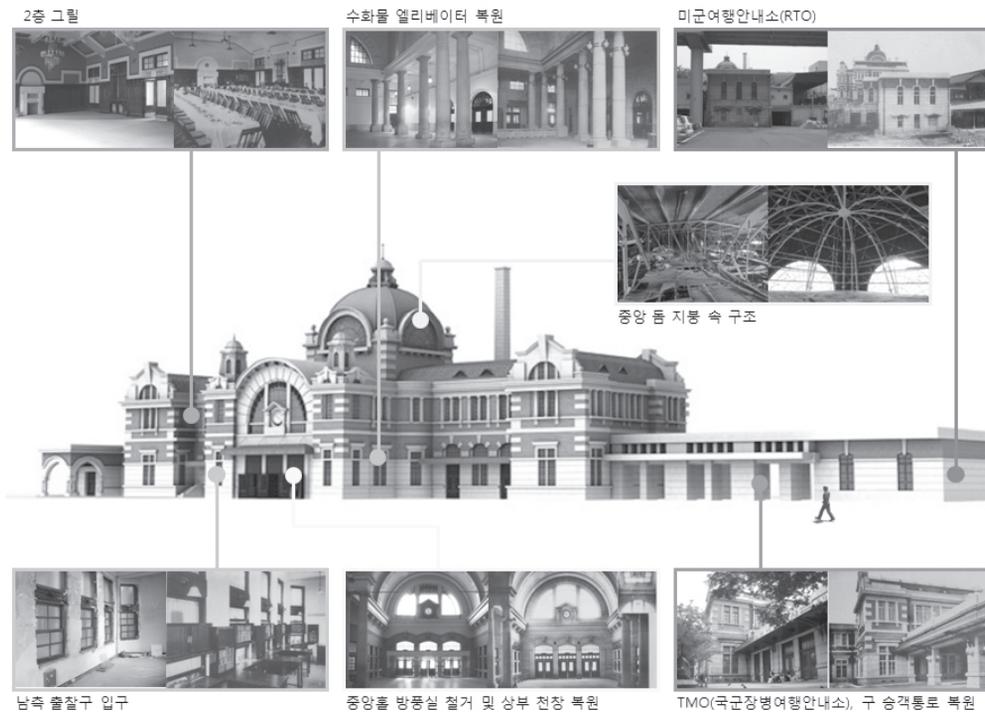
다. 문화역서울 284

‘문화역서울 284’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지난 2011년 8월 9일 개관한 구 서울역사의 새 이름이다. 1925년 건립된 이후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하였으며,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부터 일부는 문화관으로, 1997년부터는 철도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 폐쇄되었으며, 2004년 KTX 민자역사가 개통되면서 기차역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여 간의 복원공사와 6개월간의 개관 준비를 거쳐 2012년 4월 2일 ‘문화역서울 284’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식 개관했다. 특히 건축가, 디자이너, 관광, 문화예술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간별 문화적 활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진행해 왔다. 건물의 근대사적, 문화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을 복원(2011년 8월 완료)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202㎡ 규모에 다목적 전시실, 공연장,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는 ‘문화역서울 284’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문화역서울 284’는 장르, 장소 등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 간 해체 및 융합을 통한 새롭고 대안적인 예술·문화 영역을 확장하여 살아있는 참여와 소통, 감성의 공간을 추구하게 되며, 인천공항철도와 연계되어 통일한국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역 겸 종착역이 되는 국제적 관문이자 한국문화의 발신기지, 그리고 한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그림 3-1-1 ● 문화역서울 284



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미술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의 숙원으로, 2009년 1월 문화예술인 신년하례식에서 '옛 기무사 부지를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한다는 대통령 발표를 통해 공식화 되었다.

한국미술의 세계화 및 세계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전통과 실험, 과거와 현재 의

유기적 조화 및 교류를 통해 역동적인 미래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하며,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반대중과 소통하는 열린미술관을 지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해외현대미술의 국내소개 및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세계진출 교두보로서 역할하고, 경복궁 등 주변 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예술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더불어 인근 갤러리와 연계한 도심 속 미술문화공간을 이루어 예술과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그림 3-1-2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445억, 사업기간 2009~2013년로서 규모는 부지면적 27,264㎡, 건축연면적 52,101㎡(지상3층, 지하3층)에 전시실·수장고·다목적홀·멀티미디어자료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09년 12월 건립기본계획 확정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미술관 조성부지 발굴조사, 2010년 8월 설계공모작 선정, 2011년 8월 설계완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착공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이다.

향후 동 시설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덕수궁관과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각 시설간 상호보완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3. 한국예술종합학교

1) 설립목적 및 연혁

선진국의 예술교육은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Conservatory) 형태의 예술학교와, 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예술을 탐구하는 예술대학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이전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은 미국의 주립대학에서와 같이 교양적이고 표준적인 예술교육을 수행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유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를 양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세계적 수준의 실기 능력을 갖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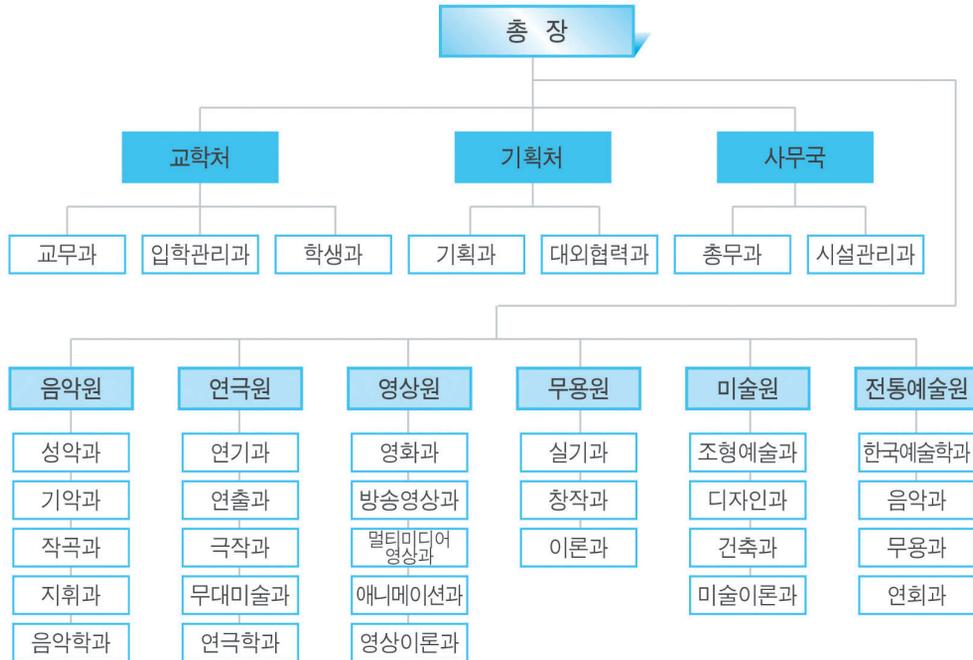
● 표 3-1-2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 1990. 6. 25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 1991. 12. 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대통령령 13528호)
- 1992. 10. 30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제 확정
- 1992. 11. 16 초대교장 취임(이강숙 교수)
- 1993 ~ 1998 음악원을 시작으로 총 6개원 개원
 - 1993. 3. 8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및 음악원 개원
 - 1994. 3. 3 연극원 개원
 - 1995. 3. 8 영상원 개원
 - 1996. 3. 4 무용원 개원
 - 1997. 3. 3 미술원 개원
 - 1998. 3. 9 전통예술원 개원(6개원 체제 완료)
- 2005. 6. 3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설립
- 2005. 8. 16 기획처 등 1차 2과 신설(대외협력과, 시설관리과)
- 2006. 10. 9 석관동 신축교사 준공
- 2007. 3. 15 협동과정 개설
- 2008. 8. 1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설립
- 2009. 8. 13 제6대 총장 취임(박종원 교수)
- 2010. 12. 8 입학관리과 신설

2) 조직 및 예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직은 2처 1국 7과, 그리고 6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1-3 ●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누리집(홈페이지): www.karts.ac.kr

● 표 3-1-3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1.12.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계	총장	원장	교수~ 전임강사	조교	소계	고위 공무원	3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260	160	1	6	137	16	100	1	-	2	1	10	38	41	7
현원	245	152	1	6	130	15	93	1	-	3	2	7	34	39	7

* 기성회직 : 36/33

● 표 3-1-4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1.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예술사	정원	2,252	532	310	420	225	380	340	45
	현원	2,840	583	391	618	277	532	378	61
예술전문사	정원	877	281	108	140	90	140	76	42
	현원	1,220	270	158	200	135	190	184	83
계	정원	3,129	813	418	560	315	520	416	87
	현원	4,060	853	549	818	412	722	562	144

* 학생 현원=재적생(재학생+휴학생)

2011년도 세출예산은 368억 3,7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숙사 개보수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196억 1,400만원, 인건비 142억 9,788만원, 기본경비 29억 2,531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5.3% 증가한 26억 4,038만원이다.

3)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예술 인력의 양성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타 예술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고유의 입시제도와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조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에는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전통예술원의 6개원을 두고 있는데 각 원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장르별 독자성과 전문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 설립된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음악·무용·미술·전통예술분야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예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과를 바탕으로 맞춤형교육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탈장르적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장르의 융합, 디지털화, 글로벌화 등 예술 흐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4) 전문예술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공간 조성

2006년 10월 석관동에 극장, 전시장, 영화전용관 등 첨단 문화복합시설을 갖춘 제2교사를 완공함으로써 전문예술교육 특성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공간이 빈약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 강화

지난 1999년부터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공자들이 참여, 문화 취약계층(전국 지역아동센터 초·중등 학생) 대상 아트캠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능동적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예술학교’, ‘주말 문화강좌’, ‘즐거운 토요일악교실’ 등 각종 문화예술 관련 교육 실시 및 ‘상설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증장애인,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포용,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6) 2011년도 주요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우수 교원 채용 확대 및 강사 처우 개선’·‘학생 교류수학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학금 지원 확대’·‘예술봉사 융합프로젝트 실시’·‘기숙사 리모델링’·‘학생상담센터 운영개선’ 등 학생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면학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본교 전임교수가 참여하는 예술영재 발굴 및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창조적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개교 20주년(2012.10월)을 앞두고 세계적 예술대학으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사분리 해소를 위한 통합캠퍼스 조성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2012~2030)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1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4개 부문 입상,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은/동, 베를린영화제 단편영화부문 은곰상 등 국내외 각종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와 동시에 해외 저명 발레단 입단(6명)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우수 예술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및 MOU 확대, AMA(아시아 우수예술인재 양성 사업) 및 AMFEK사업(해외교수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 전파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아시아 예술교육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3-1-5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년도 세부 추진성과

구 분	내 용
안정된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교원 채용 확대(전임8, 비전임23) ○ 전임교원 연구 활동 지원근거 마련 및 강사 처우 개선(강사로 약 70% 인상) ○ 학생 교류수학 확대('10년 6개 대학→'11년 11개 대학) 및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예중 전임교수진이 참여하여 예술영재 발굴 및 교육과정 운영(165명) ○ 예술영재 전문교육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중추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기초(심화) 연수, 강사연수 등 4개 과정(197명) 연수 실시 - 포럼,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예술영재교육 네트워크 구축(5회)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나눔문화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 신규 시행(18명 선발) ○ 아트캠프, 시민예술학교,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취업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확대('10년 39%→'11년 42%) ○ 학생 기숙사 '천장관' 리모델링 실시(25억) ○ 학생상담센터 확충 및 상담서비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사 및 행정인력 고용, 2011 신입생 집단 심리검사 진행(452명) ○ 졸업생 활동현황 조사, 타대학 취업박람회 참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중심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우수 예술인재 유치를 위한 AMA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 대상국가 및 인원 확대(17개국 136명) ○ 문화동반자(AMFEK) 사업 추진을 통한 한국 문화 전파(4개국, 4명 교수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자별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연수 성과 제고 ○ 국제 예술교류 및 봉사 프로젝트 실시(말라위 청년센터, 네팔 룸비니 초등학교) ○ 교환학생 입학 20명, 파견 20명
대내외 협력·홍보 강화를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83회), 언론보도 확대(3,600여회), 기자간담회 개최(8회) 등 언론홍보 강화 - 성과홍보자료집 발간('11.6) 및 문화예술 매거진 <K-Arts> 창간('11.10) 배포로 대외인지도 제고 - 뉴스레터 발행(12회) 및 SNS확산에 따른 트위터 개설('11.9) 운영 등 온라인홍보 확대 ○ 중고교생 학교견학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변 안내체계 개선 등
세계적 예술가 배출을 통한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연대회, 예술제, 영화제 등 세계유수의 대회에서 월등한 기량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1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4개부문 입상(남녀 성악1위, 피아노 2위, 바이올린 3위),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은/동, 이탈리아 시칠리아 국제무용콩쿠르 3개 부문 1위, 보스턴 국제발레콩쿠르 2개 부문 금상/1개부문 동상, 베를린영화제 단편영화부문 은곰상 등 ○ 해외 저명 발레단 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영국 로열발레단 등 6명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설립목적 및 연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변경된 특수법인으로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1972년 8월 14일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한 이래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의 구 서울대 부지와 본관 건물을 2010년 4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다. 1979년 5월 2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이어 1981년 4월 1일에는 공연예술 종합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신축·개관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27일 무대예술 분야 전문연수 시설인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을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자료관을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구내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 조형예술 및 건축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무대예술연수회관을 증·개축하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을 개관하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4관 시설 중 아르코예술극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대학로 예술극장과 통합되면서 새로운 공연예술거점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출범하였다. 또한 아르코예술정보관 역시 국립예술자료원원으로 독립하였다.

이러한 시설 분리 이외에 서울 서남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 구로구 구로동(신도림)으로 본관을 이전하였고, 기존의 대학로 본관은 상업주의에 밀려 창작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 조직 및 예산(변환 : 3본부 10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이자 최고 의결기구로서 2010년 11월 4일 3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장(1인)과 비상임위원(11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사무처장 및 3본부 10부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조사, 예산,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경영전략본부(경영인사부, 기획예산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심의·평가 및 분야별 창작·연구·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진흥본부(지원심의실, 사업전략부, 교류협력부, 미술관), 홍보, 출판, 전산, 기부금 사업, 복권기금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사업본부(기금마케팅부, 문화나눔부, 예술인력개발원), 감사를 보좌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1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시설로는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예술가의 집 포함) 등 2개의 문화기관 시설(館)이 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카스텔로 공원 내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림 3-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2011년도 총 예산은 2,693억원으로 전년대비 31.53% 감소하였다. 자체수입은 57,461백만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으로 54,050백만원이 전입되어 전년대비 43.9% 증가하였다.

지출예산에서는 경상사업비가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10,364백만원, 기금운용비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1,178백만원이다.

● 표 3-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8-2011)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2008	425,106
2009	402,412
2010	393,395
2011	269,349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개 핵심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목표인 ①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예술 창조 역량 강화, ②문화예술 보급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③문화적 조화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④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 지원목표별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위원회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 <ARKO Vision 2015>에 따라 2009년의 6개 단위사업을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재편하였고, 세부 추진내용은 <표 3-1-7> 과 같다.

4)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 <ARKO Vision 2015> 수립

● 표 3-1-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개 핵심사업 추진현황(2010)

5개 핵심사업 추진현황(예산 : 89,111백만원 / 복권기금 포함) 내역(2010)

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31,777백만원)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예술의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
 - 관련사업
 -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24,200백만원),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1,200백만원), 국제예술교류 지원(6,377백만원)
2. 문화예술공간운영(3,250백만원)
 - 기초예술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거점공간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예술현장의 활성화 유도
 - 관련사업
 - 미술관 운영(1,049백만원), 예술인력개발원 운영(1,201백만원),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1,000백만원)
3. 생활속 예술활성화(23,700백만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외국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
 - 관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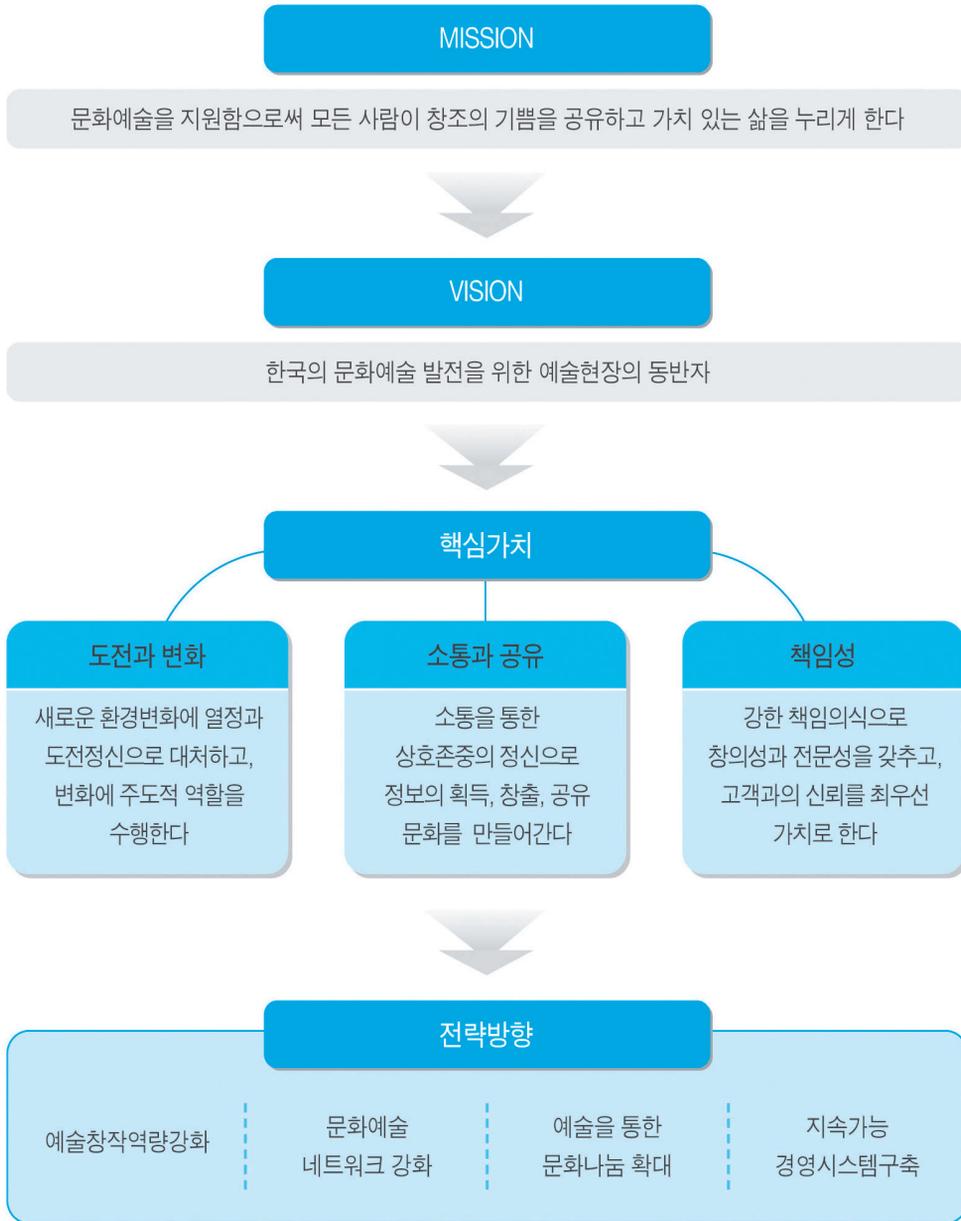
5개 핵심사업 추진현황(예산 : 89,111백만원 / 복권기금 포함) 내역(2010)

-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23,700백만원)
- 4.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22,650백만원)
 -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전국규모 행사를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
 - 관련사업
 - 지역문화예술지원(22,650백만원)
-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7,734백만원)
 - 기부금 사업 전개 및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문예연감 발간을 통한 예술 활동의 지식 기반 구축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
 - 관련사업
 -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7,734백만원)

201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는 무엇보다 새로운 기관의 중장기 비전 수립을 통해, 전사적인 전략방향과 각 조직기능별 추진과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실질적인 기관의 혁신과 제도개선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제도 개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방향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 기관의 주요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비전 2012에 대한 조정(Rolling)을 통해 <ARKO · Vision · 2015>에서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기관의 미션 및 비전, 4대 전략방향과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그림 3-1-5 ● <ARKO·Vision·2015>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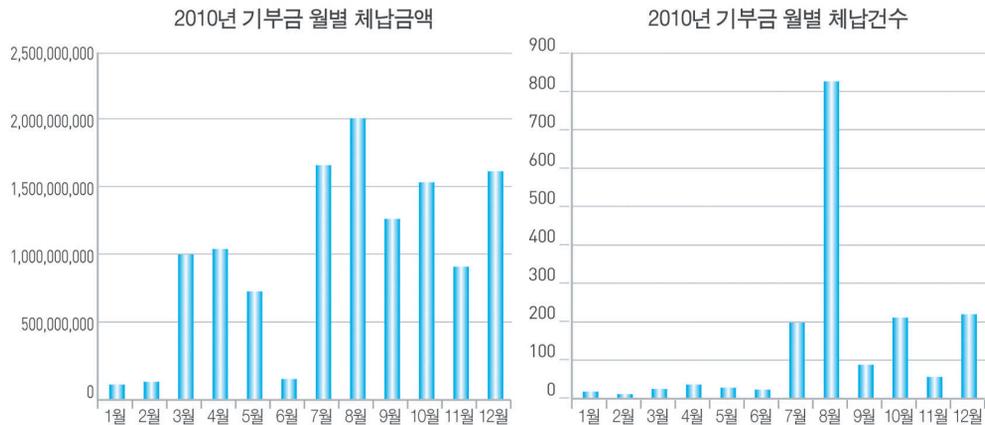
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2004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500억원 내외의 모금수입이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며 연간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하게 되며,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10년은 안정적인 재원확충과 중장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모금 전담 조직설치(기금마케팅부)와 기부금 유치에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1일 경륜·경정법 개정 이후 2010년 9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2억원의 신규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부금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대중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기부금 접수와 처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2010년도 기부금 수입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31.37%나 증가하였다.

● 그림 3-1-6 ● 2010년도 기부 건수 및 월별 모금 현황



6) 지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2010년에는 지원심의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책임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각 장르별 외부 전문가 4인과 사무처의 10년 이상 해당분야 지원업무 경력이 있는 1명으로 구성된 책임심의위원단이 1년 동안 각 장르별 지원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 방식의 일관성 확보와 지원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청렴서약서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연중 공모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시 신청·상시 심의제도를 국제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연 1회 정기공모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어 다음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연도 중반에 기획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지원받기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수 있었다.

기존의 성과중심의 사후지원과 예술현장에 대한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간접지원 사업은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본관 건물을 창작지원시설인 ‘예술가의집’으로 조성하여, 상업시설에 밀려 창작기반이 취약해진 대학로 일대의 예술가와 단체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였다.

7) 선도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준수 및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선진화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전직원 직무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기관의 생산성 강화를 달성하였으며, 기관의 고유사업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성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코예술극장과 예술정보관의 분리/독립에 따라 기존의 111명이던 정원을 약 18% 감축한 91명으로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간부직 비율도 약 19% 축소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감축하기로 예정된 초과 현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10년도 중반에 조기 달성하였고,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인력 채용 노력을 강화하여 정원대비 10%에 해당하는 9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청년인턴도 목표대비 200% 채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절 문학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지난 세기 말부터 문학의 사회적 위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매체에 넘겨주었다. 문학 수요자의 이탈과 함께 젊은 문학 수요자 기반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문학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전 정부의 문학진흥 방안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1999년부터 침체된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장기적으로 문학의 자생적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학관 건립 등 문학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셋째, 대외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새 정부의 문학지원 정책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몇 가지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정책의 기초는 2008년 발표된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문화비전 2008~2012)’에서 찾을 수 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매혹적인 한국 문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전파하고자 한다.

즉, 창작지원 정책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문학을 향유·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문학의 해외전파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진흥 정책을 통해 문학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문학창작 지원 사업은 1999년 이래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원은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방송발전기금, 토토기금, 국고 등 다양한데, 문예진흥기금은 창작 및 매개·유통 활성화 사업에, 그리고 복권기금은 향수를 촉진하는 사업에 주로 투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학창작 지원 사업에 투입된 문예진흥기금 규모를 보면, 2008년 53억 6,700만원, 2009년 35억 7,600만원, 2010년 23억 5,100만원, 2011년 24억 8,500만원, 총 137억 7,900만원이다.

또한 복권기금은 2008년 32억 7,000만원, 2009년 24억 1,500만원, 2010년 18억원, 2011년 40억원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창작프로그램지원('08년 16억 4,400만원, '09년·'10년 각 8억원, '11년 9억원)은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200만원씩 지급하다가 2009년에는 작가 1인당 1,200만원~3,000만원씩,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작가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학단체기관지발간지원('08년·'09년·'10년 각 2억원), 전국의 문학단체에서 발간하는 우수 문예지를 선정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구입 배포하는 사업('09년 10억원, '10년 5억원), 문학작품 창작의 모태인 문예지에 수록된 우수 작품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편당 시·시조 100만원, 단편소설 250만원, 장편소설 500만원, 동시 50만원, 동화 100만원을 지원하는 문예지계재우수작품선정지원('08년 9억 6,000만원) 등의 사업은 2011년부터는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주요 단체 기관지, 청소년 문예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11년 7억원) 그리고 신진예술가의 창작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09년 1,000만원, '10년 1억 9,000만원, '11년 2억 4,000만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문학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의 작가를 육성하는 청소년문예지발간지원('08년 1억 9,000만원, '09년 2억원), 전업문인 문학창작집필 실 및 문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예술전용공간지원('08년 1억 7,000만원, '09년 5억원, '10년 16억원, '11년 4억원), 사이버문학광장운영('08년·'09년·'10년 각 3억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08년 1억원, '10년 5,400만원), 예술정간물 및 조사연구지원('11

년 5,700만원, '12년 6,000만원) 각종 문학국제교류지원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 참가 등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그리고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활동지원('08년 1억 5,900만원, '09년 1억 5,700만원, '10년 1억 2,465만원)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문학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문학관운영프로그램지원('08년 2억 3,000만원), 지역문학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문학관협회지원('08년 1억원), 그리고 특정한 계기를 맞아 긴급 지원하는 계기성사업지원('08년 1억 3,000만원, '09년 3,300만원)과 함께, 위탁보조사업으로는 통일문학용어사전발간지원('08년 1억 5,000만원), 근대문학100주년기념사업('08년 2억 7,000만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08년 2억 7,000만원, '09년 3억원, '10년·'11년 2억원), 원로 문예인 복지지원('08년 3억 600만원) 등을 추진하였다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전국 공공도서관과 문학관은 안정적인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진행을 위한 작가 확보와 운영 예산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 속에서 다수 지역 문학작가들 또한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도서관 및 문학관을 지역문화 중심지로 활용하여 문학동아리, 문학 집필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다양한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학 작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학프로그램 진행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문학작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작품 창작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 동아리 멘토, 문학 집필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작가 참여형 문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문학관들이 해당지역의 소설가, 시인, 수필가 등 문인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에 등록된 작가를 섭외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 80개 공공도서관·문학관에 80명의 지역 작가를 파견하였고, 2010년에는 82개 공공도서관·문학관에 82명, 2011년에는 70개 공공도서관·문학관에 70명의 작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작가 파견 외에 '09년 70개관, '10년 94개관, '11년 16개 공공도서관에서 시낭송음악회가 개최되었다.

● 표 3-2-1 ●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실적 (2009-2011)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문학작가파견	80개관 80명	82개관 82명	70개관 70명	232개관 232명
시낭송음악회	70회	94회	16회	180회
예산(적립금)	1,150백만원	1,000백만원	700백만원	2,850백만원

● 표 3-2-2 ● 2011년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 참여 도서관 (70개관)

no.	지역	참여 도서관	지원작가	비고
1	서울(12)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용숙	
2		관악문화관도서관	서유미	
3		구로주민전용도서관	박수정	
4		남산도서관	강병석	
5		노원어린이도서관	남승원	
6		도봉도서관	손현숙	
7		동대문도서관	임경섭	
8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소선순(필명 신여랑)	
9		문래정보문화도서관	홍금자	
10		성북정보도서관	백은하	
11		은평구립도서관	변혜령	
12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정은미, 조임생	
13	부산(4)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	조말선	
1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도서관	이정임	
15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양여경(필명 나여경)	
16		부산광역시영도도서관	신주선	
17	대구(2)	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강문숙	
18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김동원	
19		새벗도서관	박영희	
20	광주(1)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	이창수	
21	인천(2)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	김우섭	
22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홍명순(필명 홍명진)	
23	대전(1)	대덕구안산평생학습도서관	정미진	
24	울산(1)	울주도서관	임 석	
25	경기(8)	교하도서관	전윤호	
26		남양주시화도도서관	이형덕(필명 이시백)	
27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최문애	
28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한아름도서관	이승현	
29		안양시석수도서관	박혜숙	
30		포천시립일동도서관	안익수	
31		노작홍사용문학관	장인수(필명 장이지)	

no.	지역	참여 도서관	지원작가	비고
32		황순원문학관	구효서	
33	강원(5)	강릉평생교육정보관	남진원	
34		동해도서관	홍준식(필명 홍구보)	
35		원주시립도서관	고진하	
36		정선도서관	강기희	
37		월하이태극문학관	김용전	
38	충북(3)	영동도서관	양문규	
39		음성대소도서관	최 준	
40		청주기적의도서관	함기석	
41	충남(6)	금산기적의도서관	강도운	
42		보령도서관	김진경	
43		연기도서관	김세인	
44		예산도서관	진강선	
45		천안시중앙도서관쌍용분관	안학수	
46		추부도서관	오유리	
47	전북(7)	순창공공도서관	강신자	
48		완주군립도서관	유강희	
49		익산시립도서관	신경자	
50		장수군립도서관	전희식	
51		전주시립인후도서관	박예분	
52		정읍학생복지회관	박혜숙	
53		최명희문학관	이길상	
54	전남(6)	광양공공도서관	박주희	
55		구례공공도서관	이성아	
56		남평공공도서관	조경희	
57		담양공공도서관	심진숙	
58		순천시립도서관	김기홍	
59		장흥공공도서관	이대흠	
60	경북(6)	경상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	임경림	
61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	한미화	
62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	엄재국	
63		문경시립중앙도서관	박종순	
64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박연자(필명 박모니카)	
65		이육사문학관	박애자	
66	경남(4)	마산도서관	서정홍	
67		진양도서관	표성흠	
68		하동도서관	이원규	
69		창원시김달진문학관	이서린	
70	제주(1)	탐라도서관	정군칠	

● 표 3-2-3 ● 2011년 시낭송음악회 참여 도서관 (16개관)

no.	지역	참여 도서관	참여시인	비고
1	서울	양천도서관	함민복, 옥태순	
2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김선우	
3	대구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곽홍란	
4	인천	금호평생교육관	정호승, 백창우	
5	광주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김윤식	
6	대전	대전광역시동구가오도서관	정호승	
7	경기	구리시립도평도서관	김 언	
8		시흥시군자도서관	정호승	
9	강원	문막도서관	정호승	
10	충북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김용택	
11	충남	홍성도서관	김경주	
12	전북	전주시립금암도서관	복효근	
13	전남	함평공공도서관	김철수	
14	경북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조재학	
15	경남	진영도서관	선 용	
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안도현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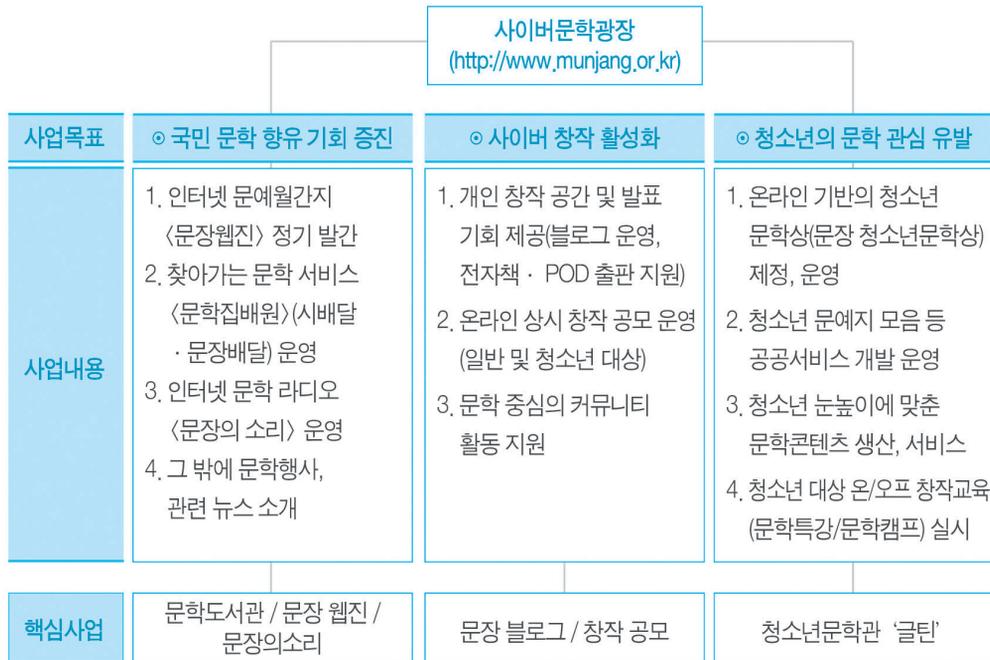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학의 창작 유통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의 보장과 검열기능의 약화로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나타나는 등 문학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문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이버문학광장’(www.munjang.or.kr) 운영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이버문학광장사업은 한국문학 기초 자료와 새로운 작품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결합하여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문학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이버문학광장사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해 온 ‘사이버창작공모전’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지난 6개년 간 누적 응모건수가 3만여 건을 기록하였고, 온라인 활동 중에 문단에 등단한 작가도 10여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과 발표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두었다. 또한 청소년전용 문학사이트인 ‘글틴’(http://teen.munjang.or.kr)을 통해 ‘연중온라인글쓰기’ 대잔치를 개최, 한국일보사 및 전국국어교사모임과 함께 「문장 청소년문학상」이라는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대상 문학상을 제정,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문학광장은 특히, 문학 향수자층 확대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독자가 54만여 명에 이르는 ‘문학집배원(<http://letter.munjang.or.kr>)’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문예 월간지는 ‘문장웹진(<http://webzine.munjang.or.kr>)’, 국내 유일의 인터넷 문학라디오 ‘문장의소리(<http://radio.munjang.or.kr>)’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문학집배원’은 이메일로만 유지되던 서비스 방식을 벗어나 모바일 서비스 분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여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2010)은 물론 팟캐스트(Pod-cast) 서비스로도 제작되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표 3-2-4 ●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4) 문학관 건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유명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2002년부터 문학관 등 건립 지원을 시작하여 지역 유명 문화예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신진 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 무대제공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02년 4개 시설 33억원(채동선음악관 9억, 동리목월문학관 12억, 마산문학관 6억, 이효석문학관 6억), '03년 3개 시설 12억원(최명희문학관 3억, 이육사문학관 6억, 정지용문학관 3억원), '04년 3개 시설 8.7억원(신동엽문학관 3.7억, 오장환문학관 2.5억, 김정한문학관 2.5억원), '05년 5개 시설 14.5억원(김동명문학관 1.5억, 박인환문학관 2억, 충주문학관 1.5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놀인문학관 5억원), '06년 6개 시설 17.4억원(강화문학관 1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4.2억, 석정문학관 4억, 정채봉기념문학관 1.9억, 박재삼문학관 1.8억원), '07년 8개 시설 18.4억원(강화문학관 0.77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1.61억, 석정문학관 6억, 놀인문학관 2.46억, 정채봉기념문학관 0.87억, 임제백호문학관 2.31억, 김천문학관 3.07억, 박재삼문학관 1.31억원)을 지원했으며, '08년 이후 문학관 등 건립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3-2-5 ●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단체	내용	지원액	계
2008	강원	여초서예관	200	4개 시설 2,180
	충남	이문구문학관	1,000	
		이응노화백기념관	480	
전북	석정문학관	500		
2009	대전	대전문학관	540	8개 시설 4,592
	강원	여초서예관	1,300	
		경남	박경리기념관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		300	
	전남	복합문학관	266	
		시문학파기념관	306	
충남	이문구문학관	800		
	이응노화백기념관	430		
2010	대전	대전문학관	227	10개 시설 5,661
	강원	여초서예관	1,100	
	충남	이문구문학관	529	
		이응노화백기념관	805	
	전남	시문학파기념관	300	
		백호문학관	200	
	땅끝순례문학관	300		

연도	단체	내용	지원액	계
2011	경남	박경리기념관	430	7개 시설 3,820
		향파이주홍기념관	270	
		기산박헌봉기념시설	1,500	
	대구	대구문학관	1,000	
	충남	신동엽문학관	280	
	전남	시문학파문학관	266	
		백호문학관	574	
		땅끝순례문학관	200	
	경북	소천권태호기념관	500	
권정생어린이문학관		1,000		

5) 한국문학번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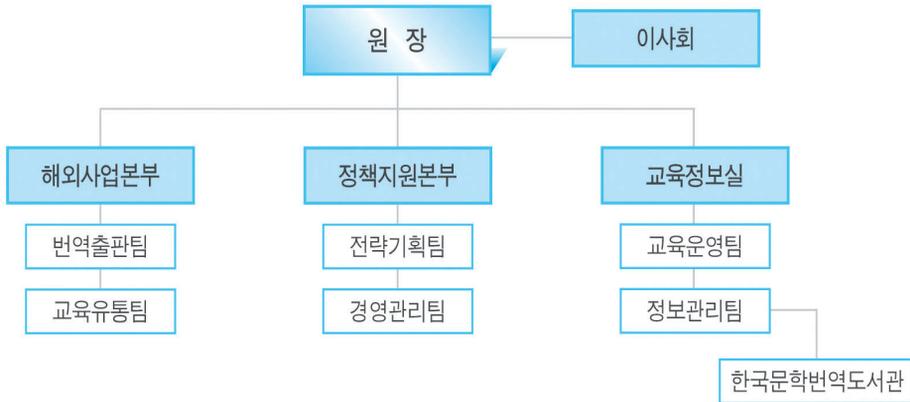
(1) 개관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5월 설립)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3월에 출범하였다. 2005년도에 번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인의 사유를 지구촌의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설립 당시 민법에 근거했던 기구의 법적근거를 「문예진흥법」에 마련하여 법정기구로 전환(「문예진흥법」 제38조)되었으며, 2010년 6월 한국문학 외에 간행물의 번역, 출판, 해외진출을 위해 새로운 법적근거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조2) 바탕으로 기관의 업무를 확장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책의 목표를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확보와 고품격 국가 이미지 선양’에 두고 ‘전통적 문화 강국으로서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고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번역 중추기관’이라는 기관의 비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비전은 번역 출판과 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문화 소개 및 홍보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문학, 문화의 위상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획득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은 1원장 2본부 1실 6팀(해외사업 본부 아래 번역출판팀, 교류유통팀, 정책지원본부 아래 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그리고 교육정보실 아래 교육운영팀, 정보관리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2-1 ●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 홈페이지: www.klti.or.kr

2011년도 총 예산은 81억 4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8억 66백만원과 기본재산 이자수입 및 임대수익 등을 합친 자체수입 3억 40백만원,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6억 98백만원으로, 지출예산은 사업비 62억 77백만원과 인건비 12억 8백만원, 경상비 6억 1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현황 및 성과

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번역지원사업은 우수한 번역가 지원을 통해 문학작품을 비롯한 인문·사회, 아동 분야 한국 도서를 해외에 소개하고, 번역 지원을 받아 완성된 원고를 해외 유명 출판사를 통해 출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다. 2011년 기준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14개 언어권에서 105종(신규번역지원 94건, 한국문학번역원 우수번역가 신규번역지원 10건, 인문도서 기획번역 1건)을 번역 지원하였고 출판에서는 15개 언어권에서 54종이 해외에서 출간되었다.

● 표 3-2-6 ●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 (2011)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지원건수	69	38	44	46	55	69	98	41	80	111	105	756

● 표 3-2-7 ●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번역지원 현황 (2011)

(단위 : 건)

장르별	연 도											총계 (2001~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 전	10	3	9	10	9	14	9	2	2	5	2	75	
현대	소설	38	24	26	23	33	29	58	26	44	55	57	413
	시	19	10	7	10	7	11	14	6	10	13	8	115
	기타	1	1	2	2	2	-	-	-	1	3	-	12
아 동	-	-	-	-	-	1	-	-	-	16	18	22	57
인문·사회	11	3	9	11	13	28	26	9	9	22	18	159	
계	69	38	44	46	55	69	98	41	80	111	105	756	

● 표 3-2-8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출간지원 현황 (2011)

(단위 : 건)

장르별	연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전	4	5	5	6	7	6	7	6	16	10	6	78	
현대	소설	6	25	17	21	34	33	22	26	25	26	31	266
	시	5	3	9	15	21	15	10	8	8	9	9	112
	기타	-	-	-	4	2	1	4	-	-	4	1	16
아 동	-	-	-	-	1	-	-	-	-	-	-	1	2
인문·사회	4	6	8	7	14	13	13	13	19	14	12	123	
계	15	34	34	47	72	62	49	47	52	53	54	519	

문학성, 대표성, 해외수용성이 보장되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양질의 도서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번역지원 사업에 대한 번역가, 작가, 출판사들의 관심이 증가(번역지원 신청건수 '10년 총 230건, '11년 총 424건)하였다. 그리고 해외 수용성을 고려한 심사과정이 내외국인 심사자가 동시에 1차 심사를 진행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도착어의 가독성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1차 심사를 진행 한 후 이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내국인이 2차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수용자 입장에서 양질의 도서를 번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예산(심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

도서뿐만 아니라 도서 외에 영상 및 공연물의 번역을 통해 한국문화콘텐츠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영상·공연 자막번역을 30종 지원하였다. 비록 예산 문제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향후에는 번역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해 협약기관에 우수한 번역 자막원고를 제공하여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 표 3-2-9 ● 한국문학번역원: 영상·공연 자막번역지원 현황 (2011)

분야별	연도별						총계('07~'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상/공연	-	22	29	32	38	30	12개 언어 151건

나. 교류·유통사업

2011년도 해외교류 사업은 국내외 문학 및 학술행사, 작가 축제 및 레지던스,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등을 직접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 주요 6대 도시(프랑스·스페인 5월, 중국 9월, 독일·일본·미국동부 10월 개최)에서 진행된 'LTI Korea 포럼'은 한국문학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문학의 현지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세계적 문학 및 출판 중심부와의 네트워크 형성 요구 수렴 및 강화를 통해 한국문학 및 도서의 해외 수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독자 독후감대회를 16개국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작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적인 독자를 확보하였다. 교류사업의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 3-2-10 ● 한국문학번역원: 교류사업통계

(단위 : 건)

연도	기획	공모	계	누계
2001	7	3	10	10
2002	10	2	12	22
2003	7	8	15	37
2004	7	14	21	58
2005	8	10	18	76
2006	9	13	22	98
2007	14	14	28	126
2008	16	13	29	155
2009	23	15	38	193
2010	13	8	21	214
2011	11	-	11	225

다. 교육·연구사업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할 수준 높은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해 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으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연수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원어민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규과정은 2009년의 기존 4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스페인어권을 추가하여 총 5개 언어권으로 운영되었다. 보다 심화된 번역 교육을 원하는 번역아카데미 우수수료자와 신진우수번역인력을 위한 심화과정도 프랑스어권이 추가되어 총 4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으로 확대·운영되었다. 그리고 특별과정에서는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의 언어권을 모두 합하여 (영어, 프랑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2010년부터 번역아카데미 우수 수료자들에게 전문번역가로서의 경험과 지식 습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아틀리에를 신설, 2011년 2기 번역가 9인의 번역아틀리에 번역가가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문학 작품의 우수 번역가에 대한 시상을 통해 번역가를 격려하고 번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문학 번역상을 주고 있다. 2011년에는 7개의 언어권에서 총 51종이 심사에 올랐다. 본 상은 주요 7개 언어권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의 홍보 및 파급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번역가 외에 신진 번역가 발굴을 위해 매년 한국문학 번역신인상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7개 언어권에서 총 275건이 심사에 올랐다. 수상자 7명 중에서 4명은 본원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번역아카데미교육의 효율성을 입증되고 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와 상금 액수의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응모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표 3-2-11 ● 한국문학번역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계

(단위 : 명)

연도	연수지원 사 업	교육사업				계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번역캠프)	한국문학 월례강좌	한국문학 번역전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1	3 (1개 언어권)	-	-	-	-	3
2002	1 (1개 언어권)	-	-	-	-	1
2003	12 (6개 언어권)	25 (10개 언어권)		-	-	37

연도	연수지원 사 업	교육사업				계
		번역아카데미	문학기행 (번역캠프)	한국문학 월례강좌	한국문학 번역전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4	4 (2개 언어권)	35 (9개 언어권)	20 (8개 언어권)	29 (9개 언어권)	-	88
2005	13 (5개 언어권)	51 (12개 언어권)	40 (11개 언어권)		-	104
2006	13 (8개 언어권)	91 (15개 언어권)	45 (12개 언어권)		-	149
2007	21 (9개 언어권)	56 (7개 언어권)	20 (6개 언어권)	-	9 (7개 언어권)	106
2008	9 (6개 언어권)	76 (7개 언어권)	46 (7개 언어권)	-	29 (10개 언어권)	186
2009	-	95 (7개 언어권)	57 (6개 언어권)	-	22 (12개 언어권)	174
2010	-	134 (7개 언어권)	48 (3개 언어권)	-	18 (9개 언어권)	200
2011	-	151 (7개 언어권)	63명 (7개 언어권)	-	15 (12개 언어권)	229

그리고 연구사업으로 5월 30일에 개최된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은 <디지털 시대의 한국문학 번역과 출판>이라는 주제로 해외초청인사 3명과 국내인사 8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2011년도 워크숍은 디지털 환경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출판, 번역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출판업계, 작가, 번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에 대해 국내외 종사자의 다양한 시각(출판관계자, 작가, 번역가)과 장르(현대문학, 인문학, 아동문학)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양질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디지털시대라는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홍보·진행하여 전자출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석을 이끌어냈다.

라. 해외출판정보제공웹진(OPIA)

2010년 10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한 해외출판정보 웹진은 오피아(OPIA, Overseas

Publication Information Access, <http://opia.klti.or.kr>)라는 명칭으로 한국도서 저작권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600여 곳 이상의 국내 출판 관계자들에 정기적으로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 곳의 해외출판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사업

2008년부터 전문적인 출판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도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지원을 대상으로 한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사업에서는 총 47개 출판사 237종 도서에 대해서 총 5개의 언어권(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으로 샘플번역 128건, 초록번역 245건, PDF제작 156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작권 수출 협의체 운영하여 국내출판사 대상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국내 출판사들에게 저작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표 3-2-12 ●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시기	샘플번역	초록번역	PDF 제작	도서종수	지원출판사수
2008	315	485	420	444	66
2009	160	358	130	256	34
2010	351	815	551	849	141
2011	128	245	156	237	47
합계	826	1,658	1,101	1,549	241

2011년도에는 ‘상반기 저작권 수출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5개사 7인이 참석하여 국내 100여 곳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011 아시아편집자 펠로우십 사업설명회’를 열어 10개국 14개사 14인이 참석하여 9개국의 한국도서 수출시장에 대한 현황 및 시사점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 도서의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출판사에 출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저작권 출판 지원사업에서는 14개국 31개 출판사 91종 105책을 지원하여 해외출판사로부터 한국도서의 지속적인 수입을 유도하고 있다.

● 표 3-2-13 ● 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시기	국가	출판사	지원도서 종수	지원도서 책수
1차	9	14	39	39
2차	9	13	27	34
3차	9	15	25	32
합계	14	31	91	105

이 외에도 저작권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해외도서전 참가를 통한 저작권 수출 상담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도서의차별적이고 전략적인 도서기획전을 개최하여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은 6개의 해외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도서의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도서기획전 및 집중적인 출판섭외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해외 출판 마케팅을 지원('11년 6개국 7개사 8건)하여 해외 출간도서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홍보를 강화하였다.

바. 정보화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2010년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관리팀을 신설하였다. 주요 사업과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보화 수준과 환경을 진단하여 정보화 중장기 전략(ISP)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관 정보화 단계를 1단계: 정보화 기반구축(2010), 2단계: 표준화/연계통합(2011~2012), 3단계: 확산/고도화(2013~2014)로 계획하고 2011년에는 2단계를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2월~12월)으로 그룹웨어 결재시스템을 위한 스토리지를 도입(3월), 온라인 팩스시스템 도입(그린팩스, 4월), 문화체육관광부지원 VPN 장비도입(9월), 서버실 온도감시 및 알람 장치도입(10월)하여 한국문학번역원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산재되어있던 블로그와 여러 사이트를 통합함으로써 중복된 콘텐츠를 정리하고, 작가와 작품, 번역가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의 교체와 자료백업 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온라인 사업지원, 번역 출간지원정보관리 및 주소록 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서 간 정보공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학 번역도서 및 번역관련 참고서 등을 소장하고 한국문학작품 및 문학작품 해외 소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전문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역할로 한국문학번역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607종(구입 251종, 수증 150종, 납본 204종, 간행 2종)이

입수되었고 국내외 행사 지원 및 기증으로 총 82건 1,283권(국내 44건, 해외 28건, 전시지원 10건) 지원하였다. 또한 번역도서 나눔의 장을 열어 60곳에 7,856여권을 기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7개국(타이베이, 볼로냐, 북경, 도쿄, 프랑크푸르트, 과달라하라, 아부다비)도서전 전시를 지원하는 등 8천권 이상의 도서를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으로 배포·기증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작가 소개자료 제작사업(9월)을 통해 외부행사자료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번역원 웹페이지 상의 문인 DB 구축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향후 전망 및 계획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문예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문학창작 지원 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개인과 단체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작가의 문학창작을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12년·13년 8억원)은 ‘12년도부터 시상금 제도로 변환해 작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 한국 문학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학작품 주요 발표 공간인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를 지원하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12년·13년 7억원)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 청소년 문예지 중 우수한 문예지를 지원해 문학 창작, 비평 활동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학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문학창작집필실지원’(12년 4억원, 13년 3억원)은 문학 집필 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를 지원해 입주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창작여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학 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지원’(12년 4,600만원, 13년 5,000만원)은 문학 분야 조사·연구·비평 및 담론 생산 활동을 지원해 문학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앞으로 문학작가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자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학관련 프로그램이 도서관, 문학관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는 모바일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현 및 온라인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SNS 연계 서비스 개발 등 이용자 요구수준 향상에 발맞춘 대대적인 시스템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구축된 방대한 문학정보의 공익적·교육적 활용을 위한 민간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청소년과 예비 창작자를 아우르는 미래 한국문학의 발전을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문학 분야 신진 유망 창작자를 발굴·육성·지원 플랫폼으로써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문학 창작 역량 강화와 문학 분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문학관 건립 지원

지역과 연관 있는 유명 예술인에 대하여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학관 등 기념시설 건립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동 시설이 지역 신진 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 무대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문학’이라는 기관 슬로건의 실현을 위한 사업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국제적인 기관 신임도를 바탕으로 진행해온 사업들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현재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학 한류’를 기획, 향후 한국문학의 수요에 대비하여 우리 문학 콘텐츠의 생산, 유통 그리고 교류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 문학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우수 번역가 양성사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교육 언어권 확대를 기할 예정이다. 현재의 문화 한류를 가능하게 한 지구적인 정보·전자화 역시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에 한국문학 콘텐츠의 E-Book화 사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제3절 공연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011년 공연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과 예술 '소비 및 유통'의 관점에서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이다. 이를 통해 예술 창작과 소비·유통의 양 축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예술단체의 체질 개선, 지역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 강화,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 제공을 하였다.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 예술 향유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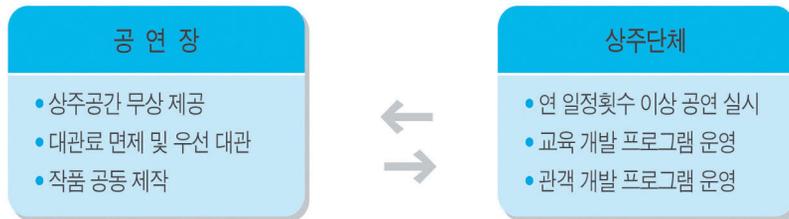
(1) 국립예술단체 체질 개선

국립예술단체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립예술단체 체질을 개선하였다. 첫째, 정기적인 오디션 추진으로 단원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오디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단체와 단원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오디션 제도를 정착시켰다. 둘째, 국립단체와 공립·민간단체간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였다. 국립발레단은 발레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12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1년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한민국발레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은 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와 협력하여 2011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 지역 공연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예술단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예술 행사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하였다. 상주단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교육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당 연간 5천만~1억 5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으로 공연장과 상주를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매칭하고 공연장 운영경비(지원금의 20% 이내), 단체 운영경비(지원금의 30% 이내) 및 협력 프로그램 제작경비(지원금의 50% 이상)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소극장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물적 협력 관계를 조성하여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총 지원예산은 2011년 문예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87억 5천만원이다. 주요 추진현황은 2009년에 수도권 시범사업으로서 14개 공연장, 27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 80개 공연장, 107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87개 공연장, 109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 그림 3-3-1 ●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 표 3-3-1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구분	사업 효과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시즌제 정착(공연장 자기색깔 찾기) 기반 마련
상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행정 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홍보·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매진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공연프로그램 향유 기회 증진

둘째,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였다.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이 7개 행사 34억 3천만원,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 36개 행사 41억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11개 행사 23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총 54개 행사 98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공모사업(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일부, 공연예술 행사 지원 일부 및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전체)의 조기공모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조기공모 등을 통한 공연예술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는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공연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장르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르별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연예술 행사, 국제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표 3-3-2 ●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관광기금)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공연예술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800,000,000
무용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서울세계무용제	275,000,000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부산국제무용제	300,000,000
음악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관악페스티벌	900,000,000
	한국음악협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255,000,000
	대구오페라페스티벌조직위원회	대구오페라축제	600,000,000
전통예술	전통예술진흥재단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300,000,000
계			3,430,000,000

● 표 3-3-3 ● 공연예술행사지원 (문예기금)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무용	(사)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	390,000,000
	(사)창무예술원	제17회 창무국제무용제 in 의정부 2011	40,000,000
	(사)한국무용협회	2011 대한민국무용대상	110,000,000
	(사)한국무용협회	2011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213,000,000

분야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2011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50,00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제8회 서울국제무용공쿠르	350,000,000	
	젊은안무자창작공연운영위원회	2011 젊은안무자창작공연	30,000,000	
	한국발레재단	제4회 코리아국제발레공쿠르	80,000,000	
음악	(사)한국음악협회	제30회 대한민국작곡상	40,000,000	
	(재)안익태기념재단	2011 안익태 기념음악회	100,000,000	
	(재)통영국제음악제	2011 윤이상국제음악공쿠르	110,000,000	
	윤이상평화재단	2011 국제윤이상작곡상	100,000,000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11 제주국제관악제	100,000,000	
연극	(사)한국연극협회	전국연극제	450,000,00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제19회 아시테지 여름축제(AssiFe 2011)	130,000,000	
	(사)밀양연극촌	제11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60,000,000	
	(사)한국소극장협회	2011 대학로소극장축제 D.FESTA	240,000,000	
	(사)한국연극배우협회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전국공연	30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제1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10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2011년 제8회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180,000,000	
	(사)한국연극협회	2011 대한민국연극인의 밤-대한민국연극대상	50,000,000	
	(사)한국연극협회진주지부	제12회 영호남연극제	70,000,000	
	(재)수원화성문화재단	수원화성국제연극제	81,000,000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	150,000,000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제9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39,000,000	
	(사)포항바다국제연극제진흥회	제11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69,000,000	
	어린이연극잔치운영위원회	제20회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	30,000,000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제10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60,000,000	
	재단법인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제2011	99,000,000	
	젊은연극제집행위원회	2011 제19회 젊은연극제	40,000,000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11 신춘단막극제	30,000,000	
	전통 예술	(사)한국국악협회	제30회 대한민국국악제	55,000,000
		(사)한국농악보존협회	호남우도농악 전판 재연공연 및 학술대회	20,000,000
임실필봉농악보존회		필봉마을굿축제	24,000,000	
다원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	50,000,000	
	페스티벌봄	2011 페스티벌봄(Festival Bo:m 2011)	60,000,000	
계			4,100,000,000	

● 표 3-3-4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문예기금)

분야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명	지원액(원)
음악	강원도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	500,000,000
	경상남도	2011 이상근 국제음악제	250,000,000
	대전광역시	2011 대전국제음악제	100,000,000
	부산광역시	제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0,000,000
	부산광역시	2011 부산국제합창제	100,000,000
	인천광역시	2011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100,000,000
연극	경상북도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공연	100,000,000
	대구광역시	제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00,000,000
	부산광역시	2011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	100,000,000
전통예술	제주특별자치도	제50회 탐라문화제	100,000,000
예술일반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문화도시운동사업	200,000,000
계			2,350,000,000

셋째,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문예회관은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향수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으로서, 201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208개관의 문예회관이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문예회관 확충을 위해 최근 5년간 '07년 150억원(13개), '08년 240억원(22개), '09년 204억원(21개), '10년 171억원(20개), '11년 108억원(17개)을 지원하였다. 우수 연수단원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문예회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2011년 전국 문예회관에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등 문예회관 주요업무 분야에 58명을 배치하여 37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노후한 시설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예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현황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문예회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문예회관 아카데미를 통하여 종사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CEO, 공연·전시기획, 홍보·마케팅, 서비스 인력관리자 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에서 시행되는 우수공연 및 기획공연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 표 3-3-5 ●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	12	9	7	6	2	4	28	17	12	16	17	17	24	18	3	208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04년에는 146억원으로 96개 문예회관에 579건의 프로그램을, ‘05년에는 94억원으로 102개 문예회관에 630건의 프로그램을, ‘06년에는 94억원으로 100개 문예회관에 575건의 프로그램을, ‘07년에는 70억원으로 102개 문예회관에 289건의 프로그램을, ‘08년에는 31억원으로 96개 문예회관에 190건의 프로그램을, ‘09년에는 48억원으로 103개 문예회관에 213건의 프로그램을, ‘10년에는 48억원으로 126개 문예회관에 242건의 프로그램을, ‘11년에는 48억원으로 139개 문예회관에 275건의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였다.

● 표 3-3-6 ●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현황 (2004-2011)

(단위 : 억원)

년도	지원액	문예회관 수	프로그램
2004	146	96	579
2005	94	102	630
2006	94	100	575
2007	70	102	289
2008	31	96	190
2009	48	103	213
2010	48	126	242
2011	48	139	275
합계	531	725	2,718

(3)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 제공

예술의 창작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된 창작 지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계의 수요가 높은 새로운 예술 창작 공간을 건립하였다. 첫째, ‘예술가의 집’의 활용도를 높였다. 2010년 11월에 대학로에 개관한 예술가의 집을 현장 예술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창작 지원 공간으로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 창작을 위한 국내외 지원 정보 제공 등 정보 유통매개체 역할과 국내외 공연전문가 간의 공연·캐스팅 정보 교환 등 상시 아트마켓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담론의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현상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또한, 명예의 전당 운영으로 한국예술발전에 공헌한 예술인, 예술 후원자 및 예술사 관련 전시를 상시 운영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둘째, 국립예술단 공연 연습장을 건립·운영하였다.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 등의 열악한 연습 환경의 개선을 위해 예술의전당 부지 내 국립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국립예술단체의 전용 연습장을 건립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국립예술단체 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연 연습장 운영과 국립예술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국립예술단체 신축 공연연습장 준공과 건물 인수 관리 등 예술단체 공연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표 3-3-7 ●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개 요	내 용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규 모	지하1층, 지상 1층(연면적 6,344㎡), 공연 스튜디오 10개(전용 6개, 공용 4개)
총사업비	176억원(사업기간 '06.~'11. 1)
입주단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관리·운영	국립예술단체연합회

2)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1)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전략적 접근을 위해 권역별·국가별 공연시장 특성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와 같은 거점 축제와 파리 국립민중극장, 이스라엘 수잔텔라센터와 같은 주요 극장에 대한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거점 축제 및 주요 극장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다른 축제와 극장으로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1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영국에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To the Far West>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타이완 등 아시아 포커스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작품으로는 극단 목화의 '템페스트'와 안은미무용단의 '바리공주'가 초청되었다. 2011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는 프랑스에서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 진출 사업 주관단체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아비뇽 오프 진출 지원 및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공연작품은 국내 공모를 통하여 판소리만들기 자의 '사천가'와 극단 포차의 '추격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축제 및 공연장 등 해외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해외 투어를 지원하였다.

(2)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친화도를 높이고 예술 친화적 가족 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관객의 날' 사업을 추진하였다. '관객의 날' 사업은 24세 이하 청소년(1명당 동반 2인)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공연에 한해 1인당 1천원에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1년 16억원의 예산이 관람료로 지원되었으며, 수혜인원은 66,571명으로서 당초 목표 대비 140.1%의 달성률을 보였다. '관객의 날' 참여가 가능한 공연은 관람료가 1만원 이상~5만원 이하인 공연 중 공연 예술 단체가 관람료의 20%를 부담하는 공연으로, 공연 예술 단체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한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실적을 보면 장르별, 연령별, 지역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였다. 장르별 참가작품수는 연극이 전체 작품의 57.4%로 가장 많고 무용이 1.3%로 가장 적었으며, 뮤지컬의 경우 참가작품수는 37.5%로 연극보다 적었으나 매월 지원금 상한(40%)에 도달하여 가장 인기있는 장르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수혜인원은 대학생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8.8%로 가장 적었다. 또한 지역별 수혜인원은 서울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0.7%로 가장 적었다.

● 표 3-3-8 ● 월별 수혜인원

(단위 : 명)

월별	지원목표인원	지원인원	달성율(%)
5	5,937	6,647	112%
6	5,937	7,220	121.6%
7	5,937	8,968	151.1%
8	5,937	7,967	134.2%
9	5,938	9,755	164.3%
10	5,938	8,924	150.3%
11	5,938	7,541	127%
12	5,938	9,549	160.8%
계	47,500	66,571	140.1%

● 표 3-3-9 ● 월별 참가작품

(단위 : 개)

월별	참가작품						판매작품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계	
5	70	22	2	1	2	97	91
6	53	34	5	1	1	94	83
7	71	44	7	2	3	127	109
8	64	36	7	0	6	113	103
9	65	25	6	5	5	106	92
10	57	44	5	2	7	115	106
11	76	39	9	0	2	126	115
12	55	46	6	1	5	113	105
계	511	290	47	12	31	891	804

● 표 3-3-10 ● 연령별 수혜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연령대	'11~'05년생 (미취학)	'04~'99년생 (초등학생)	'98~'96년생 (중학생)	'95~'93년생 (고등학생)	'92~'87년생 (대학생 이상)	합계
5-12월	수혜대상	4,650	7,074	2,109	2,408	9,190	25,431
	동반자	7,878	12,546	3,734	3,986	12,996	41,140
	합계	12,528	19,620	5,843	6,394	22,186	66,571

(3) 예술 향유 기반 확충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첫째, 옛 군사시설(기무사 수송대 부지)을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국립극단 연습장, 공연장(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사무공간으로 구성된 예술인 창작 공간 및 일반인 대상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성화 전략을 통해 서계동 열린 문화공간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3월 “국립극단 새봄맞이 축제”를 개최하고 소공연장 “소극장 판”을 실험극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간적·공간적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그 밖에 국립극단 연중 공연으로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극단 연출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국립예술자료원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2010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하여 설립되었으며,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공연예술 현장인 대학로에서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 그림 3-3-2 ●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제공 서비스



2010년 12월 연극·무용 자료 중심의 대학로 분원을 개원하였다. 대학로 분원 설치로 예술자료의 지역 편중성을 극복하고 자료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살려 대학로 분원을 연극·무용분야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자료열람 서비스 외에 영상감상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기증자료 등 전시 공간 확보를 통해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예술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카이브 기능을 정립하였다. 2011년부터 국립예술자료원 소장자료 중 가치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미술 및 희곡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11년 미술 1천여 점, 희곡 800여 편 확대 제공)하였다.

셋째, 예술의전당 공연장을 확대하였다. 먼저 시설이 노후화된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극장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무대공간을 전면 개보수하고 객석을 확대하여, 2013년 초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2층 671석에서 3층 1,030석으로 객석규모가 확대된다. 총 공사비는 250억원이며, CJ 그룹에서 150억원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음악당에 실내악 전문 공연장인 IBK챔버홀을 조성하였다.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은 기 운영중인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의 중간 규모로서, IBK챔버홀 조성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클래식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총 공사비는 80억원이며, IBK 기업은행에서 45억원을 후원하였다.

넷째, 대학로예술극장을 문화공간화 하였다. 1981년 설립된 아르코예술극장과 2009년 아르코시티극장으로 개관한 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2010년 1월 설립되어, 극장 운영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고 공연예술단체에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장르별 공연장 특성화 구현 방향에 따라 대학로예술극장은 연극 중심으로, 아르코예술극장은 무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학로예술극장의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극장을 리모델링하여 극장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낭독공연, 공연연습 등이 가능한 다목적홀을 조성하였으며, 극장 내부 계단을 갤러리로 조성하고, 로비, 객석 및 극장 외관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대학로 지역 관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로에 소재한 극장의 종합적인 공연 정보 제공 및 관객 쉽터 제공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3. 공연예술 단체 및 기관

1)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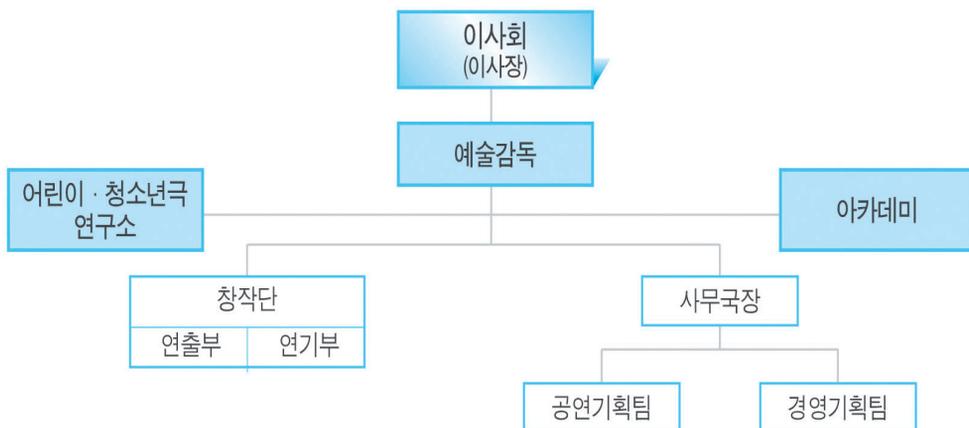
(1) 개관

국립극단은 1950년 1월 신극협의회 설립(국립극장 전속단체)을 시초로,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7월에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 국립극단으로 독립하였다.

국립극단은 손진책 예술감독의 취임 및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의 개관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극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을 위한 연극을 만들어 국민에게 친숙한 극단으로 거듭나고자 우수연극작품 및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작업을 강화하였다

국립극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국 2팀 경영기획팀, 공연기획팀 및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아카데미, 창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예술감독 1명, 직원 7명, 단원 46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3 ● 국립극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tck.or.kr>

2011도 총 예산은 64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18% 증가하였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91%(2010년 예산은 하반기에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반부기 반영된 예산임) 증가한 국고보조금 52억 3,200만원의 지원금과 공연사업 수입금, 협찬금 등 자체수입 12억 6,000만원 이고, 지출예산에는 예술사업 24억 9,617만원, 인건비 23억 1,673만원, 경상사무비 7억 971만원, 퇴직급여충당금 4,021만원이다.

국립극단은 한국연극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역할을 떠맡으며 그에 펼쳐진 삶의 신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내는 감동, 작은 깨달음으로서의 연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자, 공연사업과 어린이청소년극 제작 및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립극단 공연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연극 예술에 대한 관객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연 리허설북 제작 및 관객학교 운영, 전문예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극단이 서계동열린문화공간에 새 터전을 마련하여, 16m×11m 규모의 기본무대를 중심으로, 기본 200석~ 400석까지의 객석 운영이 가능한 <백성희장민호극장> 및 10m×13m 규모의 기본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소극장 판> 공연장과 대연습실 및 소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2011년 국립극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국민 향수권을 증대(25작품 278회 52,816명 관람)하였으며, 출연배우의 공개오디션을 통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11회 1,540명 지원 70명 선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를 설립하여 청소년극 <소년이 그랬다>를 제작, 어린이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와의 연계로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초청하고,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객석점유율 98%)

관객의 연극 이해도를 돕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북(15권)과 공연리허서북(2권), 계간 <연극> (2권) 발간 사업도 진행하였다.

국립극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홍보 및 SNS 등의 홍보 극대화(신문/지면 총 131건, 블로그 월평균 720명 방문 등) 꾀하여 새로운 재단법인 국립극단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2011년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창단공연 <오이디푸스> 공연을 시작으로 총 25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이중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기념으로 제작된 <3월의 눈>과 봄마당축제의 <주인이오셨다>, 그리고 창단공연의 <오이디푸스>는 레퍼터리 작품으로 선정되어 2차례 공연되었다.

● 사진 3-3-1 ●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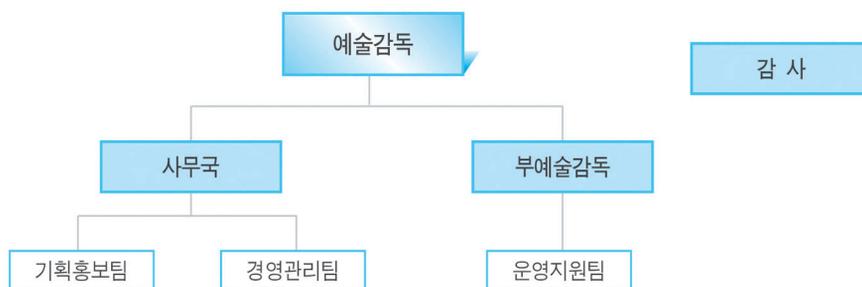
2) 국립발레단

(1) 개관

1962년 창단된 국립발레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 발레단으로 그동안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해적’, ‘신데렐라’ 등 러시아 고전발레를 국내에 처음 소개해왔으며 국가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왕자호동을 제작하는 등 한국적인 창작발레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해외공연과 무용수들의 해외파견을 통해 한국발레를 외국에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고, 한국 발레 대중화에도 앞장서 1997년부터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발레교육을 통한 전문 무용수의 육성을 위해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기획홍보팀, 경영관리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감독 및 사무국장 외 직원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4 ● 국립발레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서예관 4F
 ※ 누리집(홈페이지): www.kballet.org

2011도 총 예산은 10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국고보조금 72억 8,600만원의 지원금과 공연사업 수입금 등 자체수입 29억 2,000만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예술사업 53억 6,576만원, 인건비 32억 1,950만원, 경상사무비 15억 5,744만원, 퇴직급여충당금 6,330만원이다.

2010년도 화제작인 ‘지젤’을 시작으로 ‘스프링 갈라 공연’, 국가브랜드사업으로 제작된 창작발레 ‘왕자호동’,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준비한 가족발레 ‘코펠리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클래식 발레의 명품화를 내걸고 올린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연말 송년발레로 자리 잡은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렸다.

또한 발레 종주국인 이탈리아 산카를로 극장으로부터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한국적 소재의 창작발레 ‘왕자호동’을 올렸다.

199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국립발레단’ 공연은, 2011년에 15년째를 맞이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10여 곳의 도서지역을 찾아가 공익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우수 레퍼토리를 지방 지역민들에게 소개함으로 국립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한 해라고 평가된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2010년 당시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오른 ‘지젤’을 재공연함으로 발레팬들에게 우수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였고,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제작된 순수창작발레 ‘왕자호동’을 수정, 보완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우리의 창작발레를 선보였으며,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코펠리아’라는 작품을 올림으로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발레 레퍼토리를 공연하였다.

2000년 국립발레단 화제작으로 뽑히며, 창작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고전명작의 대우를 받고 있는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을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올림으로써 클래식발레의 명품화를 실현하였다.

그 외 연말 송년발레로 올려지는 ‘호두까기인형’ 공연과 국립오페라단의 송년갈라에 출연함으로 국립 예술단체들 간의 협력증진과 함께 연말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기획하였다.

2011년 발레의 발생지이자 종주국인 이탈리아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에서 우리 순수창작발레 ‘왕자호동’을 공연하여 호평 받음으로 한국발레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며 문화강국 “코리아”의 입지를 굳히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그 외에도 대한지적공사와 함께한 공익사업,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지원사업인

방방곡곡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계사업 ‘발레클래스’를 개설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강좌 사업으로 시설, 기관, 학교, 학원, 기업을 대상으로 ‘발레이야기’ 강의도 진행하며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달음질한 한해였다.

3) 국립오페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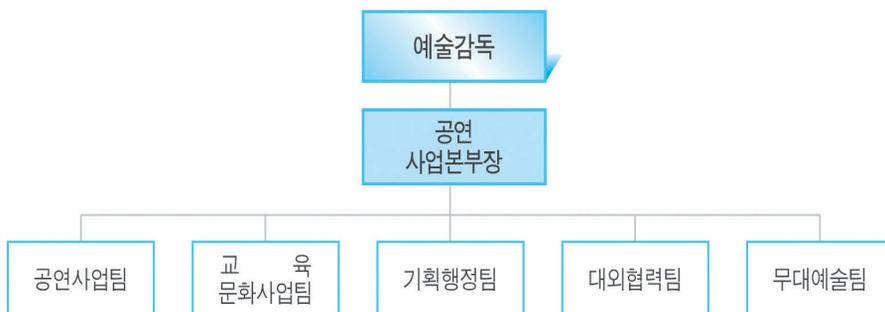
(1) 개관

2012년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오페라단(1962년 창단 / 2000년 재단법인 독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해 오며 국제적 경쟁력의 오페라를 제작하고 고유 레퍼토리 화하여 우리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최고 정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품은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오페라 본고장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화함으로써 오페라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오페라를 제작하여 창조적 예술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의 조직은 공연사업본부 내 기획행정팀, 공연사업팀, 교육문화사업팀, 대외협력팀, 무대예술팀을 두는 1본부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15명, 단원 20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5 ●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 누리집(홈페이지): www.nationalopera.org

2011년도 총 예산은 107억 5,076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8억 9,000만원, 자체수입 28억 6,076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인건비 10억 540만원, 경상운영비 12억 3,236만원, 공연사업비 80억 8,200만원, 협력축진 6억원, 익년도 대관계약금 2억원,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8,000만원, 예비비 2억 3천 100만원이다.

국립오페라단은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앞두고 <VISION2022 오페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를 경영목표로 하여 국립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 총 201회의 공연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예술기관으로서 창작오페라를 제작·공연하여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여 창작오페라 제작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오페라단의 대 국민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객석기부 및 직접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립예술단체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페라 문화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미래의 한국 오페라를 이끌어 갈 성악 인재를 발굴하는 성악콩쿠르, 전액 장학금으로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오페라 인재 전문 맞춤 교육 국립오페라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 단체로서 최초로 전 직원의 연봉제 도입,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조직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효율적 경영화를 이루었다.

● 표 3-3-11 ● 국립오페라단 주요 추진성과

구 분	성 과	주 요 내 용
정기공연	8건/36회	○ 우수 작품의 정기공연을 통해 관객 및 오페라계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국민 문화정서 함양에 기여
지방공연	11건/13회	○ 문화향유권 확대, 오페라 인구 저변 확대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연 제작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기획공연	6건/146회	○ CTO 등 어린이를 위한 특화 오페라 개발, 공연을 통해 인성 교육 기반 구축 ○ 민간오페라단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오페라 페스티벌 개최
창작오페라 개발	2건/6회	○ 우수 창작오페라 발굴 및 전략적 지원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 한국오페라 제작을 위한 창작 환경 조성의 체계화
우수인재 육성	2건/61회	○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예술 전문 인력의 심화 육성 ○ 성악 콩쿨 및 아카데미 교육사업(연중실시)을 통한 오페라 영재 육성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2011년 1월, <투란도트>는 2012년 한중수교 20년을 기념하여 국립오페라단이 중국 국가대극원(NCPA)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첫 공연으로 특히, 성악가 이외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오페라의 모든 출연진에 중국 제작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에서 보기 힘든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무대의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극에 대한 관객의 참여와 호응도 좋아 성공적인 공연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 공연을 계기로 2012년에 국립오페라단은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라보엠’ 공연을 실시하게 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3월, <파우스트>는 김우경, 사무엘 레미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오페라로, 출연자와 작품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과감한 연출선과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무대디자인으로 국내외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아울러, 세계 정상급 출연자의 수준 높은 연기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은 제작진이나 관객 모두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감정과 음악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였다.

4월에는 2010년의 ‘이도메네오’ 공연에 이어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과의 ‘예술명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일환으로 펼쳐진 <시몬 보카네그라>를 무대에 올림으로서 좋은 가수들과 연출, 무대 및 조명, 의상 디자이너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 연출적 완성도가 높은 수준의 공연으로 완성되었다.

5월에 공연된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는 국내에서 처음 공연된 프랑스의 현대 오페라로 좋은 리뷰와 함께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각 배역에 맞는 적절한 출연자가 캐스팅되었다는 평단의 평가와 심플한 무대디자인, 강렬한 조명 등으로 극적인 표현의 연출이 완벽하다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어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언어 표현으로 최고의 감동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 동 작품은 감동적인 소재와 감각적 연출로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9년도에 공연된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을 새롭게 구성하여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탈바꿈하여 재공연을 했다. 특히, 2009년 공연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변화된 무대장치와 소품은 관객의 높은 호응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009년에 이어 연일 매진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임으로서, 뮤지컬 보다 더 재미있는 오페라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

7월에는 국내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라는 대작을 어린이 오페라로 각색한 <지크프리트의 검>으로 우리말 가사 전달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드라마로 변형하여 제작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악가와 지휘자, 오케스트라 등 대부분

출연자들이 젊은 새내기로 구성되어 무대의 신선함을 더 했으며, 작품 제작시간이 짧았고 한국어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고 성실한 작품으로 출연자들의 높은 집중력이 돋보여지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였다. 아울러, 장애아들만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전관 1일 오픈을 추진하여 ‘국립오페라단 어린이 오페라’라는 이름에 맞도록 나눔공연을 이루었다.

10월에는 국립오페라단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와의 공동주최로 지역극장합작 제작 작품인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선보여 국립오페라단의 높은 오페라 제작력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최고 몰입도와 관객의 흡입력을 보여주었다.

12월에는 2011년의 국립오페라단의 공연과 2012년 공연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제공된 〈송년 갈라 콘서트〉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뻐할 최고의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1부는 작품성과 흥행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2011년 국립오페라단 주요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구성하여 국립오페라단이 지나온 한해를 조명하였고, 2부는 2012년에 제작할 작품으로 구성하여 장대함과 깊이 있는 음악이 공존하는 바그너의 작품과 ‘라보엠’, 연말 전 세계에서 자주 공연되는 요한시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를 선정하여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국립오페라단의 비전과 확대된 레퍼토리를 관객에게 선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마을 오페라 잔치〉, 〈찾아가는 국립오페라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오페라 100배 즐기기〉 〈오페라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지방 및 기획공연사업을 통해 천안, 가평, 하동, 문경, 강진 등의 지역과 여주교정시설, 어린이 병동 등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소외 계층을 여러 레퍼토리로 찾아가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의 관객개발 및 전국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페라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모토로 2009년부터 시작한 ‘교실 속 오페라 여행’은 2009년 29회, 2010년 100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초에는 700여 개교의 신청이 들어오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140여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주, 신안, 강원 지역 등 순수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실을 무료로 직접 찾아가 오페라의 재미와 매력을 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적 공연을 접한 학교 현장의 교사 및 학생들의 참여 열의가 뜨겁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어린이 오페라를 개발하여 더욱 더 다양한 공연으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오페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오페라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은 국립오페라단과 민간오페라단이 모두 함께 하는 한국 오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부터는 이 축제로 민간 오페라단의

제작역량을 키우고 오페라의 잠재적 관객 개발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객과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로 2009년부터 시작한 창작 오페라 공모전은 신진 창작자(대본 및 작곡)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창작오페라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공모전은 대본 선정 작업과 우수한 작곡가를 선정하여 한국적인 오페라 창작 및 제작을 확고히 하고 동양적 오페라의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첫 작품으로 〈아랑〉을 선정하여 2010년까지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일본 쇼케이스까지 성사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아랑〉 외에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도시연가〉 등이 있으며, 2011년에도 〈나는 이중섭이다〉, 〈천년의 사랑〉를 발굴하여 매년 창작오페라 발굴에 힘쓰고 있다.

한편, 한국의 오페라를 깊어질 차세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는 ‘국립오페라아카데미’는 매주 독일어 및 이탈리아 원어민 강좌와 보컬양상블, 매월 1회 유명 오페라연출가 및 성악가 등을 초청하는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의 전공생을 대상으로 ‘성악콩쿠르’를 개최하여 국립오페라단이 개최하는 공연 참여 기회 제공과 아카데미 수강 특전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4) 국립예술자료원

(1) 개관

국립예술자료원은 1979년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에 설립된 예술 자료 전문 기관이다.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극·무용 자료 중심의 대학로 분원을 2010년 12월 개원하여 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본원과 대학로 분원 2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이사장 겸 원장 1인(비상임), 이사 11인(비상임),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진과, 사무국장을 필두로 기획사업팀, 정보서비스팀, 운영지원팀의 1사무국, 3팀의 실무 운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으로 2011년 12월 기준 14명이 재직 중이다.

● 그림 3-3-6 ● 국립예술자료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내
 ※ 누리집(홈페이지): www.knaa.or.kr

2011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240백만원, 체육진흥투표권적립금 300백만원, 자체 수입 2천7백만원으로 총 2,56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655백만원, 경상운영비 667백만원, 사업비 1,245백만원이다.

설립 첫 해 기관의 틀을 갖추는 작업에 치중한 것에 비해 2011년도는 본격적으로 전문 예술 자료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의 틀을 갖춘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발간된 예술분야 신간자료를 구비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공연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예술인과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8,994건의 예술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았다. 또한, 11명의 예술인 구술채록을 통하여 예술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특징적인 사업으로 2003년부터 수행된 예술인 구술채록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예술사 구술총서 <예술인·生>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3권에 이어 2011년에는 <박완서>, <장기인> 2편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범국가적인 공동 예술정보저장소인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로 생산되고 있는 국내 각급 예술단체와 예술가의 예술 활동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초동 본원 영상음악실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족한 수장공간을 확보하고 정비하였다. 2010년 12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문을 연 국립예술자료원 분원도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학술연구와 예술 감상을 위해 예술 각 분야의 단행본 1,165권과 비도서 자료 874종, 국내외 예술분야 정기간행물 154종을 구독하고 한국학술정보 등 연구목적의 학술 DB와 NAXOS 등의 음원제공 콘텐츠, 무용·오페라·연극 동영상 DB등 9개의 웹DB를 구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김의경(故이진순 선생 자료), 김혜경(故김경옥 선생 자료) 등 41명의 개인 및 국립오페라단 등 148개의 예술기관으로부터 8,994건의 예술자료들을 기증받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연극 64편과 무용 19편의 공연영상을 제작하였다.

공연과 연계해 다양한 소장자료를 소개하는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와 대학로 분원 전시공간인 열린공간 통(通)을 활용하여 공연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채로운 예술자원을 전시하고 소장자료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이어달리기 12회와 열린공간 통(通) 전시 10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장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강좌를 운영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서초동 예술강좌>와 대학로 분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요예술강좌>,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화 프로그램 <특별연극강좌>가 운영되었다.

2003년부터 진행된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은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예술사 연구의 단절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적 체험과 작품 세계를 집중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분야와 조형, 건축, 사진, 패션 등 시각예술분야 등 다양한 예술장르에 걸쳐 총 225명의 원로예술인의 구술기록을 확보하였다. 2011년도의 사업은 생애사 중심의 영상구술채록으로 김우옥 등 11명의 예술인에 대한 구술채록사업이 진행되었고,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는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생> 2권(박완서, 장기인)을 발간하였다. 또한, 구술채록 과정에서 입수된 예술가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이고 편리하

● 사진 3-3-2 ● 구술채록 자료집 및 총서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http://oralhistory.knaa.or.kr>)도 제공하고 있다.

국립예술자료원 서초동 본원은 예술 전 분야의 각종 원본 자료들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학로 본원은 공연예술 현장과 밀착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과 예술향유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극과 무용 분야의 단행본과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83,940건의 문헌자료와 209,094건의 공연과 전시에서 활용된 영상, 음반, 팸플릿, 포스터, 사진 등을 소장하고 예술 창작, 연구, 교육 사업에 활용할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자도서관시스템을 비롯한 4개의 운영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 관련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1년은 연간 297일을 개관하여 54,031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고, 56,440건의 관외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393명이 유료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기록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를 개설하고 시범 데이터 2개 컬렉션(서울예술단 컬렉션, 육원순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범국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 예술정보 공동 저장시스템으로 예술 지식 정보 서비스의 안정적인 기술 기반을 조성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보 활용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예술디지털 허브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사진 3-3-3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오늘날 문화예술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예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최초로 예술분야 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1차년도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불만족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도에는 교육 과정 기본 계획 수립 시부터 한 단계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예술사구술채록 연구원

양성 과정, ‘공연영상기록 전문가 양성 과정’과 각 과정의 심화과정인 ‘구술채록연구원 공연예술 심화’, ‘구술채록연구원 조형예술 심화’, ‘공연영상기록전문가 매체변환 심화’, ‘예술기록관리전문가_보존 심화’ 과정 등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총 133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 본 교육은 예술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교육을 원하던 많은 예술 경영인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 과정에 대하여 수강생의 77.25%가 만족 이상의 의견을 주었다.

● 사진 3-3-4 ● 국립예술자료원



5) 국립중앙극장

(1) 개관

국립중앙극장은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예술의 진흥을 위해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의 창단과 함께 창설되었다. 1962년에는 국립극단(현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오페라단, 1973년에는 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이 창단되었고 그 해 10월 장충동으로 이전·개관하였다. 1995년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으로 7개 전속단체가 운영되었으며 2000년에는 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이 재단 법인화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극단이 재단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창극단·무용단·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로 재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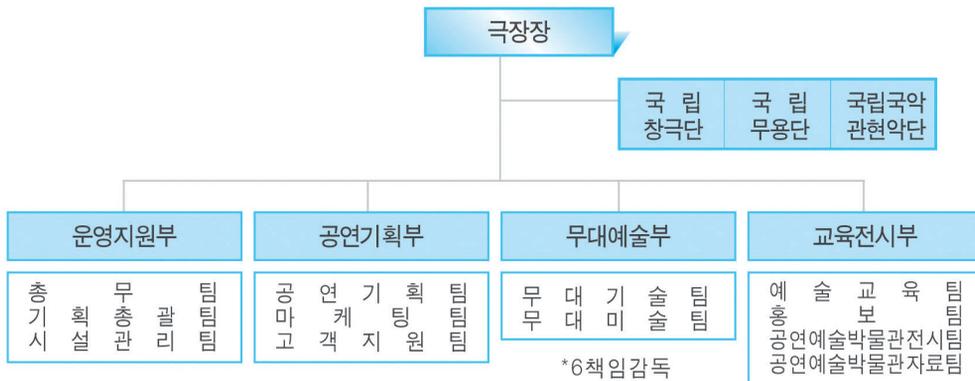
국립중앙극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통해 인사 및 예산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제3기 출범으로 기능위주의 조직개편 및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 책임운영기관 제4기의 출범으로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대비조직·인력의 재정비, 공연기획·마케팅홍보가 강조된 공연중심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대표공연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01년 별오름극장 개관, 2004년

해오름극장 전면 새단장, 2008년 KB청소년하늘극장을 개관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다목적 문화공간 ‘산아래’ 건립, 12월에는 공연예술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보존을 위한 한국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 개관으로 공연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고객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위해 공연안내센터 ‘문화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의 조직은 4부·3개 전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공무원 96명과 전속단원 180명 총 276명이다.

● 그림 3-3-7 ●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홈페이지): www.ntok.go.kr

2011년도 세입예산은 35억 8,200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 8,200만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34억원이고, 세출예산은 293억 3,989만원으로 공연사업비 등 사업비 228억 3,000만원, 인건비 51억 1,463만원, 기본사업비 13억 9,526만원이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립중앙극장은 국내 최초 공연예술박물관을 개관(2009.12.23)하여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동안 공연예술계에서 꾸준히 요구되어온 숙원사업의 성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연장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공연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품격있는 공연장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어린이, 주부 등 다양한 층위의 관객개발 및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은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및 현대화를 위해 국가브랜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제작·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국립창극단 ‘청’, 국립무용단 ‘춤, 춘향’ 등의 국가브랜드 작품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제2기 국가브랜드공연 ‘화선 김홍도’는 손진책 연출, 배삼식 극본으로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가 함께 만든 대형 가무악극으로 2번의 공개오디션과 시연회, 오픈리허설 등 사전 제작 시스템으로 한층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성공적인 초연을 마치고 2011년 7월 성공적으로 초연되었다. 한국적 음악과 드라마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조화롭게 융화된 새로운 무대기법 연출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폐막 공연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재공연 되었다.

아울러 국립중앙극장은 전속단체 공연활성화를 통해 공연예술기관 내실화에 노력하였다.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는 정기·기획공연, 지방, 해외 공연 등 총 78편의 작품을 197회 공연하는 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쳤다. 국립창극단은 ‘창극의 세계화’를 위해 ‘수궁가’를 제작, 독일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의 연출로 2011년 9월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연 하였고, 관객과 평가단으로부터 두루 호평을 받아 2011년 12월 독일의 부퍼탈 오페라 극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창극의 첫 유럽진출과 함께 전통예술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국립무용단은 어린이날 우리의 고전동화와 서양의 동화이야기가 어우러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우리 춤을 개발하여 ‘프린세스 콩쥐’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국립무용단이 보유한 다양한 소품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상설무대를 통해 소개하면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영어로 함께 번역되어 관객들로부터 독특하면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국악관현악 명곡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신작으로 ‘파트 오브 네이처’를 선보였다. 2010년 ‘어부사시사’에 이은 ‘파트 오브 네이처’는 국악관현악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작곡가 정일련이 1년여에 걸쳐 작곡한 획기적인 합주협주곡(Grosso) 형식 대작으로 객석 점유율이 90%(총 관람객수 2,169명)에 이르는 성공적인 공연을 올렸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지원 뿐 아니라 지역초청, 각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지방공연을 확대, 전국 25개 지역 35만 관객에게 국립단체의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국의 지역 관객과 소통하였다. 더불어 전속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단원들의 예술성 및 공연작품의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공연작품의 국내·외 교류 확대, 계층별·연령별 특화된 공연 및 축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극장은 공연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제5회 청소년공연예술제’,

하반기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1년 5월에 개최된 ‘청소년공연예술제’는 한국, 일본과 호주가 함께 참여하여 총7개 작품이 86회 공연되었다. 하반기 개최된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은 해외 8개국(스페인, 태국, 인도, 중국, 체코,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8작품을 비롯 국내외 총30개 작품 96회 공연되었으며, ‘태국의 밤’, ‘한민족 예술가 특별공연’, ‘서울 아트마켓’, 세익스피어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구별되는 국가차원의 공연예술문화교류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밖에도 2011년 5월 ‘문화의 다양성 및 융합’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문화국가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퓨전국악축제 ‘여우樂 페스티벌’을 기획, 국악의 세계화를 화두로 우리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전 세계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국내 정상급 그룹을 한자리에 모아 관객과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립극장 문화체험 ‘팔도관객 프로젝트’를 기획, 지역의 관객들이 국립극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향수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의 소외계층과 노년층,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립극장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공연예술 교양아카데미 ‘어린이 예술학교’, ‘전통무용교실(입춤, 살풀이, 판소리, 태평무)’, ‘무대건축 및 극장체험교실’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청소년, 일반인(청장년, 노년) 대상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교수법을 개발하는 ‘초·중등교사 교육연극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청소년공연 체험프로그램 ‘국립극장 고고고’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초·중·고생 약 6만 명이 관람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및 공연예술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2011년 대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나눔’을 시행,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 및 극장기획공연, 공동주최 및 축제 등 공연·문화예술체험 기회(총 153개 단체, 8,618명)를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토요문화광장(16회 공연, 23,000명 관람)’ 무료공연 개최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전속단체의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속단체 단원이 직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실기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9년 국립중앙극장은 전시실·교육실·수장고 시설을 갖춘 ‘공연예술박물관’을 12월 23일 개관(문화예술계 인사 및 박물관 관계자 등 300명 참석)하였다. 2010년 5월 7일에는 기획전시실에서 국립극장 60주년 기념 ‘6.26전쟁, 공연예술의 기억과 흔적’ 특별전을 개막하며 전관 개관하였으며, 2010년 10월 5일부터 2011년 1월 9일까지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한국과 스페인 인형극의 세계’ 국제 교류전을 개최하여 국립극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28일부터 기획전시 ‘새로운 공간, 무대를 찾아서’를 개최하여 국립극장 소장 50년대부터의 무대디자인을 국내 최초로 개최하며 공연예술 전시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며 위상을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박물관은 2010년부터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분야 희귀자료의 영구적 보존·관리 및 일반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료접근성을 높였으며, 현재 온라인을 통해 3만 8천여 점을 서비스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립극장 자체 생산자료와 기증 자료를 포함 약 19만여 점의 공연예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6) 국립합창단

(1) 개관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 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5월에 창단 되었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에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으로 독립하였다.

합창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국 3팀 경영관리팀, 기획홍보팀, 업무지원팀 및 부지휘자 겸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7명, 단원 50명을 포함하여 총 5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8 ● 국립합창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내 서예관 4층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tionalchorus.or.kr>

2011년도 총 예산은 4,146,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정도 감소하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3,265,000천원, 자체수입 881,000천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인건비 2,182,634천원, 경상운영비 624,266천원, 사업비 1,289,100천원, 예비비 50,000천원이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신춘, 창작, 청소년, 가을, 송년 음악회로 연 5편 5회의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명합창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여 국립합창단과 한국합창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음악계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발굴하여 한국 합창 레퍼토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여러 편의 창작곡을 위촉하여 ‘창작합창축제’를 통해 발표하고, 창작칸타타 ‘라자로의 노래’를 공연하며 이 작품들의 악보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송년음악회에서는 클래식 팬들의 호응에 답하고자 잘 알려진 대작을 연주한다.

한국합창음악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국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대중성과 역량 확대를 위하여 매년 고교합창단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를 실시하며, 합창지휘자양성을 위해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유능한 신인지회자를 발굴·육성하여 국립합창단을 통해 데뷔시키는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를 연간 2회 실시한다.

또한, ‘새로 편곡된 한국가곡과 민요의 밤’은 한국합창작품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작곡가에게 위촉하여 편곡한 한국가곡 및 민요합창 작품들로만 연주하며 작품집을 제작하여 국내시립합창단을 비롯한 합창단 지휘자들에게 배포한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기대에 부응하고 합창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 지역 시·군청과 공동주최 또는 초청공연으로 한국 창작합창곡, 민요, 세계 유명 합창곡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순회 공연한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연주역량을 통한 음악적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 동포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와 문화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사절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유럽 등지의 다양한 국가와 공연을 추진하고자 계획한다.

2011년 사업추진 성과로는 135회 창작합창축제에서 다양한 한국 합창곡을 위촉, 발표하였고, 136회 정기연주회는 신춘음악회로 구 천 지휘자가 엘가의 사랑노래와 베르디, 브람스 등 유명작곡가들의 여성합창곡, 독일 민요 등을 선보였다. 137회는 창작칸타타〈라자로의 노래〉는 이견용 작사, 작곡의 칸타타로 한센병환우를 돌보는데 일생을 바친 이경재 신부의 사랑의 실천이야기를 발표했다. 138회는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상훈 지휘자의 첫 정기연주회로 멘델스존의 대작 〈엘리아〉를 선보여, 합창음악 애호가들에게 정통합창음악의 웅장함을

선보였고, <새로 편곡된 한국가곡과 민요의 밤>에서 연주된 작품들은 한국합창작품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작품집 및 공연실황CD를 제작하여 국내시립합창단을 비롯한 합창단 지휘자들, 관객들에게 배포하였다. 14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로 전곡을 국내초연으로 연주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향수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합창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계하고자 지휘자 양성을 위하여 지휘자 데뷔 콘서트 2회와 청소년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체계적인 음악교육 및 미래관객 개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독일 자르뮤직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크리스토퍼 포펜의 지휘로 독일라디오필하모니와 협연하고,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인들과 재외교민을 위한 연주회로 큰 호응을 얻었다.

7) 국립현대무용단

(1) 개관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8월에 창단한 재단법인으로 현대무용작품 개발과 창작의 핵심인 안무가 및 무용수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현대무용예술의 발전을 선도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현대무용공연 관람을 통하여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조직은 1사무국과 1작품제작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기획팀과 경영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7명, 제작단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립 첫해인 2010년도 총 예산은 17억 5,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7억 5,9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인건비 1억 7,504만원, 경상운영비 8억 2,505만원, 공연사업비 7억 5,891만원이다.

2011년도 총 예산은 25억 4,8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 5,800만원 및 자체수입금 1억 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5%이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4억 8,567만원, 경상운영비 4억 7,872만원, 공연사업비 15억 8,361만원이다.

국립현대무용단 재단법인 출범 첫해인 2010년은 신설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법인 설립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해였다.

● 그림 3-3-9 ●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3층
 ※ 누리집(홈페이지): www.kncdc.kr

법인 설립을 기념하여 현대무용계 및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설립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3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하였다.

단원제가 아닌 프로젝트별 무용수 선발·운영을 위해 창단공연 출연 무용수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연습을 시작하여 창단공연 준비에 돌입하였다. 또한 현대무용계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안무가 베이스캠프 공연의 안무가를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오디션을 거쳐 출연 무용수를 선발하였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립현대무용단은 기존 단체들이 운영 중인 단원제가 아닌 프로젝트별 출연 무용수를 선발하는 형식으로 창단된 단체로서, 2011년 이후 안무가베이스캠프, 신작공연, 해외안무가초청공연 출연 무용수 등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많은 무용수들에게 국립단체에서의 공연 경험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표 3-3-12 ● 2011년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 오디션 성과

구 분	주 요 내 용
창단공연	○ 64명 응시, 1차, 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15명 선발 ○ 이후 3차 남자무용수 추가 오디션 13명 응시, 8명 선발 ○ 총 23명 무용수 선발
안무가 베이스캠프	○ 6인 안무가의 6개 작품에 총 114명 응시, 최종 23명 선발
신작공연	○ 77명 응시, 최종 25명 선발
해외안무가초청공연	○ 86명 응시, 1차, 2차 오디션을 거쳐 16명 선발
기획공연	○ 20명 응시, 최종 10명 선발

현대무용 창작의 핵심인 안무가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신작 개발을 목적으로 안무가 베이스캠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6명의 안무가를 초청하여 6작품을 개발하였으며, 안무가로서 창작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작품 제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 창작에 집중하여 우수한 작품을 개발해내는데 주력하였다.

창단 이후 첫 번째 신작공연으로 작품 〈수상한 파라다이스〉를 선보였고 총 3회 공연에 1,625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92.4%의 유료 객석점유율을 보였다. 본 공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현대무용을 관람하였으며, 현대무용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해외 유명 안무가를 초청해 국내 무용수와 제작진과의 협업을 하는 〈해외안무가초청공연〉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무용수들에게 해외의 현대무용 작품 트렌드 및 수준을 경험하고, 세계 수준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국내 무용수들의 우수한 실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전설로 불리는 안무가 ‘조엘 부비에’를 초청해 신작 〈왓 어바웃 러브〉를 공연하여 국내 안무가 및 무용가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다.

또한, 기획공연 〈말들의 눈에는 피가〉를 소극장 무대에 올림으로써, 현대무용을 관객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다. 3일 3회 공연에 유료 관객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으며 현대무용의 소극장용 레퍼토리 개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창단공연 레퍼토리인 작품 〈블랙박스〉로 경기도 화성, 경북 안동, 충남 서산 등 지역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현대무용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관객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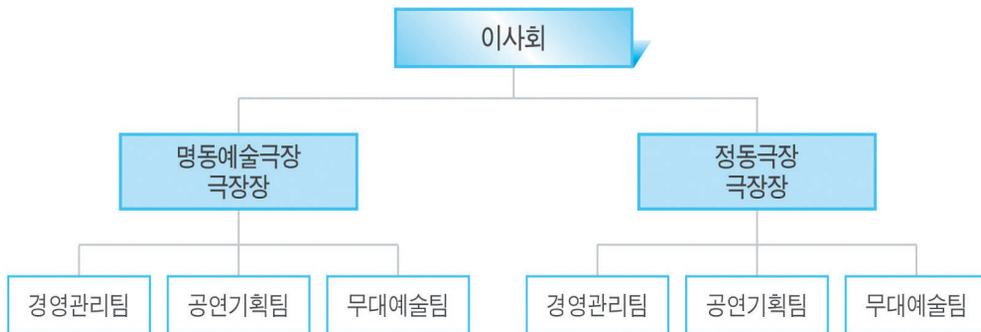
8)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1) 개관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은 2008년 6월 통합운영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여 특성화된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은 구 명동국립극장 건물을 1975년 11월에 민간에 매각한 이후 30년 만에 복원된 역사적인 극장이다. 해방 이후 문화예술의 산실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에서 2009년 6월 다시 개관하였다. 정동극장은 1908년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으로 문을 열었던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의 복원이념을 담고 1995년 6월 국립중앙극장 분관체제로 설립되었고, 199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명동 · 정동극장은 각 극장의 관리운영 및 공연예술 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문화예술의 국내 · 외 교류사업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의 조직은 명동예술극장과 정동극장 2극장장 책임운영체로 운영되며, 각 극장별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무대예술팀으로 2극장장 6팀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44명(2극장장 포함)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10 ● 명동 · 정동극장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명동예술극장), 서울시 중구 정동길 43(정동극장)
 ※ 누리집(홈페이지): www.mdtheater.or.kr(명동예술극장), www.chongdong.com(정동극장)

2011년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총예산은 150억 34백만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금액은 47억 2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3%이다. 지출예산은 운영비 37.6%, 사업비 55.0%, 차기이월금 6.8%, 예비비 0.6%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3-13 ●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2011	국고보조금	7,381,526	법인운영	5,652,210
	관광진흥개발기금	2,450,000	-인건비	2,427,514
	지방비(경주시)	500,000	-경상운영비	3,224,696
	공연사업수입	2,999,827	예비비	98,402
	부대사업수입	439,297	공연사업	4,726,153
	기타수입	230,924	경주브랜드공연사업	2,785,341
	전년이월금	1,032,186	보조금지원해외공연	250,000
			예술인턴사업	303,526
			전통공연 해외홍보	200,000
			차기이월금	1,018,128
		합 계	15,033,760	합 계

(2) 명동예술극장의 주요 추진성과

개관 3년차로 접어든 명동예술극장은 연극전문제작극장으로서 공연제작 및 운영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여 작품완성도를 높이고, 공공극장으로서 국민들이 생활 속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생활예술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1년 공연사업은 독자제작공연 5편, 공동제작공연과 초청공연 각 1편, (재)국립극단 대관공연 등 총 10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독자제작공연 2작품의 지방공연을 4개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개관 이후 고전작품을 중심으로 세계 연극계의 고민과 흐름을 알 수 있는 현대 신작 연극을 함께 선보여온 명동예술극장은 2011년에도 <동주양>, <갈매기>, <우어파우스트> 등 고전작품과 현대신작 <예술하는 습관>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우어파우스트> 작품은 평단과 관객 양쪽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아 ‘한국연극 베스트 7’, ‘대한민국 연극대상 남자연기상’, ‘동아연극상 남자연기상’ 등 주요상을 수상하였고 성공적인 관객동원으로 동아일보 2011 연극부문 최고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극의 대중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관객들이 관심과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던 명동예술극장은 매년 12월, 보다 폭넓은 관객층을 아우를 수 있는 겨울레퍼토리를 선보이면서 관객의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2011년에도 겨울레퍼토리로 <아마

데우스)를 선보였고, 이외에도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을 초청, 여름레퍼토리로 새롭게 선보이면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학부모까지 관객층을 확장하였다. 또한 <우어파우스트>는 안산에서, <돈키호테>는 칠곡, 사천, 장흥에서 지방초청공연을 가짐으로써 보다 많은 관객들과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관객들의 완성도 높은 연극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극장으로서 명동예술극장은 연극 제작 및 공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서 극장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온 교육프로그램(명동연극교실, 명동배우교실)을 2011년 하반기부터 생활예술프로그램으로 확장,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생활 속 예술-명레방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참여와 보편적 만족을 목표로하는 강연형 프로그램(명동연극교실, 15분강의, 명동시네마)과 연극과 극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보다 깊은 이해와 만족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아마추어배우교실, 백스테이지 투어)의 균형을 맞춰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이들이 연극을 보다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 대상 ‘객석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 관람료지원프로그램 ‘푸른티켓’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 표 3-3-14 ● 명동예술극장 관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자체제작공연	6	132	40,856	70.9%	5	116	39,248	76.7%
공동제작공연	5	38	13,037	79.8%	2	34	9,923	66.8%
생활예술사업	4	14	4,488	72.9%	4	17	5,995	116.0%
기 타	3	8	5,651	90.6%	24	24	4,738	86.4%
대관사업					2	69	20,163	73.2%
계	29	188	64,032	73.9%	37	260	80,067	77.1%

※ 기타 : 2010년 - 지방, 해외공연 및 거리예술무대, 2011년 - 지방공연 및 백스테이지투어, 로비공연

(3) 정동극장의 주요 추진성과

정동극장의 상설공연 ‘미소(美笑, MISO)’는 고대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0년 4월부터는 1일 2회로 증설하여 공연하고 있다. 2011년 정동극장은 상설공연을 위한 전용극장으로의 탈바꿈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7%가 증가한 106,596명 관객이 관람하였다. 2011년도는 국내외 시장별 집중화 및 관광특성화 전략에 의해 국내시장(전년대비 25.5% 증가) 및 중국시장(전년대비 39.9% 증가)의 확대 결과를 달성하면서 전용공연장으로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정동극장 고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젊은 예술가의 정동나들이’, ‘거장의 정동나들이’, ‘명사들의 정동나들이’, ‘근대와 현대를 이끈 예술가전’ 등 기획공연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방방곡곡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소외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예술문화를 전수하였다. 또한, ‘가브리엘의 집’, ‘양평창인원’, ‘구립서대문노인요양센터’ 등을 찾아 예술단원과 직원들의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무료 공연 및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였다. 더불어 중앙자활센터, 서울시 여성정책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객석나눔의 취지를 바탕으로 문화 소외인들에게 ‘미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소외계층 1,273명(전년대비 91.4% 증가)을 초대하였다.

정동극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초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공연 개발이라는 새로운 미션에 맞춰 경주 브랜드 공연사업을 추진하여, 7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장에서 ‘미소2_신국의 땅, 신라’를 초연하였다.

● 표 3-3-15 ● 정동극장 관객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공연 회수	관람객수 (명)	객석 점유율
상설공연 ‘미소’	312	65,613	75.1%	549	85,439	55.6%	615	106,596	61.9%
외주공연	49	11,609	-	35	14,693	-	20	16,264	-
해외공연	28	20,395	-	24	32,930	-	30	10,693	-
공익공연	36	12,231	-	9	3,080	-	22	6,346	-
기 타	26	6,704	-	25	5,812	-	22	4,569	-
계	451	116,552	-	642	141,954	-	709	144,468	-

* 기타 : 자체 기획공연, 교육공연(문화특활) 등

● 표 3-3-16 ●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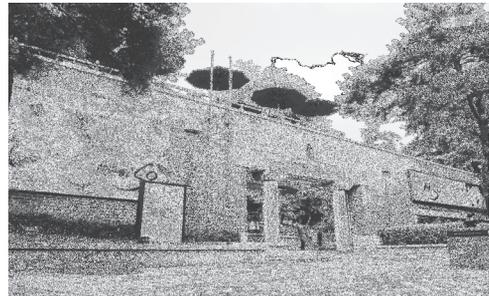
구분	2011년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상설공연 '미소2'	149	26,757	37.9%
외주공연	3	3,150	-
공익공연	59	24,867	-
기 타	3	607	-
계	214	55,381	-

※ 기타 : 자체 기획공연, 교육공연(문화특활) 등

● 사진 3-3-5 ● 명동예술극장 ·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9) 서울예술단

(1) 개관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 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공연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한 한국적 창작음악극 레퍼토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제작시스템 개발 및 공연예술 인재양성, 새로운 관객층 개발 등 한국 공연예술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조직은 예술감독실 1개 실과 공연기획팀, 제작지원팀, 경영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직원 13명, 단원 53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11 ● 서울예술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내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pac.or.kr>

2011년도 총 예산은 4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 감소하였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0억 1,900만원의 지원금과 자체수입 19억 4,100만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사업비 17억 1,300만원, 인건비 25억 600만원, 경상비 7억 4,100만원이다.

1987년 ‘새불’을 시작으로 ‘뜬쇠’ ‘청산별곡’, ‘바리’, ‘고려의 아침’, ‘바람의 나라’ 등 우리의 한국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무대화하여 관객들에게 한국적 감성을 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공공예술단체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한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또한 소외계층 대상 특별강습회 등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더 많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수혜를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성과

한국을 대표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서울예술단 대표의 기 제작된 작품 중 고구려 역사를 소재로 한 ‘바람의 나라’를 업그레이드. 가무극 ‘바람의 나라(호동)’은 2년간의 단계별 작품 제작으로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레퍼토리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연말 가족음악극 ‘크리스마스캐롤’은 2003년 12월 초연 이후 서울공연 및 지방공연을 통해 꾸준하게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작품이며, 올해 울산, 동해지역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말가족프로그램으로서 다시 한 번 대표 레퍼토리를 확인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실시된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민들에게 공연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예술단은 세계 춤 축제의 중심을 지향하는 해양 춤 축제인 부산국제무용제 참가 및 거창국제연극제 폐막공연으로 ‘청 이야기’가 초청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닐버벌 퍼포먼스 ‘비트’는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나주 영산강 가을축제에 초청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늘리는 등 공공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10) 예술경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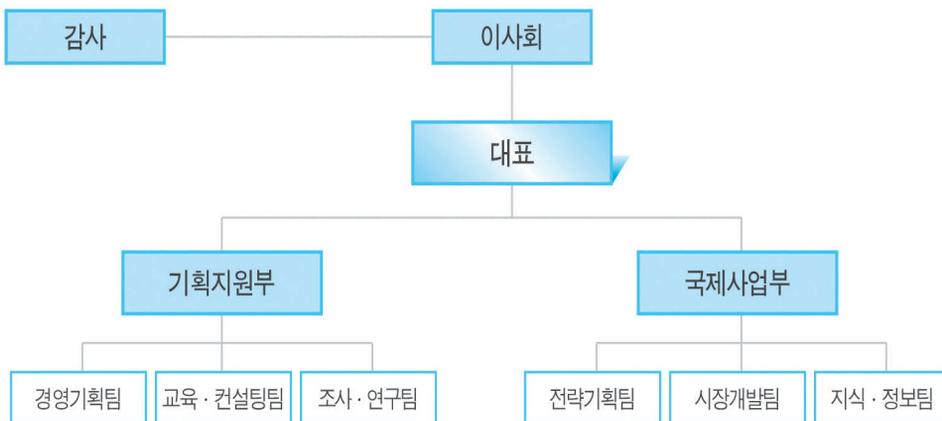
(1) 개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며, 2006년 1월 12일 설립 이래 한국 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예술유통의 활성화,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 매개지원 사업 등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사장 1인(비상임), 대표(상임) 1인, 이사 11인(비상임9·당연직2),

● 그림 3-3-12 ●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2부 7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기획지원부와 국제사업부로 나누어지며 경영기획파트, 인력양성파트, 조사·컨설팅 파트, 평가·연구파트, 전략기획파트, 시장개발파트, 지식·정보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 ‘서울아트마켓(PAMS)’을 기반으로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장개발 및 맞춤형 지원을 주관한다. 유럽, 북미, 중남미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권역별 주요 공연예술 시장을 발굴하여 공연예술 작품의 해외진출 매개지원을 수행하며 특히 현지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이 적극 선정·발굴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교섭성과가 매우 높고, 해외시장에서 후속적인 교류 및 투어 등 교섭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중장기 플랜의 공연예술 글로벌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연예술 현장의 국제교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공연예술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영국 비지팅아츠(Visiting Arts), 미국 국립공연네트워크(NPN,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댄스 인포 핀란드(Dance info), 유럽월드뮤직축제포럼(EFWMF), 호주(Australasian World Music Expo), 아르헨티나 코르도바공연예술마켓(Mercado de las Artes Escénicas Córdoba) 등과 M.O.U를 체결하였다.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활성화 및 예술경영 컨설팅을 주관한다. 예술경영 컨설팅은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설립에서부터 법률, 세무·회계, 재원조성,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사회적기업, 저작권·계약, 국제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2011년 총 881건의 상시 및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예술기관(단체)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배치지원과 예술경영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한다. 예술현장에서 취약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의 인력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예술현장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이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1년 19개 교육과정 개설 및 1,099명의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연예술분야 통계 및 미술시

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연·전통예술 행사, 시각예술분야사업,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평가 및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정책 기반의 환류를 조성하였다.

국내 유일의 예술경영 전문 웹진 weekly@예술경영,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식정보 온라인 플랫폼(더아프로 the Apro)를 기획·운영하며 국·영문 뉴스레터 기획·발송 및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술현장 및 정책적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8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 ‘서울아트마켓(PAMS)’을 기반으로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장개발 및 맞춤 지원에 힘써 왔다. 유럽, 북미, 중남미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권역별 주요 공연예술 시장을 발굴하여 공연작품의 해외진출 매개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이 적극 선정·발굴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해외진출 교섭성과가 매우 높고, 해외시장에서 후속적인 교류 및 투어 등 교섭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표 3-3-17 ● 서울아트마켓(PAMS)

년도	서울아트마켓 공식 선정작품 (팜스 초이스) 선정 작품수					서울아트마켓 공식 선정작품 (팜스 초이스) 연도별 해외진출 성과	
	연극	무용	음악	복합	총계	진출 작품 수	해외 진출 건수
2005	5	2	4	2	13	10	14
2006	9	12	4	4	29	26	86
2007	4	8	3	3	18	34	78
2008	4	5	3	4	16	28	106
2009	4	6	3	2	15	29	110
2010	2	4	4	3	13	28	116
2011	4	4	4	1	13	155	510
누 계	32	41	25	19	117		

또한 해외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중장기 플랜의 공연예술 글로벌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연예술 현장의 국제교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활성화

및 예술경영 컨설팅을 주관하고 있다. 예술경영 컨설팅은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설립에서부터 법률, 세무·회계, 자원조성,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사회적기업, 저작권·계약, 국제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근 6년간 총 2,590건의 상시 및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표 3-3-18 ●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사업

연도	수시 컨설팅 (온라인, 전화 등)	전략 컨설팅 (지역, 기관연계형 컨설팅 등)	합계
2006	53	14	67
2007	101	15	116
2008	152	101	253
2009	327	110	437
2010	611	225	836
2011	475	406	881
합 계	1,719	871	2,590

예술기관(단체)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 인력 배치지원과 예술경영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예술현장에서 취약한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의 인력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최근 6년간 총 389명 배치 및 양성)하고 예술현장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이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근 5년간 97개 교육과정 개설 및 5,914명의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대상 조사결과, 예술경영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률은 90.5%에 이르며 지속적인 수요는 93.1%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3-19 ● 예술기관(단체)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과정수	5개	16개	29개	28개	19개
수강자수	375	706	1,802	1,932	1,099

또한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 제작자 및 공공 문화외교 실행자를 대상으로 전통예술의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류 아카데미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연예술분야 통계 및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연·전통예술사업, 시각예술분야사업, 정부시상지원 공연예술경연대회 평가 및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정책 기반의 환류를 조성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예술경영 전문 웹진weekly@예술경영,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식정보 온라인 플랫폼(디아프로 the Apro),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디아트로 the Artro)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국·영문 뉴스레터 기획·발송 및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11) 예술의전당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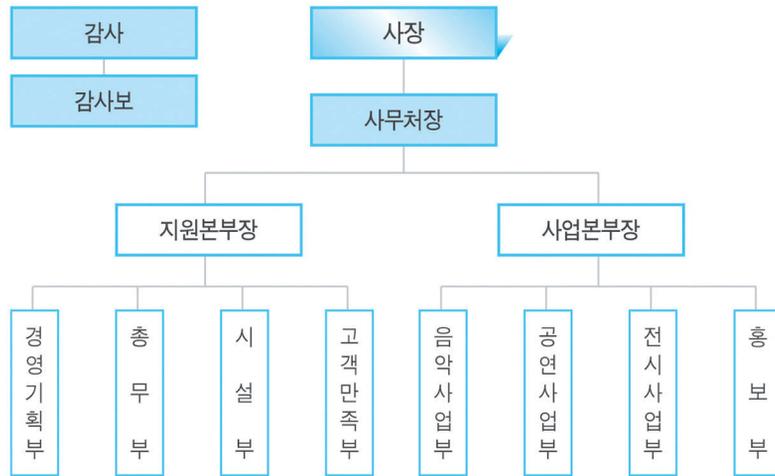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7년 재단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음악당과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993년 오페라 하우스 등 전관 개관을 맞으며 국내 최대의 복합 예술공간이자 최초의 장르별 전문공연장으로 탄생하였다. 1982년 종합문화센터를 구상한 이래 10년이 넘는 역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예술의전당은 현재 오페라하우스에 위치한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과 음악당에 위치한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등 총 5개 극장과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등 3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고 2010년 관람객 3천5백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예술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이사장 1인(비상임), 사장 1인, 사무처장 1인, 이사 11인(비상임),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2본부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본부는 경영기획부, 총무부, 시설부, 고객만족부를 총괄하고, 사업본부는 음악사업부, 공연사업부, 전시사업부, 홍보부를 총괄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총 정원 104명으로, 사장 1명, 사무처장 1명, 1급 1명, 2급 7명, 3급 15명, 4급 35명, 5급 26명, 6급 18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97명이 재직하고 있다.

● 그림 3-3-13 ● 예술의전당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 누리집(홈페이지): www.sac.or.kr

예술의전당 2011년도 예산은 7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금이 565.5억원으로 예산상 재정자립률은 79.7%이다. 수입예산 중 예술사업(대관, 부대사업 포함)수입은 286억원으로 40.4%를 차지하며, 지출예산 중 예술사업비(대관, 부대사업 포함)는 123억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 표 3-3-20 ● 예술의전당 예산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 국고보조금	14,444,000	○ 예술사업비	5,732,427
○ 예술사업수입	8,928,252	- 공연사업	3,304,985
- 공연사업	5,105,522	- 전시사업	872,534
- 전시사업	1,042,780	- 교육사업	1,554,908
- 교육사업	2,779,950	○ 부대사업	5,840,097
○ 부대사업	11,471,256	- 부대사업	4,954,797
- 부대사업	8,734,056	- 마케팅사업	885,300
- 마케팅사업	2,737,200	○ 관리운영비	2,849,975
○ 대관사업	8,249,201	○ 대관사업비	722,374
○ 임대사업수입	2,164,800	○ 경상운영비	9,674,568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 기타수입	942,491	- 인건비	7,571,231
- 이자수입	500,000	- 경상사무비	2,103,337
- 후원금수입	250,000	○ 공간유지비	40,300,430
- 기타수입	192,491	- 시설유지비	11,071,430
○ 이월자금	3,000,000	- 시설개보수비	29,229,000
○ 기부금수입	10,500,000	○ 예비비	880,129
○ 차입금	11,300,000	○ 차입금상환	5,000,000
합 계	71,000,000	합 계	71,000,000

예술의전당 용지면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4,940평, 국립국악원 12,643평을 포함한 70,597평이고 건축면적은 주차장 6,531평을 포함한 36,406평이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예술공간으로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이 있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챔버홀이 있는 음악당, 시각예술을 위한 공간인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그리고 각종 야외 행사가 가능한 야외공연장, 휴식을 위한 공간인 문화광장 및 옥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조성된 비타민 스테이션은 매표, 종합안내, 미팅포인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표 3-3-21 ●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공간내용	규 모		비 고
오페라하우스 (13,162평)	오페라극장 토월극장(리모델링중) 자유소극장	2,305석 1,000석 350석	공연예술공간 -오페라,발레,무용,연극 등
음악당 (5,930평)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IBK챔버홀	2,523석 354석 600석	관현악, 독주, 실내악 등
한가람미술관 (4,677평)	전 시 실 강의실기실	7실 4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서울서예박물관 (2,677평)	전 시 실 강의실기실	2개층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한가람디자인미술관 (3,545평)	전 시 실 강의실기실 국립예술자료원	3실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문화광장 및 옥외 공간 (약 6,767평)	음악광장, 미술광장, 계단광장 세계음악분수, 신세계 야외무대 등		각종 야외 옥외 행사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국내 최초의 장르별 전문공연장으로 탄생된 예술의전당은 극장 공간관리 차원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극장 주도의 공연기획과 제작시대를 열었다. 관객의 기호와 기대에 책임지고 부응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1988년 ‘음악당’ 개관과 1993년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였으며, 2013년 개관 25주년을 맞이한다.

예술의전당은 2010년에 처음 선보인 대학오페라 페스티벌의 두 번째 시즌으로 ‘사랑의 묘약’, ‘박쥐’, ‘호프만의 이야기’(추계예술대, 단국대, 경희대)를 선보였으며, 2008년 한·일 양국의 주요 연극상을 휩쓴 ‘야끼니꾸 드래곤’을 토월극장 무대에서 재공연하여 큰 감동을 선사했다. 명품 연극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안중근의 삶을 그린 ‘나는 너다’와 배우 손숙이 1인 15역을 하는 ‘설리 발렌타인’도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2011년 새롭게 기획한 ‘싱어송라이터 시리즈’ 첫 무대로 박선주의 소극장 공연이 있었으며, 새로 조성된 야외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료 공연을 성황리에 선보였다. 또한 2011년 10월 개관한 챔버홀에서는 개관기념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인기 브랜드가 된 ‘토요 콘서트’, ‘토크 앤 콘서트’를 비롯하여 ‘11시 콘서트’, ‘청소년음악회’, ‘가족음악축제’, ‘3B 시리즈’, ‘SAC 아티스트’, ‘미술과 놀이전’ 등 교육성과 대중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문화예술과 국민의 삶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활동무대를 제공하였으며,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전’, ‘미술과 놀이전’, ‘오르세미술관전’, ‘스키타이 황금문명전’, ‘창암 이삼만전’, ‘걸레스님 증광전’ 등 의미있는 기획 전시는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예술의전당 상주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작품수와 공연일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국가브랜드 창출에 일조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미래고객 개발을 위해 공연·전시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음악, 미술, 서예 등 예술전반에 대한 영재 육성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의 예술의전당 ‘아카데미’는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예술의전당 교육사업 노하우가 어우러져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매년 7천여 명의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생활예술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 표 3-3-22 ●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07-2011)

		공연	전시	행사
2007년	행사내역	28건 259회	15건 527일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11건 191회 ○ 음 악 당 : 17건 68회	○ 미술관 : 10건 400일 ○ 서예관 : 5건 127일	
2008년	행사내역	21건 143회	7건 239일	1건 23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5건 75회 ○ 음 악 당 : 16건 68회	○ 미술관 : 5건 197일 ○ 서예관 : 2건 42일	○ 옥외 : 1건 23회
2009년	행사내역	22건 144회	18건 726일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7건 77회 ○ 음 악 당 : 15건 67회	○ 미술관 : 13건 450일 ○ 서예관 : 5건 276일	○ 옥외 : 14건 35회
2010년	행사내역	22건 152회	15건 938일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5건 64회 ○ 음 악 당 : 17건 88회	○ 미술관 : 10건 776일 ○ 서예관 : 5건 162일	○ 옥외 : 2건 16회
2011년	행사내역	26건 230회	19건 544일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 9건 94회 ○ 음 악 당 : 17건 136회	○ 미술관 : 13건 414일 ○ 서예관 : 6건 130일	○ 옥외 : 6건 10회

* 기획행사는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행사와 공동주최 행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미술관전시 내역은 한가람미술관과 디자인 미술관 전시행사를 합친 수치임.

1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 개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1985년 3월에 창단 되었고, 1987년 7월 국립극장 전속교향악단 약정, 1989년 3월 (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설립, 2000년 5월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약정체결, 2001년 3월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여 연간 10회의 자체 연주회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전담하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은 사무국장 1국, 3팀(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팀) 및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9명, 단원 100명을 포함하여 총 1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14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내 서예관4층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oreansymphony.com>

2011년도 총 예산은 38억 9,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정도 감소하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22억 7,300만원, 자체수입 16억 1,850만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공연사업비 21억 2,687만원, 인건비 10억 5,058만원, 경상운영비 6억 906만원, 이월금 1억497만원이다.

정기연주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 수준 높은 연주회 개최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 전담과 문화 나눔을 통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2) 주요 공연 및 추진 성과

2011년은 6회의 정기연주회를 하였다. 172회 새로 취임한 최희준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연주, 173회는 피아노 볼프강 만츠, 174회는 바이올린 김남운, 175회는 첼로 라슬로 페뇌, 176회는 미켈레 카롤리의 지휘와 피아노의 아비람 라이케르트와의 협연, 177회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소프라노 김은주, 메조소프라노 양송이, 바리톤 박기천, 바리톤 정록기 및 국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진행하였다.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으로서 2월 10일 11시 콘서트를 시작으로 예술의전당 대표적 기획공연인 11시 콘서트 8회 연주와 서울 및 지방의 오케스트라의 축제인 교향악 축제, 8월에 야외음악회, 여름실내악, 가족음악회, 9월 회원음악회 등 기획공연을 전담하며 쌓아온 연주력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총 14회의 연주를 하였다.

국립예술단체 전담 오케스트라로서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우선 수행하고, 원활한 협력체제를 통해 국립단체 공연의 성공과 예술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은 국립발레단의 공연 23회 연주(지젤 5회, 신년갈라 1회, 왕자호동 3회, 백조의호수 1회, 호두까기인형 13회)와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19회 연주(파우스트 4회, 카르멜회 수녀들 4회, 사랑의묘약

4회, 가면무도회 4회, 갈라콘서트 3회) 국립합창단의 공연 1회 연주(라자로의 노래) 등 총 43회의 국립단체 공연을 위해 연주를 하였다.

1월 스타팅 심포니, 히사이시조 내한 공연, 서산신년음악회, 3월 안산 신춘음악회, 4월 안젤리나 게오르규 연주, 5월 서울국제음악제, 7월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동아 청소년음악회, 8월 협주곡의 밤, 성남 마티네콘서트, 대한민국 관악제, 9월 조수미 초청연주회, 10월 정동교회 초청연주, 향기로운 음악회, 일산 심포니 시리즈 등 총 20회의 기획연주를 진행하였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을 통해, 지방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관객에게 제공되었던 교향악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총 8회, 교향악 5회 - 논산, 평창, 제천, 예산, 곡성, 실내악 3회 - 장성, 완도, 영암).

2011년에는 총 91회의 연주회가 시행되었다. 이 중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 국립발레, 국립합창)의 협연이 43회이며, 자체기획(정기6회, 기획1회) 7회, 방방곡곡 사업을 포함 외부기획 연주 28회로 시행되었다.

2011년 주목할 만한 점은 상임지휘자 최희준의 취임과 함께 정기연주회 유료 판매율 증가와 함께 객석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정기연주회의 평균 관객이 1,700명으로 다양한 관객층 개발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기획력이 보강되었다.

정기연주회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본 공연 8회와 연계사업 3회를 통하여 지방공연문화 활성화에 함께하였다.

본 공연 8회 중 5회 공연을 매진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계사업은 작은 규모의 실내악 팀을 구성하여 노인복지관, 완도의 초등학교, 충남 논산의 보육원등을 방문하여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감상하는 작은 음악교실을 열기도 하였다.

국립예술단체와의 협연은 총 43회의 연주를 시행하며 명실 공히 국내 전천후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굳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기도 하였다. 1월 내한공연을 세계적인 팝가수 스타팅의 공연을 통하여 클래식 음악 뿐 아니라 대중음악계에서도 코리아심포니의 연주력을 인정받았으며, 영화음악 작곡가인 일본의 '히사이 시조'의 내한공연, 세계최고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조수미' 와 같은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전담 연주도 꾸준히 도맡아 하였다.

13) 한국공연예술센터

(1) 개관

한국공연예술센터는 1981년 개관한 아르코예술극장과 2009년 개관한 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대학로공연예술센터로 설립된 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7월 전문예술법인, 2011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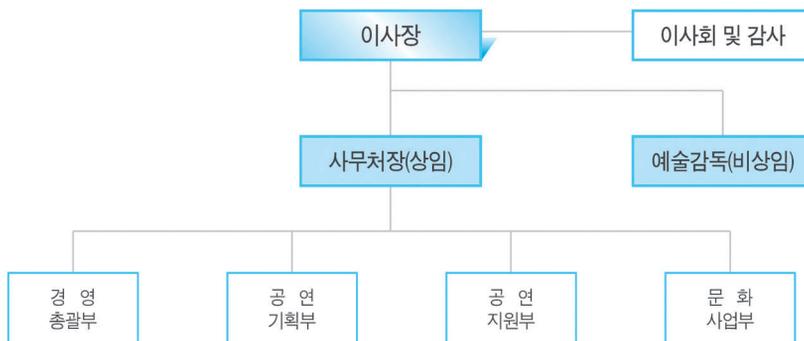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창의적 문화공간 운영을 통한 동시대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미션으로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인 발굴, 새개념 공연예술작품육성, 주제별 공연 기획시스템 운영, 지속가능한 우수공연 활성화,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의 5대 중점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무용중심으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연극중심으로 운영하여 장르별 공연장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대 중점 목표를 바탕으로 공연 프로그램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을 지양하면서 타 극장들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대관료 책정은 물론 티켓발권 시스템, 홍보·마케팅 지원, 공연장 서비스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의 작품 창작 여건을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마로니에 여름축제를 통해 대학로 지역 활성화 노력 등 공연예술센터로서 다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조직은 경영총괄부, 공연기획부, 공연지원부, 문화사업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5명(이사장 포함)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3-3-15 ● 한국공연예술센터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 누리집(홈페이지): www.hanpac.or.kr

한국공연예술센터 2011년 예산은 총 6,54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4,303백만원이며 연수단원운영 지원 등 기타보조금 1,280백만원, 자체수입금액 966백만원으로 운영하였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성과

5대 중점 목표를 바탕으로, 공연사업을 제작, 기획, 대관 공연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작공연은 5대 중점 목표 중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였다,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 발굴’ <2011 봄 작가, 겨울무대>, <2010 봄 작가, 겨울무대 우수작 재공연>, <한팩 라이징스타> 3건, ‘새개념 공연예술 작품 육성’은 <한팩 하이브리드>, <한팩 믹스드애플레이> 2건, ‘주제별 공연 작품 육성’은 <한팩 솔로리스트>, <더 한팩 스테이지> 2건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마로니에 여름축제> 2건의 축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차세대 분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육성사업으로서 센터 내·외부 연관사업과 연계·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춘단막극제 - 봄 작가, 겨울무대 - 우수작 재공연 - 공연 단체 레퍼토리화)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38건의 기획공연에 대해 대관료 50% 할인과 일부 단체 제작비 지원 외, 공연장 현장 서비스 인력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무대 스태프(조명, 음향, 무대)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공연실황촬영지원 등의 ‘간접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공연 단체의 제작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공연 조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공연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최상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 서비스인력의 정기적 교육 실시 및 공연장 현장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연정보 제공에서, 예매, 관람까지 one-stop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총 96건(373편)의 연극, 무용, 다원 분야의 공연을 개최하여 기초예술 육성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왔다. 대관 형태별로는 자체제작공연 9건(76편), 기획공연 38건(73편), 대관공연은 49건(224편)이며, 장르별로는 연극 41%, 무용 49%, 다원 8%, 복합축제 2% 이다.

● 표 3-3-23 ●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실적

구분	자체제작공연		기획공연		대관공연	
	건수	편수	건수	편수	건수	편수
2010년	4	24	49	76	47	215
2011년	9	76	38	73	49	224

* ‘편수’는 공연 1건당 포함된 세부작품 편수임, 예를 들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건은 15편의 각기 다른 작품을 공연했음

● 그림 3-3-16 ●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비율(건수기준)



● 표 3-3-24 ● 한국공연예술센터 관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작품수	공연회수	관람객수(명)	객석점유율
제작	24	93	15,768	51.6%	76	183	40,599	67.4%
기획	76	434	60,340	47.4%	73	359	63,174	62%
대관	215	519	82,674	54.3%	224	520	96,641	65.9%
계	315	1,046	158,782	51.2%	373	1,062	200,414	64.9%

※ 2010년은 티켓시스템 구축시기로 수표기준 실적이며, 2011년부터 매표기준 실적임

4. 향후 전망 및 계획

최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공연예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산코자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공연예술 창작기반 조성’과 더불어 ‘공연예술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연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및 공연예술 창작 작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공연예술 세계화를 위해서는 공연예술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전통예술 해외진출 및 세계화 지원 등을 통해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공연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법·제도의 개선 및 문화나눔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코자 한다.

제4절 시각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추진 현황

국내 미술시장은 1990년대 침체국면이 지속되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미술시장은 지난 2년여의 호황을 뒤로하고 2년간 극심한 침체를 맞았다가 2010년에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과 다르지 않게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009년에는 2008년 후반부터 극심해진 미술시장 불경기의 여파가 확산되어 2008년부터는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술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더불어 정부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방침으로 인해 미술시장은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8년부터 정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화랑과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포함한 미술 유통 분야의 작품거래 규모는 약 4,516억원으로 추정되며, 건축물 미술장식과 미술은행, 미술관 등 공공영역을 포함하면 전체 미술시장의 작품 거래 규모는 약 4,8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회복세에 접어든 미술시장 경기를 감안하면 2010년 거래규모는 더 확대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술전시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 소폭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 표 3-4-1 ● 국내미술 전시 횟수 (2005-201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수	8,858	8,924	8,908	10,023	10,495	12,127

● 표 3-4-2 ●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 (2005-201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횟수	191	261	234	508	376	304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미술경매 시장의 활성화,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세계 미술시장의 호황, 국제적 감각을 갖춘 작가의 등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결과로 미술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창작 위주의 지원정책에

서 창작뿐 아니라 유통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결과다. 즉, 양도소득세 폐지, 기업이 미술품 구입시 손비처리, 미술은행제도 도입, 해외 아트페어 지원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시장이 호황기일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불안정한 유통구조, 소수 작가와 일부 장르에 집중된 거래, 투기적 거래형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일부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 판매(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술과 생활’, 즉 ‘미술문화의 대중화’의 기반이 아직 취약한 데 있다. 대체로 이것은 미술교육이 감상보다는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입시관련 주요과목에 밀려 제대로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하여 감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작품 판매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미술계와 협력하여 2005년도에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운영하였고, 미술문화의 대중화 관련 공공미술의 도입을 위하여 2006년 공공미술위원회를 통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제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지원을 통한 미술창작 및 우리 미술의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미술계 활성화를 위해 작가들의 창작기반 조성, 우리미술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국민이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술의 생활화 및 대중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창작과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로 국민의 미술품 향유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미술관 정책은 개별사업 중심, 규제·감독 정책, 탈현장 정책 그리고 일반론적인 정책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미술관정책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정책기구를 통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현장과 직결된 정책과제 설정, 민간부문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미술관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미술관 육성 및 지원, 미술 분야의 창작스튜디오 사업, 중앙과 지방의 미술에 관한 균형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미술은행 제도 운영

(1) 목표 및 연혁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FNAC), 독일(IFA) 및 호주(Art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여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작가에게는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 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무적인 기능만 수행하였으나 2009년부터 미술은행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개편을 통해 미술은행팀이 구성되었다. 미술은행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미술은행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작품은 추천제, 현장구입제, 공모제 등의 제도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또한 작품 구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작품구입심사위원회(매 심사별 5명 이내)를 구성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가격심의회(매 심사별 5명 이내)에서 구입할 작품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에 책정된 미술은행 예산 26억원 중 작품구입으로 21억 4,550만원을 활용하였으며, 총 7회(추천제 2회, 공모제 1회, 현장구입 4회)에 걸쳐 작품을 구입하였다. 2009년도 미술은행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삭감된 16억원으로 이중 12억 5,187만원으로 총 4회(추천제 1회, 공모제 1회, 현장구입제 2회)에 걸쳐 작품을 구입하였다. 2010년도 예산 20억원 중 구입예산은 15억 8,576만원으로 총 4회(공모제 1회, 현장구입제 3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작품 구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천제는 폐지되었다. 공모제의 경우 2008년도부터 개인전 개최 인성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터넷 응모 등 편의를 도모한 결과, 응모자 수가 전년(373명) 대비 3배(1,128명)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 현장구입제의 경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마니프(MANIF) 외에 서울오픈아트페어(SOAF)를 추가하고,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를 제외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지방미술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대구아트페어, 부산아트페어(BIAF)가 추가 되었다.

● 표 3-4-3 ●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계	추천제	공모제	현장구입제						
				소 계	KIAF	MANIF	SIPA	SOAF	대구 아트페어	BIAF
2008	2,104,550 (100.0)	364,000 (17.3)	1,399,750 (66.5)	340,800 (16.2)	272,200	34,000	34,600	-		
2009	1,251,870 (100.0)	374,100 (29.9)	506,350 (40.4)	371,420 (29.7)	274,820	96,600	-	-		
2010	1,585,760 (100.0)	-	940,500 (59.3)	645,260 (40.7)	364,410	155,200	-	125,650		
2011	1,509,850 (100.0)	-	832,000 (55)	677,850 (45)	256,500	181,200	-	121,000	46,000	73,150

(2) 운영방식

미술작품 구입 대상작가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으며, 미술시장 추세를 고려하여 2010년도부터 1점의 작품 제한가격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작가별 연간 작품 구입가격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되 이 범위 안에서는 다수 작품 구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르별 작품 구입 비율은 2005년 이래 매년 대여 수요자의 작품 선호도를 반영하였고, 2010년도 역시 전년도 비율에서 일부 조정하여 한국화 25%에서 20%, 서예·문인화 5%에서 3%, 서양화 38%에서 49%, 판화 7%에서 5%, 조각 10%, 뉴미디어 및 설치 5%에서 3%, 순수공예 5%에서 3%, 순수사진 5%에서 7%로 변경 하였고, 2011년도에는 전년도 동일한 비율로 구입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장르별 작품 수 및 구입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3-4-4 ●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 액 내역

(단위 : 점 / 천원)

연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 공예	순수 사진	계
2008	92	10	5	149	36	35	17	21	24	389
2009	40	0	5	75	12	15	13	10	15	185
2010	47	3	3	120	12	22	8	10	22	247
2011	51	0	2	132	20	30	8	7	17	267
2008	493,500	49,100	21,100	908,400	107,450	211,000	128,700	80,900	104,400	2,104,550
2009	266,900	0	21,000	564,620	44,950	104,300	116,100	51,400	82,600	1,251,870
2010	320,950	19,000	19,000	827,010	47,100	145,950	55,300	45,100	106,350	1,585,760
2011	310,800	0	8,200	803,150	44,000	177,900	50,000	27,400	88,400	1,509,850

미술은행을 통한 구입 작품은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환경 개선과 주민대상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미술관의 기획전, 그리고 한국미술의 홍보를 위해 재외공관 등에 우선 대여하여 미술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 및 한국미술의 해외 홍보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대여 여부는 민간 미술품 대여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대여료율은 대여 목적 및 대여 기간에 따라 다르게 하였으며, 민간의 대여시장이 화랑·갤러리의 경우 3~8%, 개인 등의 경우 3~10%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하였다.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율은 다음과 같다.

● 표 3-4-5 ●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율

구 분	국내의 기관 등 환경조성		국내의 20점 이상 기획전시			재외공관 등 한국미술의 홍보	
	1~6개월	7~1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1~12개월	13~36개월
대여료율	1.5%	1.0%	1.0%	0.8%	0.6%	0.5%	1.0%

* 대여료는 작품 총 가액(구입가격) × 대여료율 × 개월 수

(3) 성과 및 전망

미술은행 사업은 우수한 작품 수집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작품구입, 구입 심사기능 강화, 공정한 작품가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심의 기능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을 통해

작품구입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미술문화 공간에의 대여실적이 2005년 20회에서 2006년 63회, 2007년 72회, 2008년 80회, 2009년 89회, 2010년 99회, 2011년 130회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미술은행 제도는 인천, 전남, 강원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및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표 3-4-6 ●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

(단위 : 회, 점, 원)

연도	대여횟수(회)	대여기관수(개소)	대여작품수(점)	대여작품 총가액	대여 수익
2008	80	52	1,527	8,109,790,000	168,464,060
2009	89	58	1,093	6,018,740,000	343,850,100
2010	99	68	1,048	5,961,420,000	380,388,400
2011	130	89	1,212	6,933,220,000	385,775,800

2) 공공미술의 도입

(1)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의 문화적 이미지 부여 등 문화 환경을 개선하며,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확대 등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는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문화적 환경의 조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반면 법령상의 미술장식의 개념 및 기능이 물리적인 치장을 의미하는 ‘장식’에 국한되어 건축물과 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건축주, 작가, 중개인 간 담합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작품이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주, 미술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

럼 과정을 거쳐, 2010년 8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은 협소한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로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규제적인 측면을 완화하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서버 및 장비 도입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장식 3천여 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2008년 5천200점, 2009년 2천299점, 2010년에 879 점, 2011년에 768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11년 말 현재 총 1만2천846점에 대한 상세정보가 확보되었다.

● 표 3-4-7 ● 건축물 미술장식 DB 구축 현황

(단위 : 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년
추진 내용	데이터베이스 포털 구축	3,000	5,200 (누계 8,200)	2,999 (누계 11,199)	879 (누계 12,078)	768 (누계 12,846)

(2)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예술정책의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미술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르인 공공미술은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지역생활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예술을 창조하여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전체에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국민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문화 환경개선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2005년도 9차례에 걸쳐 TF 회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2006년에 12억 2,500만원(복권기금)으로 수행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Art in City 2006)’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이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게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욕구를 담아내고 미술가의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실시한 공공미술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며 다른 사업들(2007년 서울시의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경북 문경시의 공공미술위원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미술전문위원 중심에서 공간, 건축 분야 전문위원이 위촉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도 부분 위원회로 축소·개편되었다. 사업구성은 2006년도와 동일하나 그 명칭을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속사업, 홍보사업으로 하였으며, 2006년도와 같이 복지관들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매체홍보도 함께 한 결과, 서울을 포함하여 115건의 공모가 접수되었고 15개 지역의 마을, 복지관, 노숙자·노동자를 위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2009년에는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2009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시행되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추진되었다.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약 10:1의 경쟁률로 전국 21개 지역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을 포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지역작가를 활용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주민·지자체의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200여건 이상의 응모안을 신청받는 단계부터 장소 사용 등과 관련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 당선된 21곳 중 자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거나 지속사업으로 연장한 사례들이 6곳(완주, 철원, 양평, 공주, 안동, 부산)이나 되는 등 그 관심이 뜨거웠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 평가 결과 완성된 작품과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작가 66%, 주민 62%로 양측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그 수는

213명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원금액에 대한 작가들의 만족도는 52%에 그쳐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도 사업효과를 기반으로 한 홍보를 바탕으로, 지방비 매칭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작가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작가가 장소를 직접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였으나, 2010년도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먼저 공모하고 선정된 장소에 작가가 작품공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는 작가가 단독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노고를 덜어줘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공공미술 사업에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한 지자체들의 사업 관여도를 높여주었다.

아울러 2009년 국고(적립금)만으로 추진했던 것을 2010년에는 국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매칭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2009, 2010년 2년도 거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 사업의 모델처럼 자리 잡으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2011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이전 2년의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미술 대표 사업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추진되었다. 2009년과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문화적 수혜의 전국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1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지역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1 ‘행복 프로젝트’를 대단위 미술마을 조성 사업으로 기획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상북도 영천시의 화산면 가상리에서 귀호리에 이르는 일대를 ‘신(新) 몽유도원도-다섯 갈래 행복길’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특히 지역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친환경적인 작품 방식에 초점을 두었으며 45명(팀)의 작가들이 지역 상징 조형물에서부터 벽화, 거리가구(street furniture), 폐가를 활용한 쉼터와 아트숍, 마을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 설치하였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지역 대표미술관 ‘시안미술관’과도 상승효과를 내며 지역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에도 선정되었다.

공모사업 2 ‘기쁨두배프로젝트’는 2009년, 2010년에 선정되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추가 지원 시 파급효과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한 번 더 지원함으로써 전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의 규모와 질을 제고하였다. 동 공모에는 2009년 당선지역인 강원도 인제군, 제주도 서귀포시 및 2010년 당선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와 전북 남원시의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되었다. 공모사업 3 ‘테마이야기’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테마화하거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휴공간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자를 재활용하여 미술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의 방법을 확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테마화하는 프로젝트들은 문화예술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공공미술에도 접목하였다. 총 26개 지역의 프로젝트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 표 3-4-8 ● 2011년 공공미술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지역 / 사업명	팀 명	예산
공모사업1 '행복 프로젝트'	경북 영천 / 신동유도원도 다섯갈래 행복길	-	900
공모사업2 '기쁨두배프로젝트'	경기 김포 / 꿈꾸는 염하강	김포공공미술발전소	100
	강원 인제 / 시인 박인환 II -그 세월이 가면	분주한 상자	180
	전북 남원 / '컴(com), 서도 혼불문학뮤지엄'	행.희.낭 프로젝트팀	100
	제주 제주시 / 대평 아트 all - 來	JPA-올레	100
공모사업3 '테마이야기'	강원 철원 / Forver Festival	KBF조형연구소	250
	충남 보령 / 다시그려진 성주리 이야기	황진	100
	충남 금산 / 송알송알 무럭무럭	아이창팀	100
	경남 거창 / 생초리-천년의 숨결	공공미술 아림	200
	전남 화순 / 5일 시장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	5일시장과 문화마을	116

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1) 미술행사 활성화 지원

가. 한국국제아트페어 지원

(사)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창설하였다. 한국아트페어는 2009년까지 매년 국고 3억여원이 지원되었는데 2006년에는 13개국 150개 화랑이 참여하여 총 5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에는 18개국 208개 화랑이 참여하여 총 6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20개국 218개 화랑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참가율을 이루었으나, 2009년에는 16개국 168개 화랑이 참여하여 미술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듯 참가국과 참가화랑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16개국 193개 화랑이 참가하여 미술시장의 회복세를 띄었다. 2011년에는 17개국 192개 화랑이 참여하고 역대 최대 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불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하였다.

SNS를 통한 마케팅과 스폰서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 20대 관람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KIAF2011은 10주년을 맞이하여 본전시외에 부대프로그램과 학술프로그램 및 VIP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 KIDS in KIAF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표 3-4-9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2002-2011)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기간	장소	참가국	참가화랑 (해외)	참가작가	국고지원	비고
2003	6. 24 ~ 6. 29	코엑스 인도양홀	30개국	107(30)	340	200	
2004	6. 22 ~ 6. 27	코엑스 인도양홀	13개국	123(40)	600	300	
2005	5. 24 ~ 5. 29	코엑스 인도양홀	11개국	126(40)	499	300	
2006	5. 26 ~ 5. 30	코엑스 태평양홀	13개국	150(51)	700	300	
2007	5. 9 ~ 5. 13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18개국	208(92)	1,300	400	
2008	9. 19 ~ 9. 23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20개국	218(102)	1,500	300	
2009	9. 18 ~ 9. 22	코엑스 태평양홀, C홀 및 D홀	16개국	168(122)	1,200	300	
2010	9. 9 ~ 9. 13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16개국	193(73)	1,450	0	
2011	9. 22 ~ 9. 26	코엑스 1층 A홀 및 B홀	17개국	117(75)	1,500	0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연계하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Art Flash2011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 키네틱아트 작가·작품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5명 내외의 작가를 선정하여 한국국제아트페어 기간에 코엑스 1층과 별도의 전시공간(Hall B 외부 공간)에 작가별 개인부스별 형태로 전시로 그간의 지적되어 왔던 KIAF의 전시작품의 한계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한국현대미술의 관심은 실질적인 구매로도 이어졌는데 나인 갤러리 김숙빈 작가의 설치작품 2점과 국제갤러리 정연두 작가, 선컨템포러리 이상현 작가의 영상작품, 예원화랑의 한승구 작가의 영상 작품이 판매되었다. Art Flash2011은 아트페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고 한국미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나. 아트에디션2011 지원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주최, 아트에디션2011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2011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SETEC 3전시실에서 아트에디션2011이 개최했다. 2010년 SIPPA에서 Art Edition으로 행사명이 변경된 이후 올해 서울에서 첫 개최로 200여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고 총 12,000여명이 방문하였다. 아트에디션은 국내외 유일의 복수미술 전문 아트페어로 판화, 사진, 영상 및 조각 작품뿐만 아니라 에디션이 존재하는 모든 복수 미술품을 아우르는 장르 특성화 아트페어이다. 2011년 아트에디션은 기존 아트페어에서 보기 드문 갤러리들이 참여하면서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임과 동시에 아트에디션의 가능성과 향후 아트에디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 예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 2011국제미술전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해외 유명 아트페어 참가화랑들의 경비를 (사)한국화랑협회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42개 화랑이, 2005년도에는 11개 아트페어에 29개 화랑이, 2006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37개 화랑이, 2007년도에는 21개 아트페어에 50개 화랑이, 2008년도에는 26개 아트페어에 65개 화랑이, 2009년도에는 18개 아트페어에 47개 화랑이, 2010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50개 화랑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9개 아트페어에 41개 화랑이 참여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지속 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술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회랑은 해외 미술시장에 국내작가를 소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자 활발히 해외 아트페어 참가하였다. 2011년 국내회랑은 경기불황 속에서도 Art Basel(스위스), The Armory Show(뉴욕), Frieze Art Fair(영국)등의 주요 아트페어와 ART HK(홍콩) 등의 아시아권 아트페어 외에도 중동에서 열리는 ART Dubai(아랍 에미리트)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 참가하였고, 판매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주나 유럽지역의 아트페어보다 Art HK등 아시아권 아트페어에 다수 참가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럽 미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과 아시아권 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층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내회랑이 해외 아트페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은 대부분 1회 참가에만 그치지 않고 연속 또는 3회 이상 꾸준히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작가를 발굴 소개해 급변하는 국제 미술시장에 발맞추려 노력한 결과이다. 2011년에는 세계미술시장에서 한국 작가의 관심도상승, 작품판매 실적, 한국미술시장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두드러지게 성장했다는 것이 보여 진다. 국내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는 실력을 갖춘 국내 작가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결되며 한국미술을 해외시장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 표 3-4-10 ●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11)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국고지원	참 가 아트페어	참가화랑	판매실적		비 고
				작품수	금액	
1999	200	5	12(24)	125	958	
2000	200	9	12(20)	97	897	
2001	200	8	12(23)	94	876	
2002	200	8	11(20)	419	1,495	
2003	200	14	29(40)	375	1,945	
2004	200	17	42(68)	472	2,014	
2005	200	11	29(62)	330	2,230	
2006	150	17	37(66)	400	3,500	
2007	150	21	50(107)	500	7,000	
2008	200	26	65(143)	550	9,000	
2009	200	18	47(65)	350	6,600	
2010	200	17	50(81)	400	7,600	
2011	180	19	41(69)	380	7,900	
합 계	2,480	190	396(719)	4,492	52,015	

* 참가화랑 수중 ()안은 중복 참가화랑 숫자임.

라. 카셀도큐멘타13 참여작가 지원

독일 카셀시에서 열리는 카셀도큐멘타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3대 미술행사로, 2012년 행사 'DOCUMENTA(13)'에 한국작가 문경원, 전준호가 참여작가로 선정되어 한국 미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예술창작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0,000천원을 참가 프로젝트 작품 제작비 위한 리서치·인터뷰, 국제세미나 진행, 싱글채널 영상과 오브제 설치작품제작비, 홈페이지, 도록 등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으로 제작된 책 <News from Nowhere> (2012년 4월 출간)은 카셀도큐멘타 공식 북스토어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고 해외 유명 출판사 IDEA를 통해 전세계 미술관 서점과 일반서점에 배포될 예정이다.

마. Korean Art Show 2011 지원 사업

(사)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화랑협회와 KIAF 주관하여 3월 3일부터 6일까지 뉴욕 소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33개 갤러리가 참가하여 한국미술을 소개하고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 2회 Korean Art Show전시가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2,500명의 평론가와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4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한국미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제 1회 Korean Art Show는 작가홍보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홍보가 판매로까지 이어져 작품거래액이 약 1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우환, 민병헌, 김창렬, 박서보 등 한국의 대표작가와 고상우, Eddie Kang 등 신진작가 등 총 150여명의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미국, 유럽의 몇몇 갤러리가 적극적으로 KIAF2011에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미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트페어인 KIAF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사진 3-4-1 ● Korean Art show 2011 행사



Korean Art Show 2011개막식



Korean Art Show 2011 오픈 리셉션



VIP reception 전경



Korean Art Show 2011 인쇄물 중

(2) 시각예술 홍보 지원

가.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 KAP(Korean Artist Project)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주관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온라인 가상미술관을 구축하여 국내 작가의 작품과 작가이력, 전시기록, 전시장 등의 방대한 자료를 국·영문으로 아카이빙하고 해외 무대에 한국작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작가와 전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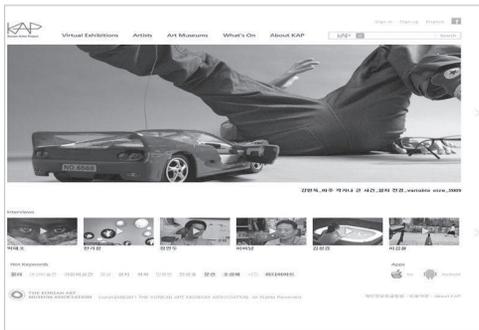
Korean Artist Project 웹사이트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구축(1차 사업)이 201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80개 회원미술관 중심의 참여작가 30명 내외, 미술관 15개관을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선정하고 2단계 사업 때 40명 내외, 3단계 사업에 40명 내외의 작가를 추가 선정하여 총 100여 명의 작가의 가상미술관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표 3-4-11 ●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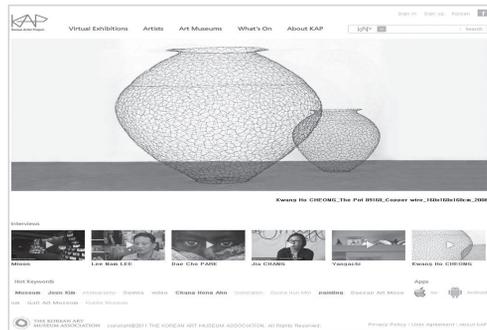
추진연도	운영목표
2011년	<p>핵심목표 ▶ 작가 해외프로모션을 위한 국·영문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내외의 작가에 대한 온라인 미술관 구축 - 다양한 장르의 한국 작가 발굴하여 해외에 프로모션하고 해외진출의 발판 마련 - 온라인 전시로 오프라인 전시의 접근상의 한계를 극복 - 미술관 전시정보 및 작가 인터뷰 동영상 등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 해외미술계와 소통의 발판 마련 - 국내 미술계 소식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큐레이터와 평론가, 해외 언론, 해외 작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관리 인력은 미술관 자체인력 활용
2012년	<p>핵심목표 ▶ 심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한국작가의 브랜드가치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명 내외 작가 추가 참여(총 70명 내외) - 2011년 선정 작가에 대한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비평가 등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전문 크리틱 개설 등 심화 프로그램 진행 - 최신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한국미술과 한국작가의 해외인지도 증대 - 아이폰 팹게스트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영상 아카이브 구축 - IT 전문교육을 받은 미술관 자체인력 활용
2013년	<p>핵심목표 ▶ 작가 해외전시 및 국제교류전, 각종 프로그램 참가 등의 성과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명 내외 작가 추가 참여(총 100명 내외) - 국내 작가 및 미술계 관계자의 국제전시 및 행사(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참여를 통한 세계 유수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성과 기대 - 온라인 가상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후원/협찬사 확보 및 수익모델 창출로 지속적인 운영 방안 모색 - IT 전문교육을 받은 미술관 자체인력 활용

기존의 온라인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고해상도 작품 이미지 소개 및 이미지 크게 보기 기능, 개별 작품 이미지를 해당 작가의 프로필 자료 카테고리로 연계하여 작품 감상기능, 인터넷상에서 실제 전시를 감상하는 효과를 연출하여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를 12월 5일에 오픈했다. 홈페이지 내 동영상 섹션에서는 작가인터뷰, 미술관 주요 기획전과 개인전 전시관련 행사, 국제적인 미술계인사들의 강연 등 콘텐츠를 국·영문 버전으로 제작하였고 그 밖의 작가약력, 작품 아카이브, 평론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작품의 이해와 개별 작가의 작품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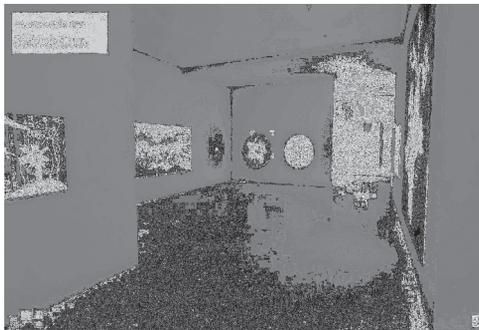
● 그림 3-4-1 ● 온라인 가상미술관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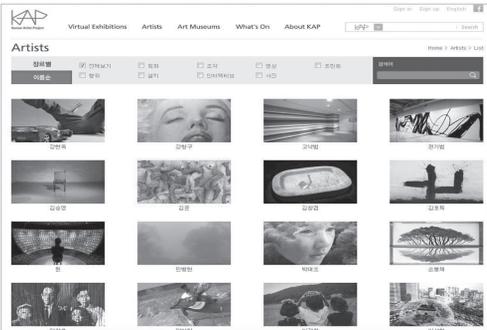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1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2



VR 전시장 예시



선정작가 소개페이지 이미지

홍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국내 미술관계자들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미술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하였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하여 일간지, 월간지, 방송, 온라인매체로 보도되었고, 앞으로 협력 포털사이트와 국공립 기관 사이트, 미술관련 온라인 페이지에 배너가 게재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구글 본사와 아시아

지역의 작가들을 소개할 ‘구글아트프로젝트2’를 진행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2년 3월 (예정)시즌2의 런칭을 준비함으로써 KAP 작가 전원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한국 현대 시각예술작가 해외소개 책자발간 사업

한국의 문화와 현대미술에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한국현대미술작가를 소개하는 책자가 없다는 미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여 『100.art.kr』(부제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열린책들 펴냄)을 발간했다.(2012년 2월 28일 발간, 3월 31일 국내·외 배포)

그동안의 홍보책자들은 국내용으로 제작된 것을 번역하여 해외 일부기관에 일회적으로 배포하였으나 『100.art.kr』은 해외 미술관계자, 한국미술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1960~70년대생 중심으로 이수경(1963), 이용백(1996), 정연두(1969), 천경우(1969) 등 한국 현대미술작가 100명에 대한 소개가 담기고 고충환, 유진상, 강수미 등 10명의 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전체 판형, 재질, 디자인, 구성, 편집,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 책자의 공신력을 갖도록 제작하였고, 해외 각국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출판물의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고 유통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야하며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출판과 유통을 담당할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전자책(e-book)도 함께 발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한국 현대미술 DB 구축 및 해외 홍보라는 두 방면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4)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미술진흥의 거점기관화를 목표로 사립미술관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사립미술관에서 미술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합체인 자립형미술관 네트워크(이하 자미넷)를 결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3년도에는 자미넷 주최 ‘자립형미술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진행비 300만원), 2004년도(3,000만원)에는 인턴프로그램, <2004년 한국미술관백서> 발간, <국내 사립미술관 홍보실태 조사 및 성공적인 홍보방안> 발간, 미술관의 날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4년도에,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36억원을 확보하여 25개 미술관 전시사업에 10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미술관 인턴사원제도를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재정상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미술관의 육성을 위해 복권기금 포함 13억 8,2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연계 및 활성화 사업, 미술품 전문 해설사 지원 사업, 특별전시 및 공동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등록 사립미술관에 대한 학예인력 지원 및 인턴 지원 사업, 사립미술관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매년 각각 30명 내외의 학예 전문인력과 인턴을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술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미술관 전문 온라인 매거진(Art Museum) 발행과 뮤지엄 페스티벌 개최,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계 및 세무 지침서, 운영관리 매뉴얼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사립미술관 육성 지원 사업

가. 뮤지엄 페스티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소속된 49개 미술관의 전시장, 교육실 및 부대시설에서 유아,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문화소외계층을 상대로 5월 한 달간 ‘Museum Festival-예술체험 그리고 놀이’전시 개최 및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6년 제 1회 뮤지엄 페스티벌 개최 이후 올해는 6회째로 작년보다 참여기관이 4개관이 늘어 총 49개 참여했다. 참여 미술관의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등의 전문인력들이 각 미술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49개의 참신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하고 445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월 한 달 동안의 입장객수가 평소보다 1.3배 증가하였고 총 161,208여명이 참가하였다.

‘Museum Festival’을 전국규모 미술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술관 관장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연계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발표 워크숍을 개최했고 미술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과 발전방안이 제시된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나. 온라인매거진

미술관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온라인미술관소식 전용 웹사이트(www.artmuseums.kr)를 통해 미술계 인물 및 작가인터뷰, 전시 소개, 전문가

칼럼, 국내외 미술계 소식, 협회소식 등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매거진 Art Museum을 2006년 10월부터 월 2회 (둘째, 넷째 월요일) 지속적으로 국내 미술관 및 미술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 6천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으며 미술관관련 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제공 및 의견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은 동영상 서비스 강화, 페이스북 연동서비스, 이미지 크게 보기 서비스, QR코드 서비스를 활성화, 영국현대미술기행 시리즈 연재는 큰 호응을 얻었다. Art museum 편집팀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회원들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50명의 응답자 중 콘텐츠 고객만족도가 82%로 나타났다. 구독이유 중 작가 등 미술계 인물과 미술관 전시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높았고 작가, 미술계인물 인터뷰 등 인물 정보가 가장 유익한 콘텐츠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 인력지원 사업

가. 2011 큐레이터 워크숍

한국박물관협회는 201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일환으로 큐레이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교환과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2011년 5월 23일 부터 25일까지 '2011 큐레이터 워크숍'을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 박물관 협력망담당자, 학예인력 및 관장, 지역 박물관 협의회 담당자 등 총 211명이 참석하여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큐레이터의 사례발표와 인근 지역 박물관·미술관 탐방, 영월연세포럼 참가, 교육 및 분임별 토론을 하였다.

학예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립미술관의 학예인력의 지속적으로 재배치 모집공모를 신속하고 꾸준히 처리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수혜기관(관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예인력에게는 국고지원이라는 점에서 책임감과 전문성의 강화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학예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타 지역 및 여러 특색을 가진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인력들과의 만남으로 정보교류하고 박물관·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한 지원의 보완점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나. 2011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

등록 사립미술관 32개에 각 1명씩 총 32명의 인턴 큐레이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미술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직 중인 미술관련 전공자 및 학예사자 격증 소지자들에게 미술관 현장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술분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해소에 기여하였다.

근무실태를 파악 및 점검을 위해 출근부, 업무보고서, 근무평가서, 근무실적을 4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선정을 하여 동기부여를 하였고, 지원기간 10개월 동안 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내역과 성과를 정리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

● 표 3-4-12 ● 2011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 대상관 명단

지 원 대 상 관 (가나다순)					
1	금호미술관	12	선바위미술관	23	잠월미술관
2	당림미술관	13	스페이스몸	24	치우금속공예관
3	대산미술관	14	시안미술관	25	코리아나미술관
4	리각미술관	15	신미술관	26	토탈미술관
5	마가미술관	16	아트센터나비	27	통영옷칠미술관
6	모란미술관	17	영담한지미술관	28	한광미술관
7	목암미술관	18	영은미술관	29	한국미술관
8	무등현대미술관	19	우제길미술관	30	한미사진미술관
9	바탕골미술관	20	의재미술관	31	헬로우뮤지움
10	서호미술관	21	일현미술관	32	환기미술관
11	석봉도자기미술관	22	임립미술관		총 32개관

3. 국립현대미술관

1) 설립목적 및 연혁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미술과 국제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수작품들을 소장, 전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술문화의 위상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1969년 8월 23일 직제가 제정·공포되어 그 해 10월 20일 경복궁 건물 일부에 개관하여 한국미술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1970년대 초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과 동시에 미술인구의 점진적인 증가로 미술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기본적인 여건, 즉 상설 및 기획전시장의 확보가 문제시됨에 따라 1973년 7월 5일 덕수궁내의 귀빈실인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초 구한말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덕수궁 석조전이 건물구조나 시설면에 있어 미술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미술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미술관의 기능이 단지 작품소장,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보급 및 교육기능도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충분한 시설과 공간의 확대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984년 3월 29일 마침내 서울근교 과천시 막계동 문화시설지역 내에 현재의 미술관 신축공사를 착공, 1986년 8월 25일에 준공,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8년 12월 1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덕수궁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6년 1월 1일자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성과와 고객서비스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미술관으로서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에서 최초 개관 시 관장, 사무장, 서무담당, 운영담당 등 총 8명이 미술관의 관리·운영주체였고 역할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의 운영과 전시업무에 불과하였으나, 미술관 조직의 면모는 1986년 8월 과천청사로 신축이전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국 3과 1실 체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과 별도로 서울 도심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12월 덕수궁 분관을 개관하였다. 2004년 11월 18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전시과가 폐지되고 전시기능이 학예연구실로 이관되었으며, 사무국은 미술관정책과, 운영지원과, 교육홍보과의 체제로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조직의 전문성·효율성·능률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승인(2010.

12. 31)에 의거 1단 7팀 1관(100명)의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기획운영단하에 4팀(행정시설 관리팀, 사업개발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팀, 서울관건립운영팀)과 관장직속에 학예연구1팀, 학예연구2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덕수궁미술관을 두고 있다.

● 그림 3-4-2 ●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누리집(홈페이지): www.moca.go.kr

3) 예산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예산은 943억 1,100만원으로, 사업비로 872억 1,300만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70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다. 세입예산은 11억 3,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 9,7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 6억 4,800만원, 건물 및 토지대여료 3억 1,100만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700만원, 기타관유물대여료 4억 1,3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1,800만원이다.

4) 추진성과

수준 높은 전시 개최를 목적으로 총 13회의 기획전이 개최되었다. 전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으로 『메이드 인 팝랜드』전,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휘트니미술관컬렉션』전, 『오늘의 프랑스 미술』전을 개최하였고, 해외 기관과의 공동 기획전으로 『Tell Me Tell Me: 한국-호주 현대미술 1976-2011』전을 호주 시드니 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소마·아르코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기획전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담론 제시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하는 미술의 역할에 대해 제고하게 하는 『소통의 기술』전 및 『청계천 프로젝트』 실시하였으며, 한국 미술사를

정리하는 근·현대사 재조명 전시로 『김중학』, 『임응식』,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1995-2010』전 등을 개최하였다.

명작이 있는 미술관 컬렉션전 『신소장품 2010』, 『추상하라!』 개최로 미술관 소장품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이해와 해석의 차원을 발견하여 관람객에게 현대미술관 컬렉션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미디어 소장품 특별전 『조용한 행성의 바깥』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중 뉴미디어 분야의 선구적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구·학술사업 강화를 통한 체계적 미술사를 정립하고자 소장작품 및 소장품전 연구, 근현대미술 연구, 미술관 연구, 소장품 보존 연구, 중장기 연구과제 등 총 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제3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선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공사립 미술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전국미술관장회의 개최, 큐레이터 컨퍼런스 개최, 공사립미술관 협력전시 및 사립미술관 보조금 지원, 공사립미술관 전문직 외국미술관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이 현대미술을 삶 속에서 보다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47개 프로그램, 401,239명)을 전개하였다. 2011년 교육사업의 큰 변화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발굴·실험한 기획전시연계 교육활동(총 58,994명, 교육 7,994명, 활동지 배포 51,000부)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전시장내에 교육을 위한 공간(Edu-studio)을 조성하여, 전시와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시도가 있었고, 관람객이 전시 장 내에서 교육적 요소와 서비스를 자율적·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free-choice learning)제공의 방식은 미술관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미술문화 소외계층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을 실시(해남, 충주, 울산)하였다. 지역 초등학교, 교육청, 미술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실행을 통해, 전국대상의 미술문화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를 추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감상교육 및 체험활동의 강화에 있다. 미술관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점자교재(4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한 점 또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한편, 11개의 기획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전시감상가이드 제작 및 배포를 병행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도 충실히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문인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교사직무연수,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미술관 운영(21개 프로그램, 210,505명)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감상·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전시해설의 전문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등 교육서비스 향상 측면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1년 한해 총 48점(구입 34점, 기증 13점, 관리전환 1점)의 작품을 소장하였으며, 유화, 한국화, 조각·공예 등 112점의 소장작품을 분석, 수복하였다. 특히 명동성당 '79위 복자상' 등 국내 중요 미술작품의 보존처리 지원을 통하여, 미술관의 보존·수복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4. 향후 전망 및 계획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는 시각예술의 대중화 기반이 부족하여 미술을 체험하고 감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미술시장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아트페어, 비엔날레 지원 등 미술창작 활성화 및 국민의 미술향유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 미술계의 해외 소개, 큐레이터의 역량강화 사업 등 국내 작가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미술의 해외시장 비중도 함께 높여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5절 전통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006. 9.27 발표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 이후 우리부의 전통예술 관련 정책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전통예술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전통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산업화, 전통예술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화 등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창작활성화, 해외 국악보급, 아리랑 세계화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에 52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반세기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원형이 훼손되거나 지역별·장르별로 편중되어 전승되어 온 전통예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자유로운 창작을 통해 전통이 현대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문화예술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07년에는 전주 학무(무용)와 구례잔수농악(풍물)이 복원된 후 2008년에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2008.9.21, 서울 상암동)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2008.10.2, 제주 서귀포시)에서 재현되었다. 2008년 이후 복원되고 재현된 전통예술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형태로 재현하는 사업과 DVD 제작 등 디지털화를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 표 3-5-1 ●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사업명	분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 (재현 일자)
2008	인천 부평삼산농악	농악	부평문화원	부평삼산역사박물관('09.2.7)
	성남오리들 두레농악 농사풀이 및 농요	민요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	대한주택공사('09.1.7)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	무용의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창덕궁 연경당('08.10.6)
	수영 지산밭기	민속연희	수영고전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사직공원('09.3.13)
	법성포수륙대제	민속연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영광 법성포 수협공판장 ('08.10.26/ '09.5.28)
2009	봉화 12차 농악 발굴	풍물	봉화연합풍물단	봉화읍 체육공원('09.12.18)
	남양주 삼봉 농악	풍물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종합촬영소('09.12.20)
	산청지역일소리	민요	경남문화센터	보고서 및 음반 제작
	연경당 진작례	무용	서울국제교류회	창덕궁 연경당('09.9.28)
	세종조 편경제작	음악	국악문화재단	국립국악원('09.11.11)
	남사당 비나리	음악	민족음악원	민속극장 풍류('09.11.19)
	봉장취 음악	음악	동북아 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09.11.30)
전주옹왕제 복원	의례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 덕진연못('10.4월 예정)	
2010	삼동 마당밭기 사설·가락·굿	의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09.11.13)
	한국고대음악	음악	동북아음악연구소	보조서 제작
	영남 삼현육각	음악	한국음악문화협회	국립부산국악원('10.12.10)
	송의전 제례악 및 일무	의례	송의전보존회	연천 송의전('10.10.10)
	북한강 산하의 소리	민요	강원소리진흥회	춘천국악원('1011.20)
	마산오광대	민속연희	마산오광대 복원추진위원회	마산('10.9.25)
	세종조 편종	음악	연악사,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10.12.16)
	조선시대 지당판	무용의례	수로문화재단,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10.12.14~24)
	동래 기영회 판놀이	민속연희	부산민속예술보존회, 국립부산국악원	동래별장('10.11.24)
2011	경서도잡가 10바탕 복원 및 재현 사업	음악	(사)서울소리보존회	남산국악당('11.12.3)
	궁중나래의 복원재현	음악	백석예술대학교	보고서 및 3D 영상제작
	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사업단)	전주학인당('11.10.2~3)
	농악 명인 박남식 전승의 무궁과 도독잡이굿의 복원 및 재현	농악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경기대학교 실내체육관 ('11.7.30)
	려말선조 시가의 음악적 복원	음악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11.11.10)
	한국고대음악의 복원 및 재현 II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11.11.30)
	경기시나위춤 복원 및 재현	무용	(사)매현춤보존회	남산국악당 ('11.11.27)
	마지막 세습무 채정례의 완판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남도국악원	전남진도군('11.9.28)
	'궁중연례악'공연에 활용할 순조대 화준 복원	무용의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약당 2011왕조의꿈태평서곡 ('11.12.10~18)

(2)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창작활동 지원

가.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매년 그 행사의 수와 개최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국악경연대회는 전통예술분야 전공 학생은 물론 일반인이 평소 연마한 기량을 점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악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 표 3-5-2 ● 연도별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실적

2008	2009	2010	2011	2012(계획)
109개 행사 (대통령상 23, 총리상 21, 장관상 165)	110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20, 장관상 172)	110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9, 장관상 176)	102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7, 장관상 157)	101개 행사 (대통령상 24, 총리상 16 장관상 157)

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개최

‘국악창작곡 개발 -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사업은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사업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2차에 걸친 예선 심사를 통해 10곡 정도를 선발하고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본선 경연을 통해 수상곡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수상작품은 음반과 DVD로 제작되어 국내 및 해외 예술기관 등으로 보급된다.

2011년부터는 보다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본선 진출작을 10곡에서 15곡 내외로 늘리고 콘테스트 형태의 경연을 통해 7작품을 시상하였다. 2012년에는 ‘아리랑특집’으로 꾸며 아리랑을 소재로 한 자유로운 창작작품을 모집·발굴할 예정이다.

● 표 3-5-3 ● 연도별 국악창작고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 결과

연도	응모작품 수	시상작품 수	대상 수상작
2008	123곡	10곡	나리랑, ‘새타령’
2009	77곡	10곡	국악 아카펠라 토리’s, ‘아부레이수나’
2010	49곡	9곡	Aux, ‘품바’
2011	52곡	7곡	어쿠스틱양상블 제비 ‘채비모리’

다. '2010 창작 국악 실험무대 - 천차만별 콘서트' 운영

신진 국악단체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에 10주 내외의 기간 동안 화, 수, 금,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국악 공연으로 역사가 깊은 북촌창우극장에서 20개 내외의 신진 국악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악단체에게 단체 당 2회씩의 단독무대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람자 수는 매 공연마다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공연개최 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단독 실황음반 제작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북촌창우극장은 1993년 개관한 객석 100석의 소공연장으로, 연극, 창극, 판소리, 전통 연희·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하여 마련된 전통예술 전문 공연장이다

● 표 3-5-4 ●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연 도	공연기간	공연 요일	장 소	지원단체 수	공연 횟수	관람자 수
2008	10.7~2.20 (10주)	매주 화, 수, 금, 토	북촌창우극장	20개 단체	40회 공연	3,819명
2009	8.21~11.14 (12주)			24개 단체	48회 공연	4,320명
2010	9.2~11.7 (9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4,320명
2011	7.21~10.4(14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2,634명

라.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본 사업은 2007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축제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전통연희의 대중화 실현 및 지역공연 확산을 통한 지역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상설공연 형태인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08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통으로 문 열고!' 라는 주제와 '온 국민이 살맛나는 한 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상암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전통연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개막제를 포함하여 65개 작품의 공연과 24개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총 13만 명이 관람하였다.

2009년에 3회째를 맞은 '2009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는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떨 판, 놀 판, 살맛나는 한 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제를 포함하여 120개 단체가 참여하여 공연과 체험, 교육,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쳤다. 창작연희 우수작품으로 5작품,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경연에서는 4종의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상설공연 형태로 바뀐 2010년에는 창작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우수 창작연희작품을 선정해 서울·남원·부산 국악원에서 공연하였으며, 전통 연희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작연희 우수작품과 우수대본을 선정하였다. 2010년 이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3-5-5 ●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개)

연도	시·도	장소	기간	운영횟수	관람객 수	출연팀 수
2010	서울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6.27~10.20	12	6,140	12
		국립국악원 우면당(폐막제)	10.24	1	298	6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6.30~8.18	5	1,950	5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6~8.17	5	3,058	5
	계				23	11,446
2011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	6.10~11.9	7	3,398	3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5.27	1	400	1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5.14~6.18	4	1,597	4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28~8.25	4	2,148	4
	계				12	5,143
2012 (계획)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	9.30~10.3	-	-	-
	계				-	-

전통연희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는 상설공연과 함께 3일에 걸쳐 전통연희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통연희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연희의 전승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발굴된 우수 창작연희작품과 전통연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201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1)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정부가 유일하게 직접 주최하는, 전통민속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이다. 각 시·도 대표단의 열과 성을 다한 경연과 시연을 통해

한국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면서, 오늘날 전국의 민속예술인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도)가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경기도 포천시, 2006년에는 전라북도 정읍시, 2007년에는 경상남도 사천시, 2008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민속예술의 보존·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가 2009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50주년을 맞은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기존과 달리 경연대회 없이 각 지역의 대표 민속을 엄선하여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50년간의 회고와 전망을 돌아보는 기념세미나, 민속예술축제에서 발굴된 명인들의 기념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2009년 16회째를 맞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4개 시·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청주소래울두레놀이(충북공업고등학교)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13개 단체상 및 지도상·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민속예술의 보존·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가 2010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21개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의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20개 단체, 입장상 1개 단체, 지도상·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또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청남도의 ‘천안거북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 15개 단체, 지도상·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20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충청남도에서 ‘세계대백제전’ 과 ‘충남민속한마당’ 등과 연계하여 개최되어 한판의 대동 축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시범적으로 ‘현지민속심사’가 도입되어 각 추진위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총 4개 종목의 현지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1개 종목에 대해 특별상인 국무총리상을 시상하였다.

민속예술의 보존·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7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가 2011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시 거북선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20개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상북도의 ‘금릉빛내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9개 단체, 입장상 1개 단체, 지도상, 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또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민속예술작품의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 ‘양주들노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 외 14개 단체, 지도상·연기상 등 개인상 3개가 주어졌다. 2011년 한국민속예술

축제는 여수엑스포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비축제로 ‘개열림굿’을 사전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특별행사로 ‘여수문화예술인의 밤’ 과 민속예술축제의 회고와 전망을 위한 난장 토론회 ‘막걸리와 민속’, 민속예술의 분야별 최고 명인들의 무대 ‘마당춤 명무전’이 진행되었다. 한편 ‘현지민속심사’는 총 6개 종목의 현지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여수백초가장농악 외 2개 종목에 대해 장려상인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장을 시상하였다.

● 표 3-5-6 ●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연도	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단체	종목		출연단체	종목
2008	49	청원현도두레보존회	청원군 현도 두레농요	15	김천 농공고등학교	금릉빛내농악
2009	50	제50회를 맞이하여 경연대회 없이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		16	청주 충북공고	청주 소래울두레놀이
2010	51	입압리민속보존회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	17	천안 병천고	천안 거북놀이
2011	52	금릉빛내농악보존회	금릉빛내농악	18	양주 백석고등학교 4-1회	양주들노래

나.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궁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를 하기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품격 있는 궁중예술의 원형 재현을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3대궁과 종묘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3-5-7 ●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장소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2008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린다	고궁에 깃든 우리춤 우리가락	가을엔 국악을 듣겠어요
	기간	4. 16 ~ 10. 29 (매주 목, 7.2~8.27 제외)	7.30 ~ 7.31 (중화전)	10.10 ~ 10.26 (즉조당)	10. 30 ~ 10. 31 (흥례문)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국악관현악, 창작무용, 푸전국악, 태권도 등	퓨전국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관람인원	회당 150명 (6,000명)	회당 1,200명 (2,400명)	회당 250명 (2,000명)	회당 3,000명 (6,000명)	
2009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국악, 활게 퍼다!	영원의 소리, 종묘제례악	전통연희! 경복궁에서 놀다	자경전, 가추예향
	기간	4. 16 ~ 10. 29 (매주 목, 7.2~8.27 제외)	5.9 ~ 5.31, 9.5~9.27 (매주 토, 일)	10. 16 ~ 10.17	10. 30 ~ 10. 31 (흥례문)	11.13~11.14 (자경전)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퓨전국악 등	종묘제례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판소리 등 전통국악 및 문화체험
	관람인원	회당 150명 (6,000명)	회당 1,500명 (24,000명)	회당 500명 (4,000명)	회당 3,000명 (6,000명)	회당 200명 (8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2010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간	6.6~7.11, 9.4~10.16 (매주 일, 낙선재)	6.13~7.4, 9.18~10.24 (토·일, 미술관 앞)	6.6~7.11, 9.5~10.10 (매주 토, 재궁)	5.5, 5.8, 10.3, 10.24, 10.30, 10.31 (토, 수정전)	
	공연횟수	24회(1일 2회)	14회	11회	6회	
	공연내용	풍류/민속음악 등 소규모 명품공연	전통과 퓨전이 함께하는 공연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연향 재현	
	관람인원	8,400명 (회당 350명)	9800명 (회당 700명)	2200명 (회당 200명)	21,000명 (회당 3,500명)	
2011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간	5.8~6.19, 9.18~10.16 (매주 일, 낙선재)	5.21~6.18, 9.17~10.16 (매주 토, 함녕전, 미술관)	5.7~6.18, 9.17~10.1	6.5~6.19, 9.18~10.7 (매주 일, 수정전)	
	공연횟수	24회	12회	10회	14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소규모 명품 공연	퓨전국악	해설이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국악관현악 외	
	관람인원	15,400 (회당 640명)	7,200 (회당 600명)	5,900	22,500 (회당 1,600명)	

다. 기타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국악의 대중화와 신진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총 250여회가 개최되어 4백여 국악단체가 출연하고 17만 명 이상이 감상하는 행사이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는 조선조 선비들이 풍류음악을 즐겼던 고택의 사랑방, 정자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명소를 활용하여 줄풍류, 가곡 등 풍류음악과 판소리, 산조 등 고품격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문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6년에 시작한 ‘생활음악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은 휴대폰 벨소리·통화연결음·학교 시중음악·지하철 안내방송용 신호음악, 명상·요가·태교음악, 세시풍속 절기음악, 다용도 국악배경음악 등과 같은 생활음악을 개발하고, 이의 대중화를 위하여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악기 과학화 및 악기개량 사업’은 2006년 설립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악기에 대한 음향 및 물성 연구사업, 국악기 개량 및 표준화, 고악기 복원·제작·연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2010년 이후 추진된 전통예술 관련 신규사업으로는 ‘G20 계기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전통예술분야 연수단원 지원’,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은퇴계층 활용 전통예술 관광자원화’ 등이 있다.

(2)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가.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는 외국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교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교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교육기관에 강사 및 악기를 지원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강습 이후 자율적으로 한국 전통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의 각급 강습 지원기관에 국악기를 기증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표 3-5-8 ● 연도별 외국인 대상 국악문화교실 사업 실적

연도	강습실시			악기기증			
	국가수 (개국)	기관수 (개)	참가자수 (명)	국가수 (개국)	기관수 (개)	기증악기수	
						종류(종)	점수(점)
2009	9	11	454	5	6	20	224
2010	5	6	403	4	5	20	354
2011	5	6	542	5	5	9	363
2012 (계획)	5	6	500	0	0	0	0

나.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2009년 최초로 우리 전통예술인들의 창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창설, 운영되었다. 연주와 강의, 외국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 등을 폭넓게 심사하여 4명의 젊은 예술가를 선발하였고, 이들은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3개월에서 6개월 간 체류하면서 대학, 문화원 등과 연결하여 국악강습과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예술가들과 교류하여 전통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레지던시 실시기관은 미국 시애틀 Northwest Heritage Resources, 미국 뉴욕·뉴저지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adjahmada 대학 등이다.

2010년도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그룹 형태로 예술작업이 이루어지는 전통예술 양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선정 대상에 개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단체를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향후 해외 공동 작업이나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제공하는 기금 직접지원과 함께 현지 국제 전문가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지원방식을 마련하였다. 특히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4개 권역의 주요 레지던시 기관, 아트마켓, 컨퍼런스, 페스티벌, 공연장, 대학 및 전문가와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여 공동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0년에 해외레지던시우수프로젝트발굴지원으로는 3개국 3개 도시에 1개 단체 및 개인 2명이, 그리고 해외협력기관레지던시지원으로는 5개국 9개 도시에 5개 단체 및 개인 6명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2011년도 레지던시 사업은 2010년과 동일하게 우수프로젝트와 기관협력프로젝트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우수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모집하여 2011년말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선발하였다. 현지 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초청장과 협업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서류심사로 선정하였다. 기관협력프로젝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전통예술인과 협업작업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기관을 탐색하여 총 9개의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미주, 남미 지역에 있는 레지던시 전문기관에 전통예술가를 파견하였다. 일차적인 서류심사는 국내에서 진행하였고,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최종 파견단체 선발결정은 협력기관의 레지던시 담당자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 2011년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으로 총 7개국, 30명의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표 3-5-9 ●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연도	파견내용			비고
	국가수 (개국)	기관수 (개)	참가자 수 (명)	
2009	3	4	4	레지던시, 강사파견 혼합형태
2010	7	8	30	
2011	7	11	30	우수/기관협력프로젝트 분리지원
2012 (계획)	10	11	24	

다.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전통음악 텍스트 번역사업 추진과 함께 시작된 이 사업은, 2007년에 판소리 5마당(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을 스페인어, 중국어 및 일본어 번역사업을 필두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전통예술 강습용 교재뿐 아니라 학술자료, 홍보물 등 다양한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도에는 해외에서 강습수요가 가장 많은 국악기(가야금-2009, 사물놀이-2009, 해금-2010, 단소-2010)의 국·영문 교재 제작과 함께 학술자료 번역(《작곡가를 위한 현대 가야금 기보법》)과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 국·영문 자막 전산시스템 및 사설집 제작을 지원하는 등 전통예술 및 판소리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다양한 형태로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표 3-5-10 ●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연도	제 작 물	내 용	비 고
2009	단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소의 이해 •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일문 500부 일본어 DVD 1,000개
2010	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금 이야기 • 정간보 읽는 법 • 연주자세, 조율법, 주법, 포지션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단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소의 이해 • 호흡법, 소리내기, 운지법 • 율명, 정간보의 이해, 연주법 	국문 500부, 영문 500부 (DVD포함)
	현대가야금 기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금의 이해 • 가야금 기보법 • 가야금 종류, 장르, 연주법, 악보 	국·영문 병기 1,200부 (DVD포함)
	수궁가 바디별 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궁가 전 대목 국·영문 정리, 번역, 주석작업 • 국·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8개 바디 자막 CD 제작
2011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가곡, 중요제례악 2편 	영문번역 및 출판 (2부/각 500부)
	적벽가 바디별 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벽가 전 대목 국·영문 정리, 번역, 주석작업 • 국·영문 자막시스템 제작 	5개 바디 자막 CD 제작
2012 (계획)	전통예술 우수도서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중 전통음악 관련 도서 - 판소리, 처용무 2편 • 영문번역 및 출판(2부/각 500부) 	
	고서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학궤범 번역, 주해삽입, 용어사전 제작 	

라.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

2011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방식(항공료 지원)과 간접 지원방식(통합 홍보물 제작, 교육 컨설팅, 국제교류 지식 정보 제공 등)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 높였다. 또한 해외 협력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전통공연 예술단체가 7개 월드뮤직 마켓, 12개 월드뮤직 페스티벌, 4개 공연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통예술 통합홍보물 음반 <into the light, music of Korea II>은 월드뮤직 전문잡지 ‘송라인’과 협력한 통합홍보물 매체홍보지원 사업을 통해 40개국에 35만부가 배포되었다.

● 표 3-5-11 ●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연도	세 부 사 업 명	진출국가	진 출 행 사
2010	예술경영지원센터-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 공동투어기금	오스트리아	Festival Glatt & Verkehrt
		벨기에	Stinks mixed 2010
		체코	Colours of Ostrava
		그리스	The International Petra Festival
		그리스	International Heraklion Festival
		덴마크	Roskildefestival
		스웨덴	Uppsala International Sacred Music Festival
		벨기에	Stinks mixed 2010
	폴란드	Bravefestival	
	NCTA연계 미국포크페스티벌 진출	미국	로웰포크페스티벌
			어메리칸 포크 페스티벌
	RASA세계문화센터 진출	네덜란드	RASA세계문화센터
	월드뮤직마켓 참가지원	덴마크	WOMEX
		호주	AWME
브라질		Mercado Cultural	
독일		Jazzahead!	
싱가포르		Live! Singapore	
계		13개국	17건 (14개 단체)
2011	월드뮤직 마켓 참가지원	미국	sxsw music
		프랑스	babel med music
		독일	Jazzahead
		덴마크	womex
		호주	awme
		브라질	mercado cultural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 투어기금)	네델란드	Theater Diligentia
		덴마크	RoskildeFestival
		폴란드	BraveFestival
		폴란드	SkopjeJazzFestival
		마케도니아	Off-Fest
		네델란드	Music Meeting
		벨기에외 3개국	Stinks mixed2011
	오스트리아	IMAGO DEI/Krems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영국	WOMAD UK	
	스웨덴	Ethno Sweden	
계	13개국	16건(12단체)	
2012 (계획)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한국음악특집)	오스트리아	IMAGO DEI
		폴란드	Jazztopad International Festival
		스웨덴	Ethno Sweden
	월드뮤직축제참가지원 (KAMS-EFWMF투어기금)	벨기에	Stinks mixed2012
		노르웨이	Forde traditional and worldmusic Festival
		스웨덴	Uppsala Konsert & Kongress presents Sacred Music Festival
월드뮤직마켓참가지원	스페인	MMVV	
	그리스	WOMEX	
계	7개국	8건(12단체)	

3) 국악 향유 기반 확충

(1) 국악방송 전국화 달성 추진

국악방송은 가청인구를 확대하고 국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악방송 지역 중계소를 설립하고 있다. 현재 국악방송은 서울 외 남원, 진도, 경주의 3개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1년에 전주, 부산 등 2개 지역 중계소가 추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지역 330만명, 전주, 익산, 김제지역 130만명의 가청인구가 추가되어 전 국민의 55%에 해당되는 총 2,612만명이 라디오를 통해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산과 전주방송국은 자체 프로그램 제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송출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주와 부산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중계소에는 2명의 상주인력이 중계소를 관리하고 방송 송출 및 지역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국악방송은 향후 대구, 강릉, 광주, 대전, 창원, 청주, 춘천, 제주에 차례로 국악방송 지역중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는 국악방송의 가청인구가 전 국민의 8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방송이 청취층을 넓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국악 대중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전통예술 단체 및 기관

1) 국립국악원

(1) 개관

국립국악원은 개원 60년을 맞이한 국악계의 종가로서 한국전통공연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창조적으로 전승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통하여 국악문화 향수기회 확대와 국악의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하며, 체계적인 국악학 연구 및 유물 보존을 통한 국악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 1951년 부산에 설립되었고, 1987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지역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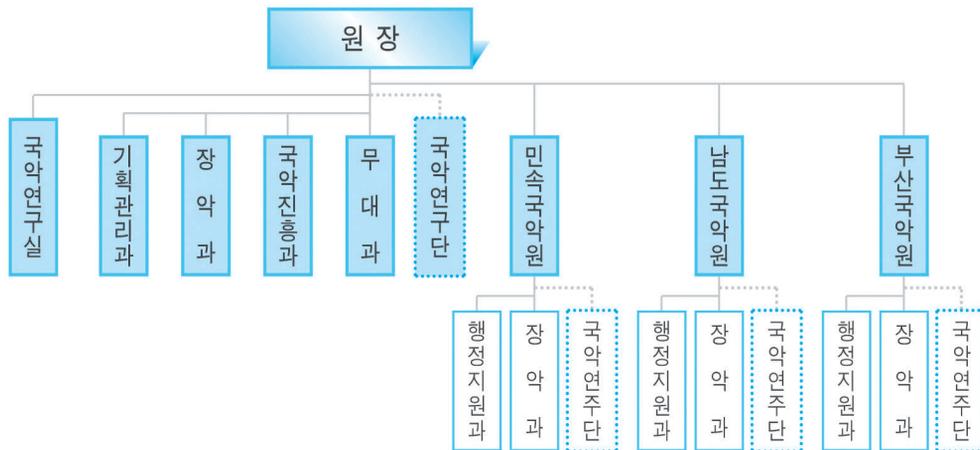
시키고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 전북 남원에 민속국악원을, 2004년 전남 진도에 남도국악원을, 2008년 부산에 부산국악원을 각각 개원하였다.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민족정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우리음악의 원형을 재현하는 정통국악공연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창작국악공연의 개최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생활 속의 우리음악을 실현하고자 하며, 전통과 창조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다채로운 상설·기획공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조직은 국악연구실, 기획관리과, 장악과, 국악진흥과, 무대과 등 1실 4과와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3개 지방국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별정직 38명, 복수직 26명, 일반직 56명, 기능직 41명 등 총 161명이다.

서울의 국악연주단은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4개의 전속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246명이다. 3개 지방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정원은 각각 민속국악원 70명, 남도국악원 50명, 부산국악원 60명이다.

● 그림 3-5-1 ● 국립국악원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2011년도 세출예산은 525억 12백만원으로, 사업비 428억원, 인건비 69억원, 기본경비 등 28억원이며, 세입예산은 10억 73백만원이다.

(2) 공연(장악과)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창작악단 등 4개의 전속 국악연주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악단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며, 민속악단은 민간 공동체 삶의 신명나는 민속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무용단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등 한국 춤의 전 장르를 전승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작품의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창작악단은 전통음악을 근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음악의 개발과 새로운 한국음악의 양식 창출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 <태평서곡> <언문외전> <연희 난장뜨다> <이생규장전> 등 다섯 개 대표브랜드 작품의 정착을 도모하고 남도국악원의 대표브랜드 작품으로 굿국 <씻김>을 개발·공연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국악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 정기공연·상설공연·기획공연 등의 자체 공연(273회/ 183,845명)과 각종 국악단체의 대관 공연(216회/74,187명)으로 모두 489회 공연에 258,032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 해외 공연으로 전통악무를 소개하여 국가의 문화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국립국악원은 이러한 예술적 자산 및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통음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으로 동시대인과 폭넓게 소통하여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3) 연구(연구실)

국립국악원은 국악학 학술연구와 국악기 연구, 국악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박물관을 운영하여 국악유물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악학 연구기반의 확대를 목적으로 <국악박물관 소장 국악유물도록>, <국악원 논문집 제23집, 제24집>,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42,43,44집>, <보정한국음악사>, <국악기 연구보고서 2011>를 발간하였고 일본 호우사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악학궤범(호사문고)>을 영인하였다. 또한 국악계 공연·단체·교육 등의 현황을 조사, 통계·분석하여 국악계의 전체 현황과 악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국악연감 2010>을 발간하였으며,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2>를 발간하여 원로 국악인의 구술을 통해 근현대국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등 8종 12권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고산유금 복원 기념음반, 근·현대 국악기록시리즈1 <국립국악원 출판류 ‘영산회상’> 등 음향자료(CD) 2건을 제작하여 국악을 보존하고,

전송·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개원 60주년을 기념하여 ‘동서양의 고악보와 무보’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와 ‘국악60년 한국음악학60년’을 주제로 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악기연구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특종 및 특경을 복원 제작하여 기증하였으며, 방학 중 단소 제작체험 특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단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악아카이브’에서는 국립국악원이 그동안 소장해 온 각종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의 국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자료의 보존성을 높이며 나아가 국민이 국악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국립국악원에는 연간 70,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악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 음악편성을 중심으로 한 ‘악기전시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가 전시되어 있는 ‘세계악기실’, 국악 역사의 흐름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이해 할 수 있는 ‘국악사실’이 있다.

명인들의 유품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명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는 ‘명인실’은 관람객이 많이 찾는 우면당으로 확대 개편 전시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3D 입체영상관’과 ‘국악체험실’ 등을 갖추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악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악이 있는 국악박물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진 예술가에게 발표 기회를 열어주고 관람객에게는 살아있는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추진성과(장악과, 진흥과, 연구실)

2008년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시도된 ‘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의 초석을 바탕으로 대표브랜드 작품의 공연을 정례화하여 2011년 ‘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 (2회, 20,349명), ‘경서도 소리극 - 황진이’ (10회, 4,597명), ‘궁중연례악 - 태평서곡’ (8회, 4,687명) 총 3작품을 전통공연예술의 원형 보존, 보급 및 창조적 계승에 걸맞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국가브랜드 작품으로 창출하였다. 또한 남도국악원에서는 남도의 특성이 담긴 민속예술을 작품화한 ‘굿극 - 씨름’을 개발하여 공연(4회, 2,324명)하였다.

더불어 2009년 새롭게 시작된 ‘국악을 국민속으로’는 전국의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찾아가는 친서민 국악공연으로 추진하여 2011년 54회 25,137명의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정부행사 등을 활용하여 해외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국악의 세계화를 추진(23회, 6,621명)하였다.

온라인 국악교육 시스템인 e-국악아카데미를 통한 국악강좌 실시 및 단소·소금·판소리

· 사물놀이 중급과정 4개 실기콘텐츠와 온라인국악체험, 온라인국악공연감상, 학교교육용맛춤자료 콘텐츠를 추가 개발을 통해 국악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호음악등 생활국악 음원 127곡과 인천국제공항에 적합한 14곡의 음원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국악의 올바른 보존전승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악박물관 소장 국악유물도록>, <국악원 논문집 제23집, 제24집>, <악학궤범(호사문고)>,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42, 43, 44집>,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 2>, <국악연감 2011> 등 8종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와 더불어 국악기의 정통성 확립과 신악기 개발을 위하여 베트남 궁중악기(특종, 특경) 복원 제작 및 기증, <2011 국악기 연구보고서> 발간, 단소제작체험 청소년 특강, 국립국악원 박물관 명인실 소장악기(24종) 실측도 작성 등의 국악기 연구를 지속하였다.

● 사진 3-5-1 ● 국립국악원



2)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1) 개관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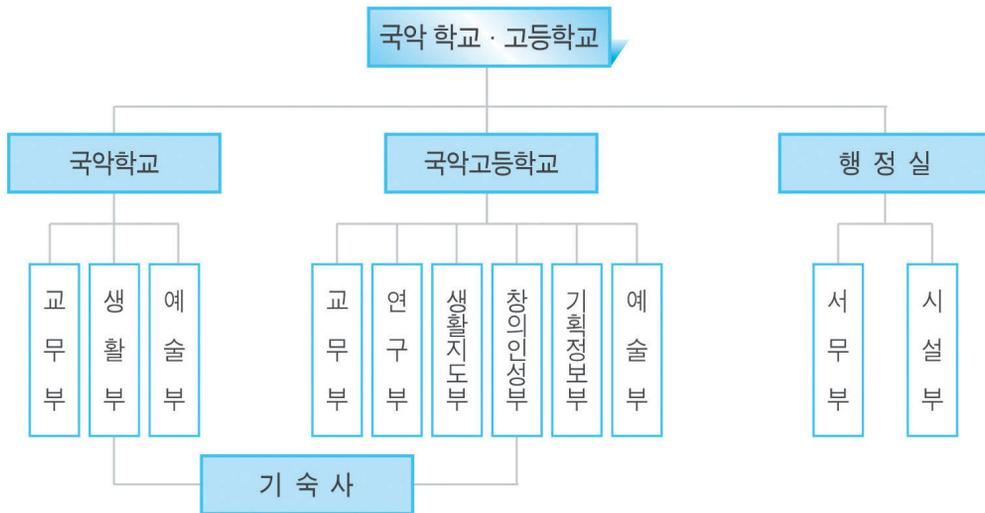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38호에 의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이 공포되어 문교부 직속학교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6일에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65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1999년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9월 27일 국악학교는 학년 당 3학급(학급인원 35명), 고등학교는 학년 당 5학급(학급인원 30명)으로 인가 받았고, 2002년 3월 7일에는 국악학교 교사동을 신축하여 중·고등학교가 건물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국악학교 9학급, 국악고등학교 15학급으로 완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악고등학교와 국악학교의 2개 학교가 겸임 교장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실이 교육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악고등학교는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창의인성부, 기획정보부, 예술부의 6개 부서로 구성되고, 국악학교는 교무부, 생활부, 예술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실은 서무부와 시설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교장 1명, 교감 2명, 행정실장 1명, 중학교 교원 22명, 고등학교 교원 39명, 행정실 직원 18명으로 정규직 총 83명과 기숙사 5명, 사무보조 4명, 조리원 7명 등 계약직 22명으로 총 105명이며, 국악학교에 312명, 고등학교에 44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71억 1,831만원으로, 인건비 41억 4,904만원, 기본경비 10억 9,326만원, 국악교육지원 18억 7,600만원이다.

● 그림 3-5-2 ●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 홈페이지: www.gukak.hs.kr

(2) 기본업무

국악고등학교에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우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선배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수상자 초청공연’, 6월 초에 정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무대에 올리는 ‘목멱예술제 우리가락’과 ‘목멱예술제 우리춤’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자매학교 학생들과 양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나누는 ‘한·중 교류 음악회’, 11월 말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악가무(樂歌舞) 일체로 공연하는 ‘목멱한마당’, 12월에는 전통예술교류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리누리예술단공연, 학년말에 지방의 국악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순회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악학교에서는 3월 초에 ‘신입생 환영연주회’, 12월 말에 종합 예술제인 ‘소리샘 예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초에는 인근 초등학교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악기를 소개하고 전통음악과 무용을 함께 나누는 ‘전통음악교실’을, 3학년은 중학교과정에서 배운 기량을 12월에 국악챌린지(지방순회공연)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자기 연찬을 위해 1986년에 창단한 ‘목멱악회’의 정기 연주회가 매년 10월에 있으며, 우리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추진성과

2011년 추진된 사업으로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3.9), 국립국악원 60주년 기념행사 참여(4.12), 종묘대제 일무공연(5.1)과,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및 교육연수 선진화 포럼 공연(5.26),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5.28-29),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6.11), 라오스 교육관리자 연수 개최식(6.13), 제20회 고척고등학교 길마제 행사 찬조 공연(8.26), 2011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9.7),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9.25), 제9회 서울과학축전 개막공연 참가(10.21), 추계 종묘대제 봉행행사(11.5), 제82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축하공연(11.5),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 식전행사(11.10), 김우수 안전헬멧 전달 및 안전수칙 선포식(11.17), 2012년 화천산천어축제 선등거리 점등식 오프닝 공연(12.10), 조선왕조 도서환수 기념행사(12.13), 2011우정의 밤 행사 식전 공연(12.14), 2011년 청소년 전통예술단 연수 및 공연(12.28 -2012. 1.3) 산천어축제 개막식 및 축제 프로그램 참여 (2012.1.7-8), 2012강남구 신년인사회 국악공연(2012.1.11) 등 이다.

교내 중요 행사로 전국 시도 순회공연(제4회 임페리얼 국악챌린지: 제주문예회관, 11.15,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12.17-19) ‘제16회 2010 국악경연대회 수상자 초청공연’(4.29)을 비롯하여 ‘개교 56돌 기념 목멱예술제 우리가락(5.25)·우리 춤 공연(5.26.)’, ‘제12회 한중교류음악회(중국 북경 자매학교 6.1)’, 국악고 주최의 ‘전국 초·중등 무용경연대회(8.18~19)’, ‘제12회 목멱한마당(10.26)’, ‘목멱악회(11.25)’를 성황리에 추진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위촉으로 국악예능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예술영재육성을 위해 서울시 소재 중학교 1, 2학년(단, 예술계 중학교는 제외),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 해 20명 이상의 국악 영재들이 수료하였으며 1년 동안의 학습결과를 수료식과 함께 발표회를 열어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7.24, 11.20). 또한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전통예술 영재육성을 위한 ‘소리누리 예술단’을 2007년 12월 창단하였으며, 2010년 4회의 전국 순회공연과 4회의 해외공연, 1회의 정기공연<우리가 슈퍼스타>를 개최하여 전국에 전통예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총체적 예술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심화교육을 받음으로써 전통예술의 질 높은 공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악학교에서는 해마다 5월말에 전통음악교실을 열어 서울 및 경기인근의 초등학교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새터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초대하여 국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이징국제청소년대연합활동(8.13-21), UNESCO 초청 국제청소년 평화문화예술제(8.23-25) 등의 국제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세계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 표 3-5-12 ●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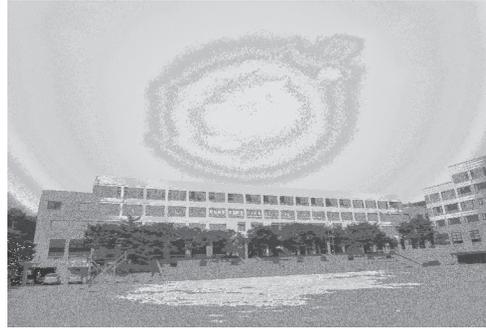
학교별	구분	내 용
국악고등학교	공연활동	3.9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4.12 국립국악원 60주년 기념행사 참여 4.29 제16회 2010 국악경연대회 수상자 초청공연 5.1 종묘대제 일무공연 5. 25-26 개교 56돌 기념 목멱예술제 우리가락(5.25)·우리 춤 공연(5.26.) 5.26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및 교육연수 선진화 포럼 공연 5.28-29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 6.1 제12회 한중교류음악회(중국 북경 자매학교)

학교 별	구분	내 용	
		6.11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 6.13 라오스 교육관리자 연수 계획식 8.18-19 국악고 주최의 '전국 초·중등 무용경연대회' 8.26 제20회 고척고등학교 길마제 행사 찬조 공연 9.7 2011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9.25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10.21 제9회 서울과학축전 개막공연 참가 10.26 제12회 목멱한마당 11.5 추계 종묘대제 봉행행사 11.5 제82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축하공연 11.10 우리쌀 소비촉진 운동 식전행사 11.17 김우수 안전헬멧 전달 및 안전수칙 선포식 11.25 목멱악회 12.10 2012년 화천산천어축제 선등거리 점등식 오프닝 공연 12.13 조선왕조 도서환수 기념행사 12.14 2011우정의 밤 행사 식전 공연 12.17-19 전국 시도 순회공연(제4회 임페리얼 국악챌린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12.28- '12.1.3 2011년 청소년 전통예술단 연수 및 공연 '12.1.7-8 산천어축제 개막식 및 축제 프로그램 참여 '12.1.11 2012강남구 신년인사회 국악공연	
	교류활동	6.1 제12회 한·중 교류음악회(중국 북경 자매학교)	
	봉사활동	6.18, 10.29 아프리카 빈민마을 체험(1학년), / 서울랜드 6.18, 10.29 청소년 환경보호기초활동, 청소년 인권교육 체험활동 (2,3학년) / 성동청소년 문화의 집	
	국악학교	공연 및 교류활동	3.2 신입생 환영 연주회(우륵당) 4.12 국립국악원 60주년 기념식 공연 5.31-6.3 전통음악교실(우륵당, 총11개교 1,200명 참여) 8.13-21 베이징국제청소년대연환활동 참가(중국 베이징) 8.23-25 UNESCO 초청 국제청소년평화문화예술제 참가(중국 산둥성 봉래) 8.29 일본교직원방한단 환영만찬공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9.8 3학년 국악봉사활동(큰사랑노인전문병원, 사랑의집, 서울시여성복지센터) 11.15 제4회 임페리얼국악챌린지(제주문화회관) 12.22 제19회 소리샘예술제(국립국악원 예약당) 12.23 국립국악학교 개교 20주년 동문음악회(국립국악원 예약당) 11.25 목멱악회 (우륵당)

● 사진 3-5-2 ● 국악학교 ·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국악고등학교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1) 개관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 1일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1960년 5월 13일 종로구 관훈동에서 사립인 국악예술학교로 개교하여 1960년 6월 8일 국악예술학교 부설 ‘관광예술 요원 양성소’(학제 2년의 고등학교 과정)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64년 남산 교사로 이전하였다가 1968년 종로구 운니동으로, 1970년 4월 7일 다시 석관동 교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71년 2월 28일에는 중학교 과정의 국악예술학교를 중단하고, 1971년 9월 30일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국악예술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 2월 28일 재단법인 국악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다. 1983년 5월 30일에는 학교 법인 국악학원으로 조직 변경하고 1984년 12월 17일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10월 29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흥동 교사로 이전하였다.

중학교 과정인 서울국악예술학교는 2000년 4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8월 23일 중학교 과정의 학력 인정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3월 2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 및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국립 학교인 전통예술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로 각각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전통예술학교가 학년마다 각 2학급씩 전체 6학급, 전통예술고등학교가 학년마다 각 6학급씩 전체 18학급으로 편제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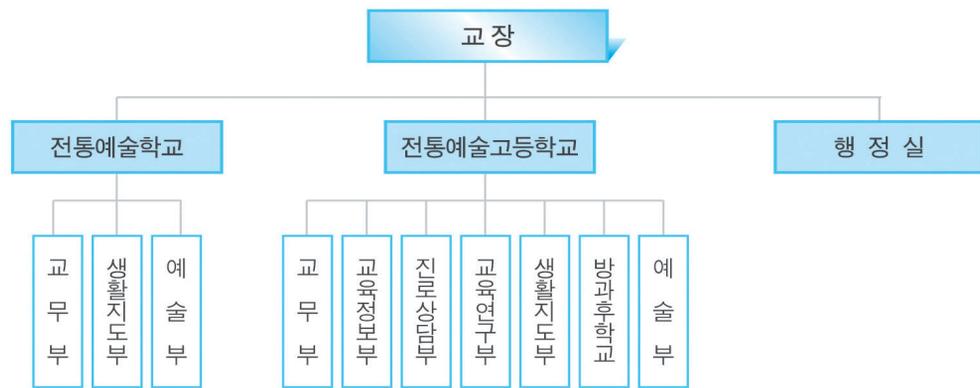
입학 정원은 전통예술학교가 60명, 전통예술고등학교 180명 등 전체 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인 전통예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전통예술고등학교는 각각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1명의 교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교무기획부, 진로상담부, 교육연구부, 생활지도부, 방과후학교운영부, 교육정보부, 예술부의 7개 부서가 있고 중학교에는 교무부, 생활지도부, 예술부의 3개 부서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겸하여 지원하고 있는 행정실이 있다. 구성원으로는 교장 1명, 교감 2명, 중학교 교원 8명, 고등학교 교원 29명, 행정실 직원 9명 등 정규직원 전체 49명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 10명과 기숙사를 포함한 행정실 소속 계약직 32명이 학교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학생 수는 중학교 3개 학년 각 2학급씩 총 6학급에 172명이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는 3개 학년 각 6학급씩 총 18학급에 533명이 재학하고 있다.

전통예술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1억원 41백만원으로 인건비가 25억 98백만원, 사업비가 35억 43백만원이다.

● 그림 3-5-3 ●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2번지
 * 홈페이지: www.kugak-am,hs.kr

(2) 기본업무

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알맞은 전통예술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3월에는 ‘신입생 환영연주회’, 9월 30일에는 종합 예술제인 ‘민족예술 대제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동아리 한마당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성과 다양성, 개방성이 크게 확대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예술 행사 활동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봉사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공연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봉사정신을 함양해 나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인 예술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며 우리 전통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문화사절단과 문화지킴이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추진 성과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학교 특성을 살리고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통예술 공연을 통하여 봉사정신의 함양, 국제 교류를 통한 문화 예술의 질적 향상 및 국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 추진한 실적 가운데 우선 학교 주관 행사를 살펴보면, 재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2011 신입생환영연주회(03. 29)’를 시작으로 공연 실습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연극과의 워크샵(06. 24)’, 그리고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전통예술인들의 큰 잔치로서 성대하게 치러진 ‘제50회 민족예술대제전(9. 30, 국립국악원 예약당)’, 2011학년도 ‘제14회 작곡과 정기 발표회(12. 17)’, ‘무용과 전공발표회(12. 26)’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학생들의 실기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공연을 통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금천 벚꽃 축제 풍물 축하 공연(04. 09)’, ‘서울 현충원 나라사랑 문화제 초청공연(07. 14)’, ‘금천구 구민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의 축하공연(06. 13)’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지역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전통공연 예술의 진미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인 행사는 ‘학부모와 장관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필·통·독” 축하공연(04. 18)’에 참가하였으며, ‘안산시립국악단의 시원한 음악회 출연(08. 17,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본 가고시마현 MBC방송 제39회 MBC 여름축제 공연(07.20~07.23, 가고시마현), 한일 중고생교류 방일단 학생참가(08.03~08.07)’, ‘국립국악원 개원60주년 기념공연 찬조출연(04. 12, 국립국악원)’ 등 국제 행사 및 국내의 수준 높은 많은 행사에 초청되어 전통예술을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본교 합창 동아리인 ‘두레소리’가 동아리 창단 과정

등의 내용을 다룬 명필름 제작, 제목 ‘두레소리’ 영화에 출연하여 전통음악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으로 일본 가고시마를 방문하여 ‘가고시마 문화 예술공연 교류(11.18~11.22)’를 갖는 등 전통공연 예술의 사회적·국제적인 위상정립과 보급을 위하여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초·중학생들의 한국 음악 및 음악 연극의 영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는 한국음악 분야와 음악극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악과 20명·음악극과 40명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고 우수하게 영재학급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수료증을 교부하는 등 전통공연예술의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21세기의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을 이끌어갈 영재를 길러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전통공연 예술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 표 3-5-13 ● 2011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학교별	구분	내 용
전통예술 고등학교	공연활동	02.06 두레소리 ‘시네마뮤직 토크’(대학로 세모극장) 03.29 2011 신입생환영연주회(본교 향사기념관) 04.09 금천 벚꽃 축제 풍물 축하공연(금천구청 일원) 04.05 영화 ‘두레소리’ 기자 및 VIP 시사회 합창공연(건대입구 롯데 시네마) 04.12 국립국악원 개원60주년 기념공연 찬조출연(국립국악원 예약당) 04.14 2012 금천청소년문화존 개막식 공연(금천청소년수련관) 04.18 학부모와 장관이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 “필·통·툇” 축하공연(건설회관) 05.08 기산 박헌봉기념 축제 찬조출연(경남 산청) 05.10 두레소리 동아리 영화 ‘두레소리’ 전국개봉 05.30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회 기원 LG휘센합창경연대회 축하공연(KBS홀) 06.02 어린이청소년연극 ‘소문과 한판’ 中 두레소리 초청공연(국립극장) 06.09~06.10 2012 전주대사습 기획공연 및 학생전국대회 축하공연(전주 한옥마을) 06.12 201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축하공연(정동극장) 06.13 금천구 구민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 축하공연(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06.16 2012 아리랑 페스티벌 메인 공연(국립박물관) 07.13 KBS 국악한마당 출연(KBS홀) 07.14 서울현충원 “나라사랑 문화제” 초청공연(현충원 內 대공연장) 07.18 두레소리 동아리 제4회 정기공연(본교 향사기념관) 06.24 2011 연희극과 연극전공 전공발표회(본교 소극장) 07.20~07.23 일본 가고시마현 MBC방송 제39회 MBC 여름축제 공연(가고시마현)

학교별	구분	내 용
전통예술학교		08.06 영재학급 하계 발표회(본교 향사기념관) 08.17 안산시립국악단의 시원한 음악회 사물놀이 협연(안산문화예술의전당) 09.21 제11회 연희극과 정기공연(본교 향사기념관) 09.30 제50회 민족예술대제전(국립국악원 예악당) 10.18 영재교육 운영 학교장 워크숍 학생 공연(서울시과학전시관) 11.03~11.04 향사 박귀희 명창 추모 기념공연(경상북도 칠곡교육문화회관) 11.18 영재학급 종합발표회(본교 향사기념관) 11.19 본교 연극동아리 “극장식구” 금천구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문화존 공연 11.18~11.22 2011 일본 가고시마현 한일 문화교류 공연(일본 가고시마) 11.26 본교 실내악단 동아리 “은가비” 제1회 정기공연(소극장 창덕궁) 12.17 제14회 작곡전공 정기발표회(본교 향사기념관) 12.26 2011 무용과 전공 발표회(본교 향사기념관) 12.28~01.03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해외연수 및 공연(독일, 오스트리아)
	국제교류	07.20~07.23 일본 가고시마현 MBC방송 제39회 MBC 여름축제 공연(가고시마현) 08.03~08.07 일본 가고시마현 교류단 본교 방문 11.18~11.22 일본 가고시마 교류 공연(가고시마)
	봉사활동	04.09 금천 벚꽃 축제 풍물 축하공연(금천구청 일원) 07.14 서울현충원 “나라사랑 문화제” 초청공연(현충원 內 대공연장)
	기 타	04.23 영재학교 선발 05.07 영재학교 개강식 08.06 영재학교 하계 발표회 11.18 영재학교 발표회/수료식
전통예술학교	공연 및 교류활동	03.14 KBS 국악한마당 ‘우리는 신입생’ 출연 03.19 신입생활영연주회(본교 향사기념관) 04.02 진로체험활동으로 국회의사당 방문 04.12 국립국악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가 06.07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문예체 프로그램 연희극 동아리 상설 운영 07.13 찾아가는 문화한마당 공연(금천구청 금나래홀) 07.25~07.28 학생회 간부 해외(중국) 탐방 실시 08.18~08.19 문예체 프로그램 연희극 동아리 하계 캠프 실시(경기도 가평) 08.3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원초청 공연 찬조출연(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 09.19 금천 한가위 대축제 찬조 출연(금천구청 금나래홀) 11.30 제11회 전통예술제전 실시(국립국악원) 12.23 전통연희예술단 창단 공연(본교 향사기념관)

● 사진 3-5-3 ●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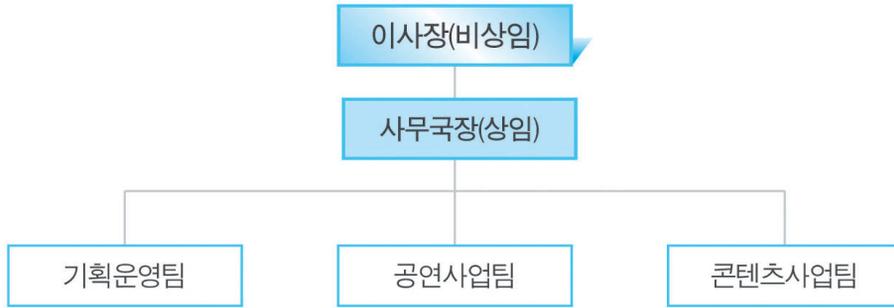
(1) 개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7년 (재)국악문화재단으로 출발하여 국악강습, 국립국악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국립국악원 후원조직 성격이 강한 (재)국악문화재단의 인적개편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09.7.22자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새롭게 확대 개편되었다. 동 재단의 주요사업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전통공연예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전통공연예술 인력양성 관련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이사장(비상임) 1명, 사무국장(상임) 1명과 기획운영팀, 공연사업팀, 콘텐츠사업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통니눔사

업 인력을 포함, 총 18명으로 증원하여 국악교육과 공연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그림 3-5-4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2011년 예산은 총 83억원으로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사업비 3.4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비가 28.3억원, 기금 및 기타보조금사업이 51.6억원이다.

(2) 기본업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업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을 하여 연간 1700여명에게 국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전통연희 축제 등의 전통예술 원형복원 사업과 해외국악보급사업, 아리랑 세계화 사업 등 총 39개 사업의 전통예술 대중화·산업화·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통나눔사업을 통해 전국의 소외계층 지역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연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추진 성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간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살려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차원의 다양한 전통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예술 발굴 및 대중화, 관광상품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9과제), 전통연희상설공연 및 축제(총29회), 고궁공연관광자원화(3개공 총50회 공연), 아리랑 세계화(공연2, 음반1, 학술회의1, 작곡5), 방방곡곡문화공감 공연(5회)을 추진하였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나눔음악회(총27회), 전통 성년식(총1회), 청소년예절학교 운영(1회), 전통공연예술 교육자료 DVD발간(8만부), 배포(7천곳)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내·외국인 교육확대 및 국가브랜드 추진사업으로서 국악강습 브랜드화 연구보고서 발간(1건), 전통예술문화학교 운영(총75개반, 1600여명 수료), 북미권 입양아 모국방문단 지원(40명), 한 아세안 오케스트라 공연·포럼(2회, 1회)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보급, 전승, 대중화하였다.

기타 전통예술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소리누리예술단 운영(40명, 2회 공연), 예술고 국악전공생 심화교육사업(지방예술고 25명) 등을 추진하였고, 전통예술 텍스트번역(단소, 해금 교재 1,000부 제작) 등 전통예술의 전승, 복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등 4개국 해외공연, 전통예술 해외레지던시 사업(기관협력 4개국 4기관, 우수프로젝트 4개국 7기관 31명 파견)을 수행함으로써 전통공연예술을 해외에 널리 홍보, 보급하였다.

● 표 3-5-14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성과

보조금 사업명	금 액 (단위 : 천원)	비 고
전통연희활성화	860,000	상설공연 20회, 작품(4편)·대본(4편)공모, 연희축제1회
전통예술 복원, 재현	270,000	지정과제(2개) 및 공모과제(7개) 선정, 지원
아리랑세계화사업	360,000	지역아리랑 단체공연 / 지한파음반제작
아시아 음원개발사업	500,000	중앙아시아 4국 전통음악 콘텐츠개발, 다규1편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100,000	전통예술 우수도서 2종 영문판 1,000부 제작
북미권역 한국방문 전통문화체험	76,550	한인2세 및 다민족가정자녀 등 40명 한국문화체험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25,000	아시아 10개국 80명, 전통예술연주자 광복절 기념식 및 서울 1회 공연, 제 5차 한-아세안 문화자원 협력회의
유네스코등재 10주년기념공연	120,000	
청소년방학예술캠프	60,000	학생 91명, 자원봉사자 9명, 강사 11명 참가
해외레지던시 사업	400,000	기관협력 4국 4기관 15명 / 우수프로젝트 4국 7기관 16명 지원
벨기에 브뤼셀 악기박물관 국악기 특별전 축하공연(해·흥)	60,000	한·벨기에 수교110주년 기념 브뤼셀악기박물관 국악기특별전 축하공연 / 국립국악원 22명 파견
국고보조금(11건) 합계	2,831,550	
전통나눔사업	1,300,000	문화소외지역 대상 전통예술공연·행사 29회 실시 DVD1종(80,000부) 제작 배포
중국 청해 탕카축제 참가공연	72,058	충남국악단 42명, “오고무” 등 11작품 3회공연 3,000명 관람
세계정치학대회	5,670	국립국악원 51명, “학연화대무 등 4종목” 1회 공연, 200명 관람

보조금 사업명	금 액 (단위: 천원)	비 고
유럽방송연합 민속축제참가	20,136	크로아티아 오파티아 공연단(노름마치), KBS라디오 파견
국제국악연수	100,000	해외음악학자 11개국 19명(문화동반자사업 4명별도) 연수
인도내 한국의해 공연	147,000	뉴델리, 첸나이 2개도시 3회공연, 5500명 관람 / 국립민속국악원, 라스트포원 등 40명 참가
청소년 전통예술단 국외연수, 공연	120,000	국고 및 전통예고 전통예술단 39명, 국외 연수와 공연을 통해 국악인재 양성 및 음악관 정립
세계무형유산활용관광자원화	920,490	중요 상설공연 10회(직접사업), 세계무형유산 활용 축제지원(전주세계소리축제외 4개)
고궁공연 관광자원화	886,320	3대궁(경복궁, 창덕궁, 종묘)에서 전통공연 50회 실시
재외동포거점지역 예술가 파견	148,460	재외동포거점지역 5개국 5지역 전통예술가 7명 파견
해외문화예술봉사단 파견(해·홍)	120,000	3개국(러시아, 카자흐, 벨라루스) 15명 대학생 봉사단 파견
소리누리예술단 운영	80,000	초중고교 40명 선발, 워크숍 및 정기연주회 등 진행
전국 예술고 국악심화교육	70,000	지방소재 예술계고교 국악전공생 25명 심화교육
관현맹인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470,000	시각장애인 6명 선발채용, 창단연주회 등 17회 공연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280,000	전통마을축제지원 및 홍보(36개 마을 지원 및 홍보)
기금(15건) 합계	4,740,134	
방방곡곡 문화공감	196,805	2개 국악원 지역문화회관 공연, 8개 지역 13회 공연
의정부 예술의전당 행사	25,000	신년음악회, 국립국악원 “왕조의꿈, 태평서곡” 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	12,640	국립남도국악원 56명 “굿극-씻김” 공연
IOC위원 초청 오찬 및 축하공연	10,595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국악원 37명 “부채춤” 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50,000	국립민속국악원 등 91명, “신판놀음” 5회 공연
나주시초청 영산강문화축제	5,000	국립남도국악원 29명, “남도굿거리 등 5종목” 1회 공연
한성백제문화제 폐막식공연	7,000	국립국악원 54명, “수제천 등 4종목” 1회 공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 공연	19,000	국립국악원 45명, 어린이음악극 “오늘이” 1회 공연
군위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11,700	국립민속국악원 27명, 어린이창극 “깨비깨비 도깨비” 1회공연
대한민국작곡상30주년기념음악회	5,000	국립국악원 48명, “창작곡 대바람소리 등 5곡” 1회 공연
고산유금 복원기념사업	10,000	목포시 지원, 고산유금 복원음반제작
외규장각 의궤귀환 환영대회 행사	24,040	국립국악원 157명, 의궤귀환 환영대회 기념 1회 공연
국악동요제	50,000	국악동요제, 부르기대회, 작곡워크숍, 동요선집 제22집 제작
기타 보조금(13건) 합계	426,780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	258,886	3개과정, 75개반, 1,518명 수료
해외민간문화교류사업 지원	83,930	일본(하코다테, 이키), 사이판 등 강사 및 공연단 파견 공연단 및 강사 43명 파견, 10회 공연, 5회 교육
자체사업 합계	342,816	
지원 사업비 총계	8,341,280	

5) (재)국악방송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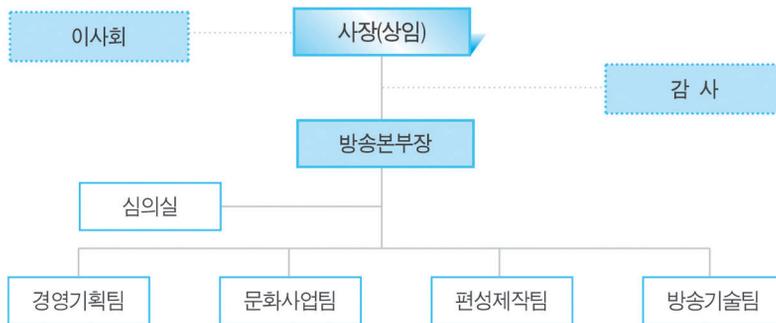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 FM방송은, 민족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목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경주 중계소가 완공되는 등 현재 서울·경기와 전북남원, 전남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으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주와 부산지역에 국악방송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 표 3-5-15 ●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명칭	방송구역	주파수	송신소	개국
국악FM방송국	서울, 경기 일원	99.1MHZ	남산서울타워	2001. 3. 2
국악FM남원중계소	전북 남원시 일원	95.9MHZ	남원 교룡산	2001. 6. 1
국악FM남도중계소	전남 진도, 목포, 해남, 강진일원	94.7MHZ	해남 대둔산	2006. 7. 6
국악FM경주중계소	포항 및 경주일원	107.9MHZ	포항 도음산	2010. 4. 7

(재)국악방송은 사장 1명, 방송본부장 1명, 심의실,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편성제작팀, 방송기술팀 등 1본부 1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조직개편으로 비상임 이사장제를 상임이사장제로 전환하였다. 정원은 32명이며, 지역중계소 인력을 포함해 현원 32명이다.

● 그림 3-5-5 ● (재)국악방송 조직도



※ 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 DMS 10~12층
 ※ 홈페이지: <http://www.gugakfm.co.kr>

(재)국악방송의 2010년도 예산은 70억 12백만원으로, 사업비 53억 68백만원, 인건비 11억 84백만원, 경상운영비 4억 60백만원이다.

(2) 기본업무

(재)국악방송은 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교양 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프로그램을 제작해 하루 24시간 라디오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권역 이외의 국민들을 위해 인터넷방송(www.gugakfm.co.kr)을 통해 실시간방송 및 다시듣기, 다시보기 방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문화부지원 사업으로 32명 인력운영과 송·중계소 4곳을 운영하고 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방송사고의 위험해소하기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음악가를 양성함으로써 국악의 미래를 선도하고 21세기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 제시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본선 2010. 8. 13.) 수행, 2009 국악창작곡 개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세계음악 시장에 알리는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미국공연(2010. 4. 14. ~ 2010. 4. 27.) 수행, 유럽현지 극장과 한국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통한 장기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2010 유럽공연(2010. 11. 9 ~ 11. 29) 수행, 한국전통음악인 산조를 국제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기회 마련을 위한 제2회 뉴욕 산조축제(2010. 10. 28 ~ 29)를 수행하였다.

방송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교육, 소외계층대상, 청취자참여, 주부교양, 공연실황, 청소년교양 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프로그램 5,612편 제작해 하루 24시간 방송과 특집프로 13편을 제작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2회, 제18회 불교 언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국악음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화(2010년 말 4만7천곡)와 음반 산업화와 민족음악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보존을 위해 전통음악 녹음제작(2010년 말 160CD분량) 하고 있으며, 비 청취지역 국민을 위한 인터넷방송을 운영(www.gugakfm.co.kr)과 교육자료 보급 및 전통음악 해외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 대행사업으로는 공개방송 등을 통해 국악방송 인지도 등을 높이고 국고보조금 이외의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사업으로는

제 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10 전국 농업인 품물경연대회’(농림부 주최, 2010. 11. 6), 2010 설날 국악 한마당(서울시주최, 2010. 2. 14), 제35회 정선 아리랑제 공연대행(2010. 10. 6. ~ 10. 8.), 2010년 한가위 문화마당 공연대행(서울시 주최, 2010. 9. 22), 2010년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축하공연(서울시 주최, 2010. 10. 3), 제4회 고운 어울림축제 공연대행(2010. 9. 26), 제29회 대한민국국악제(한국국악협회주최, 2010.10.30-10.31), 2010 서울DMC결쳐오픈 DMC결쳐 樂 페스티벌(2010. 9. 11) 사업 등을 수행 하였다.

● 표 3-5-16 ●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1년 4월 현재)

구분	생/녹	시간	프로그램						진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
전통음악 감상	녹	05-07	술바람 물소리						김정수	
출근길 음악정보	생	07-09	창호에 드린 햇살						오정해	
전문감상(감상)	생	09-10	최종민의 국악산책			판소리여행			최종민	윤진철
책정보, 책낭독	생	10-11	유자효의 책 읽는 아침						유자효	
국악강습초보이해 (영어방송)	생	11-12	국악이 좋아요			전통의 향기		이상화	Kim, Kali	
신청곡, 음악정보 (정보오락)	생	12-14	김용우의 행복한 하루			얼썩 991		김용우	이근찬	
종합오락시사풍자	생	14-16	우면골 상사디야			우면골 일요마당		김종엽 김영화	이정일	
전통문화버라이어티 (어린이대상) (고전낭독)	생	16-17	꿈꾸는 아리랑			국악은 내친구		윤중강	위훈	
		17-18				라디오 북			홍진욱	
퇴근길 소통 (특강)(대담)	생	18-19	맛있는 라디오991			공개 국악특강	991일요 초대석	은영선	전문가 정유희	
공연중계(대담) (희귀음악)	생/녹	19-20	FM국악당			소리의힘	음악박물관	현경채 외	노재명	김호성
		20-21				명인명창 100				
전통, 창작 감상	생	21-22	사랑이 찾아오면			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		김은하	이금희	
문학전문 책 낭독	생	22-24	행복한 문학						원재훈	
세계음악 전문감상	녹	00-01	황윤기의 세계음악 여행			아시아음악여행		황윤기	이용식	
전통, 창작감상	녹	01-03	깊은밤 깊은소리						김우성	
전통, 창작 전곡BGM	녹	03-05	흐르는 음악처럼						·	

● 표 3-5-17 ●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일자	수상 내역	연출	구성
2010.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국민별감 박춘재’)	김성욱	남화정
2010.12	국악방송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10 방송미디어 분야 우수상 수상	국악방송	
2010.12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라디오부문 최우수상) (특집 부처님 오신날 ‘건달바의 노래’)	김은하	남화정
2011.02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가곡, 태평을 노래하다’)	전성희 김혜경	박근희 유찬숙

4. 향후 전망 및 계획

2012년에는 전통예술의 산업기반조성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악중·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제도권 내 체계적인 전통예술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두 학교가 전통예술 분야 인재를 육성하여 전통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기틀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와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각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통예술을 현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전통예술의 국내외 위상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전통예술 산업화’ 사업을 통해 전통예술이 미디어,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상품성을 확보하고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민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콘텐츠 제작 지원이 시작된다. 장기적으로 전통예술이 국가지원의 범주를 넘어서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어 대중문화에 녹아들고 현대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산업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보급 및 예술교류, 다양한 공연예술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제6절 디자인공간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공공디자인, 건축, 공예로 구성된 디자인공간문화정책은 문화공간 조성 및 디자인문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한국 공예의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채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전제이며, 나아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간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8월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팀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 8월 디자인공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디자인, 건축을 통한 인간과 문화 중심의 쾌적한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문화가 시민의 삶에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역의 산업유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창작벨트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체 디자인 전시인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를 통하여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구)서울역사가 2년여 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이름인 '문화역서울284'로 2011년 8월 9일에 개관식을 개최하고, 개관전 <COUNTDOWN>은 2012년 2월까지 열렸다.

한편, 공예의 경우 단지 보존·복원의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예는 국가 및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고유한 미적 가치 그리고 생활의 기능적 가치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문화예술이자 문화산업의 주체이다. 이와 같은 공예의 특성에 주목한 세계 문화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 문화 정체성의 중추를 이루는 공예와 공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예술부문의 하나로

공예를 주목하였으며, 200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공예전담기관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하였고,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예문화의 대국민 확산, 공예산업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각종 전시 지원사업, 유통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1)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

가.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은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예술·관광 진흥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개발·건립사업을 지양하고, 근대산업유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한 리모델링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산업유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능동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2008년 10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대구, 포천, 아산, 신안, 군산)를 선정하여, 2009년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했고, 2011년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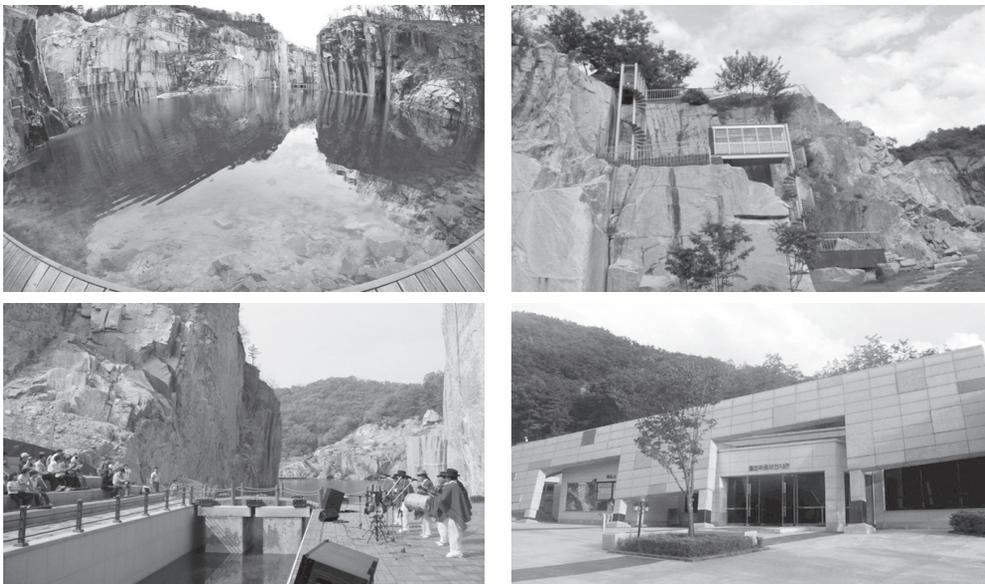
시범사업 중에서 2009년 10월 일부 개장된 ‘포천 아트밸리’는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사례로서 언론 홍보와 중학교 과학교과서 수록, 연계 관광상품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장이후 2011년 총 방문객이 약 13만명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장, 창고, 폐철로 등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표 3-6-1 ●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전북 군산	일제 강점기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일제강점기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 조선은행, 나가사키18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진척률30%) - 리모델링 공사 추진(공정률 60%)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소금을 소재로한 문화체험공간 조성 -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전경관 조성 등	- 염전체험장 조성 완료 - 전통소금재현시설 공사 추진(60%)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 관람·편의시설 확충	- 토목공사 완료(12월) - 교육전시센터 공사 준공(12월)
대구	구 KT&G 연초창	예술창작 복합문화공간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KT&G 리모델링, 미디어테크 (문화예술자료) -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테크 구축완료(12월) - 리모델링 공사 추진(공정률 40%) - 실험적예술프로젝트 완료(12월)
충남 아산	구 장항선 폐철도	공연, 전시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등 - 농협창고(2동) 리모델링	- 농협창고 설계 용역 완료, 폐역사 등 설계(10%)추진

● 사진 3-6-1 ● 포천 아트밸리 운영 사진



나. 구(舊)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 개관전, 개관식

구(舊) 서울역사는 1925년 건립된 이후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하였으며,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부터 일부는 문화관으로, 1997년부터는 철도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 폐쇄되었으며, 2004년 KTX 민자역사가 개통되면서 기차역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살려 구(舊)서울역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2011년 8월 9일 개관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역사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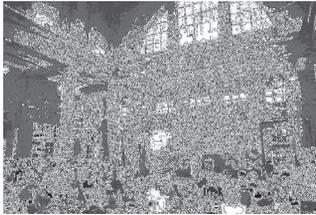
2011년 4월부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을 위탁받았으며, 2012년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전시, 인디밴드들의 공연, 도시·역사·구 서울역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영화, 건축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강연 등 총 60여 개의 건축 원형 복원을 기념하는 ‘카운트다운(Countdown)’ 개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개관전시 관람객 수는 2012년 2월 11일 기준으로 총 일반 79,092명, 외국인 2,344명으로 1일 평균 293여명이었고 주말 380여명이 방문하였고, 공연프로그램은 총 1,423명이 참가하였고, 총 779명이 렉처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 표 3-6-2 ● 문화역 서울 284 관람객 집계 (2012년 2월 11일 기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1월	2월	계
일반 관람객	8,716	10,025	45,101	7,884	7,366	7,028	1,999	88,119
외국인 관람객	234	561	589	404	556	426	127	2,897
월별 집계	8,950	10,586	45,690	8,288	7,922	7,454	2,126	9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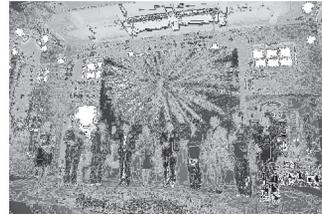
● 사진 3-6-2 ● 문화역 서울 284 개관식



개관식 전경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행사장 내 · 외빈 모습



세걸의 현재 퍼포먼스



복원전시실 투어

● 사진 3-6-3 ● 문화역 서울 284 개관전 진행사진



2)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산

(1) 삶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 창출

가. 2011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만 조성되던 학교 공간을 문화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공간을 만들어 가는 등 사업은 2008년 첫 시행 이후 ‘유휴 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목표로 총 35개 학교에서 문화 카페, 갤러리, 옥상 공원, 화장실, 도서실 등의 문화 공간 조성해 왔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수요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1년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278개 학교가 신청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사업 대상학교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시급성과 필요성, 시설 낙후정도,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예산 확보 여부 및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이 사업의 특기할 만한 점은 실제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선정된 학교의 교장, 교사들과 건축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추진 방법과 과정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각 학교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를 도출하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실제 ‘공간 디자인’을 설계, 시공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학교의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시각자료를 활용한 디자인 이론, 제작 체험 등 체험형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기회를 확대하였다.

학교의 문화적 환경개선에 따른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심미성과 쾌적성을 높인 21세기형 학교 공간문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디자인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등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 표 3-6-3 ● 2011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지 역	학 교 명	개 선 공 간
서울특별시	남서울중학교	문화쉼터
경기도 김포	수남초등학교	문화교실
충남 서산	가사초등학교	문화쉼터
충북 충주	충주중앙중학교	창의체험갤러리
부산	신선초등학교	도서관
경남 사천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문화쉼터
대구	대구신암초등학교	문화쉼터
전북 전주	풍남초등학교	문화쉼터
강원 평창	면연초등학교	문화쉼터

● 사진 3-6-4 ● 2011년도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전후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서울 남서울중학교	유휴 교실 	문화쉼터(학생자치실) 
	구, 운동부 숙소(유휴 공간) 	갤러리형 문화쉼터 
충주 중앙중학교	도서관 	도서관+휴식공간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부산 신선초등학교	도서관 	다용도 도서관(신선도서관) 
	유휴 공간(1층 연결통로) 	문화심터(동아리 활동 및 발표회) 

나.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간이역)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문화적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사업이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기차역(간이역: 동사업의 간이역은 코레일의 기차역 분류 기준에 따른 간이역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에 소재한 소규모 기차역을 포함함)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적 공간 모델 형성 및 공간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지역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에는 전국 10 곳의 지자체가 응모하여 논산시 연산역, 충주시 달천역, 보성군 득량역, 김천시 직지사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에는 간이역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개선된 공간 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각 지역별 사업총괄기획자(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추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6-1 ● 문화디자인프로젝트-간이역 사업 기대효과



● 표 3-6-4 ●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현황

년도	대상	사업명
2011	경북 김천 직지사역	옛 추억이 묻어나는 간이역
	전남 보성 득량역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간이역 전통문화공간 조성
	충남 논산 연산역	樂!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 만들기
	충북 충주 달천역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시작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초기에 주로 가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사업,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이 그 예이다.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사업은 우리나라의 간판이 지나치게 많고·크고·현란한 상태여서 도시의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안전이나 정서를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 2007년 10월 25일자로 총 415개 업소, 892개 간판을 개선·완료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가로 및 가로시설물, 수경시설, 조경시설 등의 완공되어 물과 빛과 나무가 있는 토탈 디자인 개념의 가로경관을 조성하였다.

대구 동성로와 서울 영등포는 건축·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의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공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주로 가로경관 개선에 중점을 주었던 기존의 개선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2007년부터 지역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 표 3-6-5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요내용 (2011)

지역	사업대상	사업 내용	
경기 안양 (‘09~’12)	안양시 만안구 공공디자인 도시 조성	삼덕공원 디자인 거리 및 상설 문화공간 조성, 가로 시설물 정비, 커뮤니티하우스 건립 등	
수변공간	경기 양평 (‘09~’11)	한강 아트로드 조성	생태공원 및 예술공원 등 문화공간 조성
	전북 익산 (‘09~’12)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옛 선착장 복원, 시민 문화센터, 소공원 등 조성
	경북 안동 (‘09~’12)	탈춤공원 주변 공공디자인 조성	안동 인도교 및 탈춤공원 주변 문화공간화
	부산 진구 (‘09~’12)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	젊음의 거리 등 특화된 디자인·예술거리 공간 조성
충북 청주 (‘10~’12)	사직공원 공공디자인 조성	디자인 거리 및 문화테마공원 조성	

2009년에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경상북도 안동, 부산광역시 진구, 전라북도 익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거리 및 문화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 청주가 추가로 선정되어 현재 6곳에서 시범도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신규 선정된 3개 사업지(부천, 상주, 지안)는 주민이 참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과 문화,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문화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다.

(2) 문화예술적 가치 인식제고

가. 2011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창작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며, 공공디자인의 평가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8년에 제정되어 매년 추진되고 있다. 201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였다.

2011 공공디자인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디자인과 함께 진행한 2010년과 달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문화적 관점에 집중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작인력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는 창작부문과 실제 제작물을 응모하는 실현부문으로 나누어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과 같이 온·오프라인 접수가 함께 실시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공디자인으로서 국민심사상 수여를 위하여 1차 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였다. 2011년은 총 105건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국민투표수는 6,199건으로, 출품작 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내용은 내실 있고 발전적인 양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의 작품들은 공공의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진정성 있는 작품들이 많아 공공디자인의 의식전환의 면모를 보여줬다.

2011년 디자인부분 실현부문에 공공디자인대상은 대구광역시동구청, 도시건축사무소 O1studio의 <블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수기부분 최우수상은 이예은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디자인, '상상나라'웃음보따리>가 선정되었다. 블로전통시장 내의 어울림극장은 전통 마당놀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으로 시민들의 시장문화를 한층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여하였다.

2011년 처음으로 수기공모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디자인 작품에 대한 응모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공공디자인대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사진 3-6-5 ● 2011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최우수상 : 볼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대구광역시동구청, 도시건축사무소 01studio)



우수상(실현부분) : 신반포나들목(한강사업본부, lokaldesign) 우수상(창작부분) : Civic Old Clothes Box (박대웅)

나. 2011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2011년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며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당면한 이슈의 재해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고 디자인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2011년 11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공공디자인 성찰, 한국 공공디자인 대안 모색, 한국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의 강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문가 및 일반인, 학생, 디자인 담당 공무원, 기자 등 총 275명이 참가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의 의의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 사진 3-6-6 ● 2011 공공디자인 국제 심포지엄



다. 2011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011년은 국제적인 타이포그래피 행사(2001년 타이포잔치)가 서울에서 개최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으며 이를 계기로 삼아 다시 우리의 글자 문화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하였다.

‘타이포잔치2011: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동아시아의 불꽃’이란 주제로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 3층에서 개최했고 총 16일간 8,102명이 방문하였다.

비엔날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작가 99인이 다양한 영역의 매체를 포괄하는 본전시와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업적이 높은 작가 8명을 위한 특별전, 조직위원 및 참여작가 20여명을 초청한 국제심포지엄과 초청작가 특강 및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세계 문화의 큰 흐름이 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주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한 세 나라가 함께 자국의 글자문화에 대해 논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속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알파벳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서구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유일한 국제 비엔날레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최 및 다양한 국가 및 작가의 참여를 도모하여 타이포그래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 사진 3-6-7 ● 2011년 타이포잔치 전시장 사진



3)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제고

(1) 건축문화 교류 및 행사

가.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감수성 고양,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취지가 있다.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축문화제는 매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데, 2011년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전시행사와 30여개의 다양한 국내외세미나를 진행했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후원한 이번 행사는 건축의 기본단 위인 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지난 반세기동안 잃어버린 ‘집’의 존재를 되찾고 대중에게 관심을 끌었으며 전시 16개 부문(560여개 작품), 컨퍼런스 6개 부문 이벤트(시민체험행사)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국내 건축분야 최대의 전시가 되었으며, 건축문화제 역대 최대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건축대전 일반공모전은 1,700여명이 지원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80여 작품을 선정하여 2010년 수상작과 함께 전시하였고 그 밖의 전시로는 젊은 건축가들의 독특한 전시형태의 특별전과 국내의 건축을 벗어나 공간과 장르를 넘나드는 건축문화를 보여준 스페인 카탈루냐 교류전,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라오스 방캄마을 도서관 후원전이 개최되었다. 수해양 관련, BIM 등 건축계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포지엄과 건축토크쇼,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학술행사도 열려 다양한 건축 문화를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 사진 3-6-8 ● 201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나. 2011 젊은건축가상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은 2008년 ‘젊은건축가상’을 제정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 시작한 Les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et des Paysagistes(새롭게 선정되는 젊은 건축가, 조정설계자 앨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45세 이하의 국내의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드러난 잠재적 역량,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5인 내외의 건축가를 선정, 시상한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의 홍보를 지원하며, 공공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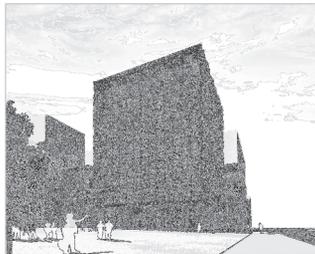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1 젊은 건축가상’은 4회째를 맞이하였고, 올해는 김창균, 박인수, 장영철, 전숙희 씨를 포함한 3팀이(4명)이 수상하였다. 10월에 작품 전시회를 갖고 그 기간에 ‘작가와 대화’시간을 통해 건축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진솔한 대화의 기회도 가졌다. 또한 ‘젊은 건축가상 2011’ 작품집을 국·영문으로 작품집을 제작하여 기관·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년에 비해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작품은 양과 질에서 제 3회 젊은 건축가상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고, 언론계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다. 매년 상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문화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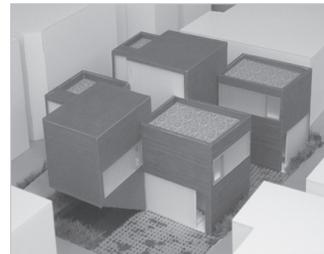
● 사진 3-6-9 ● 2011 젊은건축가상 수상작



김창균, 서울시립대학교 미디어관



박인수, 전남전문건설회관



장영철·전숙희, 연희동 주택

다. 건축문화진흥 프로젝트 (한일 현대건축교류전)

한국현대건축의 해외 전시는 2007년 건축가 16인, 사진작가 1인의 그룹으로 구성된 『MEGACITY NETWORK : 한국현대건축 유럽전』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 한국 건축문화를 소개하고 건축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1 건축문화진흥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후원하고 (사)새건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건축가들이 전시주제와 참여건축가 선정, 홍보, 제작 및 설치 등을 직접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최초의 한국건축 해외그룹전인 『메가시티 네트워크』전은 2007년 12월 프랑크푸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에서 처음 열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귀국전(‘09.12.23~10.3.7.)으로 2년간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전시는 2007년 독일 현지 건축계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이후 베를린의 독일건축센터(‘08.6~7월), 에스토니아 탈린의 에스토니아건축박물관(‘09.3~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로니아건축사협회(‘09.7~9월)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총 168일간의 유럽 순회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건축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2010한국현대건축 아시아전’은 ‘Emerging Voices in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한국현대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중국의 명문 건축도시대학인 ‘상해 동지대학교’에서 한국 젊은 건축가 17팀의 36개 작품을 전시하였다.

‘2011한일건축교류전’은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에서 개최했고, 한국 건축가 17명이 New Horizon in Korean Architecture 라는 주제로 디지털 영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미디어, 입체로 표현한 전시로, 국내라는 한정된 전시영역을 탈피하여 일본에 한국의 건축을 소개하고 일본 건축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에서 한일 양국 건축가들이 공통의 주제를 놓고 건축교류전이 있을 예정이다. 해외 신문·잡지·TV방송 등 40여 차례 이상 한국현대건축이 보도되었고, 전시기간 중 한국영화 등을 상영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되었으며 한국현대건축에 대한 단행본(영어, 독어)출판(독일 Jovis 출판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세계의 건축계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라. 2011 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 상은 주민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단체 및 지자체에게 수여된다.

2011년 5월 11일 공고 이후 7월 15일 까지 전국 지자체, 단체가 총 34개의 장소를 접수했다. 공간문화대상 운영위원회가 기술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5곳의 수상지를 선정하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장소에 대한 사진공모전은 총 156개의 작품 중에서 8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2011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목동예술인센터에서 전시 및 시상식이 있었다. 대상은(대통령상)은 수원 행궁동 예술마을 만들기, 최우수상은(국무총리상) 서울 안동교회 100주년 추모의 공간, 누리섬터상(이하 문화관광부장관표창)은 영월 고씨굴랜드 폐부지 아트미로 공원, 두레나눔상은 군산 서개정 이영춘 마을, 우리마당상은 청산도 청산 사람들의 프로슈밍 장소 만들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사진 3-6-10 ● 2011 공간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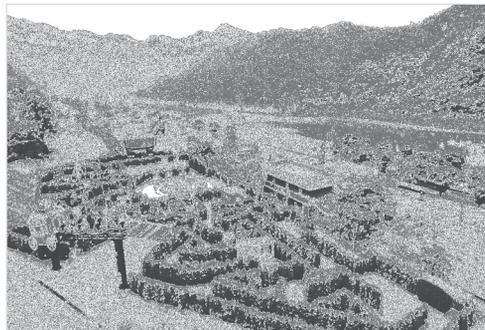
대통령상 : 수원 행궁동 예술마을



국무총리상 : 안동교회 추모의 공간



우리마당상 : 청산도 프로슈밍 장소 만들기



누리섬터상 : 영월 아트미로공원



두레나눔상 : 군산 서개정 이영춘 마을

4) 한국 공예의 대중화·세계화·산업화

2011년도에는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하여 생활 속 공예디자인 문화 확산, 공예디자인의 산업적 발전 지원을 위한 R&D,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공예디자인의 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공예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대학생, 전문가, 일반인, 외국인,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어린이, 외국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예디자인 문화강좌는 생활 속에서 쉽게 공예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워크숍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대상의 아카데미 교육은 공예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통 공예 장인 기술 교육 전수 및 통합이론 수업 등 전문적인 맞춤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 특히 공예디자인의 R&D,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예·디자인 정책 연구/조사/통계/자료 발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1공예백서(선행연구), 2010-2011디자인백서가 발간되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예/디자인 분야의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체계적인 조사 연구 틀을 세우고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연구 데이터를 생산하여 공예디자인 종사자 및 연구자들에게 기본 정보 자료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문화교류 사업도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유명 공예품과 생활용품 박람회인 '메종&오브제' 참여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거점에 공예디자인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일에 노력하였다.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국내 공예 및 디자인 작가 작품 전시(12팀 작가), 대만 디자인엑스포 전시 참여(5팀 작가), 미국 코리안헤리티지 전시(41종 51점 작품) 등 주요 거점을 확장하고 각 거점을 통한 한국 공예디자인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공예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운영 및 작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디자인 큐브, 녹화벽, 매 절기를 우리의 공예 작품을 보여주는 윈도우 전시를 포함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공예·디자인 문화를 확산해왔다. 또한 12월에는 제 6회 '2011 공예트렌드페어'를 개최,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마켓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공예 관련 협회·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기획관 100여명, 산업관 112개 업체 300여명, 창작공방관 94개팀 120명, 플리마켓 부스 30개팀 80여명이 참여하였고, 총 2만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였다. 페어에는 소규모 공예 작가뿐만 아니라 공예 업체,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해외전시관

유치를 통해 국제 공예트렌드를 제시, 프랑스 공예협회(AAF)와의 협력을 통해 트렌드페어에 참여한 우수 작가에게 메종&오브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에도 공예와 디자인의 융합을 통한 대표적 공예 스타상품 개발, 공예와 타산업의 융합을 통한 공예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계속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및 정보화, 전시운영 및 교류지원, 공예디자인 교육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공예문화산업 육성·진흥책을 시행해 갈 것이다.

● 사진 3-6-11 ● 한국 공예디자인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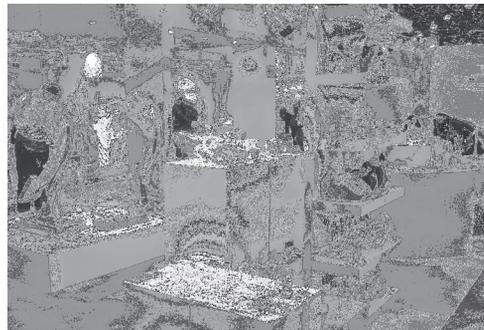
공예·디자인 문화강좌



디자인큐브 전시



공예트렌드페어 주제관



메종&오브제 한국관 참가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개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와 디자인의 균형적 진흥·육성을 위하여 3본부 5과 2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경영전략본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 조직 및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공예·디자인진흥본부는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및 우수공예품의 유통, 해외마케팅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구(舊) 서울역 복합문화공간운영본부는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위탁운영, 개관전시 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도 총 예산은 48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하였다. 공예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25억2천만원, 디자인 문화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반회계 수입 14억8천9백만원, 자체수입 8억4천7백만원으로 공예·디자인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및 전통문화자원육성사업 등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공예·디자인 분야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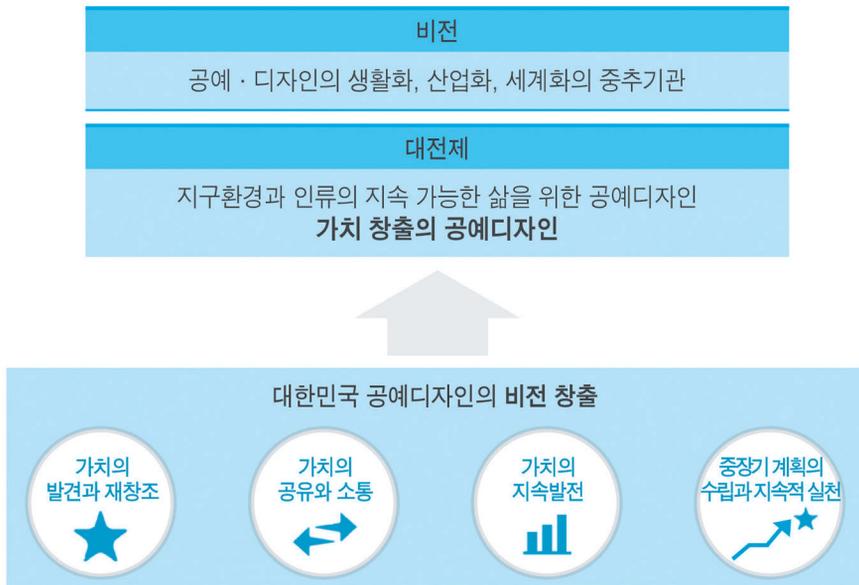
2)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진흥원의 사업목표는 공예산업과 디자인 문화 육성·진흥을 이루기 위하여 공예·디자인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예·디자인의 문화적 저변확대, 창작기반 확충, 유통·마케팅 지원의 전략이다.

2011년에는 공예·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의 근간이 되는 기초/응용분야 연구조

사 및 DB를 구축하였으며, 지역공예의 한계 극복을 위해 생산기반구축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양성과 문화기반 및 국내외 유통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다. 더불어, 구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선도하기 위해 양적,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다.

● 그림 3-6-2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 그림 3-6-3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4. 향후 전망 및 계획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등의 공공 공간문화의 질적 개선에 대한 이해 및 기대가 증대하였고, 창조성과 기술력이 융합된 건축·도시 관련 산업을 교육·문화·관광과 연계·발전시킨 도시·국가 브랜드 전략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적 관점의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디자인의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슬로시티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공예에 대한 잠재적 수요 기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의 생활공간과 사용물품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확대하는 디자인공간문화정책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디자인, 건축, 공예는 생활공간의 질 및 도시 이미지, 국민의 문화예술 감수성,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디자인공간문화정책은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내실화하고 밖으로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문화 조성에서는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의 과정 참여와 의견 반영을 확대하여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순회전시, 인력교류 등 해외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신진인력의 국제적 감각 및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한류를 실현하고, 전시 및 심포지엄의 지속적인 개최 및 내실화를 통하여 디자인공간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확산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예 분야에서는 창작지원, 공예·디자인의 융합 및 인력양성, 국내외 수요 창출을 통해 발전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공간문화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삶과 일상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부록

-
1.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문 법령
 4.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5. 문화예술통계현황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 (2011)
 7. 문화예술관련 학회 목록 (2011)

1.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1) 연혁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전승·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서 기관의 기본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를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당시 문화부는 정원 316인(정무직 2인, 1급 2인, 2급 10인, 3급 1인, 4급 26인, 5급 62인, 6급 80인, 7급 52인, 기능직 81인)으로 2실, 4국, 11담당관, 18과로 구성되었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정원 1,784인,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하고,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편되어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개 소속기관의 조직으로 명실공히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3월 13일 새로 건립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였고, 이어서 4월 16일 장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어 7월 1일 개방형 직위였던 청소년국장을 청소년수련과장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대체하였다. 총무과의 인사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대체하는 조직개편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기능조정방안을 토대로 21세기 문화비전 실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11월 1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5년 3월 31일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를 위해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교류단을 신설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처를 신설하였고, 12월 9일에는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였다.

또,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2일 도서관정책정보기획단과 5월 22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되었으며 기존의 1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팀), 11개 소속기관을 두었다. 7월 3일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인력 32명을 지식경제부에서 이관 받았으며 10월 13일은 영남지역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 분원인 부산국악원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4일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간소화를 위한 대국대과제를 실시하여 본부 62과(팀)을 54과(팀)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운영부(디지털도서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어 10월 19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개칭하였다.

2010년 1월 1일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2일 홍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문화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확대(고공단6개→8개, 과장급 19개)하였으며, 국제문화과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2월 8일 온라인 정책홍보기능 강화필요에 따라 홍보지원국에 온라인홍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의 고고부와 역사부를 통합하고 학예연구관련 업무를 조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문화산업·체육·관광·종무·방송·국정홍보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무를 관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 성장, 사회 성숙, 산업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해 온 바, 문민정부 이후 특히 주목해 온 정책 영역 및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부 출범이후 문민정부(~'97년)까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을 준비하는 성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체육 공간 확충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관광 개발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육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90~'92/체육청소년부)이 수립·추진되었으며, 도서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91)되었다. 연극, 춤 등 11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의 해' 사업이 진행('91~'01)되었으며, '93년에는 문화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94년에는 문화산업국이 신설되고,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었으며, '94년에는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96년에는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정부('98~'02년)에서는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98년 발표된 '새문화관광정책'에 반영되었으며, 문화예산의 정부 예산 1% 달성으로 뒷받침되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예술지원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지역문화관, 창작 스튜디오 등 특화된 예술창작 인프라를 지원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강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 증진의 주요수단으로 전략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문화산업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게임산업개발원('99), 영화진흥위원회('00)과 문화콘텐츠진흥원('01)을 잇따라 설립하였다. 한편, IMF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관광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03~'07년)는 디지털화·복용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문화적 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 및 방향은 문화정책 비전자책인 「창의한국」(2005)을 통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문화정책의 범주 내로 포괄된 바, 공간문화·공공디자인 정책, 학교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새롭게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민간 중심의 예술영역 지원 구조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예술인 중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광주, 전주, 경주, 부산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취지 아래 작은도서관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도서관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체계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 정부는 문화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문화정책 영역을 ‘선진화’라는 기조 아래 효율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분리, 분산되어 있던 기관들을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고, 기능이 중복, 혼선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고(‘09.5.7)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 것은(‘09.7.23) 이러한 정책방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이 예술지원 ‘사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예술발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 부분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시스템 개선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최저학력제’를 도입, 201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하여 녹색생활로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녹색문화, 녹색관광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2) 조직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은 2006년 7월 25일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9월 18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는 정부조직 확장을 경계하여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거나 현행 유지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팀’제 조직을 ‘과’편제로 원상 회복하였다. 2009 5월 4일에는 대국대과제를 적용하여 본부에 8개 과(팀)를 축소하였고, 2010년 6월30일에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국장급6→8개, 과장급 19개)하였으며, 문화정책관 신설

및 국제문화과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였다. 2011년 1월 1일에는 ‘10년에 이어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6월 7일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대비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 기능 강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국악 악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다문화·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업무를 종무1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민족문화과·지역문화과를 국어정책과·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23209호) 되었다. 2011년 10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2차관 3실 5국 3단 11관 54과(팀) 소속기관은 1차 11개 2차 18개이다. 정원은 본부, 소속기관 포함하여 2,475명이다.

2011년도 12월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부서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차관 직속기관으로는 인사과와 운영지원과가 있다. 인사과는 인력관리계획 수립,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근무성적평정, 상훈 및 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를 담당한다. 운영지원과는 보안, 방호원, 청원경찰 관리, 복무관리, 부내 행사, 상조회, 관인관리, 공용차량 관리, 정보공개를 담당한다.

(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비상계획관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 기획 총괄, 예산, 조직, 성과관리, 국회 대응,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하부조직으로 기획행정 관리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을 두고 있다.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기획업무와 행정관리가 통합된 부서로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조정, 조직과 정원의 관리, 공공기관 총괄관리,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등을 담당한다.

재정담당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기금운영업무를 총괄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안의 심사, 행정심판업무, 소송사무의 총괄,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규제개혁,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통계담당관은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계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의 기반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의 정책자원과 수단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2009년 4월 17일 미디어정책관이 2차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미디어정책국이 신설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크게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음악·애니메이션·비디오물·게임물

· 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과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저작권정책관은 콘텐츠 보호의 경찰 역할로서 저작권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인증 및 불법 저작물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정책관 하부조직으로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정책관 하부조직으로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를 두고 있다.

문화산업정책과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문화산업진흥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금융제도,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 문화산업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 총괄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영상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영상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영상산업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영상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신고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육성,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과,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이하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분야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분야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의적 제작활동과 관련단체의 지원,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투자활성화, 게임·캐릭터·만화 등 콘텐츠 판매촉진활동 지원, 게임산업 및 만화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 조정, e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활성화,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 게임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콘텐츠산업과는 콘텐츠 기술의 개발·육성·이전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디지털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그밖에도 첨단 쌍방향 매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첨단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콘텐츠의 디자인 및 표준화,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 개발·보급 및 공공문화콘텐츠의 활용, 지역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확산 시책의 개발, 정보제공 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데이터베이스 육성 및 지원, 디지털 콘텐츠 공동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창작활동 발굴 및 지원, 미래전략적인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육성 하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육성 및 발전 정책개발·수립, 법 제·개정 등)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에듀테인먼트·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 콘텐츠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고 있다.

저작권정책과는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저작권 분야 지적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저작물의 인요에 대한 지침 제정,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저작권 침해 방지 등 보호, 저작권산업 발전기반 조성, 저작권 관련 법령 교육 및 제도 홍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저작권산업과는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저작권정보센터 및 기술위원회 운영지원,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표준화 추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과태료부과 업무 등을 수행한다.

(4) 문화예술국

문화예술국은 2009년 4월 17일에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 문화 여가 정책의 기본 방향 정립, 사회적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국어와 민족 문화의 계승·창달,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상호 문화 교류 확대 및 문화 예술 창작 지원과 국민의 문화 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진흥 정책의 수립, 창작 활동의 지원, 인간 중심의 문화적인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크게 문화정책관과 예술정책관으로 구성되며 하부조직으로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정책관 소속이고, 예술정책관에는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

간문화과를 두고 있다.

문화여가정책과는 문화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문화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문화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운영, 국민문화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육성, 소외계층의 문화활성화, 국민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민여가생활 활성화 정책 추진, 문화바우처, 국민여가지수·지표 개발 및 조사,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어정책과는 2011년 6월 16일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어민족문화과에서 국어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어정책과에서는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추진하고, 국어·언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와 어문규범의 정비,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정책 수립 및 시행,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정책, 국민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개선,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한국어 보급기구나 설치·지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 남북간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한글유공자표창,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등에 관한 사항 및 국립문화원 지정 및 지원,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와 한글박물관 건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민족문화과는 2011년 6월 16일 지역민족과에서 지역민족문화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역민족문화과는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지원, 지방 문화원의 육성·지원,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 한다.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의 학교 및 사회교육 지원, 문화예술수요 확충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구축,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지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예술정책과는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및 운영, 예술지원 사업의 평가,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 문학 및 회화·조각·사진 등 조형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문학·조형 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영재 교육,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현대미술관·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공연전통예술과는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연·전통예술 관련 시설확충·공간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예술분야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및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관련 사항,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예술의 유통구조의 개선, 예술분야의 남북·국제교류와 해외진출, 예술분야 경연대회, 예술분야의 조사·연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개발 및 보급, 전통예술 대중화·산업화·세계화, 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 전당·명동정동극장·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등 공연예술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디자인공간문화과는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도시공간정보 문화 개선,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공간문화 인식제고 및 교육, 국·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공예 진흥에 관련 사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국은 국제화·지방화·정보화 등의 시대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문화로 살리기, 녹색관광, 외래 관광객의 유치증대 및 국민관광의 균형 발전, 새만금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하부조직으로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광레저기획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녹색관광과, 관광레저도시과, 새만금개발팀을 두고 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종합시책 입안 및 관광 진흥개발기금의 조성·운영, 관광종사원 양성, 남북관광 교류·협력 증진, 관광산업 정보화 및 국내관광 촉진,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 관광 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관광개발기금의 조성·운용, 남북 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관광 종사원의 양성 및 훈련, 관광학술·연구단체의 육성, 관광복권의 발행 및 관광복지 증진, 관광연차보고 및 통계의 종합,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진흥과는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 관광자원의 조사·개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 관광특구의 육성, 문화·민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내관광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관광숙박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관광숙박업·카지노업 육성,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편의증진, 관광객 편의시설업·이용시설업·유원시설업 육성,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 문화관광 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제관광과는 해외관광객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국제관광 박람회 및 행사의 지원,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 육성,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여행업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등 여행업, 의료관광,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녹색관광과는 생태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녹색관광개발 육성 및 지원, 환경친화적 관광자원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레저도시과는 관광레저도시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태안, 영암·해남, 무주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추진, 신규 관광레저도시 지정 관련 업무,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지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팀은 새만금 관광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 설치·지원, 새만금 관광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새만금 관광연계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 지식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문화복지권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및 독서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통합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향 정립을 통한 비전과 목표설정,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다각도의 진흥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하부 조직으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팀을 두고 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 도서관의 종류별·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등을 담당한다.

도서관진흥팀은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지원,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1423호/2009.4.17.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다. 추진단은 1단 2과 체제로 기획과·건립과로 시작하여 2011년 6월 16일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1단 3과체제가 되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인원 현황(2011) ●

구분	계	계약직(전문)	4급	5급	6급	7급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기획과	6	1(단장)	1	1	1	1	-	-	1
건립과	9	3*	1	1	2	-	1	1	-
전시자료과	6	-	-	-	1	-	1	4	-
계	21	4	2	2	4	1	2	5	1

* 전문계약직(다급) 3명 : 소장품수집관리 1, 근현대사 1, 전시디자인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설·전시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건립공사 추진, 건립위원회 운영지원 및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하부조직으로 기획과, 건립과, 전시자료과를 두고 있으며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업무 ●

과명	추진업무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지시사항 등의 관리 • 각종 법규 및 세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홍보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서무·보안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 대국회 업무 등 대외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건설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 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
전시자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수집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 근현대사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

(8) 종무실

종무실은 우리나라 종교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부조직으로 보좌기관인 종무관과 종무1담당관, 종무2담당관을 두고 있다.

종무1담당관은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합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과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불교 관련 업무의 지원, 불교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연

구,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무2담당관은 유교 등 민족종교 및 기독교·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향교재산의 보존 및 관리,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9) 체육국

체육국은 국민체육 향상, 국제경기 유치 및 스포츠여가산업 육성, 생활체육서비스 확대 등을 담당하며, 하부조직으로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과를 두고 있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의 포상 및 보호·육성,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회의 진흥,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전통무예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민간체육시설 및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 교류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 외교 지원 전문인력 양성, 태권도 국내 진흥 및 세계화, 국제체육교류 및 협정체결,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10)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국은 방송·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한 체계적 미디어산업 육성과 방송영상·광고 기반구축 및 육성, 전자출판 진흥 등을 추진한다. 미디어정책국

하부조직으로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를 두고 있다.

미디어정책과는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역언론·뉴스통신사업진흥정책의 개발,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과 납본, 해외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윤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방송영상광고과는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조사·연구, 방송영상 인프라 확충 및 제작·유통 지원, 독립제작사 육성, 광고 공익사업 지원,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출판인쇄산업과는 출판·인쇄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조사·연구, 유통구조개선, 인력양성지원, 인프라구축, 우수도서 출판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출판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인쇄업·출판업 신고,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화번역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홍보지원국

홍보지원국은 새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되어 홍보기능 수행에 있어서 과거의 ‘정권홍보’라는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컨설팅을 통해 정책 홍보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KTV, 간행물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소개를 강화하고 있다. 보좌기관으로 홍보콘텐츠기획관이 있으며 홍보지원정책과, 국정과제홍보과, 분석과, 정책광고과, 홍보콘텐츠과, 정책포털과, 온라인홍보협력과를 두고 있다.

홍보지원정책과는 국내외 홍보 국정홍보지원 총괄,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의 지원, 정부 브리핑,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홍보컨설팅 지원,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등을 담당한다.

국정과제홍보과는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 다수부처 관련 정책홍보, 국책사업·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홍보업무,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분석과는 일간신문·방송매체·통신·외신 뉴스 수집·분석,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한다.

정책광고과는 정부의 주요 정책광고 및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국정기록 사진의 촬영

및 보관, 국정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홍보콘텐츠과는 국정에 관한 정책 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대통령과 관련된 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정책 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지원,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등을 담당한다.

정책포털과는 정책 포털 콘텐츠의 기획·운영,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부처 정책정보의 인터넷 홍보 지원, 부처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정책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공직자통합메일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다.

온라인홍보협력과는 온라인 상 각 부처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이슈 발굴 지원, 각 부처의 온라인 대변인 지원, 범정부 온라인 홍보 지원, 정부 정책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소통 홍보, 정부 정책 관련 멀티미디어 활용, 정책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및 정책메일시스템(PIMS) 등의 운영 및 각 부처의 해당 시스템 지원, 온라인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정 홍보방안 수립 및 실행, 국정 홍보를 위한 뉴 미디어 경향 조사 및 홍보전략 연구 등을 담당한다.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1세기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개발’ 위주의 도시발전계획에서 탈피하여 ‘문화’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되는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아시아 각국의 동반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직제는 최초 1단 2국 7팀(2007.5.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2.29)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존 1단 2국 7팀의 직제는 1단 1국 6과 1팀 체제로 변경되었다.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교류협력과’의 명칭이 ‘전당운영협력과’로 변경되었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여 41명으로 개편되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추진단의 조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도시정책관이 폐지되고, 2009년 5월 4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전당운영협력과, 전시공연설비과, 문화환경지원팀이 통·폐합되었다. 전당운영협력과는 전당운영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고, 전시공연설비과는 전당시설과로, 문화환경지원팀은 문화도시개발과로 통·폐합되어,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전당기획과·전당시설과, 전당운영협력팀의 1단 4과 1팀이 되었다.

문화도시정책과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문화중심 조성사업의 총괄·기획 및 조정,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도시개발과는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이전시책수립, 민자개발,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및 시민문화사업 교육프로그램·홍보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당기획과는 문화전당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총괄, 문화전당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당시설과는 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문화전당 건축·토목공사의 관리·감독 및 설비시설 설계·관리감독·시공, 문화전당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당운영협력팀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제협력·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업무와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1) 국립문화예술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영재 교육 및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사립박물관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문화재의 수집·보존·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총괄하며, 전통문화의 교육·홍보·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1개 국립지방박물관이 있으며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3)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국어의 순화, 국어 연구자료 수집·간행·보급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관리와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업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주제별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전국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와 전국 도서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서직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선도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06년 6월 개관하였고, 국내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도서관연구소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국가시책을 수립·시행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2007년 5월 설립되었다. 또한,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이 2009년 5월 개관되었으며, 국제교류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홍보팀이 2010년 2월 신설되었다.

(5)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해외문화홍보 종합계획 수립, 재외문화원 신설,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활동지원, 한국소개행사, 해외인사초청, 해외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해외언론의 한국관련 취재 등 지원, 외국언론인 방한 지원 업무, 국제문화교류·협력을 수행한다.

(6)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민족예술의 진흥과 무대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었다. 산하에 2009년에 개원한 공연예술박물관을 두고 있다.

(7)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미술작품 자료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 미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법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 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연구를 통한 전통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고 2004년에 국립남도국악원, 2008년에는 부산국악원을 개원하였다.

(9)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생활사, 전통 공예기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서양의 민속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승·보급,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0) 예술원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며,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예술의전당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를 둔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전당의 건립과 그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2) 한국문학번역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6일 (재)한국문학번역금고를 처음 설립한 이후 2001년 3월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를 근거로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및 해외 소개사업, 번역인력 교육 및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연구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민법상의 법인 형식의 문화기관으로 정부 재정지원 하에 운영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설치된다.

(1) 국립극단

국립극단은 2010년 6.18일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극단이며,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우리말의 보전 및 세계화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2)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발레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발레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발레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발레아카데미 운영, 발레 예술영재 발굴 지원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3)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오페라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오페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오페라 스튜디오 운영, 오페라 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국립예술자료원

국립예술자료원원원은 1979년 개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예술정보관)을 전신으로 하여,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 기록 유산의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에 설립된 예술 기록 전문 기관이다.

2010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하여 2010년 3월 설립되었으며,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연예술 현장의 중심인 대학로에서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극·무용 자료 중심의 대학로 분원을 2010년 12월 개원하였다.

(5)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합창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합창음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합창음악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합창학교 운영, 성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6)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설립된 신설 재단법인으로 창작 현대무용작품 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현대무용예술의 발전을 선도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현대무용공연 관람을 통하여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명동·정동극장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은 연극전문제작극장을 표방하는 명동예술극장과 전통예술 중심의 정동극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동정동극장은 무대예술작품 제작·공연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사업,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기타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8)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 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 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21세기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무대예술작품 제작, 남·북 문화예술교류 및 해외교류사업,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및 공연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 업무로 한다.

(9)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설립 이래 한국 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국제교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경영 종사자들을 위한 연구·조사, 컨설팅과 아카데미, 지식정보를 통해 예술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1985년 3월 30일 출범하였고, 1987년 7월 국립극장 전속교향악단 약정, 1989년 3월 (사)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설립, 2000년 5월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약정체결, 2001년 3월 (재)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로 탈바꿈하여 연간 10회의 자체 연주회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전담하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1)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대학로공연예술센터로 설립된 후,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센터’를 비전으로 아르코예술극장을 무용중심으로, 대학로예술극장을 연극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연의 중심 대학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과 주제별 공연 등을 기획하여 공연 트렌드와 공연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연구기관이다(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었으며, 2007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13) 국악방송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 FM방송은, 민족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목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경주 중계소가 완공되는 등 현재 서울·경기와 전북남원, 전남진도, 해남 일원, 경북 경주, 포항으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주와 부산지역에 국악방송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 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996년 3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적인 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출범 당시 기관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였으며, 2010년 5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변경).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서비스 강화를 통한 박물관 복합 여가 기능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사업 고품격화를 통해 극장 용 정체성을 확립, 문화상품 디자인 독자성 구축을 통한 사업 내실화, 관람객 편의 중심의 식음료 시설 재구성으로 만족도 제고, 문화나눔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라는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관람객에게 최상의 박물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창조적 문화상품 개발·보급사업, 편익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문 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제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의 지정·육성, 문화지구 지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의 날 설정,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의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5일에 공포되고 2011년 11월 26일에 시행된 법령 개정내용은,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통일된 지정기준 마련과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 납부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공공 미술’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2012년 2월 17일에 공포되고 2012년 8월 18일에 시행된 개정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문화이용권”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2) 국어기본법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제5장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2년 마다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안으로는 한국어의 발전을 꾀하고 밖으로는 국제적 보급과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1년 4월 5일에 공포되고 2011년 7월 6일에 시행된 개정 내용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3)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고, 1999년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전문·특수도서관 및 문고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 등의 등록 의무제를 폐지하였고, 사립 공공도서관 폐관 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증반납으로 대체하여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2000년에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미미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지도 및 지원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2003년에는 병영도서관에 관한 근거를 마련,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하고 자료를 구비하여 장병들에게 독서 및 지식정보 등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0월 4일에는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 등 사회·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서관환경의 변화수용 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 한편 독서진흥관련 부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2009년 3월 25일에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확대하였고,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4월 5일에 공포되고 2011년 7월 6일에 시행된 개정내용은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부가 있을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9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등 동 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공연법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률은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및 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4월 29일에 공포되고 2011년 11월 26일에 시행된 개정내용은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연습장의 정의, 설치·운영 등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제한 사유 중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에 국민감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학교장의 임무,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지원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2.17 법률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었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설립, 설립인가 기준, 기준시설,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7월 21일에 공포되고 2011년 10월 22일에 시행된 개정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범위를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8)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과 선출,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예술원 회원의 수를 75인에서 100인으로 증원하였고, 2005년 학벌주의 조장의 우려가 있는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1년 4월 14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내용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7년에 기존의 「불교재산관리법」을 대체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 5일자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등록 시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

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 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주지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향교재산법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되었으며,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관찰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향교재산의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단의 목적 및 향교재단 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항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등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운용에 관한 근간을 정하고 있다.

1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등록,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전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동법에서는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기념탑의 건립 및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유적지의 정비,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하였으며, 총 8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치가 소통하는 창조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 도시성, 문화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지원체계 등에서 문화정책 및 국가정책 전반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과 관계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계획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통합적 법제를 제정하게 되었다.

13) 예술인 복지법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 시행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1) 중앙정부 문화재정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07년 2조 2,660억원에서 2011년 3조 4,557억원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2007년 1조 2,681억원에서 2011년 1조 9,604억원으로 11.5%, 기금은 2007년 9,979억원에서 2011년 1조 4,954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2011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0년도에 비해 1,286억원(9.7%) 증가한 1조 4,552억원이며, 이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대표적인 문화공간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등 공연예술공간 확충, 글로벌 미디어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홍보추진,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한 ‘세종사업’ 추진 등에 기인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지출규모)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11.1
○ 예산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11.5
○ 기금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0.6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11.1
○ 문화예술부문*	9,440	10,709	11,275	13,266	14,552	11.4
○ 관광부문	6,649	7,766	8,944	8,901	9,257	8.6
○ 체육부문	4,419	5,304	6,431	7,303	8,403	17.4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152	2,575	2,096	2,277	2,346	2.2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2009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포함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A/B)	0.97	1.00	0.95	1.08	1.12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A)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11.1
정부재정(B)	2,336,745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7.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 예산+기금

* 2009년은 추가경정예산 포함

2)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역량 강화 및 국립문화예술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2011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382억 원 증가되었다.

●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	비 고	
				%	
합 계	435,748	473,956	38,208		
가. 예술원사무국	3,126	3,166	40	1.3	
나. 한국예술종합학교	37,678	36,837	△841	△2.2	
다. 국립중앙박물관	93,625	91,677	△1,948	△2.1	
라. 국립국어원	10,870	12,915	2,045	18.8	

기 관 명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	비 고	
				%	
마. 국립중앙도서관	57,428	54,736	△2,692	△4.7	
바. 해외문화홍보원	38,805	41,593	2,788	7.2	
사. 국립중앙극장	29,930	29,340	△590	△2.0	* 책임운영기관
아. 국립현대미술관	66,189	94,311	28,122	42.5	* 책임운영기관
자. 국립국악원	45,094	50,893	5,799	13	
차. 국립민속박물관	18,587	19,892	1,305	7.0	
카. 한국정책방송원	22,872	25,336	2,464	10.8	* 책임운영기관
타. 국립국악중고	6,464	7,118	654	10.1	
파. 국립전통예술중고	5,080	6,142	1,062	20.9	

※ 추가경정예산 포함

3) 문화예술 관련 기금 현황

(1) 문화예술진흥기금

가. 설치근거 및 배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설정과 문예진흥의 추진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개원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사적지·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 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나. 기금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 기금 조성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기금 설치 이후, 그 동안(1973.7~2010.12) 모금한 총액 4,186억원과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1조 9,87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조 6,925억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산평가에 의한 조정 등 322억원이 차감되어 2011년 12월말 기준 2,631억원을 적립하였다.

기금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여 2003년까지 모금하였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모금이 폐지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이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금조성보다는 지원비중이 높았던 관계로 기금조성액이 매우 적었다. 다음은 국고 출연금인데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였다. 2011년 12월말 기준 재원별 조성실적을 보면 국고 출연금이 1,847억원,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1,673억원, 복권기금 3,106억원, 경륜경정수익전입금 497억원이 지원되었다. 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고, 복권기금과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2004년 모금폐지 이후 대체재원으로 전입된 사업자금이며, 이 밖에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의 기타재원도 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973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비중
모금	269,960	38,276	48,434	53,582	7,943	268	70	27	-	-	31	-	418,591	
국고	184,722	-	-	-	-	-	-	-	-	-	-	-	184,722	
방송 발전 기금	158,907	2,000	1,583	2,000	1,700	1,100	-	-	-	-	-	-	167,290	
복권 기금	-	-	-	-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310,587	
경륜 경정 수익 전입	-	-	-	-	-	-	-	-	-	-	24,264	25,388	49,652	
민간 출연금	3,999	109	252	5,546	4,709	6,509	9,057	7,854	10,542	10,402	13,497	14,275	86,751	
이자	320,064	37,559	29,721	26,570	28,376	28,909	25,972	34,201	25,922	17,306	20,069	14,402	609,071	
기타	59,603	9,097	18,274	8,825	9,039	8,848	9,540	7,959	8,642	8,316	6,554	6,482	161,179	
계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987,843	

※ 기타 내역 :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197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성액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9	64,906	57,824	88,151	108,547
운용액	621,879	61,921	62,703	26,755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45,896	161,667

라. 적립 및 지원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이 매년 수행되는 지원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종자금(種子金)으로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와 지원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2005년부터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11년 말 기준 약 2,631억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국고출연금이 1,847억원(9.3%),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이 1,673억원(8.4%)으로 전체의 17.7%를, 복권기금이 3,106억원으로 15.6%, 기금운용이자수입이 6,091억원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적립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1973-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비율	비고
■ 수입(A)													
국고출연	184,722	-	-	-	-	-	-	-	-	-	184,722	9.3	
공익자금	164,490	1,700	1,100	-	-	-	-	-	-	-	167,290	8.4	방송발전기금
기타	929,871	94,651	94,9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51	108,547	1,635,867	82.3		
계	1,279,08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51	108,547	1,987,879	100.0		
■ 지출(B)													
계	773,258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45,896	161,667	1,724,807			
■ 적립금액(A-B)													
계	505,825	21,430	△34,341	△38,127	△21,174	△24,532	△35,144	△57,745	△53,120	263,072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의 자체 조성분과 타 재원 출연분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고나 공익자금이 집중적으로 출연된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타 재원(국고 및 공익자금) 비중이 최하 65.3%(1996년)에서 최고 99.4%(1991년)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4-8〉 참조). 이는 모금수입 이외의 특별한 기금조성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연금, 공익자금 등을 통해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보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무엇보다도 창작 활동 지원에 쓰이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 출판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문학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각종 문학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및 창작 토론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문학 작품에 대한 일반인의 향수 기회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시각예술 창작활동 진흥 및 일반인의 작품 향수 기회 확산을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각 장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룹이나 단체의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창작 진흥 및 우수 공연 단체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6년도부터는 예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 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위한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 보전 및 확산을 위해 각종 전통예술 분야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전통예술 공연 활동 지원과 함께 전통공예 보급, 전통예술의 조사·연구, 발간 등을 통해 뿌리 깊은 우리 민족문화 예술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과 보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문예진흥법」의 개정 이후,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도 힘쓰고 있다.

●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

(단위 : 백만원)

연도	총 적립액 (A)	자체 적립액 (B)	비율 (B/A)	자체적립 내역		타재원 (D)	비율 (D/A)	타재원내역		
				결산잉여	예산편성			국고	공익 자금	기타
1973~1989	67,177	37,177	55.3	17,893	19,284	30,000	44.7	20,000	-	10,000
1990	23,856	3,856	16.2	1,856	2,000	20,000	83.8	-	20,000	-
1991	25,151	151	0.6	151	-	25,000	99.4	5,000	20,000	-
1992	24,289	4,289	17.7	3,989	300	20,000	82.3	-	20,000	-

연도	총 적립액 (A)	자체 적립액 (B)	비율 (B/A)	자체적립 내역		타재원 (D)	비율 (D/A)	타 재원내역		
				결산잉여	예산편성			국고	공익 자금	기타
1993	27,079	7,357	27.2	7,057	300	19,722	72.8	19,722	-	-
1994	36,465	6,465	17.7	5,465	1,000	30,000	82.3	30,000	-	-
1995	38,006	3,006	7.9	6	3,000	35,000	92.1	30,000	5,000	-
1996	30,647	10,647	34.7	3,647	7,000	20,000	65.3	20,000	-	-
1997	12,316	12,316	100	8,316	4,000	-	-	-	-	-
1998	7,591	7,591	100	3,591	4,000	-	-	-	-	-
1999	32,603	30,603	93.9	12,103	18,500	2,000	6.1	-	2,000	-
2000	48,160	45,160	93.8	25,160	20,000	3,000	6.2	-	3,000	-
2001	27,156	27,156	100	485	26,671	-	-	-	-	-
2002	35,560	35,300	99.3	-	35,300	260	0.7	-	-	260
2003	69,768	69,768	100	44,230	25,538	-	-	-	-	-
2004	21,430	21,430	100	21,430	-	-	-	-	-	-
2005	△34,341	△34,341	-	-	-	-	-	-	-	-
2006	△38,126	△38,126	-	-	-	-	-	-	-	-
2007	△21,174	△21,174	-	-	-	-	-	-	-	-
2008	△24,532	△24,532	-	-	-	-	-	-	-	-
2009	△35,144	△35,144	-	-	-	-	-	-	-	-
2010	△57,745	△57,745	-	-	-	-	-	-	-	-
2011	△53,120	△53,120	-	-	-	-	-	-	-	-
계	263,072	58,090	35.2	155,379	166,893	204,982	64.8	124,722	70,000	10,260

4) 문화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방향 (2011~2015)

문화·관광·체육활동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화재정의 확충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다문화 사회, 사회적 갈등, 실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영역인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친 고용산업, 고성장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통합, 국가브랜드 제고,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문화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이 가능하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예술 및 2세들의 다문화

교육이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점차 심화되어 가는 세대 간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평등, 가치관의 차이 등에 따른 갈등 속에서 문화 활동은 세대간 유대감 증진과 사회 통합적 가치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 질 향상과 사회통합, 콘텐츠·관광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문화를 통한 국격 제고 등을 위해 문화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육성 및 시장 선진화 지원’,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자원 개발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스포츠의 국제화·산업화 지원’을 재정운용방향으로 설정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총 재정투자(예산+기금)는 문화체육관광부 중기사업계획 기간(2011~2015) 중 연평균 2.6%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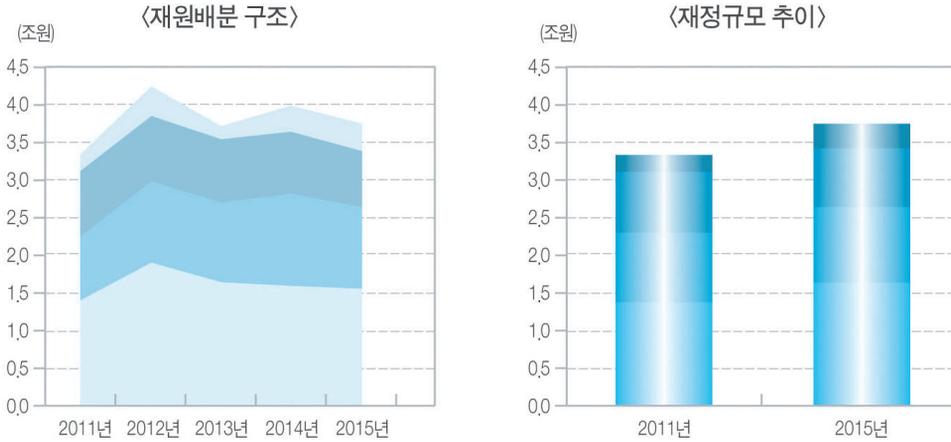
예산(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은 연평균 4.2%, 기금은 연평균 0.3%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3.0%, 관광 6.2%, 문화 및 관광 일반 8.7%, 체육은 대규모 국제대회 및 건립사업의 종료로 5.2% 감액된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1~2015)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	연평균 증가율
계	34,557	41,478	38,247	39,951	38,238	2.6
○ 예산	19,603	24,744	22,510	23,492	23,115	4.2
○ 기금	14,954	16,733	15,738	16,459	15,123	0.3
【 문화관광분야】	34,557	41,478	38,247	39,951	38,238	2.6
■ 문화예술 부문	14,551	20,050	16,899	17,206	16,390	3.0
■ 관광 부문	9,257	9,634	10,263	11,017	11,779	6.2
■ 체육 부문	8,403	9,036	8,161	8,640	6,796	△5.2
■ 문화및관광 일반 부문	2,346	2,757	2,925	3,088	3,272	8.7

●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1~2015) ●



(1) 문화예술 부문 운영방향

첫째,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의 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건립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고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기존 공간의 창조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경주·전주·공주·부여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가문화, 여성문화 등 인간과 문화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치며 구 서울역사의 복합문화공간화, 지역근대산업유산의 예술창작공간화 등 기존 공간의 창조적 재활용을 통한 문화공간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한다.

박물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련 자료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국민들에게 자연·생태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교육하는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신규 추진하며, 국공립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개관시간 야간 연장으로 국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단체를 특화 육성하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토록 하며,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공연예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격차 해소 및 우수 문화콘텐츠의 전략적 세계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나눔을 확대하고, 촘촘한 문화안전

망 구축 등을 통해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거시적, 장기적 안목의 문화연구 및 컨설팅 기능 강화하고자 한다.

전세계 한국어 보급을 지원하여 한국어 문화권역을 확장하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안으로는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에 대한 관심 환기와 재인식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 연차적 증설,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운영, 세종학당 교원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의 보존과 활용, 전략적 세계화를 위해 민족문화자원의 발굴과 현대적 계승·활용, 한글·한식·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 기초예술의 활발한 창작 활동과 장르별 특성화된 육성, 전통예술의 창작 지원 및 문화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한다.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인 해외문화원의 신설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서비스 강화, 우수 문화콘텐츠의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및 국내 문화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각 국가와의 수교기념일을 계기로 한국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미래 잠재시장 개척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중남미·CIS 국가와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문화동반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및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R&D 투자 확대,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충 기반 마련하고 콘텐츠 수요 급증 환경(스마트폰, 태블릿PC,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비, 창작역량 강화 및 핵심 콘텐츠분야 집중 육성, 新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형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1년 신규사업인 3D입체콘텐츠산업 육성 증액, 도제창작 지원사업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을 신규 반영하고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인 콘텐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 전체 R&D 예산 2%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적 추진사업인 4세대 IT혁신사업 등 신규 반영 및 기존사업 증액한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 e스포츠 complex 연차별 소요 반영, 영상자료원 제2영상자료센터를 신규 반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2년 이전 예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 이전 필요 소요를 반영한다.

건전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할 계획이다. '12년 지방 이전 예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과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예산을 증액하고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신규 소요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및 HD드라마타운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고, 새로 출범 예정인 출판진흥기구 설립 예산과 출판인쇄박물관 건립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광고 및 뉴미디어산업, 출판지식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부문 -	14,552	16,226	14,728	15,450	16,648	3.4
○ 예 산	8,012	9,865	8,185	9,204	11,418	9.3
○ 기 금	6,539	6,360	6,543	6,246	5,230	△5.4
▪ 종교문화지원	226	524	497	497	578	26.5
▪ 콘텐츠산업 육성	2,972	3,418	2,966	3,235	3,769	6.1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73	401	385	388	440	4.3
▪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523	1,524	1,352	1,347	1,643	1.9
▪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137	2,267	2,229	2,179	2,641	5.4
▪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2,580	2,893	2,631	2,606	3,088	4.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296	218	111	111	180	△11.7
▪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8	67	64	64	64	△7.5
▪ 국정홍보기획	174	173	164	165	166	△1.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19	990	995	1,794	744	0.9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116	140	129	130	134	3.6
▪ 국립문화예술기관	3,348	3,610	3,206	2,934	3,203	△1.1

5. 문화예술통계현황 목록⁵⁾

문화예술통계 13종으로 승인 통계 6종, 비승인 통계 7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유형별로는 조사통계 8종, 보고통계 3종, 가공통계 2종이다.

순번	승인 여부	형태	조사 주기	시작 년도	통계명	작성기관
1	승인	조사	1년	2006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승인	조사	3년	1991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승인	조사	2년	1988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승인	조사	1년	2008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5	승인	조사	5년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6	승인	조사	1년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7	비승인	조사	2년	2009	성별 문화인력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비승인	조사	1년	2009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9	비승인	보고	1년	200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10	비승인	보고	1년	1996	운영통계	예술의전당
11	비승인	보고	1년	200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12	비승인	가공	1년	1976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3	비승인	가공	1년	2007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5) 「문화예술체육관광통계 현황자료집 2011」, 문화체육관광부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 (2011)

1) 2011년 기본과제

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비고
문화 예술 정책	양혜원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류정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성화 방안	
	김효정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	
	조광호	민간투자사업 BTL 시설 활용현황 조사 연구	
	박영정	북한문화예술현황 분석 연구	
	박소현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김연진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원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방안 연구	
	김홍규	공공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제 세부 운영방안 연구	
	김규원	국악진흥 발전 방안 연구 -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양건열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방안 연구	
	허은영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층사례 연구	공모과제
	추계예대 산학협력단 (박은실)	국립발레학교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	
	양건열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육사 화랑대연구소 (나종남)	미래 한반도 분쟁에 대비한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시설(자료) 보호 정책연구	기본중기
	한국과학기술원(김이경)	예술 기록관리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조경작업소울 (김연금)	경의선 철도공원의 문화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장원호)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박소현	2012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김혜인	지역연계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전병태	예술의 자생력 강화방안-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원태	공예문화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외국 사례 조사 연구	
	윤소영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박영정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 동화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공모과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국내 뮤지컬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정광렬	미래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조현성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 2011년 특별과제

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비고
문화 예술 정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레저경영연구원(최석호)	문화향수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통합 및 개선방안	

3) 2011년 수탁과제

분야	연구책임	과제명	비고
문화 예술 정책	조현성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평가연구	
	정광렬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 연구	
	박조원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수행	
	류정아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문화행사 기본계획 연구	
	박조원	문화 바우처 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보조사업
	윤소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	
	김연진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	
	박소현, 김연진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 기본계획 연구	
	박영정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양혜원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허은영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 연구	
	류정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양혜원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박소현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	
	김혜인	해외박물관 한국실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	

7. 문화예술관련 학회 목록 (2011)

학회명	내용	주소
(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청운관 702호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내	http://www.kosacm.org/ 02-961-9211
(사) 한국문화경제학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1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최병서 교수 연구실	http://www.kace.kr/ 033-730-0310
(사) 한국예술경영학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동 603호	http://www.kartsnet.org/
(사)한국예술교육학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체육대학 225호	http://www.artsedu.co.kr/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http://cafe.naver.com/kacae

●●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집필진

• 기획 및 집필 총괄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과장)

이은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김지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 편집 총괄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실 연구위원)

• 집필

각 과 업무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김성모, 이효진, 최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실)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발행일 | 2012년 9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인쇄처 | 크리홍보(주)

©2012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정책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정보마당 -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